
2021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결과보고서

2021. 11.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통계 이용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사업체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10월까지 실시한 『2021년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분석결과를 수록한 보고서임
- 2021년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의 조사대상 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 44개 업종을 22개 산업 중분류로 통합하여 재그룹함
- 2021년 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해당 지역 내의 상시종사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조사에 응답한 1,2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집단으로 추정한 결과이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인력의 수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며, 비율 등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함
- 각 자료별 출처 및 분석 기간이 상이하므로 해석 시 반드시 출처를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함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론	5
가. 2015-2021년 동일 연구의 조사범위 변화	5
나. 2021년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	7
다. 주요 용어 설명	9

제2장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제1절 산업구조 분석	13
가. 충남지역 산업 현황	13
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8
제2절 노동시장 분석	22
가. 충남지역 경제활동 인구 현황	22
나. 충남지역 산업기술 인력현황	28

제3장 훈련수급 정량분석 결과

제1절 교육훈련 수요조사 추정 결과	33
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개요	33
나. 충남지역 사업체 일반현황	39
다. 인력 및 퇴직 현황	52
라. 구인구직 현황	58
마. 향후 채용예정 인원	71
바. 양성훈련 수요추정 결과	87
사. 향상훈련 수요추정 결과	92
제2절 교육훈련 공급분석 결과	100
가. 공급분석 개요	100
나. 충남지역 인력공급현황 분석	102
다. HRD-Net 교육훈련 공급현황 분석	106

제3절 교육훈련 수급분석	150
가. 양성훈련 수급분석	150
나. 향상훈련 수급분석	157

제4장 훈련수급 정성분석 결과

제1절. 정성조사 개요	167
가. 조사 목적	167
나. 조사 설계	167
제2절. 정성조사 결과	169
가. 자동차부품산업	169
나. 반도체산업	172
다. 디스플레이산업	175
라. 철강산업	178
마. 석유화학산업	181
바. 석탄에너지산업	183
사.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	185
아. 건설/운송서비스산업	188

제5장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95
가.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결과	195
나. 훈련수급 정량조사분석 결과	196
다. 훈련수급 정성조사 분석 결과	203
제2절.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시급성)	205
제3절. 훈련공급조정 선호분야 분석	207
가. 훈련공급 선호분야 분석 방식	207
나. 훈련수급 조정 결과	209
다.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	216
제4절.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	221

부록1 조사개요

제1절. 표본설계	225
가. 모집단	225
나. 업종 구분	225
다. 표본설계의 원칙	226
라. 각 지역 단위에 대한 표본크기 결정	226
마. 지역 내 업종 및 규모별 표본배분	227
바. 표본추출	227
제2절. 추정	229
가. 가중치 산출	229
나. 각 분류별 각종 총수 추정	230
다. 훈련수요 추정방식	232

부록2 수요조사 결과

제1절. 교육훈련 실시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237
가.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237
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	239
다.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	241
라. 교육훈련 경험	248
마. 경영 애로사항	266
제2절. 일학습병행 관련	292
가. 일학습병행 인지도	292
나.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296
다.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및 분야	298

부록3 2021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 조사표_303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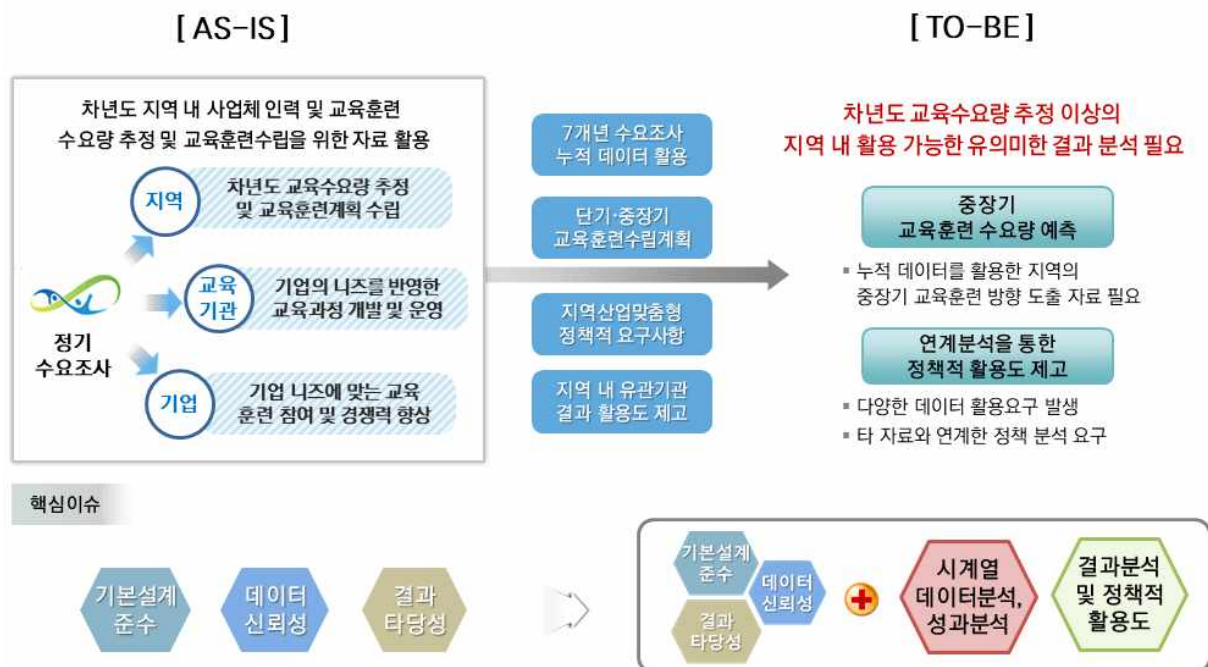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에 따른 취업자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최근 지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지역 노동시장의 수준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로 인해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정책 및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역별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 현장의 인력 및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주도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지방고용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지자체, 사업주단체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하여 지역단위의 인력양성 체계 및 계획수립, 교육훈련 수급조절 등 지역인력양성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충남지역 또한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매년 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급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결, 취업지원 등 지역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제2절 연구목적

- 2021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업 및 노동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
-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수요와 공급현황 간 미스매칭 현황을 파악함
- 따라서 교육훈련 수급조사의 결과가 공동훈련센터 교육과정 개발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지역 내 노동시장의 노동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충남지역 내 산업 및 노동시장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뿐 아니라, 교육훈련에 대한 훈련 참여율을 높여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내 인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또한, 2021년 수급조사 분석에서는 최근 3개년 간의 수급조사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전망함
 - 충남지역 내 다양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타 자료와 연계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 활용기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그림 1]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연구배경 및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론

가. 2015-2021년 동일 연구의 조사범위 변화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최근 7년간 유사한 내용으로 수행되었으나, 조사대상 업종, 사업체 규모 등 일부 변경되어 진행됨
 - 모집단은 매년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포함되는 조사대상 업종에 따라 매년 상이함
- 2015~2016년 고졸 취업예정자 선호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대졸 취업예정자 대상, 2018년에는 고등학생, 2019년에는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각 대상별 취업선호도 조사(고등학생, 대학졸업예정자,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및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조사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2021년에는 각 대상별 취업선호도 조사(고등학생, 대학졸업예정자,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대상 조사를 수행함

[표 1] 최근 7년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 범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조사 대상	10-299인 사업체	10-299인 사업체 (단, 정보통신은 5-9인 사업체 포함)	10-299인 사업체	10-299인 사업체	10-299인 사업체	10-299인 사업체	10-299인 사업체
대상 업종	21개	19개	19개	22개	22개	22개	22개
모집단	7,244개사	5,745개사	5,900개사	7,566개사	7,148개사	7,476개사	7,202개사
표본	1,208개사	993개사	1,317개사	1,284개사	1,228개사	1,238개사	1,205개사
과업 범위	충남지역 사업체 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 공급현황분석(hrd-net) 교육우선순위 도출 고졸 취업예정자 취업선호도 조사		좌동 대졸 취업선호도 조사	좌동 고등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	좌동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조사	좌동 고등학생, 대학졸업예정자,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취업선호도 조사 300인 이상 사업체 조사	좌동 고등학생, 대학졸업예정자, 공동훈련센터 훈련생 취업선호도 조사

- 연도별 조사대상 업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2] 최근 7년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 조사대상 업종의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 음식료제조업	○	○	○	○	○	○	○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	○	○	○	○	○	○
16. 목재펠프 제조업	○	○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	○	○	○	○	○	○
20. 화학의약플라스틱 제조업	○	○	○	○	○	○	○
23. 비금속 제조업	○	○	○	○	○	○	○
24. 1차금속제조업	○	○	○	○	○	○	○
25. 금속가공 제조업	○	○	○	○	○	○	○
26. 전기전자 제조업	○	○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32. 가구 제조업	○	○	○	○	○	○	○
34. 기타 제조업	X	X	X	○	○	○	○
41. 건설업	○	X	X	○	○	○	○
49. 운송서비스	○	X	X	○	○	○	○
58. 문화서비스	○	○	○	○	○	○	○
61. 정보통신서비스	○	○	○	○	○	○	○
71. 전문서비스	○	○	○	○	○	○	○
74. 사업서비스	○	○	○	○	○	○	○
86. 보건복지서비스	○	○	○	○	○	○	○
90. 예술여가스포츠	○	○	○	○	○	○	○
95. 수리업	○	○	○	○	○	○	○

나. 2021년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의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분석, 교육훈련 수급 정량분석 및 정성 조사 결과로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각 부문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충남지역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함
- 제2장은 충남지역 경제·산업·노동시장 현황 및 동향분석으로, 충남지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지역 내 경제에 대한 추이를 도출 및 충남지역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함.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산업과 교육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함
- 제3장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분석은 「2021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업종¹⁾ 및 직종²⁾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차년도 양성 및 향상훈련 수요량을 추정함
 - 훈련 수요조사 추정 결과는 2021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모집단 추정한 결과로 지역 내 업종, 직종별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차년도 교육훈련 수요량을 추정함
- 또한, 제3장에서는 충남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인력공급현황 분석으로, 교육기관(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공급현황과 충남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공급된 교육훈련의 공급인원을 분석함
 - 훈련 공급분석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RD-Net 자료 및 자체적으로 수집한 HRD-Net-API 자료, 충남지역 내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현황 자료(교육통계)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훈련수요 및 공급분석 결과에 대해 수급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교육훈련 성과 및 수급 관련 전망을 제시함
- 제4장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정성분석 결과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한 좌담회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정량분석 결과에서 도출되지 못한 신규 교육훈련에 대한 니즈를 도출함
- 제5장 충남지역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은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요약하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 전체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선호 분야 도출을 통해 교육훈련 공급방향을 제시함

1) 업종은 2021년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시 활용한 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22개 업종임

2) 직종은 2019년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분류체계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함

[표 3] 연구범위 및 분석 방법

구 분	조사 방법		주 자료원
제2장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데스크리서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등 시장자료 - 고용통계 DB 등 - 충남지역, 충남연구원 등 정책자료 등
제3장 훈련수급 정량분석 결과	수요조사	개별면접조사 개별심층인터뷰	- 수요조사 응답 데이터
	공급분석	데스크리서치 및 2차 통계자료 분석	- '18-'20년 HRD-Net 훈련공급자료(한국고용정보원) - 하이파이브, 대학알리미 졸업생 및 취업자 정보 - 교육통계서비스
	수급분석	수요 및 공급분석 결과	- 수요조사 응답 데이터 - '18-'20년 HRD-Net 훈련공급자료(한국고용정보원)
제4장 훈련수급 정성분석 결과	좌담회(FGI) 및 개별심층인터뷰(IDI)		- 좌담회 및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
충남지역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	데스크리서치 (지역 내외부 정책자료 등)		- 충남지역 정책자료 및 충남연구원 발간자료 등

다. 주요 용어 설명

-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표 4] 주요 용어 설명

구 분	내 용
공동훈련센터	지역인자위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선정한 기관
산업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상시수요조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훈련센터, 기업관계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Round Table을 정례화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인사 혹은 현업(기술)기술부서장 등을 직접 대면하여 FGI방식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인력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는 것
상용근로자(조사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때 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을 모두 포함하고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도 포함됨
양성훈련	채용예정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정기수요조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필요한 인력 및 훈련 수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를 위해 지역별로 구성
직능수준	주어진 업무 또는 임무 기능의 복잡성, 직무수행능력의 높낮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직업분류체계로 직능 유형(skill type)을 중심으로 대, 중, 소, 세분류 순으로 표준직업분류를 재구성함 본 조사에 활용 중인 한국고용직업분류는 2018년 개정된 직업분류를 활용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훈련수요	정량조사 결과 산출된 훈련수요 실제인원에 대하여 산업별, 직종별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수요
CAPI (Compute Aid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

제2장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제1절. 산업구조 분석

제2절. 노동시장 분석

제1절 | 산업구조 분석

가. 충남지역 산업 현황

1) 산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 충남지역은 경제 개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됨
- 충남지역은 수도권과 근접하여 수도권 규제의 상대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충남지역의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이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1) 지역 내 총생산(GRDP)

- 충남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19년 기준 약 112조 원으로 전국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전국 대비 비중은 6.1%~6.2%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충남지역의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2.8% 대비 2.6%로 다소 낮게 나타남

[표 5] 전국 및 충남지역 지역 내 총생산(2015-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1,660,844,316	1,709,742,565	1,762,932,983	1,814,075,680	1,854,370,144	2.8
충청남도	101,299,131	104,503,363	110,165,655	110,873,163	112,310,782	2.6
전국 대비 비중	6.1	6.1	6.2	6.1	6.1	-

※ 출처 : 통계청(지역소득통계), 지역내총생산 2015년 기준년가격(연쇄)

- 충남지역의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51.9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3백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울산이 65.1백만 원으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으며 충남지역은 2순위를 차지함

-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 3.4% 대비 충남지역은 1.9%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다소 정체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표 6] 지역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2015-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32.6	34.0	35.8	36.9	37.3	3.4
서울특별시	37.2	39.4	41.4	43.7	45.1	4.9
부산광역시	24.0	24.8	25.7	26.5	27.6	3.6
대구광역시	21.0	21.6	22.3	23.2	23.9	3.3
인천광역시	27.8	29.1	30.3	30.2	30.6	2.4
광주광역시	23.1	24.5	25.2	26.7	27.8	4.7
대전광역시	24.1	25.6	26.5	27.2	28.6	4.3
울산광역시	62.6	64.0	65.4	63.8	65.1	1.0
세종특별자치시	49.5	42.6	40.0	36.6	35.8	-7.8
경기도	30.7	32.3	35.3	36.8	36.1	4.1
강원도	26.9	28.3	29.9	30.9	32.2	4.5
충청북도	34.7	37.3	40.6	43.0	42.7	5.3
충청남도	48.2	50.3	53.7	53.0	51.9	1.9
전라북도	25.6	26.1	27.0	27.8	28.8	3.0
전라남도	38.3	39.8	41.1	42.1	43.4	3.1
경상북도	38.5	40.0	41.1	40.7	40.1	1.0
경상남도	32.0	32.8	32.8	33.0	34.0	1.6
제주특별자치도	28.3	30.3	31.5	30.7	30.8	2.2

※ 출처 : 통계청(지역소득통계)

1인당지역내총생산(백만원/명)=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인구

(2) 지역 내 총부가가치

- 충남지역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충남의 경우 전국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 2019년 기준 전국 평균은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이지만 충남지역은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7] 경제활동 분야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

구분	전국		충남	
	2015	2019	2015	2019
농업, 임업 및 어업	2.2	2.0	4.9	4.1
광업	0.2	0.1	0.2	0.1
제조업	29.0	28.7	50.5	5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1	2.1	5.3	5.2
건설업	5.3	5.2	6.8	4.9
도매 및 소매업	8.2	8.1	3.1	3.1
운수 및 창고업	3.7	3.6	2.3	2.3
숙박 및 음식점업	2.4	2.4	1.6	1.6
정보통신업	4.7	5.0	0.8	0.8
금융 및 보험업	5.8	6.0	2.4	2.4
부동산업	8.0	7.9	3.9	3.7
사업서비스업	9.5	9.4	4.1	4.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3	6.4	5.5	5.5
교육 서비스업	5.4	5.2	4.2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	5.0	2.6	3.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2.8	1.9	1.7

※ 출처 : 통계청(지역소득통계)

- 충남지역의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부가가치액은 102.1조 수준으로 5개년 간 약 2.8%의 성장률을 보임
- 총부가가치액의 53% 수준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이 4.1%로 전체 산업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총부가가치액의 5개년 기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 사업서비스업(4.8%), 제조업(4.1%) 등임
-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 성장률이 음(-)의 값을 나타낸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으로 파악됨
 - 농업, 임업 및 어업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9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광업은 2016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표 8] 충남지역 총부가가치(2015-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총 부가가치(기초가격)	91,435,524	94,264,372	99,630,422	100,452,872	102,076,888	2.8
농업, 임업 및 어업	4,495,906	4,062,777	4,057,495	4,017,635	4,227,809	-1.5
광업	143,830	165,371	127,575	109,330	100,121	-8.7
제조업	46,169,789	48,190,717	52,636,346	53,764,781	54,143,399	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832,875	4,656,937	5,396,813	5,091,934	5,280,521	2.2
건설업	6,179,099	6,260,429	6,171,211	5,334,840	4,951,911	-5.4
도매 및 소매업	2,869,441	2,939,108	3,067,913	3,123,213	3,159,668	2.4
운수 및 창고업	2,101,347	2,236,772	2,365,865	2,343,627	2,328,361	2.6
숙박 및 음식점업	1,491,856	1,588,211	1,597,320	1,640,814	1,670,379	2.9
정보통신업	757,367	803,327	792,227	812,724	860,906	3.3
금융 및 보험업	2,159,572	2,175,777	2,263,583	2,382,103	2,452,957	3.2
부동산업	3,608,566	3,696,121	3,733,073	3,754,324	3,795,404	1.3
사업서비스업	3,712,017	4,178,502	3,795,723	3,889,215	4,471,222	4.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44,695	5,203,480	5,323,087	5,452,899	5,624,125	2.8
교육 서비스업	3,800,911	3,812,697	3,913,915	4,056,833	4,138,091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47,327	2,547,253	2,663,100	2,860,795	3,100,973	7.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720,926	1,746,893	1,711,790	1,738,252	1,733,53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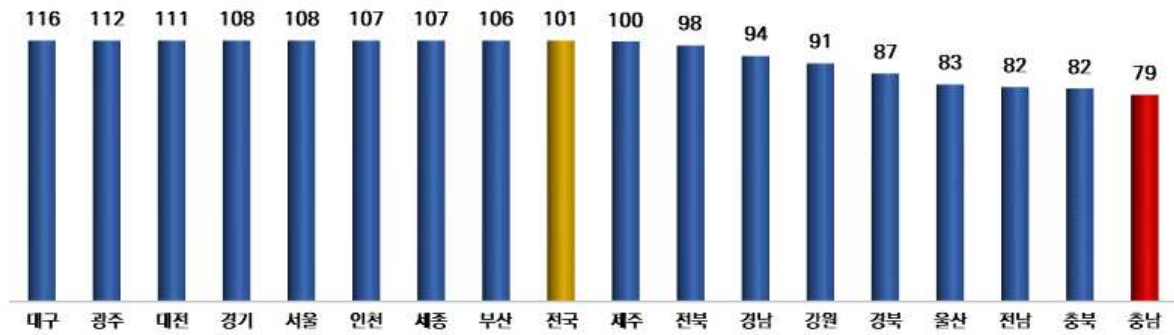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지역소득통계)

2) 지역 내 소득 현황

- 충남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의 비중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9%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충남의 지역경제가 LCD,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총소득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생산액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의미이므로, 충남지역 내 근로자 중 상당수가 수도권 및 대전, 세종 등 광역경제권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충남지역의 2019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은 41.1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37.6백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충남지역 내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1인당 총생산이 가장 높았던 울산이 1인당 총소득도 54.2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2018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내 총소득 비중

(단위 : %)



[표 9] 지역별 1인당 지역 내 총소득(2015-2019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32.7	34.2	36.0	37.0	37.6	3.6
서울특별시	41.9	44.1	46.7	48.4	48.7	3.9
부산광역시	25.8	26.9	27.6	28.3	29.3	3.2
대구광역시	24.7	25.6	26.6	27.0	27.7	2.9
인천광역시	28.0	29.7	31.0	31.4	32.9	4.1
광주광역시	25.7	27.4	28.8	29.8	31.2	5.0
대전광역시	27.1	28.1	30.1	30.5	31.6	3.9
울산광역시	49.4	52.2	52.2	52.7	54.2	2.4
세종특별자치시	44.5	41.0	40.9	37.2	38.2	-3.7
경기도	33.0	34.6	37.6	39.2	38.9	4.2
강원도	24.8	25.3	27.2	28.5	29.4	4.4
충청북도	28.8	30.5	32.0	33.7	34.9	4.9
충청남도	35.5	37.6	39.3	39.9	41.1	3.8
전라북도	24.2	24.7	25.7	26.8	28.3	4.0
전라남도	32.7	33.8	34.5	35.2	35.7	2.2
경상북도	32.4	33.7	33.8	34.5	35.0	2.0
경상남도	29.5	30.4	31.0	31.0	32.0	2.1
제주특별자치도	27.3	29.3	30.9	31.2	30.7	3.0

※ 출처 : 통계청(지역소득통계)

1인당지역내총소득(백만 원/명)=지역내총소득(당해년가격)÷추계인구

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 2019년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2019년 기준 충남지역의 사업체 수는 총 176,643개로 전국 4,176,549개 사업체의 약 4.23%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충남지역의 종사자 수는 총 973,944명으로 전국 22,723,272명의 약 4.29%를 차지함
- 충남지역의 사업체 개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9년 기준)

(단위 :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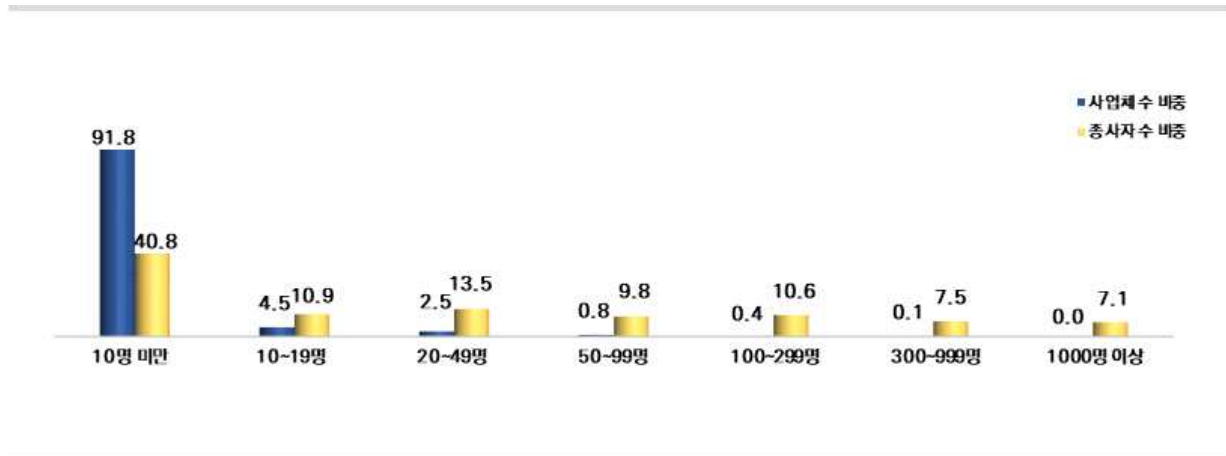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체	4,176,549	176,643	22,723,272	973,944
농업,임업 및 어업	4,522	512	43,920	4,662
광업	1,776	95	14,887	763
제조업	440,766	19,050	4,123,817	299,4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119	176	67,526	6,61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423	619	114,085	6,878
건설업	146,293	7,218	1,504,466	57,902
도매 및 소매업	1,028,323	43,064	3,289,652	114,902
운수업	409,288	14,975	1,155,965	39,701
숙박 및 음식점업	785,706	37,500	2,384,828	102,4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303	892	606,964	6,647
금융 및 보험업	43,555	1,658	715,399	19,2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8,481	5,411	537,841	14,19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8,129	3,492	1,132,049	22,58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3,282	3,250	1,192,036	35,4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570	762	768,733	35,093
교육 서비스업	193,790	7,065	1,672,443	70,4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659	6,525	2,033,034	83,7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4,621	5,243	458,555	15,9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6,943	19,136	907,072	37,431

※ 출처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19)

- 충남지역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10명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1.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업이 영세한 상황임
-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 전체 종사자의 40.8%가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사업체의 0.1%인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14.6%가 고용되어 있음

[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



(2)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변화

-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국 대비 제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유사하나 종사자 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충남지역 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전국 평균인 18.1%의 두 배 수준인 30.7%로 나타남

[표 1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농업,임업 및 어업	0.1	0.1	0.2	0.3	0.2	0.2	0.4	0.5
광업	0.1	0.0	0.1	0.1	0.1	0.1	0.1	0.1
제조업	10.0	10.6	9.5	10.8	19.4	18.1	30.7	30.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0	0.1	0.1	0.1	0.3	0.3	0.6	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0.2	0.2	0.4	0.5	0.5	0.6	0.7
건설업	3.0	3.5	3.2	4.1	5.4	6.6	4.6	5.9
도매 및 소매업	26.1	24.6	26.3	24.4	15.6	14.5	12.9	11.8
운수업	10.4	9.8	8.3	8.5	5.8	5.1	4.3	4.1
숙박 및 음식점업	19.1	18.8	22.2	21.2	10.4	10.5	10.6	1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7	1.1	0.4	0.5	2.6	2.7	1.0	0.7
금융 및 보험업	1.2	1.0	1.2	0.9	4.1	3.1	3.1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	4.0	2.8	3.1	2.4	2.4	1.7	1.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2.8	1.4	2.0	4.4	5.0	1.8	2.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1.8	1.2	1.8	4.4	5.2	2.2	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4	0.3	0.6	0.4	3.9	3.4	4.7	3.6
교육 서비스업	4.9	4.6	4.5	4.0	8.1	7.4	8.8	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	3.6	3.0	3.7	5.8	8.9	5.8	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	3.0	2.8	3.0	1.9	2.0	1.6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10.0	12.0	10.8	4.7	4.0	4.6	3.8

※ 출처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19)

-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대비 모두 높으며, 특히 종사자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4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총생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대비 높았음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으로 파악됨
 - 사업체 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0년 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종사자 수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년 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표 12] 10년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율

(단위 :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체	26.8	34.3	35.1	46.4
농업,임업 및 어업	93.6	117.9	45.2	82.3
광업	-2.3	-20.8	-10.2	-23.5
제조업	34.1	53.1	26.4	46.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42.7	162.7	30.5	66.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5.8	92.2	37.7	67.0
건설업	50.2	71.0	66.6	87.6
도매 및 소매업	19.8	24.6	25.6	34.3
운수업	19.0	37.7	18.4	38.9
숙박 및 음식점업	25.0	28.3	35.9	4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6.4	66.4	40.2	4.9
금융 및 보험업	13.4	7.2	3.4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7.7	47.4	30.7	28.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4	87.6	54.6	89.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8.5	101.2	59.9	14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	-6.6	16.9	12.4
교육 서비스업	19.2	18.6	22.6	2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8	63.2	107.2	11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2	41.3	42.7	4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2	21.3	15.8	22.8

※ 출처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19)

제2절 | 노동시장 분석

가. 충남지역 경제활동 인구 현황

1) 전체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

-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212.1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1% 비중을 차지함
 - 충남지역의 인구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가 65.9만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의 약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31.6만명(14.9%), 서산시 17.6만명(8.3%) 등의 순임
 - 충남지역의 전체 인구 중 약 60% 이상이 충남 서북부(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순이동인구의 변화를 보면, 2020년 기준 충남 전체 유입인구는 741명으로 유입인력이 유출인구 대비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지난 3년간 순이동인구를 보면, 2018년, 2020년에는 유출인력에 비해 유입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유출인력이 유입인력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3년간 전체적인 순이동인구의 절대적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으로 유입하는 인력만 유출인력 대비 많아서 양(+)의 값을 나타냈고 그 외의 시군 지역에서는 모두 유출인력이 유입인력 대비 높아 음(-)의 순이동인구 변화를 나타냄
 - 충남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천안시의 경우 2019년에 2018년 대비 순이동인구가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다시 순이동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산시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이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표 13] 충남지역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순이동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순이동인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충청남도	2,126,282	2,123,709	2,121,029	10,084	-794	741
천안시	646,075	652,258	658,808	12,012	3,978	4,697
공주시	107,581	106,474	104,545	-366	-563	-1,274
보령시	101,990	101,114	100,229	-695	-421	-321
아산시	312,822	314,395	316,129	236	822	1,210
서산시	174,162	174,690	175,591	2,224	400	936
논산시	120,230	118,842	116,675	-1,373	-795	-1,386
계룡시	43,731	42,971	42,822	-327	-792	-155
당진시	167,770	167,042	166,249	49	-863	-649
금산군	53,222	52,257	51,413	-283	-524	-363
부여군	68,078	66,740	65,354	-364	-643	-673
서천군	53,922	52,805	51,866	-710	-583	-388
청양군	32,296	31,717	30,948	-185	-230	-385
홍성군	101,082	100,423	100,102	-230	-279	17
예산군	80,083	79,238	78,084	402	-239	-448
태안군	63,238	62,743	62,214	-306	-62	-77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0), 통계청(국내이동통계, 2020)

- 충남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기준 1,218천 명 수준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4.6%로 전국 평균인 62.5%를 상회하는 수준임
 - 충남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231천 명에서 약 1.1% 감소함
- 충남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이후 2017년 0.3%p 상승, 2018년 0.1%p 하락, 2019년 0.2%p 상승, 2020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전국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됨
 - 50,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이유는 충남지역 내 1차 산업(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고연령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14]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계	62.9	63.2	63.1	63.3	62.5	63.0
	20 - 29세	64.5	63.9	64.0	63.9	61.2	63.5
	30 - 39세	77.1	77.8	78.3	78.6	78.0	78.0
	40 - 49세	81.0	81.1	81.0	80.2	79.1	80.5
	50 - 59세	76.1	77.0	77.1	77.4	76.6	76.8
	60세 이상	40.5	41.1	41.4	43.0	44.0	42.0
충남	계	63.7	64.1	65.6	65.6	64.6	64.7
	20 - 29세	65.2	62.0	64.7	65.2	60.9	63.6
	30 - 39세	76.9	80.8	78.8	76.9	77.1	78.1
	40 - 49세	81.7	82.3	83.3	84.1	83.4	83.0
	50 - 59세	80.8	79.2	80.0	80.7	79.3	80.0
	60세 이상	43.8	46.2	49.4	49.2	50.2	47.8
충남 - 전국 (Gap)	계	0.8	0.9	2.5	2.3	2.1	1.7
	20 - 29세	0.7	-1.9	0.7	1.3	-0.3	0.1
	30 - 39세	-0.2	3.0	0.5	-1.7	-0.9	0.1
	40 - 49세	0.7	1.2	2.3	3.9	4.3	2.5
	50 - 59세	4.7	2.2	2.9	3.3	2.7	3.2
	60세 이상	3.3	5.1	8.0	6.2	6.2	5.8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2) 고용현황

(1) 주요 고용지표

- 2020년 기준 충남 고용률은 62.4%로 전국 평균 고용률(60.1%)을 상회하는 수준임
- 충남지역은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고용률이 0.7%p 하락하였고 실업률이 0.6%p 증가함
- 2020년 충남 실업률은 3.5%로 전국대비 하회하는 수준임
- 2020년 기준 취업자 수는 1,176천명으로 전국 취업자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42천명으로 전국 실업자의 약 3.8%를 차지함

[표 15] 주요 고용지표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국	2016년	43,606	27,418	26,409	1,009	16,187	62.9	3.7	60.6
	2017년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3.7	60.8
	2018년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3.8	60.7
	2019년	44,504	28,186	27,123	1,063	16,318	63.3	3.8	60.9
	2020년	44,785	28,012	26,904	1,108	16,773	62.5	4.0	60.1
충남	2016년	1,987	1,266	1,226	40	721	63.7	3.2	61.7
	2017년	1,831	1,174	1,140	33	657	64.1	2.8	62.3
	2018년	1,855	1,216	1,179	38	639	65.6	3.1	63.5
	2019년	1,878	1,231	1,196	35	647	65.6	2.9	63.7
	2020년	1,885	1,218	1,176	42	667	64.6	3.5	62.4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 충남지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감소 후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충남지역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율에 비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3.2%p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하락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의 경색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16] 충남 1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	계	62.9	63.2	63.1	63.3	62.5	-0.8
	15 - 29세	46.3	46.7	47.1	47.8	46.4	-1.4
충남	계	63.7	64.1	65.6	65.6	64.6	-1.0
	15 - 29세	46.7	44.8	48.0	49.1	45.9	-3.2
충남 - 전국 (Gap)	계	0.8	0.9	2.5	2.3	2.1	-
	15 - 29세	0.4	-1.9	0.9	1.3	-0.5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 충남지역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또한 2017년 감소 후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 다시 감소하였음
- 충남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3.1%p 하락하여 전체 고용률의 전년 대비 하락율보다 높음

[표 17] 충남 15-29세 고용률

(단위 :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율
전국	계	60.6	60.8	60.7	60.9	60.1	-0.8
	15 - 29세	41.7	42.1	42.7	43.5	42.2	-1.3
충남	계	61.7	62.3	63.5	63.7	62.4	-1.3
	15 - 29세	42.5	40.4	43.7	45.1	42.0	-3.1
충남 - 전국 (Gap)	계	1.1	1.5	2.8	2.8	2.3	-
	15 - 29세	0.8	-1.7	1.0	1.6	-0.2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2) 구인구직현황

- 충남지역 구인·구직 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 구직인원은 148,695명으로 기업의 구인 인원인 105,007명보다 높은 수준임
- 연도별 구인·구직인원 추이를 보면, 구인·구직인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감소 후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구인배수는 0.71로 전국 0.45 대비 높은 수준이나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구인배수가 1 미만으로 구인인원에 비해 구직인원이 많은 상황은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대비 구인배수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 대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의미하나 2020년 전년대비 구인인원의 증감율이 구직인원 증감율 대비 더 높게 나타나, 구인·구직에 대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8] 충남 구인·구직 동향

(단위 : 명, 건, %)

구분	전국				충남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	구인배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	구인배수
2015년	2,620,695	4,405,024	1,937,107	0.59	121,422	148,627	77,368	0.82
2016년	2,794,405	4,513,114	2,060,660	0.62	135,616	150,912	79,849	0.90
2017년	2,852,664	4,803,017	2,152,661	0.59	143,031	168,742	92,916	0.85
2018년	2,436,823	4,009,506	1,832,804	0.61	120,020	145,944	70,358	0.82
2019년	2,128,728	4,058,258	1,909,642	0.52	101,178	142,159	60,739	0.71
2020년	2,045,112	4,551,020	1,556,597	0.45	105,007	148,695	56,302	0.71

※ 출처 : 고용노동부(워크넷, 구인구직통계)
구인배수 = 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인원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미충원인원은 2,576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 부족률은 1.7% 수준임
 - 충남지역은 2017년을 기점으로 고용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채용계획인원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표 19] 충남지역 및 미충원인력 및 부족인원, 부족률

(단위 : 명, 건, %)

구분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 인원	부족률
전국	2016년	11,132,595	703,211	613,573	89,638	283,401	2.5
	2017년	11,706,956	720,850	636,172	84,678	279,539	2.3
	2018년	11,909,596	747,623	664,179	83,444	268,757	2.2
	2019년	12,018,829	672,671	598,269	74,402	241,402	2.0
	2020년	12,320,546	621,350	556,807	64,543	238,002	1.9
충남	2016년	473,651	24,370	21,368	3,002	10,577	2.2
	2017년	486,160	29,188	24,920	4,268	11,384	2.3
	2018년	502,103	31,412	27,731	3,681	10,678	2.1
	2019년	508,259	26,084	23,167	2,917	8,589	1.7
	2020년	524,476	22,511	19,935	2,576	9,194	1.7

※ 출처 :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하반기 기준)
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부족인원) X 100

나. 충남지역 산업기술 인력현황

- 2019년 기준 충남지역 산업기술인력³⁾은 총 122,91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충남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어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등의 인력이 산업기술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업 관련 산업기술인력이 21,2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업(17,532명), 디스플레이 제조업(17,523명), 화학 제조업(12,4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60% 이상이 고졸 이하 인력으로 나타난 반면, 석·박사 인력은 5,510명으로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4.5%에 불과함
 - 제조업의 경우, 고졸인력이 가장 많았으나 소프트웨어 분야, IT 비즈니스, 연구개발업, 통신업 등은 전체 종사자 수는 적으나 대부분 전문 학사 이상 인력으로 구성됨
- 충남지역 산업기술인력의 입사 3년차 연봉은 평균 4,07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업의 평균 연봉이 5,16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음료 제조업 관련 분야의 입사 3년차 평균 연봉이 4,64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 충남지역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고용형태

(단위 : 명, 만원)

구분	산업기술 인력 현원	학력 수준				입사 3년차 연봉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박사	
전체	122,911	74,757	20,446	22,199	5,510	4,073
기계	8,641	5,490	1,453	1,484	215	4,182
디스플레이	17,523	11,857	2,231	2,880	556	3,885
반도체	17,532	9,257	3,588	3,277	1,410	4,368
바이오·헬스	2,572	1,452	402	566	151	4,353
섬유	1,105	782	215	109	0	3,675
자동차	21,235	16,143	2,615	2,155	323	4,204
전자	11,897	7,025	2,097	2,238	536	3,948
조선	42	35	0	7	0	3,928
철강	6,448	4,199	1,316	874	60	3,911
화학	12,469	8,597	1,521	2,109	241	3,827
소프트웨어	341	30	120	172	18	3,745
IT 비즈니스	55	8	16	31	0	4,306
식품품 제조업	576	157	158	253	8	3,879
음료 제조업	200	70	47	80	3	4,64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97	276	67	143	10	4,229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187	738	242	195	13	4,268

3)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함

구분	산업기술 인력 현원	학력 수준				입사 3년차 연봉
		고졸	전문 학사	학사	석·박사	
전체	122,911	74,757	20,446	22,199	5,510	4,07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2	376	14	43	0	3,83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87	1,685	851	328	122	3,79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370	2,900	1,099	1,876	495	3,608
가구 제조업	520	353	69	98	0	3,171
기타 제품 제조업	1,658	1,284	187	188	0	4,467
연구개발업	1,525	148	453	284	641	5,164
전문서비스업	181	19	13	110	39	4,7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990	972	777	1,720	522	4,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1	0	6	165	0	3,638
통신업	408	113	253	42	0	4,24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4	57	28	141	28	3,897
임대업; 부동산제외	140	70	42	28	0	2,73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121	334	340	416	32	3,902
사업지원 서비스업	345	186	102	56	0	4,378
교육서비스업	117	84	0	33	0	3,125
보건업	372	60	125	98	88	4,74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9)

- 2019년 기준 산업기술인력의 부족률을 보면, 1.5%로 전국 평균 2.2%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인원 수로는 1,840명으로 나타남
-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인원은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1,400명 수준으로 횡보하였으나, 2019년에는 1,840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21] 충남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인원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산업기술인력 현원	1,594,398	1,617,053	1,634,346	1,661,446	1,672,937
	부족인원	36,933	36,271	36,908	37,484	37,924
	부족률	2.3	2.2	2.2	2.2	2.2
충남	산업기술인력 현원	98,565	102,519	104,328	99,751	122,911
	부족인원	1,430	1,374	1,407	1,471	1,840
	부족률	1.4	1.3	1.3	1.5	1.5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2019)

제3장

훈련수급 정량분석 결과

제1절. 교육훈련 수요조사 추정결과

제2절. 교육훈련 공급분석 결과

제3절. 교육훈련 수급분석

제1절 | 교육훈련 수요조사 추정 결과

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역 내 공급되는 교육훈련을 조사하여 과대 및 과소 공급되는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공급물량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 2021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는 충남지역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유형 및 규모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2021년 훈련수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 본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표 22] 2021년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 2021년 2월 기준 충남지역 소재 사업체 종사자 10-299인
조사 대상	- 사업체 인사부서장 및 현업(기술)부서장
조사 지역	- 충청남도
목표 표본	- 1,200표본
최종 분석 완료 표본 수	- 총 1,205표본 (인사부서장 1,205명, 현업부서장 2,040명)
조사 방법	- CAPI를 활용한 사업체 방문면접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 2021년 6월 ~ 8월

3)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인사부서장 및 현업(기술)부서장을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인력현황 및 2021년, 2022년 향후 채용계획, 교육훈련 수요 등에 대해 파악함
- 본 조사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성한 표준조사표를 기반으로 충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문항을 반영하여 조사를 시행함

[표 23] 2021년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경영형태, 산단 입주 여부 등 - 전체 종사자 수 현황(전체, 내국인, 외국인) - 근로자 유형별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인력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내 부서구성 - 인력 현황 및 채용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원 및 퇴직상황 · 구인인원 및 실제채용인원, 연봉수준, 미충원인원의 미충원 사유 · 채용자 중 역량부족 인원 및 부족 역량 - 2021년, 2022년 채용예정인원(상/하반기, 연봉수준) · 대상별 21년, 22년 채용예정인원 및 미채용 사유 -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교육훈련 실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인원 및 2022년 참여 예상 인원 - 교육훈련 추진 시 나타나는 어려움 - 담당 부서의 교육훈련 주 수행 지역 및 해당 지역 참여 이유 - 향후 희망하는 교육훈련 수행 지역 및 해당 지역 희망 이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재직자 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애로사항 - 신규인력 채용 시 어려움 정도 및 이유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참여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애로사항 관련 필요 정부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예상 - 일학습병행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 의사 및 인원, 훈련야 - 귀사 인근 직무 관련 교육기관 여부
재직자 교육 훈련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교육훈련 필요분야 · NCS세분류 및 능력단위, 직업기초능력 등 - 외부 위탁교육의 재직자 근로능력 향상 도움 정도 - 현업·기술부서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재직자 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

5) 표본설계

(1) 모집단

- 모집단은 2021년 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해당 지역 내의 상시종사자 1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대상 산업 중분류로 재그룹화하여 코드화 하였음

[표 24] 조사대상 업종 구분

중분류	산업 중분류 명	대상 산업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10	식료품 제조업	10	음식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목재펠프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24	1차 금속 제조업	2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29 기타기계와 통합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전자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	25 금속가공과 통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32	가구 제조업	32	
34	기타 제조업	34	
41	종합 건설업	41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운송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8	출판업	58	문화서비스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정보통신서비스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서비스업(751은 제외)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6	보건업	86	보건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5	수리업	95	

(2) 표본설계 원칙

- 조사표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설계하여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 제공하였음
- 본 조사는 지역별, 대상 산업 중분류별로 공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정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각 지역별로 대상 산업 중분류가 층화변수이며, 각 지역 내의 산업중분류 층 내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총 4개 규모를 고려하여 층을 구성하였음
- 사업체 규모 구분은 사업체 내 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으로 층화하였음

(3) 표본추출

- 조사에 활용한 대상 산업분류 및 조사자 규모별 층에서 표본추출은 각 층에서 사업체의 소재지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음
- 표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접 표본추출한 명부를 제공하였으며, 본 표본과 예비표본으로 구성되며 예비표본은 원표본의 2배수 추출하여 표본 대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4) 표본오차

- 본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오차를 허용함
- 모집단 7,202개사 기업 중 표본기업 1,205개 기업의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는 $\pm 2.35\%p$ (신뢰수준 95%)임

[표 25] 2021년 모집단 및 완료 표본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모집단					완료표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계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계
전 체	4,967	987	776	472	7,202	573	230	206	196	1,205
10. 음식료 제조업	327	91	62	35	515	30	14	16	12	7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84	16	10	2	112	22	9	6	1	38
16. 목재펄프 제조업	89	13	15	4	121	22	7	7	4	4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	4	4	7	27	7	3	4	4	18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70	105	81	51	607	43	23	21	21	10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3	17	20	13	233	21	6	7	7	41
24. 1차 금속 제조업	30	14	22	19	85	8	5	6	10	2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74	155	109	77	1,115	60	25	28	24	137
26. 전기전자 제조업	288	67	71	69	495	39	18	20	29	10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2	80	89	75	536	26	12	13	25	7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2	4	-	11	1	2	3	-	6
32. 가구 제조업	11	2	-	-	13	7	1	-	-	8
34. 기타 제조업	20	4	4	2	30	11	2	2	1	16
41. 건설업	486	29	13	6	534	48	13	6	5	72
49. 운송서비스업	133	34	18	22	207	16	8	6	10	40
58. 문화서비스업	36	2	-	3	41	18	1	-	3	22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4	3	2	-	19	10	3	2	-	15
71. 전문서비스업	279	50	27	21	377	44	20	10	8	82
74. 사업서비스업	319	30	26	17	392	40	13	12	10	7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067	244	188	45	1,544	65	31	28	19	14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59	17	10	4	90	16	9	8	3	36
95. 수리업	89	8	1	-	98	19	5	1	-	25

6) 실사 수행 방법

-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체 조사경험을 보유한 전문 조사원을 선발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후 조사에 투입함
- 본 조사는 인사부서장과 현업·기술부서장 조사의 2단계 조사로 시행하였으며, 컨택원의 사업체 사전컨택을 통해 사전방문 일정이 협의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방문 시 CAPI를 통해 설문을 진행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PAPI로 진행 후 CAPI 입력을 진행함
-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조사 방문 시 조사원 1인당 1회 이상 동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사 태도, 조사에 대한 이해 등을 정량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재교육 및 조사원 교체를 실시
 - 동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한 기업의 50%에 대해 조사된 기업 자료에 대해 유선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누락 문항 및 불성실 응답에 대해서는 재방문 또는 전화조사를 통해 보완함

[그림 5] 수요조사 수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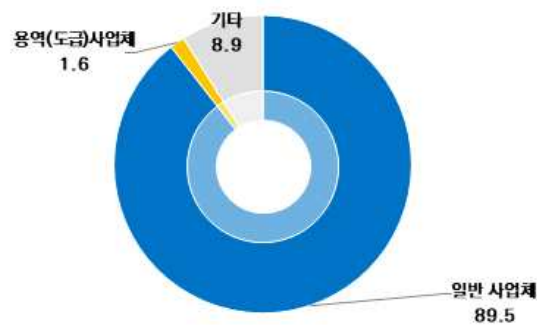
나. 충남지역 사업체 일반현황

1) 경영형태

- 충남지역 사업체의 경영형태를 보면, 일반사업체가 8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8.9%), 용역(도급)사업체(1.6%)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규모, 산업별 구분에 상관없이 일반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 경영형태

(단위 : %)



[표 26] 지역별·규모별 경영형태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일반사업체	용역(도급)사업체	기타
전 체		7,202	89.5	1.6	8.9
지역별	천안	2,021	94.6	0.8	4.5
	공주	466	88.1	1.7	10.2
	보령	225	79.8	2.8	17.4
	아산	1,420	89.0	2.2	8.7
	서산	539	86.0	3.2	10.8
	논산	333	86.4	2.4	11.2
	계룡	32	92.5	0.0	7.5
	당진	728	86.2	2.6	11.2
	금산	296	96.3	0.0	3.7
	부여	198	86.0	0.0	14.0
	서천	156	63.6	5.1	31.2
	청양	49	100.0	0.0	0.0
	홍성	272	83.5	0.0	16.5
	예산	350	95.1	0.6	4.2
	태안	117	87.6	0.0	12.4
규모별	10-29인	4,967	90.6	1.5	7.8
	30-49인	987	85.4	1.6	13.0
	50-99인	776	86.3	2.2	11.5
	100-299인	472	90.5	1.8	7.7

[표 27] 산업별 경영형태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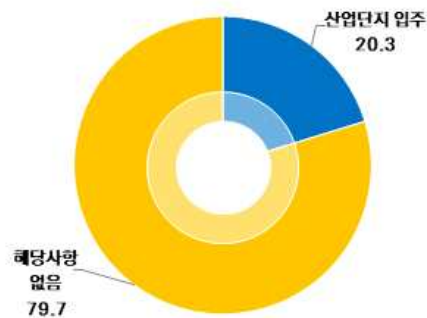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일반사업체	용역(도급) 사업체	기타
전 체		7,202	89.5	1.6	8.9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91.5	2.1	6.3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96.6	0.0	3.4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100.0	0.0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0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100.0	0.0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10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97.8	2.2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8.6	1.4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00.0	0.0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93.5	5.9	0.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00.0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100.0	0.0	0.0
	34. 기타 제조업	30	93.3	6.7	0.0
	41. 건설업	534	99.6	0.4	0.0
	49. 운송서비스업	207	100.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41	92.7	4.9	2.4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94.7	5.3	0.0
	71. 전문서비스업	377	87.2	1.7	11.1
	74. 사업서비스업	392	71.6	10.7	17.7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69.7	0.0	30.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74.3	0.0	25.7
	95. 수리업	98	100.0	0.0	0.0

2) 산업단지 입주 여부

- 충남지역 사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율은 20.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예산, 규모별로는 100-299인,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산업단지 입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산업단지 입주 여부

(단위 : %)



[표 28] 지역별·규모별 산업단지 입주 여부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산업단지 입주	해당사항 없음
전 체		7,202	20.3	79.7
지역별	천안	2,021	16.1	83.9
	공주	466	12.7	87.3
	보령	225	16.3	83.7
	아산	1,420	23.5	76.5
	서산	539	29.7	70.3
	논산	333	10.8	89.2
	계룡	32	23.3	76.7
	당진	728	31.6	68.4
	금산	296	27.8	72.2
	부여	198	0.0	100.0
	서천	156	10.4	89.6
	청양	49	4.9	95.1
	홍성	272	11.5	88.5
	예산	350	39.1	60.9
	태안	117	0.0	100.0
규모별	10-29인	4,967	15.8	84.2
	30-49인	987	25.8	74.2
	50-99인	776	29.9	70.1
	100-299인	472	39.8	60.2

[표 29] 산업별 산업단지 입주 여부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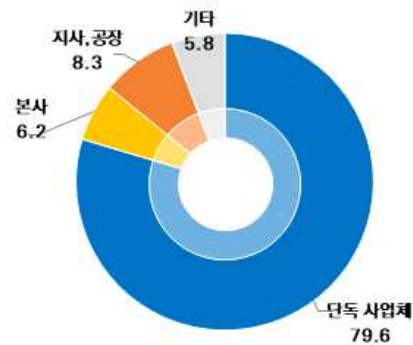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산업단지 입주	해당사항 없음
전 체		7,202	20.3	79.7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21.5	78.5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19.6	80.4
	16. 목재펠프 제조업	121	12.1	87.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0.1	89.9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37.2	62.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18.5	81.5
	24. 1차 금속 제조업	85	46.2	53.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36.9	63.1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46.0	54.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52.4	47.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2.1	87.9
	32. 가구 제조업	13	12.1	87.9
	34. 기타 제조업	30	32.1	67.9
	41. 건설업	534	5.9	94.1
	49. 운송서비스업	207	4.0	96.0
	58. 문화서비스업	41	12.2	87.8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0.0	100.0
	71. 전문서비스업	377	3.1	96.9
	74. 사업서비스업	392	3.2	96.8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0.0	10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0.0	100.0
	95. 수리업	98	0.0	100.0

3) 사업 형태

- 충남지역 사업체의 사업 형태를 보면, 단독사업체가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사, 공장(8.3%), 본사(6.2%), 기타(5.8%)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태안, 규모별로는 10-29인, 산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 서비스업, 수리업에서 단독 사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 사업형태

(단위 : %)



[표 30] 지역별·규모별 사업형태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단독 사업체	본사	지사,공장	기타
전 체		7,202	79.6	6.2	8.3	5.8
지역별	천안	2,021	82.3	5.9	8.0	3.8
	공주	466	79.6	4.2	6.2	10.1
	보령	225	81.8	7.9	2.8	7.5
	아산	1,420	75.5	10.2	10.2	4.1
	서산	539	74.4	3.9	13.4	8.2
	논산	333	84.9	3.7	9.4	2.0
	계룡	32	93.7	6.3	0.0	0.0
	당진	728	72.1	9.0	10.8	8.0
	금산	296	93.2	5.0	1.8	0.0
	부여	198	80.4	3.0	4.3	12.3
	서천	156	62.8	0.9	5.0	31.2
	청양	49	91.2	0.0	4.9	3.8
	홍성	272	84.1	1.9	4.9	9.1
	예산	350	80.7	5.6	11.4	2.2
	태안	117	100.0	0.0	0.0	0.0
규모별	10-29인	4,967	85.2	4.5	5.1	5.2
	30-49인	987	73.4	7.0	13.0	6.7
	50-99인	776	65.5	9.2	16.5	8.9
	100-299인	472	57.0	18.7	19.5	4.8

[표 31] 산업별 사업형태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단독 사업체	본사	지사,공장	기타
전 체		7,202	79.6	6.2	8.3	5.8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78.1	8.1	11.7	2.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83.9	8.1	8.1	0.0
	16. 목재펠프 제조업	121	85.8	0.0	14.2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74.2	13.0	12.8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67.4	10.1	22.5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79.1	1.2	19.7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60.5	0.0	39.5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81.4	11.4	7.2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84.4	5.1	10.5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70.8	9.9	18.7	0.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0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87.9	0.0	12.1	0.0
	34. 기타 제조업	30	61.2	19.4	13.3	6.1
	41. 건설업	534	90.3	9.7	0.0	0.0
	49. 운송서비스업	207	100.0	0.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41	70.7	17.1	12.2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72.6	22.1	5.3	0.0
	71. 전문서비스업	377	79.9	9.9	5.8	4.4
	74. 사업서비스업	392	70.2	4.1	5.8	19.9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81.0	0.0	0.0	19.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75.8	4.1	6.2	13.9
	95. 수리업	98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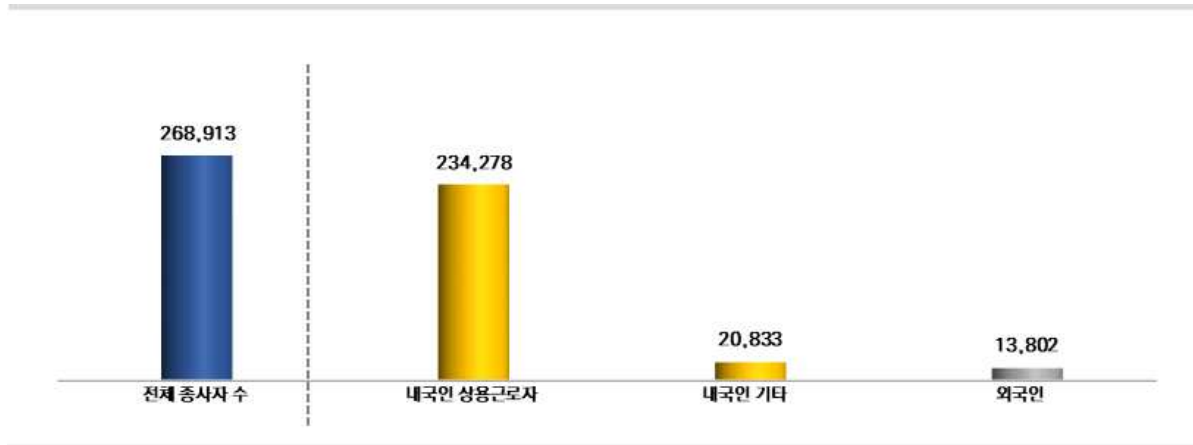
4) 근로자 현황

(1) 전체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전체 종사자 수는 268,913명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234,278명, 내국인 기타는 20,833명, 외국인은 13,802명으로 나타남

[그림 10]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표 32] 지역별·규모별 근로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구분		사례수	전체 종사자 수	내국인		외국인
				상용근로자	기타	
전 체		7,202	268,913	234,278	20,833	13,802
지역별	천안	2,021	76,392	70,295	2,929	3,168
	공주	466	14,581	12,163	1,895	524
	보령	225	8,032	7,022	840	170
	아산	1,420	59,161	50,867	4,980	3,315
	서산	539	20,694	17,144	2,559	991
	논산	333	10,812	9,856	458	498
	계룡	32	607	575	33	0
	당진	728	29,389	24,171	2,510	2,708
	금산	296	7,453	6,782	161	510
	부여	198	5,571	4,793	435	342
	서천	156	6,551	5,318	1,139	93
	청양	49	1,656	1,188	358	110
	홍성	272	11,746	10,110	1,068	568
	예산	350	13,255	11,760	691	803
	태안	117	3,012	2,235	777	0
규모별	10-29인	4,967	101,512	87,114	6,624	7,774
	30-49인	987	38,237	31,184	4,935	2,118
	50-99인	776	52,719	45,805	4,966	1,948
	100-299인	472	76,444	70,175	4,308	1,961

[표 33] 산업별 근로자 현황

(단위 : 개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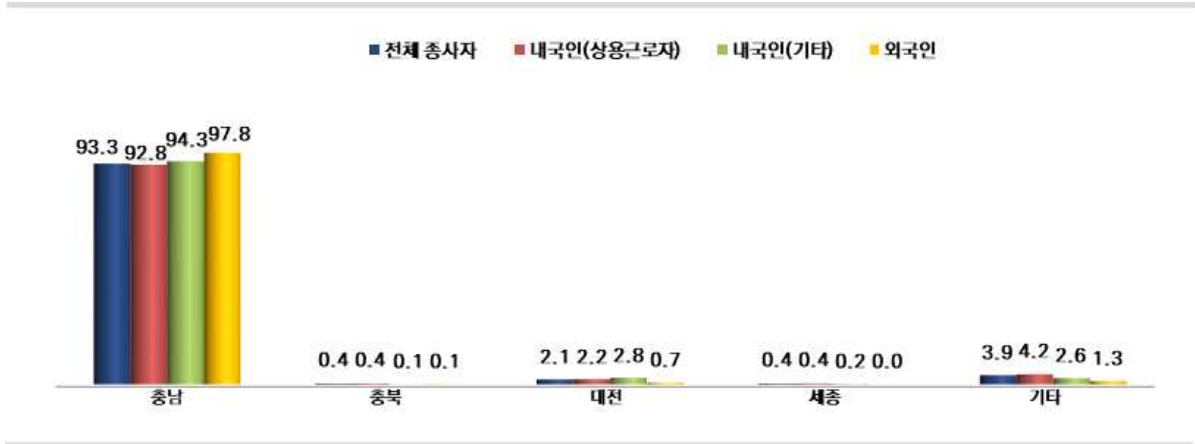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종사자 수	내국인		외국인
				상용근로자	기타	
전 체		7,202	268,913	234,278	20,833	13,802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18,393	16,288	803	1,30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800	2,381	17	402
	16. 목재펠프 제조업	121	3,942	3,345	171	42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728	1,620	6	102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24,565	22,249	519	1,796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6,904	6,359	37	508
	24. 1차 금속 제조업	85	6,447	5,920	43	48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44,328	39,973	743	3,612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26,235	24,663	360	1,21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30,472	26,846	377	3,24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97	370	11	17
	32. 가구 제조업	13	229	167	9	52
	34. 기타 제조업	30	1,079	1,052	26	2
	41. 건설업	534	10,761	9,169	1,474	119
	49. 운송서비스업	207	8,833	8,622	210	0
	58. 문화서비스업	41	1,180	1,138	33	9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479	441	38	0
	71. 전문서비스업	377	10,748	10,207	464	77
	74. 사업서비스업	392	15,838	13,525	2,006	307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48,863	35,514	13,227	122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836	2,596	239	0
	95. 수리업	98	1,856	1,832	19	5

(2)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 종사자 유형별 지역내외 거주자 비율을 보면, 종사자 유형에 상관없이 90% 이상이 충남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



[표 34] 지역별·규모별 전체 종사자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3.3	0.4	2.1	0.4	3.9
지역별	천안	2,021	94.0	0.6	0.5	0.3	4.6
	공주	466	85.3	1.3	7.5	3.2	2.6
	보령	225	91.0	0.9	0.9	0.0	7.1
	아산	1,420	95.2	0.1	0.3	0.2	4.2
	서산	539	97.1	0.2	0.9	0.0	1.8
	논산	333	87.0	0.5	9.3	0.3	2.8
	계룡	32	97.9	0.0	2.1	0.0	0.0
	당진	728	92.1	0.1	0.6	0.1	7.2
	금산	296	86.0	0.1	12.8	0.0	1.1
	부여	198	96.7	0.0	2.4	0.6	0.3
	서천	156	94.3	0.3	2.0	0.0	3.4
	청양	49	98.8	0.0	0.5	0.3	0.4
	홍성	272	96.9	0.0	1.3	0.0	1.7
	예산	350	94.9	0.3	1.0	0.8	3.0
	태안	117	95.2	0.1	1.0	0.0	3.8
규모별	10-29인	4,967	94.5	0.4	1.9	0.3	3.0
	30-49인	987	92.8	0.3	1.7	0.3	5.0
	50-99인	776	89.6	0.3	3.5	1.2	5.4
	100-299인	472	87.0	0.9	2.7	0.7	8.7

[표 35] 산업별 전체 종사자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3.3	0.4	2.1	0.4	3.9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95.0	0.5	2.0	0.8	1.7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92.8	0.1	2.3	1.8	3.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90.3	0.4	6.2	0.0	3.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92.8	3.2	0.1	0.0	4.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89.0	0.5	3.5	0.3	6.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88.4	0.7	4.4	0.8	5.6
	24. 1차 금속 제조업	85	84.2	4.0	2.2	0.0	9.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4.4	0.1	1.0	0.1	4.5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93.5	0.3	1.3	1.0	3.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93.7	0.0	0.6	0.5	5.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94.7	0.0	2.3	0.0	3.0
	32. 가구 제조업	13	96.4	0.0	2.4	0.0	1.2
	34. 기타 제조업	30	93.1	0.0	0.0	1.7	5.3
	41. 건설업	534	89.4	0.3	4.2	0.5	5.7
	49. 운송서비스업	207	97.0	0.2	0.5	0.2	2.0
	58. 문화서비스업	41	91.0	0.0	3.8	3.4	1.8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92.1	0.0	5.3	0.0	2.7
	71. 전문서비스업	377	82.4	1.8	6.6	0.7	8.5
	74. 사업서비스업	392	96.0	0.1	1.8	0.0	2.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97.3	0.2	0.7	0.1	1.6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95.6	0.1	1.7	1.6	1.0
	95. 수리업	98	96.9	0.0	1.8	0.0	1.3

[표 36] 지역별·규모별 내국인(상용)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2.8	0.4	2.2	0.4	4.2
지역별	천안	2,021	94.0	0.6	0.6	0.3	4.6
	공주	466	84.2	1.4	8.3	3.3	2.9
	보령	225	91.1	0.9	1.0	0.1	6.9
	아산	1,420	94.1	0.1	0.4	0.1	5.2
	서산	539	96.8	0.2	0.9	0.0	2.1
	논산	333	88.8	0.5	7.6	0.5	2.5
	계룡	32	97.9	0.0	2.1	0.0	0.0
	당진	728	90.9	0.1	0.5	0.1	8.4
	금산	296	83.6	0.1	15.0	0.0	1.3
	부여	198	96.5	0.0	2.5	0.6	0.3
	서천	156	93.5	0.3	2.4	0.0	3.9
	청양	49	98.2	0.0	0.5	0.5	0.8
	홍성	272	97.3	0.0	1.7	0.0	1.0
	예산	350	95.3	0.3	1.1	0.8	2.5
	태안	117	95.2	0.1	1.0	0.0	3.8
규모별	10-29인	4,967	94.1	0.4	2.0	0.3	3.3
	30-49인	987	92.6	0.3	1.7	0.3	5.2
	50-99인	776	89.1	0.3	3.5	1.1	6.0
	100-299인	472	86.3	0.7	3.0	0.9	9.2

[표 37] 산업별 내국인(상용)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2.8	0.4	2.2	0.4	4.2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94.8	0.3	2.3	1.0	1.7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89.7	0.0	3.6	2.5	4.2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89.2	0.5	6.3	0.0	4.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92.4	3.2	0.1	0.1	4.3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88.5	0.4	4.0	0.3	6.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87.3	0.7	6.1	0.8	5.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83.0	4.0	2.2	0.0	10.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2.7	0.1	1.1	0.1	5.9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92.9	0.4	1.5	1.0	4.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92.9	0.0	0.7	0.3	6.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92.4	0.0	4.5	0.0	3.0
	32. 가구 제조업	13	96.4	0.0	2.4	0.0	1.2
	34. 기타 제조업	30	93.9	0.0	0.0	1.3	4.8
	41. 건설업	534	90.6	0.3	2.9	0.4	5.8
	49. 운송서비스업	207	96.7	0.2	0.5	0.2	2.3
	58. 문화서비스업	41	89.3	0.0	4.6	3.4	2.7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92.1	0.0	5.3	0.0	2.7
	71. 전문서비스업	377	82.9	1.8	6.7	0.7	7.9
	74. 사업서비스업	392	95.8	0.1	2.0	0.0	2.1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97.4	0.2	0.7	0.1	1.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95.6	0.1	1.7	1.6	1.0
	95. 수리업	98	96.9	0.0	1.8	0.0	1.3

[표 38] 지역별·규모별 내국인(기타)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4.3	0.1	2.8	0.2	2.6
지역별	천안	2,021	96.3	0.0	0.0	0.0	3.7
	공주	466	81.5	0.4	13.9	3.4	0.9
	보령	225	100.0	0.0	0.0	0.0	0.0
	아산	1,420	97.0	0.2	0.8	0.1	2.0
	서산	539	100.0	0.0	0.0	0.0	0.0
	논산	333	37.5	0.0	62.5	0.0	0.0
	계룡	32	100.0	0.0	0.0	0.0	0.0
	당진	728	96.0	0.0	0.0	0.0	4.0
	금산	296	92.4	0.0	5.1	0.0	2.5
	부여	198	100.0	0.0	0.0	0.0	0.0
	서천	156	97.5	0.0	0.0	0.0	2.5
	청양	49	97.7	0.0	1.1	1.1	0.0
	홍성	272	98.4	0.0	1.6	0.0	0.0
	예산	350	84.0	0.0	2.1	0.0	13.9
	태안	117	97.6	0.8	0.8	0.0	0.8
규모별	10-29인	4,967	94.5	0.1	3.0	0.0	2.4
	30-49인	987	96.0	0.0	0.8	0.0	3.2
	50-99인	776	94.0	0.1	4.0	1.1	0.9
	100-299인	472	90.4	0.2	3.1	0.6	5.7

[표 39] 산업별 내국인(기타)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4.3	0.1	2.8	0.2	2.6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97.4	0.0	1.6	0.0	1.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100.0	0.0	0.0	0.0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91.6	2.8	2.8	0.0	2.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00.0	0.0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85.1	0.0	2.8	0.3	11.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100.0	0.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78.5	0.0	0.0	0.0	21.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0.9	0.0	5.4	0.0	3.7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97.4	0.0	0.0	0.0	2.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100.0	0.0	0.0	0.0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00.0	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100.0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30	100.0	0.0	0.0	0.0	0.0
	41. 건설업	534	81.9	0.3	12.0	0.3	5.6
	49. 운송서비스업	207	91.5	0.0	4.3	0.0	4.3
	58. 문화서비스업	41	100.0	0.0	0.0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66.7	0.0	20.8	0.0	12.5
	71. 전문서비스업	377	79.7	0.0	13.2	1.2	5.9
	74. 사업서비스업	392	99.3	0.0	0.3	0.3	0.1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98.8	0.0	0.4	0.3	0.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98.1	0.6	0.6	0.0	0.6
	95. 수리업	98	100.0	0.0	0.0	0.0	0.0

[표 40] 지역별·규모별 외국인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7.8	0.1	0.7	0.0	1.3
지역별	천안	2,021	99.2	0.4	0.0	0.1	0.3
	공주	466	96.1	0.0	2.2	0.4	1.2
	보령	225	93.4	0.0	0.0	0.0	6.6
	아산	1,420	99.1	0.1	0.2	0.0	0.6
	서산	539	99.4	0.0	0.0	0.0	0.6
	논산	333	100.0	0.0	0.0	0.0	0.0
	계룡	32	-	-	-	-	-
	당진	728	98.8	0.0	0.0	0.0	1.2
	금산	296	86.7	0.0	11.2	0.0	2.1
	부여	198	100.0	0.0	0.0	0.0	0.0
	서천	156	95.5	0.0	0.0	0.0	4.5
	청양	49	100.0	0.0	0.0	0.0	0.0
	홍성	272	88.8	0.0	0.0	0.0	11.2
	예산	350	100.0	0.0	0.0	0.0	0.0
	태안	117	-	-	-	-	-
규모별	10-29인	4,967	98.2	0.1	0.3	0.0	1.4
	30-49인	987	98.7	0.0	1.0	0.0	0.3
	50-99인	776	96.2	0.0	2.9	0.3	0.6
	100-299인	472	95.2	1.1	0.0	0.0	3.7

[표 41] 산업별 외국인의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전 체		7,202	97.8	0.1	0.7	0.0	1.3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515	97.5	0.9	1.6	0.0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98.8	1.2	0.0	0.0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96.2	0.6	1.9	0.0	1.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00.0	0.0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97.9	0.0	0.7	0.0	1.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86.0	0.0	0.4	0.0	13.6
	24. 1차 금속 제조업	85	96.4	0.0	3.6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8.0	0.0	1.0	0.1	0.9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99.6	0.0	0.0	0.2	0.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100.0	0.0	0.0	0.0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00.0	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100.0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30	100.0	0.0	0.0	0.0	0.0
	41. 건설업	534	87.7	0.0	0.0	0.0	12.3
	49. 운송서비스업	207	-	-	-	-	-
	58. 문화서비스업	41	100.0	0.0	0.0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	-	-	-	-
	71. 전문서비스업	377	100.0	0.0	0.0	0.0	0.0
	74. 사업서비스업	392	100.0	0.0	0.0	0.0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97.2	0.0	0.0	0.0	2.8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	-	-	-	-
	95. 수리업	98	10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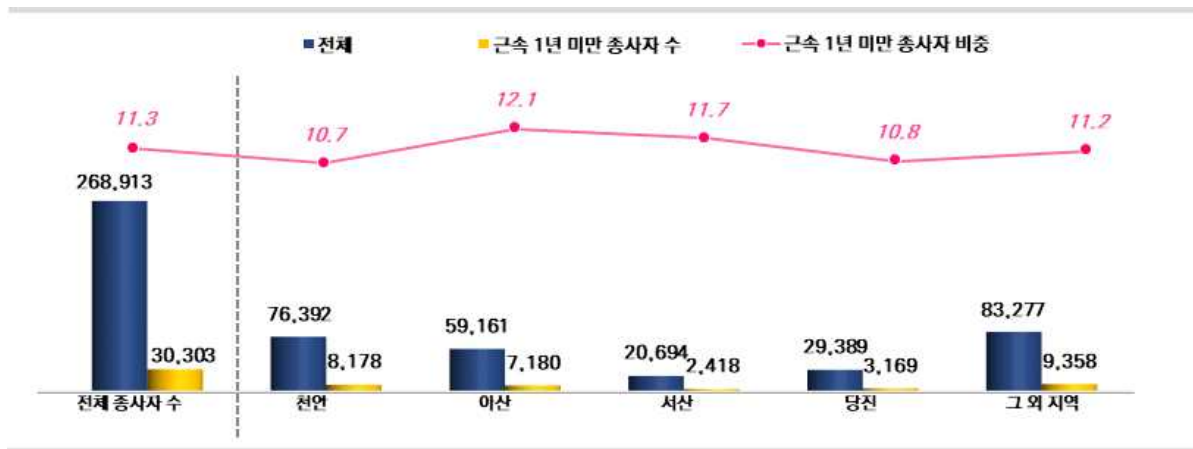
다. 인력 및 퇴직 현황

1) 전체 인력 현황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전체 종사자 수는 268,9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는 30,30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1.3%로 나타남
- 주요 지역별 인력 현황을 보면, 천안이 76,39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8.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59,161명), 당진(29,389명) 등의 순임
- 한편,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수 비중은 보령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2] 전체 인력 현황

(단위 : 명, %)



[표 42] 지역별 인력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수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268,913	30,303	11.3
지역별	천안	76,392	8,178	10.7
	공주	14,581	1,826	12.5
	보령	8,032	1,054	13.1
	아산	59,161	7,180	12.1
	서산	20,694	2,418	11.7
	논산	10,812	1,209	11.2
	계룡	607	69	11.4
	당진	29,389	3,169	10.8
	금산	7,453	922	12.4
	부여	5,571	592	10.6
	서천	6,551	649	9.9
	청양	1,656	194	11.7
	홍성	11,746	870	7.4
	예산	13,255	1,718	13.0
	태안	3,012	255	8.5

- 기업규모별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수는 10-29인이 101,5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99인(76,444명), 50-99인(52,719명), 30-49인(38,237명)의 순으로 나타남
-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50-99인이 11.9%로 가장 많았음

[표 43] 규모별 인력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수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268,913	30,303	11.3
규모별	10-29인	101,512	10,993	10.8
	30-49인	38,237	3,982	10.4
	50-99인	52,719	6,293	11.9
	100-299인	76,444	9,036	11.8

- 산업별 인력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48,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44,328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47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근속 1년 미만 종사자의 비중은 전기전자 제조업이 1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13.7%), 건설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 산업별 인력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수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268,913	30,303	11.3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18,393	1,930	10.5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2,800	199	7.1
	16. 목재·펄프 제조업	3,942	329	8.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28	148	8.5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4,565	2,617	10.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904	568	8.2
	24. 1차 금속 제조업	6,447	413	6.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4,328	4,927	11.1
	26. 전기전자 제조업	26,235	3,688	14.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472	3,234	10.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7	24	6.0
	32. 가구 제조업	229	14	6.1
	34. 기타 제조업	1,079	119	11.1
	41. 건설업	10,761	1,435	13.3
	49. 운송서비스업	8,833	583	6.6
	58. 문화서비스업	1,180	76	6.4
	61. 정보통신서비스업	479	37	7.8
	71. 전문서비스업	10,748	1,392	13.0
	74. 사업서비스업	15,838	1,431	9.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48,863	6,685	13.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2,836	313	11.1
	95. 수리업	1,856	140	7.6

- 직종별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수는 제조 단순직이 53,8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41,291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2,7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직이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23.3%), 건설·채굴직(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5] 직종별 인력현황 - KECO 중분류 기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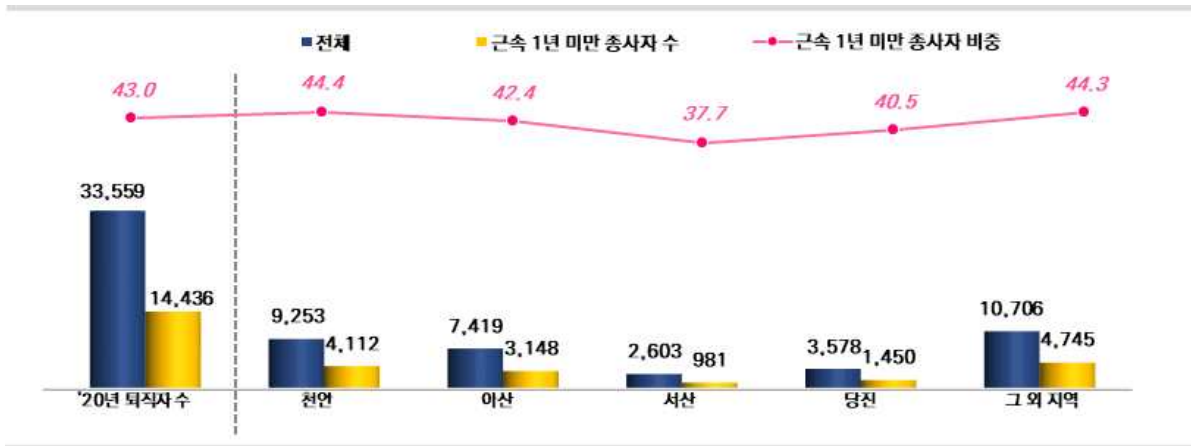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종사자 수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수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268,913	30,303	11.3
01.관리직(임원·부서장)	6,905	101	1.5
02.경영·행정·사무직	41,291	1,054	2.6
03.금융·보험직	57	0	0.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43	138	40.1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45	16	4.7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87	189	10.6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501	334	9.5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579	760	6.6
21.교육직	654	69	10.6
22.법률직	48	0	0.0
23.사회복지·종교직	11,590	1,694	14.6
24.경찰·소방·교도직	92	12	12.5
30.보건·의료직	17,811	1,431	8.0
41.예술·디자인·방송직	709	65	9.2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521	37	7.2
51.미용·예식 서비스직	229	0	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70	47	17.5
53.음식 서비스직	4,079	92	2.2
54.경호·경비직	2,598	222	8.5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5,553	3,620	23.3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134	600	9.8
61.영업·판매직	6,221	468	7.5
62.운전·운송직	12,266	785	6.4
70.건설·채굴직	6,739	1,324	19.7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2,743	2,607	11.5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1,571	1,717	14.8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1,547	1,485	12.9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373	43	11.6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997	1,001	14.3
86.섬유·의복 생산직	932	86	9.2
87.식품 가공·생산직	6,678	876	13.1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643	231	8.7
89.제조 단순직	53,874	9,162	17.0
90.농림어업직	234	35	15.0

2) 퇴직 현황

-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3,559명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는 14,436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3.0%로 나타남
- 주요 지역별 퇴직 현황을 보면, 천안이 9,25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7.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7,419명), 당진(3,578명) 등의 순임

[그림 13] 퇴직 현황

(단위 : 명, %)



[표 46] 지역별 퇴직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20년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33,559	14,436	43.0
지역별	천안	9,253	4,112	44.4
	공주	2,289	1,127	49.2
	보령	1,150	363	31.5
	아산	7,419	3,148	42.4
	서산	2,603	981	37.7
	논산	1,366	656	48.1
	계룡	59	24	41.1
	당진	3,578	1,450	40.5
	금산	1,255	513	40.9
	부여	627	329	52.5
	서천	677	267	39.4
	청양	248	201	80.9
	홍성	936	292	31.1
	예산	1,788	865	48.4
	태안	309	107	34.6

- 기업규모별 퇴직자 수는 10-29인이 12,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99인(8,684명), 50-99인(7,370명), 30-49명(5,165명)의 순으로 나타남
-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10-29인이 45.6%로 가장 많았음

[표 47] 기업규모별 퇴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년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33,559	14,436	43.0
규모별	10-29인	12,339	5,624	45.6
	30-49인	5,165	2,322	45.0
	50-99인	7,370	2,986	40.5
	100-299인	8,684	3,505	40.4

- 세부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이 7,0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362명), 전기전자 제조업(3,7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의 비중은 문화서비스업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50.3%), 화학의약품플라스틱제조업(4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 산업별 퇴직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20년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33,559	14,436	43.0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400	1,110	46.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436	80	18.4
	16. 목재펠프 제조업	427	164	38.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5	99	46.1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973	1,471	49.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30	251	30.3
	24. 1차 금속 제조업	557	256	45.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362	1,558	35.7
	26. 전기전자 제조업	3,711	1,598	43.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66	1,663	45.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	19	48.7
	32. 가구 제조업	23	11	45.7
	34. 기타 제조업	83	30	36.4
	41. 건설업	1,680	801	47.7
	49. 운송서비스업	1,114	374	33.6
	58. 문화서비스업	88	62	70.5
	61. 정보통신서비스업	40	8	21.2
	71. 전문서비스업	1,463	360	24.6
	74. 사업서비스업	1,811	824	45.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7,049	3,544	50.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09	84	20.6
	95. 수리업	184	68	36.9

- 직종별 퇴직자 수는 제조 단순직이 9,6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직(간병·육아)(3,508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8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미용·예식 서비스직이 10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71.4%), 식품 가공·생산직(5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9] 직종별 퇴직현황

(단위 : 명, %)

구분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
전 체	33,559	14,436	43.0
01.관리직(임원·부서장)	121	4	3.1
02.경영·행정·사무직	1,334	288	21.6
03.금융·보험직	0	0	0.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4	0	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2	0	0.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78	9	3.2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73	149	40.0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01	158	19.7
21.교육직	69	33	47.3
22.법률직	6	0	0.0
23.사회복지·종교직	1,526	387	25.3
24.경찰·소방·교도직	12	5	40.0
30.보건·의료직	1,975	632	32.0
41.예술·디자인·방송직	124	45	36.5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71	9	13.1
51.미용·예식 서비스직	33	33	10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5	21	38.6
53.음식 서비스직	96	44	45.3
54.경호·경비직	429	175	40.7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508	2,506	71.4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14	378	46.5
61.영업·판매직	522	240	45.9
62.운전·운송직	1,323	440	33.2
70.건설·채굴직	1,527	620	40.6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891	1,127	39.0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682	766	45.5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622	750	46.3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5	14	26.2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69	531	54.8
86.섬유·의복 생산직	150	36	24.0
87.식품 가공·생산직	1,101	623	56.6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65	111	41.9
89.제조 단순직	9,670	4,298	44.4
90.농림어업직	40	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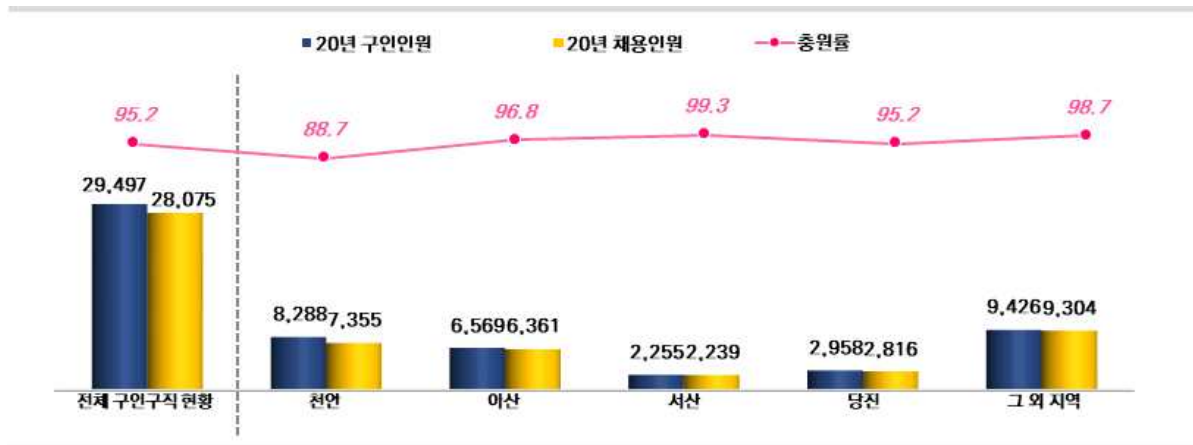
라. 구인구직 현황

1) 구인구직 현황

- 2020년 구인인원은 29,497명, 실제 채용인원은 28,075명으로 충원률은 95.2%로 나타남
- 주요 지역별 구인 및 채용인원을 보면 천안이 각 8,288명, 7,35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충원률은 88.7%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14]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표 50] 지역별 구인구직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20년 구인인원 (A)	'20년 실제 채용인원 (B)	미충원인원 (A-B)	충원률 (B/A)*100
전 체		29,497	28,075	1,422	95.2
지역별	천안	8,288	7,355	933	88.7
	공주	1,876	1,876	0	100.0
	보령	1,104	1,104	0	100.0
	아산	6,569	6,361	209	96.8
	서산	2,255	2,239	16	99.3
	논산	1,275	1,275	0	100.0
	계룡	69	69	0	100.0
	당진	2,958	2,816	142	95.2
	금산	936	936	0	100.0
	부여	567	567	0	100.0
	서천	649	649	0	100.0
	청양	209	209	0	100.0
	홍성	995	873	122	87.7
	예산	1,499	1,499	0	100.0
	태안	246	246	0	100.0

- 기업규모별 2020년 구인구직 현황을 보면, 10-29인의 구인인원이 11,4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채용인원 또한 10-29인이 10,836명으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충원률은 100-299인이 97.2%로 가장 높았고, 구인구직인인원이 가장 많았던 10-29인의 경우, 충원률이 94.3%로 가장 낮았음

[표 51] 기업규모별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년 구인인원 (A)	'20년 실제채용인원 (B)	미충원인원 (A-B)	충원률 (B/A)*100
전 체		29,497	28,075	1,422	95.2
규모별	10-29인	11,494	10,836	658	94.3
	30-49인	4,163	3,934	229	94.5
	50-99인	6,305	5,981	324	94.9
	100-299인	7,535	7,323	211	97.2

- 산업별 구인구직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구인인원이 6,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338명), 전기전자 제조업(3,2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업종별 충원률을 보면, 기타 제조업의 경우 충원률이 100% 이상으로 구인인원 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리업의 경우 충원률이 77.2%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52] 산업별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년 구인인원 (A)	'20년 실제채용인원 (B)	미충원인원 (A-B)	충원률 (B/A)*100
전 체		29,497	28,075	1,422	95.2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168	2,168	0	10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224	208	16	92.7
	16. 목재·펄프 제조업	366	336	30	91.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5	148	17	89.6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494	2,405	89	96.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35	572	63	90.1
	24. 1차 금속 제조업	468	468	0	10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338	3,978	359	91.7
	26. 전기전자 제조업	3,275	3,136	139	95.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75	2,956	219	93.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24	0	100.0
	32. 가구 제조업	14	14	0	100.0
	34. 기타 제조업	121	136	-15	112.0
	41. 건설업	1,453	1,413	40	97.2
	49. 운송서비스업	749	619	130	82.6
	58. 문화서비스업	86	86	0	10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37	36	1	96.3
	71. 전문서비스업	1,379	1,326	52	96.2
	74. 사업서비스업	1,479	1,443	36	97.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6,320	6,145	174	97.2
	90. 예술·여가·스포츠업	322	300	22	93.1
	95. 수리업	206	159	47	77.2

- 직종별 2020년 구인인원은 제조 단순직이 8,4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3,605명),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종별 충원률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90% 이상의 충원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경우, 36.7%로 가장 낮은 충원률을 보였고, 그 외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65.8%), 관리직(임원·부서장)(73.6%)의 경우 타 직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충원률을 보임

[표 53]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년 구인인원 (A)	'20년 실제채용인원 (B)	미충원인원 (A-B)	충원률 (B/A)*100
전 체	29,497	28,075	1,422	95.2
01.관리직(임원·부서장)	118	87	31	73.6
02.경영·행정·사무직	1,069	1,029	41	96.2
03.금융·보험직	0	0	0	0.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35	135	0	10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4	9	15	36.7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8	168	40	80.7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34	323	11	96.9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51	746	5	99.3
21.교육직	53	53	0	100.0
22.법률직	0	0	0	0.0
23.사회복지·종교직	1,252	1,245	7	99.5
24.경찰·소방·교도직	12	12	0	100.0
30.보건·의료직	1,615	1,588	28	98.3
41.예술·디자인·방송직	63	63	0	100.0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54	35	18	65.8
51.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0	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76	64	12	84.4
53.음식 서비스직	92	92	0	100.0
54.경호·경비직	199	199	0	100.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605	3,456	149	95.9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26	618	8	98.7
61.영업·판매직	448	445	2	99.5
62.운전·운송직	978	826	152	84.5
70.건설·채굴직	1,353	1,290	63	95.3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492	2,374	118	95.3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670	1,511	159	90.5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458	1,406	53	96.4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4	43	11	80.2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06	887	19	97.9
86.섬유·의복 생산직	90	86	4	95.7
87.식품 가공·생산직	1,008	1,006	2	99.8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59	242	17	93.4
89.제조 단순직	8,452	8,002	450	94.7
90.농림어업직	44	37	7	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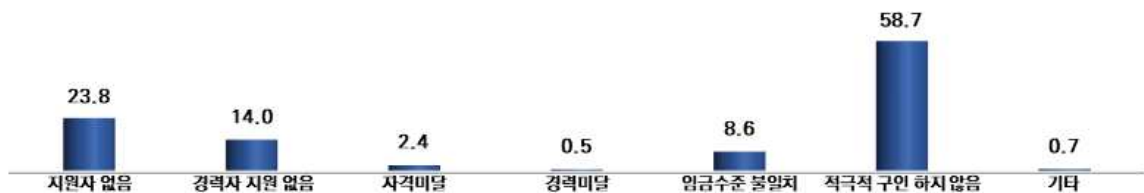
2) 미충원 인원에 대한 구인 포기 사유

- 미충원 인원에 대한 회사의 구인 포기 사유를 보면, 적극적 구인을 하지 않았음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원자 없음(23.8%), 경력자 지원 없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미충원 인원에 대한 구직자의 구인 포기 사유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 불만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금수준 불일치(32.5%), 대중교통 불편(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5] 미충원 인원에 대한 구인 포기 사유

(단위 : %)

> 회사의 구인 포기 사유



> 구직자의 구인 포기 사유



[표 54] 미충원 인원에 대한 회사의 구인 포기 사유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 수	지원자 없음	경력자 지원 없음	자격 미달	경력 미달	임금 수준 불일치	적극적 구인 하지 않음	기타
전 체		342	23.8	14.0	2.4	0.5	8.6	58.7	0.7
산업별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7	75.9	0.0	0.0	0.0	0.0	24.1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5	37.1	0.0	42.9	0.0	0.0	20.0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0.0	0.0	0.0	0.0	0.0	10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17	27.1	0.0	0.0	0.0	0.0	72.9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0.0	32.4	0.0	6.9	32.4	28.2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1	15.4	21.1	0.0	0.0	0.0	63.4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29	0.0	12.4	12.4	0.0	0.0	67.0	8.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0.0	0.0	0.0	0.0	0.0	100.0	0.0
	41. 건설업	17	12.9	0.0	0.0	0.0	0.0	87.1	0.0
	49. 운송서비스업	42	17.6	27.8	0.0	0.0	0.0	59.9	0.0
	71. 전문서비스업	15	0.0	0.0	0.0	0.0	0.0	100.0	0.0
	74. 사업서비스업	19	82.4	0.0	0.0	0.0	0.0	17.6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53	64.8	0.0	4.4	0.0	12.6	61.5	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7	0.0	25.3	0.0	0.0	0.0	74.7	0.0
	95. 수리업	23	0.0	40.0	0.0	0.0	60.0	20.0	0.0
규모별	10-29인	208	17.4	14.9	0.0	0.0	10.9	67.0	0.0
	30-49인	44	32.6	13.9	0.0	0.0	0.0	53.6	0.0
	50-99인	57	32.4	11.4	9.9	0.0	11.7	46.2	0.0
	100-299인	32	38.4	13.7	7.4	5.8	0.0	34.2	7.4

[표 55] 미충원 인원에 대한 구직자의 구인 포기 사유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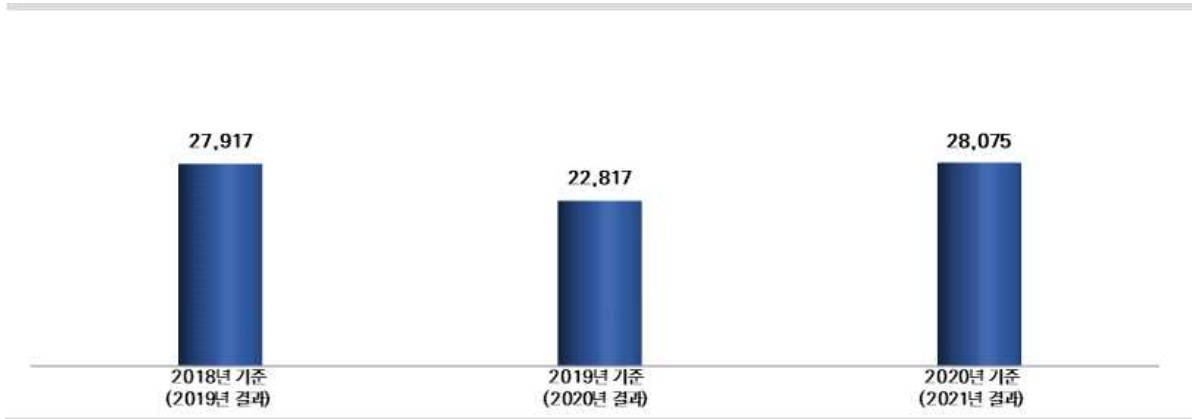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중교통 불편	임금수준 불일치	구직자 기피 직종	회사의 복지·후생 제도 불만족
전 체		34	12.8	32.5	6.5	48.1
산업별	16. 목재·펄프 제조업	2	100.0	0.0	0.0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0.0	100.0	0.0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2	0.0	100.0	0.0	0.0
	41. 건설업	2	0.0	0.0	100.0	0.0
	71. 전문서비스업	3	100.0	0.0	0.0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6	0.0	0.0	0.0	100.0
규모별	10-29인	25	0.0	34.7	0.0	65.3
	30-49인	7	66.1	0.0	33.9	0.0
	100-299인	2	0.0	100.0	0.0	0.0

3) 최근 3개년 채용인원 변화⁴⁾

- 최근 3년간 구인인원의 변화를 보면, 2019년(2020년 결과) 채용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2021년 결과)의 경우, 전년 대비 5,25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최근 3개년 채용인원 변화

(단위 : 명)



- 산업별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의 변화를 보면,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속 감소 추세로 나타남
 - 한편, 전년 대비 채용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증가 : 보건복지서비스업(2,051명) > 전기전자 제조업(1,245명) > 전문서비스업(905명) 등의 순
 - 감소 : 운송서비스업(1,308명) > 섬유·의복·피혁 제조업(223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9명) 등의 순
- 직종 중분류별 최근 3년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3년 연속 증가 :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사회복지·종교직, 예술·디자인·방송직, 영업·판매직
 - 3년 연속 감소 : 관리직(임원·부서장), 교육직,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한편, 전년 대비 채용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증가 : 제조 단순직(3,919명)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1,971명) > 건설·채굴직(785명) 등의 순
 - 감소 : 운전·운송직(1,249명) >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770명) > 경영·행정·사무직(672명) 등의 순

4) 시계열 변화 추이 분석은 본 수요조사의 조사대상 및 조사 기준 시점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인력 및 교육훈련에 대한 추세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며, 해석시 유의해야 함

[표 56] 산업별 최근 3개년 채용인원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결과)	2019년 (2020년 결과)	2020년 (2021년 결과)	GAP ('20-'19)	비고
전 체		27,917	22,817	28,075	5,258	-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1,716	1,478	2,168	690	-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273	431	208	-223	-
	16. 목재·펄프 제조업	395	352	336	-16	3년 연속 감소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1	209	148	-61	-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595	2,263	2,405	142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72	722	572	-150	-
	24. 1차 금속 제조업	390	460	468	8	3년 연속 증가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537	3,210	3,978	768	-
	26. 전기전자 제조업	2,542	1,891	3,136	1,245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18	3,165	2,956	-209	3년 연속 감소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3	56	24	-32	3년 연속 감소
	32. 가구 제조업	27	42	14	-28	-
	34. 기타 제조업	127	97	136	39	-
	41. 건설업	1,523	815	1,413	598	-
	49. 운송서비스업	1,356	1,927	619	-1,308	-
	58. 문화서비스업	98	101	86	-15	-
	61. 정보통신서비스업	33	60	36	-24	-
	71. 전문서비스업	973	421	1,326	905	-
	74. 사업서비스업	1,396	735	1,443	708	-
	86. 보건복지서비스업	5,050	4,094	6,145	2,051	-
	90. 예술·여가·스포츠업	360	132	300	168	-
	95. 수리업	182	156	159	3	-

[표 57] 직종 중분류별 최근 3개년 채용인원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결과)	2019년 (2020년 결과)	2020년 (2021년 결과)	GAP (‘20~’19)	비고
전 체	27,917	22,817	28,075	5,258	-
01.관리직(임원·부서장)	1,800	291	87	-204	3년 연속 감소
02.경영·행정·사무직	1,695	1,701	1,029	-672	-
03.금융·보험직	5	0	0	0	-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	14	135	121	3년 연속 증가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7	0	9	9	-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	17	168	151	-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2	136	323	187	-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51	309	746	437	-
21.교육직	274	127	53	-74	3년 연속 감소
22.법률직	0	0	0	0	-
23.사회복지·종교직	715	1,123	1,245	122	3년 연속 증가
24.경찰·소방·교도직	0	0	12	12	-
30.보건·의료직	1,674	1,167	1,588	421	-
41.예술·디자인·방송직	44	52	63	11	3년 연속 증가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4	23	35	12	-
51.미용·예식 서비스직	2	19	0	-19	-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60	24	64	40	-
53.음식 서비스직	119	19	92	73	-
54.경호·경비직	199	205	199	-6	-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666	1,485	3,456	1,971	-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50	212	618	406	-
61.영업·판매직	304	440	445	5	3년 연속 증가
62.운전·운송직	1,356	2,075	826	-1,249	-
70.건설·채굴직	872	505	1,290	785	-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740	2,249	2,374	125	-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998	2,281	1,511	-770	-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634	1,665	1,406	-259	-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25	74	43	-31	3년 연속 감소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168	1,345	887	-458	-
86.섬유·의복 생산직	51	145	86	-59	-
87.식품 가공·생산직	851	582	1,006	424	-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59	424	242	-182	-
89.제조 단순직	5,792	4,083	8,002	3,919	-
90.농림어업직	33	25	37	12	-

3) 채용자 중 역량부족 인원

- '20년 실제 채용인원 중 역량 부족 인원은 전체 4,109명으로, 채용인원의 14.6% 수준임
- 산업별 역량부족인원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 1,0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의약품플라스틱제품제조업(434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 채용인원 대비 역량부족 인원의 비중은 수리업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서비스업(25.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및 예술여가스포츠업(각 24.3%)로 나타남
 - 한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가구 제조업의 경우, 실제 채용인원의 규모가 타 산업대비 적지만, 채용자 중 역량부족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산업별 역량부족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년 실제 채용인원 (A)	채용자 중 역량부족 인원(B)	역량부족 인원 비중 (B/A)*100
전 체		28,075	4,109	14.6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168	415	19.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208	11	5.3
	16. 목재펄프 제조업	336	17	5.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8	9	6.1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405	434	18.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72	139	24.3
	24. 1차 금속 제조업	468	15	3.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978	381	9.6
	26. 전기전자 제조업	3,136	382	12.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56	431	14.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0	0.0
	32. 가구 제조업	14	0	0.0
	34. 기타 제조업	136	5	3.7
	41. 건설업	1,413	195	13.8
	49. 운송서비스업	619	120	19.4
	58. 문화서비스업	86	22	25.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36	1	2.8
	71. 전문서비스업	1,326	173	13.0
	74. 사업서비스업	1,443	186	12.9
	86. 보건복지서비스업	6,145	1,051	17.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300	73	24.3
	95. 수리업	159	47	29.6

- 직종 중분류 기준 역량 부족 인원을 보면, 제조단순직이 7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473명),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4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실제 채용인원 대비 역량 부족 인원의 비중은 교육직이 6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연·생명과학 연구직(44.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9] 직종별 역량부족 인원

(단위 : 명, %)

구분	'20년 실제 채용인원 (A)	채용자 중 역량부족 인원(B)	역량부족 인원 비중 (B/A)*100
전 체	28,075	4,109	14.6
01.관리직(임원·부서장)	87	20	23.0
02.경영·행정·사무직	1,029	94	9.1
03.금융·보험직	0	0	0.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35	0	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9	4	44.4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8	13	7.7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23	16	5.0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46	0	0.0
21.교육직	53	37	69.8
22.법률직	0	0	0.0
23.사회복지·종교직	1,245	185	14.9
24.경찰·소방·교도직	12	0	0.0
30.보건·의료직	1,588	377	23.7
41.예술·디자인·방송직	63	0	0.0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35	4	11.4
51.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64	14	21.9
53.음식 서비스직	92	28	30.4
54.경호·경비직	199	17	8.5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456	473	13.7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618	67	10.8
61.영업·판매직	445	168	37.8
62.운전·운송직	826	141	17.1
70.건설·채굴직	1,290	187	14.5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374	209	8.8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511	268	17.7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406	453	32.2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3	18	41.9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87	268	30.2
86.섬유·의복 생산직	86	8	9.3
87.식품 가공·생산직	1,006	225	22.4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42	14	5.8
89.제조 단순직	8,002	793	9.9
90.농림어업직	37	9	24.3

4) 역량부족 인원의 부족 역량⁵⁾

- 역량 부족 인원 상위 5개 직종에 대한 부족역량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조 단순직의 경우, 역량부족 인원은 가장 많았으나, NCS 분류에 해당하는 역량에 대한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음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의 경우, 요양지원에 대한 역량부족인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역량의 경력 수준은 경력없음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 전자부품생산에 대한 역량부족인원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역량의 경력 수준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건·의료직의 경우, 임상간호에 대한 역량부족인원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역량의 경력 수준은 1년~3년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 사출성형에 대한 역량부족인원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역량의 경력 수준은 경력없음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0] 역량부족 인원 상위 5개 직종의 부족역량(NCS 세분류)

(단위 : 명, %)

구분		역량부족 인원 ⁶⁾	경력수준				
			경력없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모름/무응답
89.제조 단순직	99999999. 모름/무응답	799	0.0	0.0	0.0	0.0	100.0
55.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06010108. 요양지원	473	70.3	29.7	0.0	0.0	0.0
	07010202. 일상생활기능지원	303	87.7	12.3	0.0	0.0	0.0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4040202. 플랜트전기설비시공	51	0.0	100.0	0.0	0.0	0.0
	14040203. 플랜트기계측설비시공	51	0.0	100.0	0.0	0.0	0.0
	19010502. 전기기기제작	42	0.0	100.0	0.0	0.0	0.0
	19010603. 전기설비운영	13	0.0	100.0	0.0	0.0	0.0
	19010802. 자동제어기기제작	43	0.0	100.0	0.0	0.0	0.0
	190108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24	100.0	0.0	0.0	0.0	0.0
	19011301. 스마트유지보수운영	63	0.0	61.5	38.5	0.0	0.0
	19020102. 전자제품생산	65	0.0	100.0	0.0	0.0	0.0
	19020202. 전자부품생산	127	19.3	80.7	0.0	0.0	0.0
	19020301. 전자제품설치·정비	22	0.0	100.0	0.0	0.0	0.0
	19030702. 디스플레이생산	26	0.0	100.0	0.0	0.0	0.0
	99999999. 모름/무응답	30	0.0	0.0	0.0	0.0	100.0
30.보건·의료직	06010102. 물리치료	33	0.0	0.0	100.0	0.0	0.0
	06010103. 작업치료	33	0.0	0.0	100.0	0.0	0.0
	06010106. 시각관리	16	0.0	0.0	100.0	0.0	0.0

5) 직종 세분류별 역량부족인원의 부족역량은 부록 참고

구분		역량부족 인원 ⁶⁾	경력수준				
			경력없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모름/ 무응답
	06010111. 치과위생	16	0.0	100.0	0.0	0.0	0.0
	06010203. 보건교육	16	0.0	0.0	100.0	0.0	0.0
	06010206. 영양관리	32	0.0	0.0	100.0	0.0	0.0
	06020201. 임상간호	243	0.0	45.7	54.3	0.0	0.0
	06020403. 감염관리	18	0.0	26.1	73.9	0.0	0.0
	06020404. 대체의학	2	0.0	0.0	100.0	0.0	0.0
	17030101. 의약품제조	29	0.0	100.0	0.0	0.0	0.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7030301. 바이오의약품제조	22	0.0	100.0	0.0	0.0	0.0
	17030401.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52	0.0	100.0	0.0	0.0	0.0
	17040101. 압출성형	34	0.0	100.0	0.0	0.0	0.0
	17040105. 사출성형	86	78.0	22.0	0.0	0.0	0.0
	17040201. 고무배합	27	0.0	100.0	0.0	0.0	0.0
	17040202. 고무제품제조	23	0.0	100.0	0.0	0.0	0.0
	99999999. 모름/무응답	53	0.0	0.0	0.0	0.0	100.0

- 역량 부족 인원 상위 4개 직종(제조 단순직 제외)에 대한 NCS 세분류 기준 교육 필요 분야 1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의 경우, 교육 필요 분야 1순위로, 요양지원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상생활기능지원(5.0%)의 순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 전자부품생산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기기기제작(23.4%), 스마트유지보수운영(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직의 경우, 임상간호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리치료, 치과위생 및 보건교육(각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제조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약품 제조(23.7%), 사출성형(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1개 직종에 대해 다수의 부족 역량(NCS)을 응답하기 때문에 NCS별 역량부족 인원은 직종별 역량부족인원의 합보다 클 수 있음

[표 61] 역량부족 인원 상위 5개 직종의 교육필요분야 1순위 (NCS 세분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⁷⁾	비중
55.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06010108. 요양지원	128	95.0
	07010202. 일상생활기능지원	7	5.0
83.전기·전자 설치 ·정비·생산직	19010502. 전기기기제작	32	23.4
	19010603. 전기설비운영	6	4.7
	19010802. 자동제어기기제작	16	11.6
	190108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2	1.7
	19011301. 스마트유지보수운영	16	12.1
	19020102. 전자제품생산	13	9.5
	19020202. 전자부품생산	41	30.4
	19020301. 전자제품설치·정비	7	5.4
	19030702. 디스플레이생산	2	1.2
30.보건·의료직	06010102. 물리치료	16	9.4
	06010106. 시각관리	8	4.6
	06010111. 치과위생	16	9.4
	06010203. 보건교육	16	9.4
	06010206. 영양관리	6	3.6
	06020201. 임상간호	100	57.1
	06020403. 감염관리	9	5.2
	06020404. 대체의학	2	1.4
85.화학·환경 설치 ·정비·생산직	17030101. 의약품제조	11	23.7
	17030301. 바이오의약품제조	11	23.8
	17030401.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7	14.2
	17040101. 압출성형	2	5.3
	17040105. 사출성형	9	18.8
	17040201. 고무배합	6	14.1

7) 사례수는 해당 직종의 부족역량에 대한 교육필요 1순위 NCS 응답 빈도임

마. 향후 채용예정 인원

1) 전체

- 2022년 향후 채용예정인원은 상반기 6,188명, 하반기 1,402명으로 총 7,590명으로 나타남
- 주요 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천안의 전체 채용예정인원이 2,369명으로 전체의 31.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1,789명), 당진(8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용예정인원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채용예정인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향후 채용예정 인원

(단위 : 명)



[표 62] 지역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2년 전체
전 체		6,188	1,402	7,590
지역별	천안	1,910	459	2,369
	공주	345	39	385
	보령	101	37	138
	아산	1,402	387	1,789
	서산	358	80	438
	논산	336	40	376
	계룡	16	0	16
	당진	646	178	823
	금산	190	42	232
	부여	212	39	250
	서천	57	15	72
	청양	70	0	70
	홍성	355	83	438
	예산	168	0	168
	태안	22	3	24

- 기업규모별 향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10-29인이 3,4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99인(2,263명), 50-99인(1,051명), 30-49인(8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 기업규모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2년 전체
전 체		6,188	1,402	7,590
규모별	10-29인	2,707	760	3,467
	30-49인	687	123	810
	50-99인	974	77	1,051
	100-299인	1,820	442	2,263

- 산업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22년 전체 채용예정인력이 2,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 제조업(879명), 보건복지서비스업(8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4] 산업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2년 전체
전 체		6,188	1,402	7,590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637	84	72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32	11	143
	16. 목재·펄프 제조업	100	31	13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6	61	197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84	123	80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3	12	56
	24. 1차 금속 제조업	112	35	14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73	653	2,027
	26. 전기전자 제조업	744	135	87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37	42	47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1	2
	32. 가구 제조업	3	0	3
	34. 기타 제조업	5	0	5
	41. 건설업	239	44	283
	49. 운송서비스업	155	53	208
	58. 문화서비스업	4	0	4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	0	2
	71. 전문서비스업	198	33	231
	74. 사업서비스업	279	9	288
	86. 보건복지서비스업	788	43	832
	90. 예술·여가·스포츠업	63	26	88
	95. 수리업	53	5	57

- 직종 중분류별 향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제조 단순직이 2,9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692명),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6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5] 직종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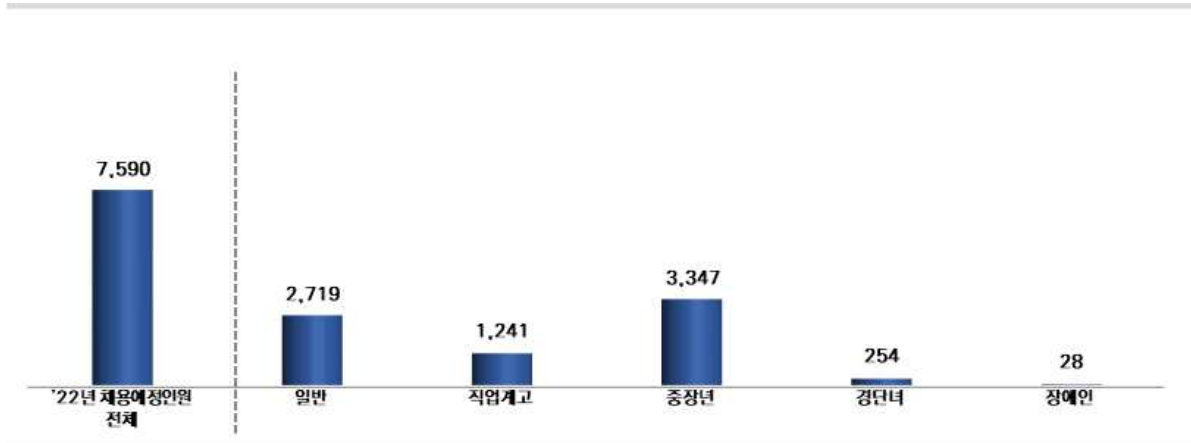
구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22년 전체
전 체	6,188	1,402	7,590
01.관리직(임원·부서장)	26	17	43
02.경영·행정·사무직	239	31	269
03.금융·보험직	0	0	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0	0	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	0	12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3	52	125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5	0	55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73	70	343
21.교육직	0	0	0
22.법률직	0	0	0
23.사회복지·종교직	98	0	98
24.경찰·소방·교도직	0	0	0
30.보건·의료직	115	9	124
41.예술·디자인·방송직	29	4	33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3	9	22
51.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7	4	31
53.음식 서비스직	5	5	9
54.경호·경비직	16	0	16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70	29	600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8	24	162
61.영업·판매직	55	0	55
62.운전·운송직	188	56	243
70.건설·채굴직	220	63	283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72	120	692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44	74	318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58	108	366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	0	8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60	54	314
86.섬유·의복 생산직	20	4	23
87.식품 가공·생산직	266	16	282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4	22	96
89.제조 단순직	2,319	620	2,939
90.농림어업직	16	11	27

2) 대상별 채용예정인원

- 세부 대상별 채용예정인원 현황을 보면, 전체 22년 채용예정인원 중, 중장년이 3,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2,719명), 직업계고(1,2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8] 대상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표 66] 지역별 대상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전체	대상별				
			일반	직업계고	중장년	경단녀	장애인
전 체		7,590	2,719	1,241	3,347	254	28
지역별	천안	2,369	699	545	995	126	5
	공주	385	91	7	254	33	0
	보령	138	55	14	56	5	7
	아산	1,789	620	342	804	23	0
	서산	438	203	46	189	0	0
	논산	376	247	98	31	0	0
	계룡	16	0	0	16	0	0
	당진	823	376	75	345	27	0
	금산	232	79	34	99	19	0
	부여	250	113	39	83	16	0
	서천	72	27	2	41	2	0
	청양	70	49	0	21	0	0
	홍성	438	135	35	253	0	16
	예산	168	23	4	141	0	0
	태안	24	3	0	19	3	0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 30-49인 및 50-99인의 경우 중장년의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은 반면, 100-299인 규모는 일반 인력에 대한 채용예정인원이 가장 많았음

[표 67] 기업규모별 대상별 채용예정인력(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전체	대상별				
			일반	직업계고	중장년	경단녀	장애인
전 체		7,590	2,719	1,241	3,347	254	28
규모별	10-29인	3,467	1,113	689	1,497	152	16
	30-49인	810	171	71	553	8	7
	50-99인	1,051	305	90	625	31	0
	100-299인	2,263	1,130	391	673	63	5

- 산업별, 대상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직업계고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637명) >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162명) > 전기전자 제조업(80명) 등의 순
 - 중장년 : 보건복지서비스업(703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368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52명) 등의 순
 - 경단녀 : 전기전자 제조업(81명) > 보건복지 서비스업(76명) > 화학의약품플라스틱제조업 (24명) 등의 순
 - 장애인 : 사업서비스업(16명) > 목재펄프 제조업(7명) > 보건복지서비스업(5명)의 순

[표 68] 산업별 대상별 채용예정인원(2022년)

(단위 : 명)

구분		'22년 전체	대상별				
			일반	직업계고	중장년	경단녀	장애인
전 체		7,590	2,719	1,241	3,347	254	28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720	329	58	314	19	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43	3	17	119	4	0
	16. 목재·펄프 제조업	131	64	11	47	2	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7	112	17	57	11	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807	341	162	280	24	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6	0	0	56	0	0
	24. 1차 금속 제조업	147	66	0	81	0	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27	1,009	637	368	13	0
	26. 전기전자 제조업	879	395	80	322	81	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79	63	64	352	0	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	0	2	0	0
	32. 가구 제조업	3	0	2	2	0	0
	34. 기타 제조업	5	0	0	5	0	0
	41. 건설업	283	55	63	165	0	0
	49. 운송서비스업	208	30	0	167	11	0
	58. 문화서비스업	4	0	0	0	4	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	0	0	2	0	0
	71. 전문서비스업	231	52	38	134	6	0
	74. 사업서비스업	288	91	20	161	0	1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832	47	0	703	76	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88	50	26	9	3	0
	95. 수리업	57	10	45	2	0	0

- 직종 중분류별, 대상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직업계고 : 제조 단순직(375명)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90명)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37명) 등의 순
 - 중장년 : 제조 단순직(982명)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570명)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12명) 등의 순
 - 경단녀 : 보건·의료직(68명) >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44명) > 경영·행정·사무직(41명) 등의 순
 - 장애인 : 보건·의료직(16명) > 제조 단순직(7명) > 음식 서비스직(5명)의 순

[표 69] 직종별 대상별 채용예정인력(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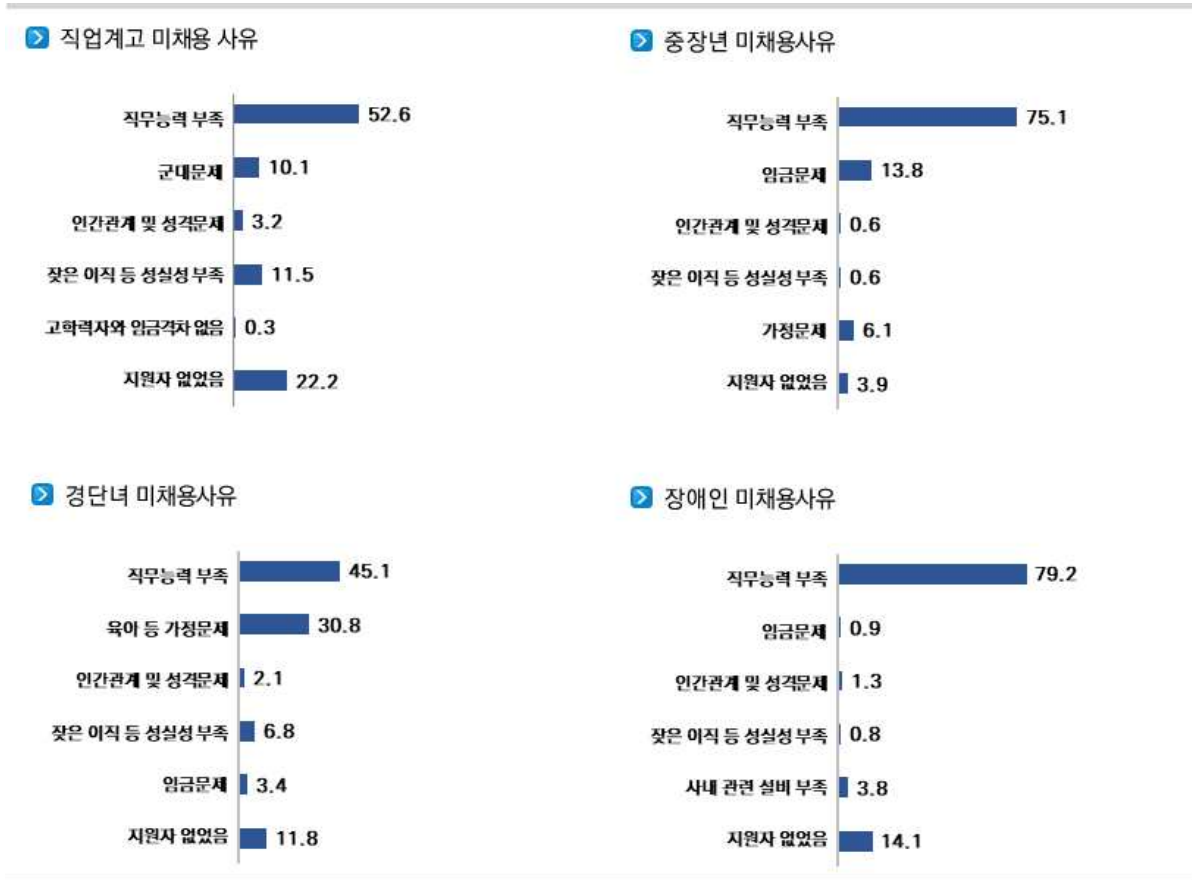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2년 전체	대상별				
		일반	직업계고	중장년	경단녀	장애인
전 체	7,590	2,719	1,241	3,347	254	28
01.관리직(임원·부서장)	43	0	0	43	0	0
02.경영·행정·사무직	269	165	13	50	41	0
03.금융·보험직	0	0	0	0	0	0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0	0	0	0	0	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	0	12	0	0	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5	106	0	19	0	0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5	49	0	7	0	0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43	140	18	141	44	0
21.교육직	0	0	0	0	0	0
22.법률직	0	0	0	0	0	0
23.사회복지·종교직	98	13	0	77	8	0
24.경찰·소방·교도직	0	0	0	0	0	0
30.보건·의료직	124	5	0	35	68	16
41.예술·디자인·방송직	33	13	0	12	8	0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2	4	15	4	0	0
51.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0	0	0	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1	11	19	0	0	0
53.음식 서비스직	9	0	0	5	0	5
54.경호·경비직	16	0	0	16	0	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00	29	0	570	0	0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62	47	22	88	5	0
61.영업·판매직	55	4	12	40	0	0
62.운전·운송직	243	36	9	188	11	0
70.건설·채굴직	283	46	28	209	0	0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692	137	237	312	7	0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18	101	48	169	0	0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66	49	290	27	0	0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	0	6	2	0	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314	129	64	113	8	0
86.섬유·의복 생산직	23	0	0	20	4	0
87.식품 가공·생산직	282	44	60	159	19	0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96	38	13	41	4	0
89.제조 단순직	2,939	1,551	375	982	23	7
90.농림어업직	27	3	2	20	3	0

- 각 대상별 미채용 사유를 보면, 모두 직무능력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계고 : 직무능력 부족(52.6%) > 지원자 없었음(22.2%) > 잦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11.5%) 등의 순
 - 중장년 : 직무능력 부족(75.1%) > 임금문제(13.8%) > 가정문제(6.1%) 등의 순
 - 경단녀 : 직무능력 부족(45.1%) > 육아 등 가정문제(30.8%) > 지원자 없었음(11.8%) 등의 순
 - 장애인 미채용 사유 : 직무능력 부족(79.2%) > 지원자 없었음(14.1%) > 사내 관련 설비 부족(3.8%) 등의 순

[그림 19] 대상별 미채용 사유

(단위 : %)



[표 70] 직업계고 미채용 사유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직무 능력 부족	군대 문제	인간 관계 및 성격 문제	잘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고학력 자와 임금 격차 없음	지원자 없었음
전 체	539	52.6	10.1	3.2	11.5	0.3	22.2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4	11.9	0.0	0.0	0.0	88.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5	69.6	0.0	0.0	0.0	30.4
	16. 목재·펄프 제조업	10	20.6	0.0	0.0	0.0	79.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34.7	0.0	11.8	30.1	11.6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1	35.1	23.4	0.0	41.5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100.0	0.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14	19.9	0.0	0.0	0.0	80.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3	49.1	19.1	6.4	19.1	6.4
	26. 전기전자 제조업	56	63.5	13.2	0.0	6.4	17.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	25.0	0.0	0.0	0.0	75.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0	0.0	0.0	0.0	100.0
	41. 건설업	22	0.0	0.0	0.0	9.9	90.1
	49. 운송서비스업	32	10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18	85.4	0.0	0.0	0.0	14.6
	74. 사업서비스업	39	53.0	0.0	0.0	0.0	47.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43	77.8	0.0	5.6	11.1	5.6
	90. 예술·여가스포츠업	8	53.9	46.1	0.0	0.0	0.0
규모별	10-29인	331	48.8	13.9	3.9	14.8	18.6
	30-49인	53	79.2	0.0	0.0	4.2	16.6
	50-99인	68	54.6	5.6	0.0	6.7	33.1
	100-299인	87	49.4	5.6	4.7	7.4	30.8

[표 71] 중장년 미채용 사유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직무 능력 부족	임금 문제	인간 관계 및 성격 문제	잘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가정 문제	지원자 없었음
전 체	558	75.1	13.8	0.6	0.6	6.1	3.9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6	0.0	50.0	0.0	0.0	5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9	81.1	0.0	0.0	0.0	18.9
	16. 목재·펄프 제조업	7	0.0	14.6	0.0	0.0	31.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100.0	0.0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3	72.0	28.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3	100.0	0.0	0.0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1	89.7	8.4	0.9	0.9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56	19.1	8.5	0.0	0.0	52.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50.0	50.0	0.0	0.0	0.0
	41. 건설업	2	10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19	100.0	0.0	0.0	0.0	0.0
	74. 사업서비스업	22	52.5	36.8	0.0	0.0	10.7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4	65.7	17.1	0.0	0.0	17.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1	32.9	67.1	0.0	0.0	0.0
	95. 수리업	19	50.0	50.0	0.0	0.0	0.0
규모별	10-29인	417	83.9	7.3	0.0	0.0	7.1
	30-49인	37	26.3	52.3	0.0	0.0	21.4
	50-99인	31	69.8	12.0	0.0	0.0	6.9
	100-299인	73	51.8	32.2	4.4	4.4	3.2

[표 72] 경단녀 미채용 사유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직무 능력 부족	육아 등 가정 문제	인간 관계 및 성격 문제	작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임금 문제	지원자 없었음
전 체	830	45.1	30.8	2.1	6.8	3.4	11.8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7	14.1	50.4	0.0	0.0	35.4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7	75.5	0.0	0.0	0.0	24.5
	16. 목재·펄프 제조업	13	32.2	7.8	0.0	0.0	6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	66.9	11.0	0.0	0.0	11.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46	41.9	15.2	18.7	24.2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100.0	0.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14	19.9	40.5	0.0	0.0	39.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25	37.9	43.9	1.5	9.1	7.5
	26. 전기전자 제조업	44	40.0	22.0	5.4	0.0	32.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83.3	0.0	0.0	16.7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0	0.0	0.0	100.0	0.0
	41. 건설업	29	30.4	0.0	0.0	0.0	69.6
	49. 운송서비스업	32	10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31	100.0	0.0	0.0	0.0	0.0
	74. 사업서비스업	42	10.9	45.8	0.0	37.8	5.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36	61.1	0.0	0.0	13.3	6.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3	42.6	43.0	0.0	14.4	0.0
	95. 수리업	19	75.0	25.0	0.0	0.0	0.0
규모별	10-29인	552	38.2	40.1	1.6	7.3	10.0
	30-49인	77	59.3	16.4	0.0	3.7	20.6
	50-99인	83	62.7	4.5	0.0	8.0	20.1
	100-299인	117	55.6	15.3	7.5	2.6	8.7

[표 73] 장애인 미채용 사유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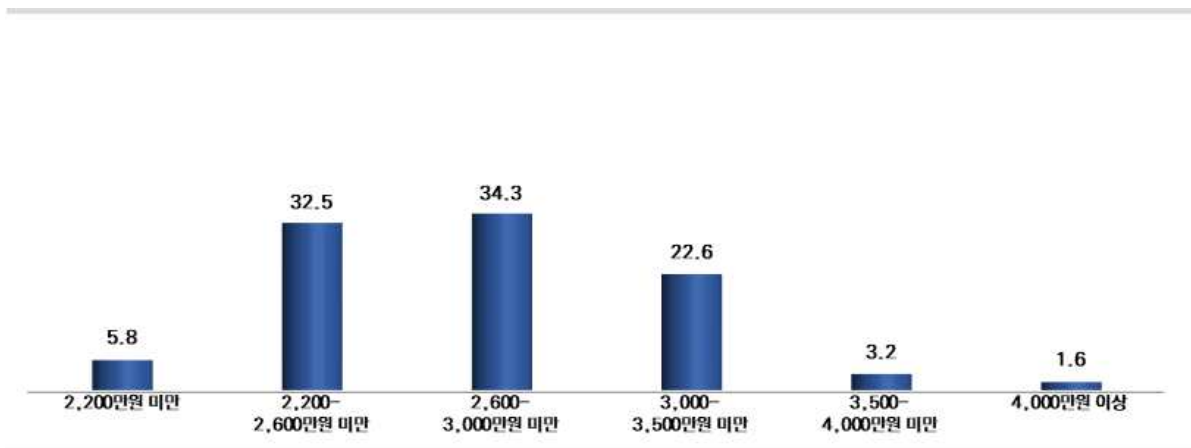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직무 능력 부족	임금 문제	인간 관계 및 성격 문제	작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사내 관련 설비 부족	지원자 없었음
전 체	907	79.2	0.9	1.3	0.8	3.8	14.1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27	39.8	0.0	10.6	0.0	49.6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	84.0	0.0	0.0	0.0	16.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	51.2	0.0	0.0	0.0	48.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91.4	0.0	0.0	0.0	8.6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58	69.5	7.8	0.0	7.8	14.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100.0	0.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14	86.5	0.0	0.0	0.0	13.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51	88.7	0.7	1.4	1.4	7.9
	26. 전기전자 제조업	78	43.2	0.0	0.0	38.1	18.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100.0	0.0	0.0	0.0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0	0.0	0.0	0.0	100.0
	41. 건설업	29	30.4	0.0	0.0	0.0	69.6
	49. 운송서비스업	32	10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31	91.4	0.0	0.0	0.0	8.6
	74. 사업서비스업	34	46.7	0.0	0.0	0.0	53.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40	94.1	0.0	0.0	0.0	5.9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6	76.0	0.0	16.0	8.0	0.0
	95. 수리업	19	100.0	0.0	0.0	0.0	0.0
규모별	10-29인	604	81.9	0.0	0.0	4.9	13.2
	30-49인	75	59.7	6.1	8.2	6.1	11.7
	50-99인	91	77.1	0.0	2.8	1.4	18.8
	100-299인	138	79.4	2.3	2.1	0.0	16.2

3)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

- 2022년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을 보면, 2,600~3,000만 원 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200~2,600만 원 미만(32.5%), 3,000~3,500만 원 미만(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는 10-29인은 2,200~2,600만 원 미만, 3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2,600~3,0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0]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

(단위 : %)



[표 74] 기업규모별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2,200만원 미만	2,200~2,600만원 미만	2,600~3,000만원 미만	3,000~3,500만원 미만	3,500~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전 체		1,842	5.8	32.5	34.3	22.6	3.2	1.6
규모별	10-29인	1,111	6.2	41.2	32.5	17.4	2.0	0.7
	30-49인	217	10.8	24.0	29.2	28.3	3.1	4.5
	50-99인	249	2.4	21.3	40.7	29.4	4.6	1.6
	100-299인	265	3.6	13.4	40.3	33.2	6.5	2.9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 2,600~3,000만 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음식료 제조업, 목재펠프 제조업, 화학의약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200~2,6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운송서비스업은 3,000~3,5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업서비스업은 2,2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75] 산업별,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

(단위 : 개사, %)

구분		사례수	2,200 만원 미만	2,200- 2,600 만원 미만	2,600- 3,000 만원 미만	3,000- 3,500 만원 미만	3,500- 4,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이상
전 체		1,842	5.8	32.5	34.3	22.6	3.2	1.6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89	7.3	43.2	41.8	4.4	3.3	0.0
	13. 섬유 의복 피혁 제조업	39	9.8	37.9	52.3	0.0	0.0	0.0
	16. 목재 펄프 제조업	26	8.2	40.8	12.1	23.3	15.6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6.6	30.3	52.6	10.5	0.0	0.0
	20. 화학의약플라스틱 제조업	187	3.4	32.4	32.1	22.5	8.3	1.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0.0	0.0	28.9	71.1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23	0.0	0.0	40.1	48.0	0.0	11.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61	0.0	43.9	27.5	25.4	2.5	0.7
	26. 전기전자 제조업	167	1.4	9.4	36.3	47.0	1.4	4.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4	0.0	16.6	52.3	25.3	2.9	2.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0	0.0	10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2	0.0	0.0	10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2	0.0	0.0	100.0	0.0	0.0	0.0
	41. 건설업	71	3.2	17.4	41.3	14.3	17.5	6.3
	49. 운송서비스업	67	0.0	7.8	45.1	47.1	0.0	0.0
	58. 문화서비스업	4	0.0	100.0	0.0	0.0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	0.0	0.0	0.0	10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78	8.1	19.4	35.8	33.5	0.0	3.2
	74. 사업서비스업	79	38.8	20.1	38.2	2.9	0.0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38	19.1	51.6	21.3	6.9	0.0	1.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29	0.0	25.9	56.5	4.6	13.0	0.0
	95. 수리업	32	0.0	14.5	80.5	5.0	0.0	0.0

- 직종 중분류 별로 보면, 대체로 2,600~3,0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의 경우 2,2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섬유 의복·생산직, 제조 단순직, 농림어업직의 경우, 2,200~2,6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관리직(임원·부서장),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영업·판매직, 운전·운송직의 경우, 3,000~3,5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76]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연봉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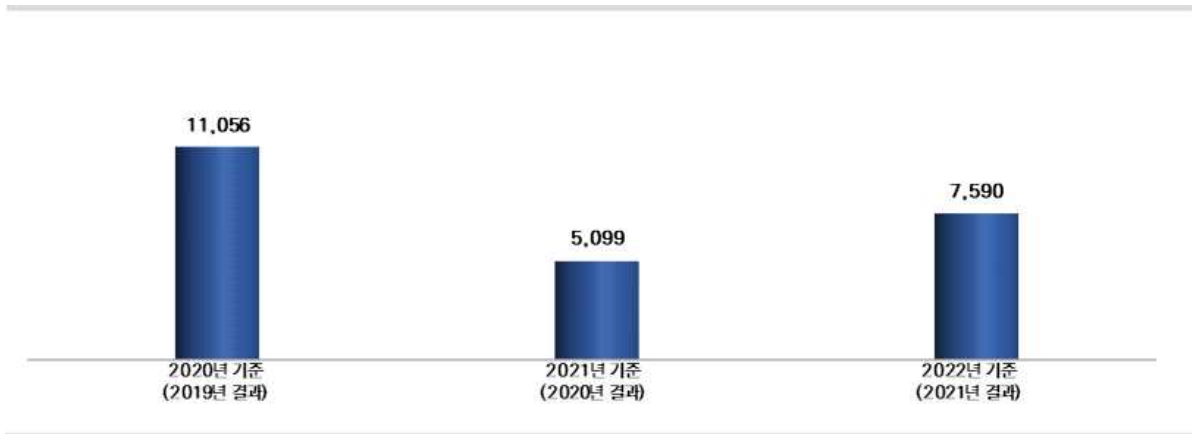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200 만원 미만	2,200- 2,600 만원 미만	2,600- 3,000 만원 미만	3,000- 3,500 만원 미만	3,500- 4,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이상
전 체	1,842	5.8	32.5	34.3	22.6	3.2	1.6
01.관리직(임원·부서장)	19	0.0	0.0	10.0	90.0	0.0	0.0
02.경영·행정·사무직	91	0.0	19.1	45.0	35.9	0.0	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4	0.0	100.0	0.0	0.0	0.0	0.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5	0.0	18.4	0.0	81.6	0.0	0.0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	0.0	0.0	0.0	88.6	11.4	0.0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0	2.0	0.0	7.8	75.7	12.2	2.3
23.사회복지·종교직	24	10.0	28.4	61.6	0.0	0.0	0.0
30.보건·의료직	74	22.2	25.5	26.9	22.2	0.0	3.2
41.예술·디자인·방송직	22	0.0	9.0	57.5	0.0	0.0	33.4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	0.0	0.0	100.0	0.0	0.0	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	0.0	44.2	55.8	0.0	0.0	0.0
53.음식 서비스직	2	100.0	0.0	0.0	0.0	0.0	0.0
54.경호·경비직	4	51.6	0.0	48.4	0.0	0.0	0.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29	18.8	75.1	6.1	0.0	0.0	0.0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41	74.7	19.4	0.0	5.9	0.0	0.0
61.영업·판매직	39	0.0	32.9	31.4	35.7	0.0	0.0
62.운전·운송직	90	0.0	11.0	37.5	51.5	0.0	0.0
70.건설·채굴직	70	0.0	17.5	36.7	21.7	17.6	6.4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97	1.2	27.8	52.6	10.5	5.9	2.0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79	0.0	34.8	28.1	28.7	4.9	3.5
83.전자·전자 설치·정비·생산직	74	8.6	3.2	79.1	9.1	0.0	0.0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	0.0	0.0	62.1	37.9	0.0	0.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56	0.0	38.8	58.0	3.1	0.0	0.0
86.섬유·의복 생산직	11	0.0	50.5	49.5	0.0	0.0	0.0
87.식품 가공·생산직	46	0.0	46.9	53.1	0.0	0.0	0.0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1	0.0	30.6	49.6	0.0	19.7	0.0
89.제조 단순직	561	3.3	44.8	32.1	17.3	1.6	1.0
90.농림어업직	13	0.0	66.8	14.3	0.0	18.9	0.0

4) 최근 3년간 향후 채용예정 인원 변화

- 최근 3년간 향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2021년 채용예정인원(2020년 결과)의 경우,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채용 수요가 급감했던 것에 반해, 2022년 채용예정인원(2021년 결과)은 2021년 대비 2,4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최근 3년간 향후 채용예정인원 변화

(단위 : 명)



- 산업별 최근 3년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3년 연속 증가 :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 3년 연속 감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 한편, 전년대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증가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937명) > 음식료제조업(416명) > 전기전자 제조업(389명) 등의 순
 - 감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2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81명) > 운송 서비스업(74명) 등의 순
- 직종 중분류별 최근 3년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3년 연속 감소 : 경영·행정·사무직, 사회복지·종교직, 보건·의료직, 음식 서비스직, 경호·경비직, 운전·운송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한편, 전년대비 채용예정인원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증가 : 제조 단순직(2,429명)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266명) >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227명) 등의 순

- 감소 :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36명) >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18명) >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54명) 등의 순

[표 77] 산업별 최근 3년간 향후 채용예정인원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19년 결과)	2021년 (2020년 결과)	2022년 (2021년 결과)	GAP (‘22-’21)	비고
전 체		11,056	5,099	7,590	2,491	-
산업별	10. 음식료 제조업	703	304	720	416	-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09	120	143	23	3년 연속 증가
	16. 목재·펄프 제조업	146	77	131	54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4	41	197	156	3년 연속 증가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1,025	555	807	252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0	137	56	-81	3년 연속 감소
	24. 1차 금속 제조업	160	59	147	88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78	1,090	2,027	937	-
	26. 전기전자 제조업	1,008	490	879	389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24	721	479	-242	3년 연속 감소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6	18	2	-16	3년 연속 감소
	32. 가구 제조업	7	3	3	0	-
	34. 기타 제조업	48	50	5	-45	-
	41. 건설업	628	180	283	103	-
	49. 운송서비스업	553	282	208	-74	3년 연속 감소
	58. 문화서비스업	41	14	4	-10	3년 연속 감소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4	28	2	-26	-
	71. 전문서비스업	378	49	231	182	-
	74. 사업서비스업	571	132	288	156	-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952	718	832	114	-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40	22	88	66	-
	95. 수리업	51	9	57	48	-

[표 78] 직종 중분류별 최근 3년간 채용예정인원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19년 결과)	2021년 (2020년 결과)	2022년 (2021년 결과)	GAP (‘22-’21)	비고
전 체	11,056	5,099	7,590	2,491	-
01.관리직(임원·부서장)	692	26	43	17	-
02.경영·행정·사무직	547	343	269	-74	3년 연속 감소
03.금융·보험직	3	0	0	0	-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5	13	0	-13	-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6	10	12	2	-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1	4	125	121	-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4	8	55	47	-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4	116	343	227	-
21.교육직	76	25	0	-25	-
22.법률직	0	0	0	0	-
23.사회복지·종교직	256	120	98	-22	3년 연속 감소
24.경찰·소방·교도직	0	0	0	0	-
30.보건·의료직	659	215	124	-91	3년 연속 감소
41.예술·디자인·방송직	14	6	33	27	-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5	8	22	14	-
51.미용·예식 서비스직	0	0	0	0	-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4	0	31	31	-
53.음식 서비스직	51	22	9	-13	3년 연속 감소
54.경호·경비직	81	40	16	-24	3년 연속 감소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717	334	600	266	-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09	54	162	108	-
61.영업·판매직	108	178	55	-123	-
62.운전·운송직	530	262	243	-19	3년 연속 감소
70.건설·채굴직	350	175	283	108	-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115	910	692	-218	3년 연속 감소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797	554	318	-236	3년 연속 감소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693	520	366	-154	3년 연속 감소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3	29	8	-21	3년 연속 감소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476	262	314	52	-
86.섬유·의복 생산직	22	30	23	-7	-
87.식품 가공·생산직	349	167	282	115	-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37	158	96	-62	-
89.제조 단순직	2,389	510	2,939	2,429	-
90.농림어업직	13	0	27	27	-

바. 양성훈련 수요추정 결과

1) 양성훈련 수요 추정 방식

- 양성훈련 수요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시한 비중계산방식을 활용하여 추정함
 - 비중계산 방식은 취업자 중 실업자 훈련 경험이 있을 확률과 채용계획인원을 활용하며, 여기서 채용계획인원은 지난 3년간 채용인원과 채용계획인원간의 차이를 보정한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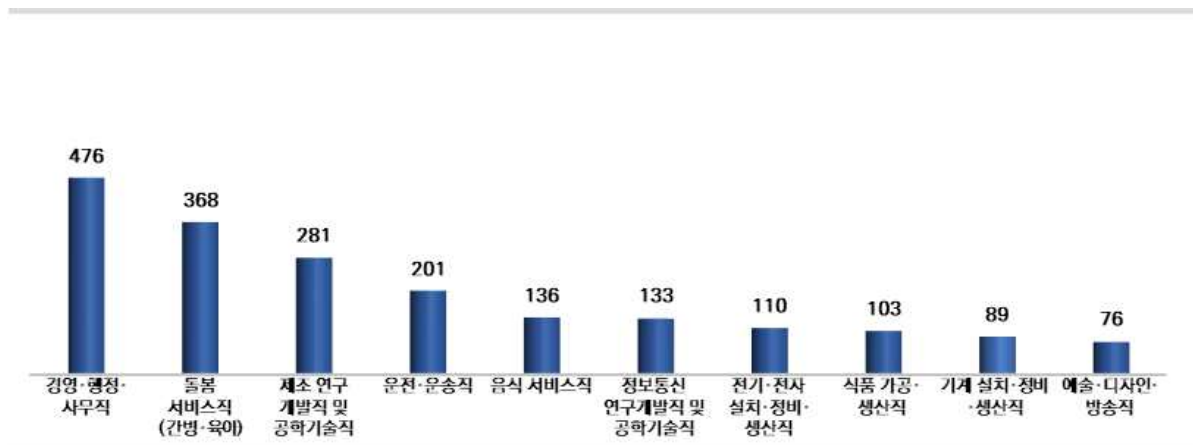
2) 양성훈련 수요 추정 결과

(1) 직종별

- 직종 중분류 기준 양성훈련 수요를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368명),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양성훈련 수요추정 상위 10개 직종(KECO 중분류 기준)

(단위 : 명)



[표 79] 직종 중분류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량

(단위 : 명)

구분	양성수요
전 체	2,249
02.경영·행정·사무직	476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3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및 공학기술직	52
15.제조 연구개발직및 공학기술직	281
23.사회복지·종교직	8
30.보건·의료직	47
41.예술·디자인·방송직	76
51.마용·예식 서비스직	37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0
53.음식 서비스직	136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68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0
62.운전·운송직	201
70.건설·채굴직	68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9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49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10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7
86.섬유·의복 생산직	0
87.식품 가공·생산직	103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0
90.농림어업직	0

- 직종 소분류 기준 양성훈련 수요를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계·경리 사무원(254명),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0] 직종 소분류별 양성훈련 수요 추정량

(단위 : 명)

구분	양성수요
전 체	2,249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1
026. 경영지원 사무원	6
027. 회계·경리 사무원	254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8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97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10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2
135. 정보보안 전문가	12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8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
307. 보건·의료 종사자	47
411. 작가·통번역가	3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2
415. 디자이너	69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
511. 미용 서비스원	37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0
531. 주방장 및 조리사	136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368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201
701. 건설구조 기능원	9
702. 건축마감 기능원	7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2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6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7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27
824. 용접원	49
831. 전기공	94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14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3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7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03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0

(2) NCS별⁸⁾

- NCS 세분류 기준 양성훈련 수요 상위 20개 분야를 보면, 재무가 1,25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총무(975개), 인사·조직(71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1] NCS별 양성훈련 수요 상위 20개

(단위 : 개)

순위	NCS 세분류	사례수
1	020301. 재무	1,256
2	020201. 총무	975
3	020202. 인사조직	712
4	020203. 일반사무	610
5	020401. 생산관리	524
6	020302. 회계	405
7	020402. 품질관리	335
8	020101. 경영기획	279
9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272
10	020403. 무역·유통관리	237
11	130101. 음식조리	228
12	100101. 일반·해외영업	218
13	110201. 청소	211
14	060101. 의료기술지원	197
15	110101. 경비·경호	195
16	060102. 보건지원	191
17	060202. 간호	188
18	020103. 마케팅	181
19	060204. 임상지원	152
20	180103. 섬유생산관리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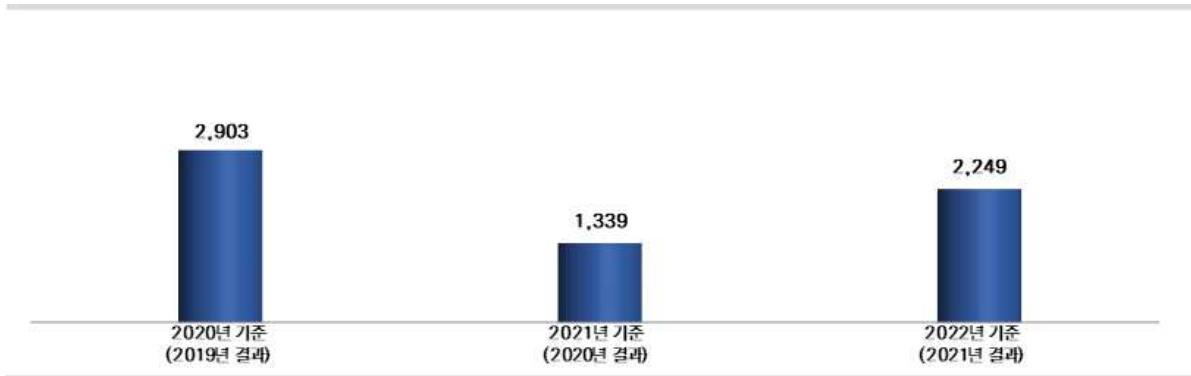
8) NCS별 양성훈련 수요는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NCS)'에 대한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함

3)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수요 변화

- 최근 3년 간 양성훈련 수요 변화를 보면, 2021년(2020년 결과)의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채용인원 및 채용예정인원의 급감으로 양성훈련 수요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2021년 결과)에 전년 대비 9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수요 변화

(단위 : 명)



- 직종 중분류별 최근 3년 간 양성훈련 수요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양성훈련 수요 추이와 동일한 추세로 나타남
- 한편, 직종 중분류별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모든 직종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행정·사무직이 235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1명), 운전·운송직(1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2] 직종 중분류별 최근 3개년 양성훈련 수요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년 기준 (2019년 결과)	2021년 기준 (2020년 결과)	2022년 기준 (2021년 결과)	GAP (‘22-’21)	비고
전 체	2,903	1,339	2,249	910	-
02.경영·행정·사무직	539	241	476	235	-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	34	133	99	-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0	23	52	30	-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61	130	281	151	-
23.사회복지·종교직	11	4	8	4	-
30.보건·의료직	155	42	47	4	-
41.예술·디자인·방송직	72	34	76	42	-
51.미용·예식 서비스직	60	20	37	17	-
53.음식 서비스직	198	116	136	19	-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801	362	368	6	-
62.운전·운송직	213	93	201	108	-
70.건설·채굴직	72	32	68	36	-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0	58	89	31	-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9	28	49	21	-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58	85	110	25	-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	4	7	3	-
87.식품 가공·생산직	59	28	103	75	-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6	5	10	5	-

사. 향상훈련 수요추정 결과

1) 향상훈련 수요추정 방식

- 향상훈련에 적용되는 훈련수요의 경우, 기업체의 향상계획이 100% 실현된다는 가정
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최근 1년 이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음
- 기업의 향상과정 수요 산출 시 2022년 교육훈련 의향이 있는 기업의 수요만을 반영
할 경우, 훈련수요가 과대추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최소 수요
로 볼 수 있음
- 향상훈련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에 기존 훈련 수요를 100% 반영하는 향상과정 수요
와 교육의향을 반영한 향상과정 수요를 각각 최대수요와 최소수요로 정의함
 - 최소수요 : 2022년 교육의향이 있는 기업의 훈련 규모를 반영한 수요
 - 최대수요 : 향상과정 수요를 100% 반영한 기존의 수요
 - 향상훈련 수요 : 최대수요와 최소수요를 평균한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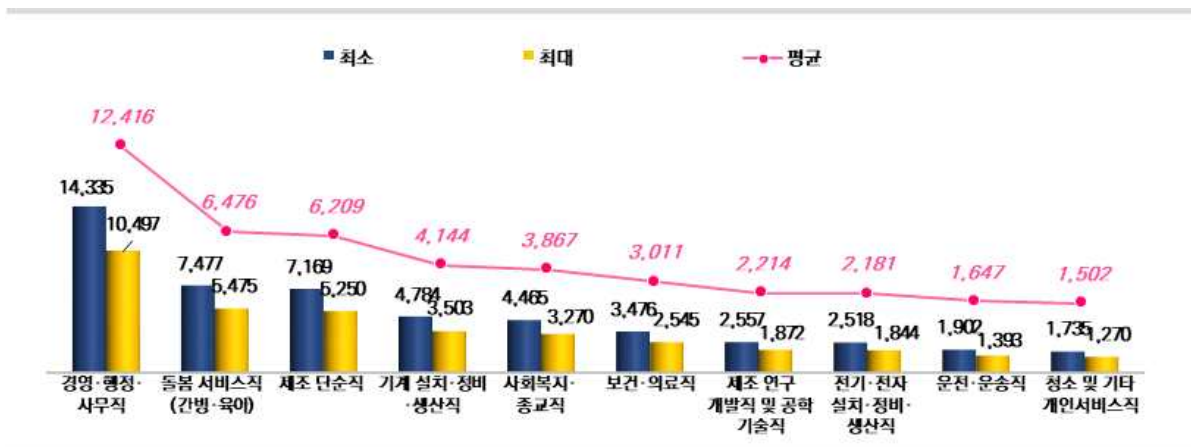
2) 향상훈련 수요추정 결과

(1) 직종별

- 향상훈련 추정결과, 최대수요 추정량은 60,573명으로 나타났고, 최소수요 추정량은 44,355명으로, 이를 평균한 향상훈련 수요는 52,464명으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요를 보면(평균 기준), 경영·행정·사무직이 12,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6,476명), 제조 단순직(6,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향상훈련 수요추정 평균 기준 상위 10개 직종(KECO 중분류)

(단위 : 명)



[표 83] 직종 중분류별 향상훈련 수요

(단위 : 명)

구분	향상훈련 수요		
	최대수요	최소수요	평균
전 체	60,573	44,355	52,464
01. 관리직(임원·부서장)	405	296	351
02. 경영·행정·사무직	14,335	10,497	12,416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2	2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4	25	29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3	171	202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148	841	995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57	1,872	2,214
21. 교육직	189	139	164
23. 사회복지·종교직	4,465	3,270	3,867
24. 경찰·소방·교도직	18	14	16
30. 보건·의료직	3,476	2,545	3,011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5	62	73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23	90	106
51. 마용·예식 서비스직	21	15	18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76	56	66

구분	향상훈련 수요		
	최대수요	최소수요	평균
전 체	60,573	44,355	52,464
53. 음식 서비스직	979	717	848
54. 경호·경비직	1,011	741	876
55.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7,477	5,475	6,476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735	1,270	1,502
61. 영업·판매직	1,256	920	1,088
62. 운전·운송직	1,902	1,393	1,647
70. 건설·채굴직	745	545	645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4,784	3,503	4,144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130	827	978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518	1,844	2,181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2	16	19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047	767	907
86. 섬유·의복 생산직	100	73	87
87. 식품 가공·생산직	1,176	861	1,018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08	225	267
89. 제조 단순직	7,169	5,250	6,209
90. 농림어업직	47	34	41

- 직종 소분류별 향상훈련 수요를 보면(평균 기준),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6,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지원 사무원(5,076명),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3,7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4] 직종 소분류별 향상훈련 수요

(단위 : 명)

구분	향상훈련 수요		
	최대수요	최소수요	평균
전 체	60,573	44,355	52,464
012.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16	12	14
015.영업·판매·운송 관리자	46	34	40
016.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343	251	297
022.경영·인사 전문가	2	1	2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	63	46	55
024.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37	27	32
025.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202	148	175
026.경영지원사무원	5,861	4,292	5,076
027.회계·경리 사무원	3,187	2,334	2,761
028.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319	3,162	3,741
029.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65	487	576
110.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	2	2
122.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4	25	29
131.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6	4	5
132.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	2	2
133.소프트웨어 개발자	180	132	156
134.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23	17	20
135.정보보안 전문가	22	16	19
140.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48	841	995

구분	향상훈련 수요		
	최대수요	최소수요	평균
151.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1	308	364
152.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3	90	106
153.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2	243	287
154.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3	148	176
155.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37	393	465
156.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	9	11
157.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8	123	146
158.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668	489	578
159.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4	69	81
212.학교 교사	16	11	14
213.유치원 교사	33	24	28
214.문라기술·예능 강사	9	7	8
215.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31	96	114
231.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052	1,503	1,778
232.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413	1,767	2,090
240.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18	14	16
301.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3	61	72
303.약사 및 한약사	30	22	26
304.간호사	944	691	817
305.영양사	220	161	191
306.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810	593	701
307.보건·의료 종사자	1,390	1,018	1,204
411.작가·통번역가	9	6	8
413.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8	35	41
415.디자이너	18	13	16
416.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0	7	9
420.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23	90	106
511.미용 서비스원	16	12	14
512.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	3	4
521.여행 서비스원	13	9	11
522.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41	30	35
523.숙박시설 서비스원	9	6	7
524.오락시설 서비스원	14	10	12
531.주방장 및 조리사	903	661	782
532.식당 서비스원	76	56	66
541.경호·보안 종사자	185	135	160
542.경비원	827	605	716
550.돌봄 서비스 종사자	7,477	5,475	6,476
561.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438	1,053	1,245
562.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97	217	257
612.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217	891	1,054
615.판매 종사자	29	21	25
616.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10	7	9
621.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5	4	5
622.자동차 운전원	1,119	819	969
623.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572	419	495
624.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206	151	178
701.건설구조 기능원	191	140	165
702.건축마감 기능원	93	68	81
703.배관공	4	3	3
704.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01	74	88

(2) 업종별·기업규모별

- 업종별 향상훈련 수요를 보면(평균 기준),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수요가 15,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6,259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8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향상훈련 수요를 보면(평균 기준), 10-29인이 24,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299인(14,091명), 30-49인(11,509명), 50-99인(10,680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85] 기업규모별 향상훈련 수요

(단위 : 명)

구분		향상훈련 수요		
		최대수요	최소수요	평균
전 체		60,573	44,355	52,464
업종별	10. 음식료 제조업	3,775	2,764	3,269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479	351	415
	16. 목재·펄프 제조업	954	698	82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6	107	127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4,488	3,287	3,88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52	771	911
	24. 1차 금속 제조업	1,855	1,359	1,60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227	5,292	6,259
	26. 전기전자 제조업	4,341	3,179	3,76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544	4,060	4,80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	52	62
	32. 가구 제조업	32	23	27
	34. 기타 제조업	287	210	249
	41. 건설업	2,580	1,889	2,234
	49. 운송서비스업	1,290	944	1,117
	58. 문화서비스업	148	108	128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41	103	122
	71. 전문서비스업	2,959	2,167	2,563
	74. 사업서비스업	3,877	2,839	3,358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8,040	13,210	15,62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717	525	621
	95. 수리업	569	416	493
규모별	10-29인	67,853	24,292	24,292
	30-49인	21,026	11,509	11,509
	50-99인	20,138	10,680	10,680
	100-299인	16,537	14,091	14,091

(3) NCS별

- NCS 세분류 기준 향상훈련 수요 상위 20개 분야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의료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가 4,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4,054명), 재무(2,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6] NCS별 향상훈련 수요 상위 20개 (평균기준)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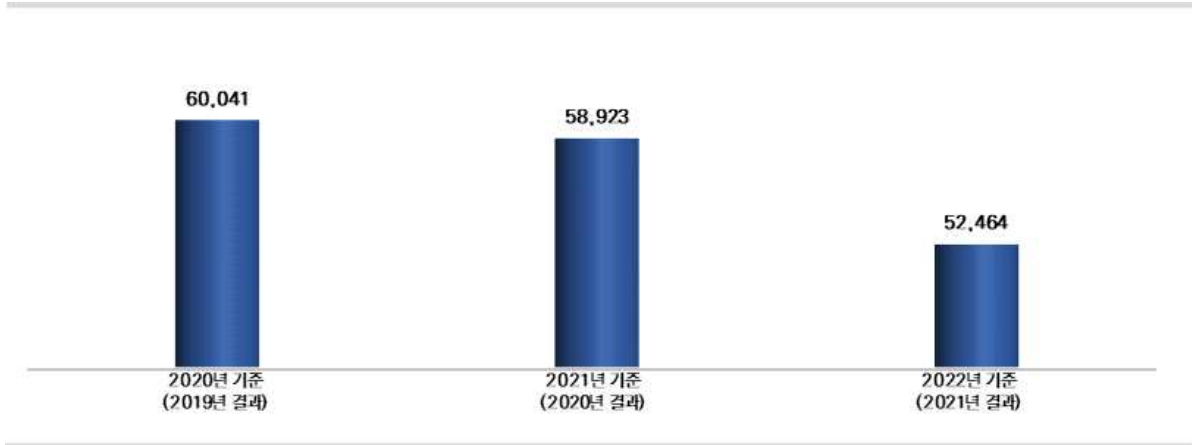
순위	NCS 세분류	사례수
1	060101. 의료기술지원	4,852
2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4,054
3	020301. 재무	2,336
4	020201. 총무	2,241
5	150602. 자동차제작	2,069
6	070301. 보육	1,744
7	060202. 간호	1,480
8	020401. 생산관리	1,397
9	210101. 식품가공	1,179
10	110201. 청소	1,128
11	020202. 인사조직	1,117
12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999
13	020203. 일반사무	908
14	110101. 경비·경호	870
15	100101. 일반·해외영업	843
16	060102. 보건지원	799
17	130101. 음식조리	782
18	020302. 회계	754
19	020402. 품질관리	719
20	180103. 섬유생산관리	486

3) 최근 3개년 향상훈련 수요 변화⁹⁾

- 최근 3년 간 향상훈련 수요 변화를 보면, 3년 연속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으며, 2022년(2021년 결과)의 경우, 전년 대비 6,45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최근 3개년 향상훈련 수요 변화

(단위 : 명)



- 직종 중분류별 최근 3년 간 양성훈련 수요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음
 - 3년 연속 증가 : 미용·예식 서비스직, 경호·경비직, 돌봄 서비스직,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
 - 3년 연속 감소 : 관리직(임원·부서장),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농림어업직
 - 한편, 직종 중분류별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증가 : 돌봄 서비스직(3,433명) > 제조 단순직(2,689명) > 경영·행정·사무직(2,423명) 등의 순
 - 감소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4,075명) >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4,016명), 운전·운송직(1,499명) 등의 순

9) 향상훈련 수요 인원은 기존 직능원 방식의 수요 인원과 실제 교육 의향이 있는 기업의 훈련 규모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요인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함

[표 87] 직종 중분류별 최근 3개년 향상훈련 수요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년 기준 (2019년 결과)	2021년 기준 (2020년 결과)	2022년 기준 (2021년 결과)	GAP ('22-'21)	비고
전 체	60,041	58,923	52,464	-6,459	3년 연속 감소
01. 관리직	9,691	559	351	-208	3년 연속 감소
02. 경영·행정·사무직	10,954	9,993	12,416	2,423	-
03. 금융·보험직	43	0	0	0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	39	2	-37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2	29	29	0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47	148	202	54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00	1,091	995	-96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97	2,548	2,214	-334	-
21. 교육직	474	492	164	-328	-
22. 법률직	5	16	0	-16	-
23. 사회복자종교직	3,059	2,376	3,867	1,491	-
24. 경찰·소방·교도직	-	25	16	-9	-
30. 보건·의료직	3,618	4,273	3,011	-1,262	-
41. 예술·디자인·방송직	40	151	73	-78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직	90	318	106	-212	-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4	16	18	2	3년 연속 증가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9	29	66	37	-
53. 음식 서비스직	683	237	848	611	-
54. 경호·경비직	266	381	876	495	3년 연속 증가
55. 돌봄 서비스직	1,160	3,043	6,476	3,433	3년 연속 증가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010	1,320	1,502	182	3년 연속 증가
61. 영업·판매직	1,038	1,379	1,088	-291	-
62. 운전·운송직	2,585	3,146	1,647	-1,499	-
70. 건설·채굴직	1,291	1,712	645	-1,067	-
81. 기계·설치·정비 생산직	4,763	5,440	4,144	-1,296	-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2,639	4,994	978	-4,016	-
83.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2,094	3,218	2,181	-1,037	-
84. 정보통신·설치·정비직	207	119	19	-100	3년 연속 감소
85.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	1,197	4,982	907	-4,075	-
86. 섬유·의복 생산직	112	465	87	-378	-
87. 식품·가공·생산직	678	1,575	1,018	-557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97	1,231	267	-964	-
89. 제조·단순직	9,379	3,520	6,209	2,689	-
90. 농림·어업직	348	58	41	-17	3년 연속 감소

제2절 | 교육훈련 공급분석 결과

가. 공급분석 개요

1) 공급분석 자료 범위

- 충남지역 직업훈련능력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공급분석은 훈련의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직업훈련능력개발사업의 공급현황을 인력 및 교육훈련 공급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인력공급분석은 충남지역 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및 취업자 수를 인력 수로 추정함
 - 교육훈련 공급분석은 HRD-Net에 등록된 2018-2020년 교육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18-’20년 직업훈련 공급자료와 자체적으로 HRD-Net의 API로 수집한 데이터¹⁰⁾를 활용함

2) 공급분석 분석 방식

- 본 조사의 목적은 직종별 충남지역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국고용직업분류코드(KECO)로 매칭, 변환하여 분석함
 - 인력공급현황 : 충남 4년제 및 전문대학 학과별 HRD-Net 통합코드맵 ‘직종학과매핑목록’을 활용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로 매칭
 - 교육훈련 공급현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분류표를 활용하여 전체 훈련과정은 직업분류 또는 NCS로 매칭
- 교육훈련 공급분석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교육훈련과정을 분석함
 - 교육훈련기관 분석은 지역별, 직종별 교육훈련기관 분석을 통해 충남지역 내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분석함
 - 교육훈련과정 분석은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에 대해 훈련직종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양적 분석(훈련과정 수, 훈련생 수 등)을 실시함

10)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오픈 API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직업훈련 공급인원은 기준 시점 및 자료 수집 방식의 차이로 일부 데이터 상에서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API로 수집된 자료 상에는 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명, NCS 세분류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심층적 분석을 위해 NCS 분석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함

[표 88] 충남지역 직업훈련능력개발사업 훈련공급 자료 분석 방식

구분	분석자료	분석방식
인력공급현황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하이파이브(www.schoolinfo.go.kr),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학교 및 학과별 2019년 졸업 생 및 취업자 수 자료 수집	하이파이브, GOMS(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DB를 활용하여 지역 내 취업인원 추정
교육훈련공급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HRD-NET 직업훈련 공급현황	교육과정별 KECO 및 NCS(대분류) 분석
	HRD-NET 오픈API를 활용한 충남 훈련공급현황 자 료 수집	교육프로그램별 KECO 및 NCS 매칭 및 자료 분석
	충남도내 타 지자체,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및 내용	직업훈련-NCS 매칭 고용부 외 충남 및 타부처 현황 분석

나. 충남지역 인력공급현황 분석

1) 직업계고¹¹⁾

- 직업계고의 졸업 및 취업자 현황을 보면, 졸업자는 4,210명, 취업자는 1,241명으로 취업률은 29.5%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공학계열의 졸업자는 1,697명으로 전체의 40.3%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628명으로 전체의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89] 직업계고 졸업자/취업자 현황(전공계열별)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졸업	취업	취업률
전 체	4,210	1,241	29.5
공학계열	1,697	628	37.0
사회계열	1,689	402	23.8
예체능계열	81	34	42.0
의약계열	72	13	18.1
인문계열	99	0	0.0
자연계열	572	164	28.7

- 충남지역 직업계고에서 운영 중인 학과와 한국직업분류 중분류를 매칭하여 직종별 인력공급현황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졸업자가 1,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609명), 금융·보험직(2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를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취업자가 368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9.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24명),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8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률을 보면 졸업자 및 취업자의 인원수가 적은 관리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직을 제외하고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0.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11)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점(2021. 8월)에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가 2020년이므로, 해당 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90] 직업계고 졸업자/취업자 현황(직종 중분류별)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졸업	취업	취업률
전 체	4,210	1,241	29.5
01.관리직(임원·부서장)	2	1	50.0
02.경영·행정·사무직	1,427	368	25.8
03.금융·보험직	287	74	25.8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1	33.3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97	23	23.7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88	46	24.5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7	33	22.4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09	224	36.8
21.교육직	69	21	30.4
22.법률직	21	7	33.3
23.사회복지·종교직	11	3	27.3
24.경찰·소방·교도직	20	5	25.0
25.군인	63	17	27.0
30.보건·의료직	205	55	26.8
41.예술·디자인·방송직	60	13	21.7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	1	50.0
51.미용·예식 서비스직	13	3	23.1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42	11	26.2
53.음식 서비스직	71	20	28.2
54.경호·경비직	4	1	25.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0	0	0.0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	4	33.3
61.영업·판매직	229	58	25.3
62.운전·운송직	33	8	24.2
70.건설·채굴직	9	2	22.2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12	45	40.2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	0	0.0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83	80	43.7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	2	33.3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0	7	35.0
86.섬유·의복 생산직	0	0	0.0
87.식품 가공·생산직	6	2	33.3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1	2	18.2
89.제조 단순직	1	0	0.0
90.농림어업직	22	4	18.2
분류불능	224	100	44.6

2) 대학 및 대학교¹²⁾

- 대학 및 대학교의 졸업자, 취업자 현황을 보면, 졸업자는 35,926명, 취업자는 22,138명으로 취업률은 61.6%로 나타남
-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의 졸업자가 9,641명으로 전체의 26.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5,760명으로 전체의 2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취업률은 의약계열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91]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취업자 현황(전공계열별)

(단위 : 명, %)

구분	2020년		
	졸업	취업	취업률
전 체	35,926	22,138	61.6
공학계열	8,317	5,454	65.6
교육계열	2,131	1,214	57.0
사회계열	9,641	5,760	59.7
예체능계열	4,602	2,619	56.9
의약계열	4,125	3,311	80.3
인문계열	3,342	1,601	47.9
자연계열	3,768	2,179	57.8

- 충남지역 대학 및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와 한국직업분류 중분류를 매칭하여 직종별 인력공급현황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졸업자가 9,6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직(3,659명),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7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 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5,656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직(2,829명),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7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률은 보건·의료직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67.4%), 기계 설치·정비·생산직(6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점(2021. 8월)에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가 20019년이므로, 해당 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92] 대학 및 대학교 및 졸업자/취업자 현황(직종)

(단위 : 명, %)

구분	2019년 기준		
	졸업	취업	취업률
전 체	35,926	22,138	61.6
01.관리직(임원·부서장)	22	13	59.1
02.경영·행정·사무직	9,672	5,656	58.5
03.금융·보험직	886	522	58.9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42	22	52.4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909	521	57.3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75	1,466	61.7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36	487	66.2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717	1,741	64.1
21.교육직	2,413	1,351	56.0
22.법률직	119	67	56.3
23.사회복지·종교직	1,597	960	60.1
24.경찰·소방·교도직	241	144	59.8
25.군인	566	338	59.7
30.보건·의료직	3,659	2,829	77.3
41.예술·디자인·방송직	2,642	1,487	56.3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654	403	61.6
51.미용·예식 서비스직	121	70	57.9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16	170	53.8
53.음식 서비스직	826	478	57.9
54.경호·경비직	167	100	59.9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3	36	57.1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3	71	57.7
61.영업·판매직	1,800	1,064	59.1
62.운전·운송직	273	167	61.2
70.건설·채굴직	114	68	59.6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23	615	66.6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86	58	67.4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10	329	64.5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1	36	59.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217	139	64.1
86.섬유·의복 생산직	20	12	60.0
87.식품 가공·생산직	121	73	60.3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38	81	58.7
89.제조 단순직	18	11	61.1
90.농림어업직	249	162	65.1
분류불능	530	391	73.8

다. HRD-Net 교육훈련 공급현황 분석

1) 충남지역 교육훈련기관 분석¹³⁾

(1) 교육훈련기관 현황

- 충남지역의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266개로 나타났으며, 세부 지역 별로는 천안시가 95개로 가장 많았음
- 2018년 기준 교육훈련기관이 345개에서 2019년에는 268개, 2020년에는 266개로 최근 3년간 감소한 추세로 나타남

[표 93] 최근 3개년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345	268	266
천안시	114	93	95
아산시	55	45	44
서산시	36	19	17
당진시	36	29	29
그 외 지역	104	82	81

- 2020년 기준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이 13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은 천안시가 41개로 가장 많았음

[표 94] 최근 3개년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

구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 교육 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 시설 (기관)	지정 직업 훈련 시설	기타	총합계
전 체	22	10	5	50	138	38	1	2	266
천안시	14	6	3	20	41	11	-	-	95
아산시	-	2	1	3	31	7	-	-	44
서산시	1	-	-	6	7	3	-	-	17
당진시	1	-	1	5	18	4	-	-	29
그 외 지역	6	2	-	16	41	13	1	2	81

13) 충남지역 내 교육훈련기관 분석은 훈련기관소재지를 기준으로, '충남' 지역에 소재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2020년 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개설 훈련과정 유형별로 보면, 양성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이 98개, 향상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양성 및 향상과정을 모두 개설한 기관은 69개로 나타남

[표 95] 2020년 기준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훈련유형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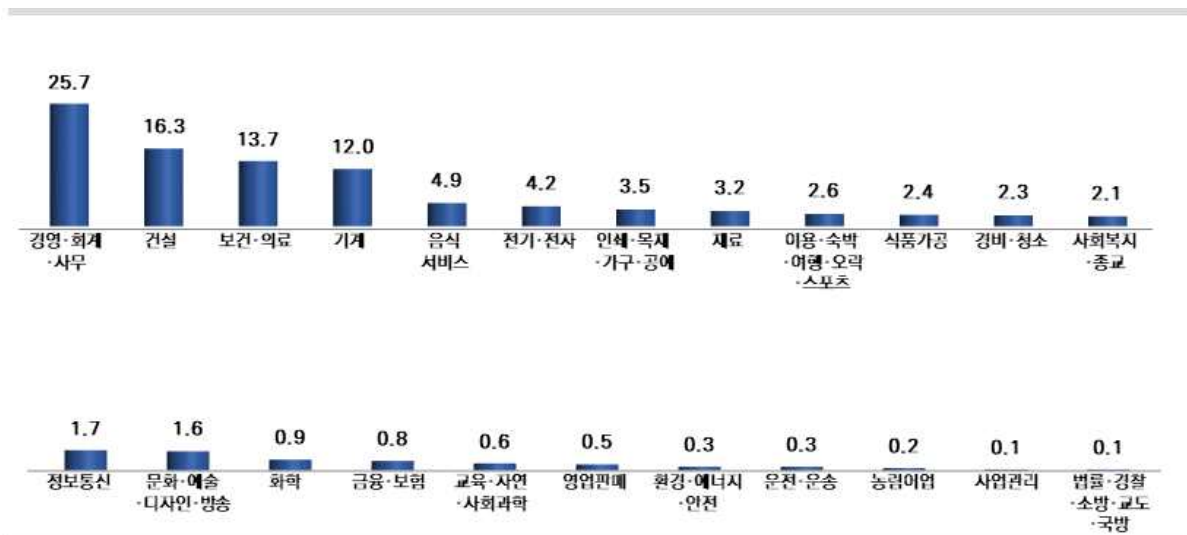
구분	양성과정(A)	향상과정(B)	양성/향상 중복(C)	총 합계 (A+B)-C
전 체	98	237	69	266
천안시	42	80	27	95
아산시	6	42	4	44
서산시	9	15	7	17
당진시	10	25	6	29
그 외 지역	31	75	25	81

(2) 교육훈련과정 분석

- 2020년 충남지역 내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개설 분야(NCS 대분류 기준)를 보면, 경영·회계·사무가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16.3%), 보건·의료(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교육훈련 개설 분야 중 50% 이상이 상위 3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26] 충남지역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개설 분야(NCS 대분류, 2020년 기준)

(단위 : %)



- 세부 지역별 개설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분야를 개설하는 지역은 천안시(20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당진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의 경우 제공 훈련 분야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남

[표 96] 2020년 기준 지역별 교육훈련기관 훈련분야 개설 현황

지역	NCS대분류	양성	향상	지역	NCS대분류	양성	향상
계룡시	14. 건설	○	○	아산시	04. 교육·자연·사회과학		○
공주시	02. 경영·회계·사무		○		06. 보건·의료	○	○
	06. 보건·의료	○	○		07. 사회복지·종교		○
	14. 건설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15. 기계		○		10. 영업판매		○
	17. 화학		○		11. 경비·청소		○
금산군	20. 정보통신	○			13. 음식서비스	○	○
	02. 경영·회계·사무		○		15. 기계		○
	06. 보건·의료		○		19. 전기·전자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21. 식품가공		○
	09. 운전·운송	○	○		23. 환경·에너지·안전		○
논산시	17. 화학		○	연기군	24. 농림어업	○	
	02. 경영·회계·사무	○	○		10. 영업판매		○
	06. 보건·의료	○			02. 경영·회계·사무		○
	07. 사회복지·종교		○		06. 보건·의료	○	○
	15. 기계		○	예산군	07. 사회복지·종교		○
당진시	17. 화학		○		15. 기계		○
	21. 식품가공		○		17. 화학		○
	02. 경영·회계·사무	○	○		20. 정보통신		○
	06. 보건·의료	○	○		21. 식품가공		○
부여군	07. 사회복지·종교		○	천안시	01. 사업관리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02. 경영·회계·사무	○	○
	13. 음식서비스	○			03. 금융·보험		○
	14. 건설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15. 기계	○	○		06. 보건·의료	○	○
	16. 재료		○		07. 사회복지·종교	○	○
	17. 화학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19. 전기·전자		○		10. 영업판매		○
	21. 식품가공		○		11. 경비·청소		○
	02. 경영·회계·사무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보령시	06. 보건·의료	○	○		13. 음식서비스	○	○
	13. 음식서비스	○	○		14. 건설	○	○
	14. 건설	○	○		15. 기계	○	○
	15. 기계		○		16. 재료	○	○
	19. 전기·전자		○	청양군	17. 화학		○
서산시	02. 경영·회계·사무		○		19. 전기·전자	○	○
	06. 보건·의료	○	○		20. 정보통신	○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21. 식품가공	○	○
	13. 음식서비스	○	○		22. 인쇄·목재·가구·공예	○	○
	16. 재료	○	○	태안군	24. 농림어업	○	
서천군	17. 화학		○		02. 경영·회계·사무		○
	02. 경영·회계·사무		○		15. 기계		○
	06. 보건·의료	○	○		21. 식품가공		○
	07. 사회복지·종교		○		19. 전기·전자		○
	13. 음식서비스	○	○	홍성군	02. 경영·회계·사무	○	○
아산시	02. 경영·회계·사무		○		06. 보건·의료	○	○
					13. 음식서비스	○	○
					21. 식품가공	○	○

2) 충남지역 교육훈련 분석

(1)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현황

- 최근 3년간 양성훈련 공급 현황을 보면, 실시 인원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다시 증가한 추세로 나타남
-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지역산업맞춤형의 실시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추세로 나타남

[표 97] 양성훈련 공급현황 3개년 전체(사업유형별)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7,304	5,575	9,289	6,614	5,071	8,309	3,894	3,054	4,615	58.9	60.2	55.5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612	1,165	556	1,356	985	456	1,009	738	379	74.4	74.9	83.1
실업자계좌제	5,112	3,946	8,360	4,740	3,677	7,530	2,573	2,050	4,019	54.3	55.8	53.4
지역산업맞춤형	580	464	373	518	409	323	312	266	217	60.2	65.0	67.2

- 직종 소분류별로 보면, 정보보안 전문가,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전기공,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의 경우 수료인원의 수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의 경우, 3년 연속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취업률의 경우, 2020년 55.5%로 2019년(60.2%) 대비 4.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직종별로 보면,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정보보안 전문가,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디자이너, 미용 서비스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전기공의 경우, 최근 3년간 취업률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3년 연속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8]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현황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7,304	5,575	9,289	6,614	5,071	8,309	3,894	3,054	4,615	58.9	60.2	55.5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56	-	-	47	-	-	31	-	-	66.0	-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33	-	-	30	-	-	10	-	-	33.3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	17	54	-	15	54	-	9	22	-	60.0	40.7
027. 회계경리 사무원	624	487	581	573	449	515	379	311	335	66.1	69.3	65.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62	-	43	50	-	34	48	-	28	96.0	-	82.4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816	550	918	763	522	847	407	266	396	53.3	51.0	46.8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75	86	266	139	70	233	104	62	177	74.8	88.6	76.0
134.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운영 전문가	40	48	-	31	36	-	24	25	-	77.4	69.4	-
135. 정보보안 전문가	23	21	24	18	20	22	19	15	16	105.6	75.0	72.7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19	120	179	181	107	154	106	56	89	58.6	52.3	57.8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03	529	622	544	469	552	376	361	391	69.1	77.0	70.8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25	12	-	25	12	-	10	9	-	40.0	75.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5	65	38	45	61	33	27	40	18	60.0	65.6	54.5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0	40	20	36	30	12	28	19	7	77.8	63.3	58.3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5	-	20	60	-	14	27	-	9	45.0	-	64.3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86	68	25	166	59	18	121	45	12	72.9	76.3	66.7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64	28	56	58	26	52	23	13	20	39.7	50.0	38.5
307. 보건의료 종사자	369	350	407	320	301	360	232	250	245	72.5	83.1	68.1
411. 작가통번역가	-	-	52	-	-	39	-	-	13	-	-	33.3
414. 창작공연 전문가	-	-	36	-	-	19	-	-	9	-	-	47.4
415. 디자이너	156	126	322	125	116	259	67	62	131	53.6	53.4	50.6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	-	9	1	-	9	-	-	2	0.0	-	22.2
511. 미용 서비스원	561	367	531	478	311	452	157	97	115	32.8	31.2	25.4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4	1	15	14	1	15	7	1	8	50.0	100.0	53.3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87	458	916	533	433	835	245	166	342	46.0	38.3	41.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1,169	771	1,659	1,142	750	1,452	702	464	919	61.5	61.9	63.3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	3	-	-	3	-	-	-	-	-	0.0
621. 항공기산업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4	-	-	4	-	-	2	-	-	50.0	-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291	308	723	277	295	705	187	190	415	67.5	64.4	58.9
701. 건설구조 기능원	-	47	37	-	41	33	-	18	17	-	43.9	51.5
702. 건축마감 기능원	49	43	57	48	41	52	25	24	22	52.1	58.5	42.3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40	101	245	136	96	241	68	52	130	50.0	54.2	53.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	-	63	-	-	57	-	-	38	-	-	66.7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09	107	120	94	86	104	74	84	90	78.7	97.7	86.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47	71	64	39	59	52	40	47	42	102.6	79.7	80.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24	13	-	21	13	-	10	3	-	47.6	23.1
824. 용접원	174	118	241	150	115	224	96	83	137	64.0	72.2	61.2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6	20	19	15	20	17	11	12	12	73.3	60.0	70.6
831. 전기공	136	184	404	123	142	353	95	109	251	77.2	76.8	71.1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54	27	-	46	26	-	30	23	-	65.2	88.5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38	26	-	26	21	-	18	7	-	69.2	33.3	-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8	-	-	23	-	-	17	-	-	73.9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3	2	-	3	2	-	2	-	-	66.7	0.0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56	197	292	241	178	276	89	67	80	36.9	37.6	29.0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78	88	176	69	84	161	22	32	42	31.9	38.1	26.1
Y. 분류불능	45	-	-	35	-	-	25	-	-	71.4	-	-

(2) 훈련유형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2020년 기준)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내 양성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9,28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30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취업한 인원은 4,615명으로 취업률은 55.5%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별로 보면, 취업인원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률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이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99] 양성훈련 공급현황 전체(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9,289	8,309	4,615	55.5
026. 경영지원 사무원	54	54	22	40.7
027. 회계·경리 사무원	581	515	335	65.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3	34	28	82.4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918	847	396	46.8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66	233	177	76.0
135. 정보보안 전문가	24	22	16	72.7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9	154	89	57.8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22	552	391	70.8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12	9	75.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8	33	18	54.5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2	7	58.3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4	9	64.3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5	18	12	66.7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	52	20	38.5
307. 보건·의료 종사자	407	360	245	68.1
411. 작가·통번역가	52	39	13	33.3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36	19	9	47.4
415. 디자이너	322	259	131	50.6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9	2	22.2
511. 미용 서비스원	531	452	115	25.4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5	15	8	53.3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16	835	342	41.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1,659	1,452	919	63.3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3	3	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723	705	415	58.9
701. 건설구조 기능원	37	33	17	51.5
702. 건축마감 기능원	57	52	22	42.3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45	241	130	53.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63	57	38	66.7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20	104	90	86.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64	52	42	80.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	13	3	23.1
824. 용접원	241	224	137	61.2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9	17	12	70.6
831. 전기공	404	353	251	71.1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7	26	23	88.5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92	276	80	29.0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76	161	42	26.1

- NCS 소분류별 양성훈련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의료기술지원이 1,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사무(972명), 식음료서비스(6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취업률을 보면, 전기자동제어가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계조립(86.7%), 절삭가공(7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항공기조종운송,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축산자원개발의 취업률은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100] 양성훈련 공급현황 전체(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9,289	8,309	4,615	55.5
020203. 일반사무	972	901	418	46.4
020302. 회계	588	522	339	64.9
020401. 생산관리	200	169	133	78.7
060101. 의료기술지원	1,659	1,452	919	63.3
060204. 임상지원	407	360	245	68.1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56	52	20	38.5
080201. 디자인	256	214	114	53.3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4	21	11	52.4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9	9	2	22.2
110201. 청소	3	3	0	0.0
120101. 이·미용서비스	500	428	109	25.5
120202. 장례서비스	15	15	8	53.3
130101. 음식조리	278	253	116	45.8
130102. 식음료서비스	638	582	226	38.8
140301. 건축설계·감리	179	154	89	57.8
140302. 건축시공	94	85	39	45.9
140701. 토공기계운전	245	241	130	53.9
140704. 적재기계운전	581	566	348	61.5
140705. 양중기계운전	142	139	67	48.2
150101. 설계기획	20	18	10	55.6
150102. 기계설계	326	291	188	64.6
150201. 절삭가공	133	117	93	79.5
150301. 기계조립	152	135	117	86.7
150302. 기계생산관리	31	28	15	53.6
150502. 냉동공조설비	48	42	30	71.4
160104. 표면처리	19	17	12	70.6
160105. 용접	241	224	137	61.2
170101. 화학물질관리	20	12	7	58.3
190107. 전기공사	357	307	215	70.0
190108. 전기자동제어	53	52	46	88.5
190306. 반도체개발	41	36	23	63.9
200102. 정보기술개발	299	267	197	73.8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292	276	80	29.0
220101. 출판	143	102	42	41.2
220201. 공예	176	161	42	26.1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41	34	22	64.7
240201. 축산자원개발	31	24	6	25.0

- 2020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인원은 556명, 수료인원은 456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중 37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83.1%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취업인원은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 9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률은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이 10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1] 양성훈련 공급현황-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556	456	379	83.1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4	22	16	72.7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91	74	61	82.4
135. 정보보안 전문가	18	16	11	68.8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	14	10	71.4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2	112	98	87.5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4	9	64.3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9	7	77.8
415. 디자이너	51	32	26	81.3
701. 건설구조 기능원	9	7	3	42.9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	38	28	29	103.6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용	27	23	19	82.6
824. 용접원	9	9	7	77.8
831. 전기공	81	70	60	85.7
832. 전가·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7	26	23	88.5

- NCS 소분류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정보기술개발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산관리(94명), 전기공사(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은 문화콘텐츠제작, 절삭가공의 경우 10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건축시공은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02] 양성훈련 공급현황-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556	456	379	83.1
020401. 생산관리	94	79	66	83.5
080201. 디자인	53	36	30	83.3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8	2	2	100.0
140301. 건축설계·감리	17	14	10	71.4
140302. 건축시공	9	7	3	42.9
150102. 기계설계	29	27	22	81.5
150201. 절삭가공	38	28	29	103.6
150301. 기계조립	49	42	39	92.9
150302. 기계생산관리	11	9	6	66.7
160105. 용접	9	9	7	77.8
190107. 전기공사	81	70	60	85.7
190108. 전기자동제어	27	26	23	88.5
200102. 정보기술개발	101	88	70	79.5
220101. 출판	10	5	3	60.0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20	14	9	64.3

- 2020년 실업자계좌제의 실시인원은 8,360명, 수료한 인원은 7,53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19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53.4%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취업인원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919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취업률은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이 100%로, 실시 및 취업인원 대비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3] 양성훈련 공급현황-실업자계좌제(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실업자계좌제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8,360	7,530	4,019	53.4
026. 경영지원 사무원	54	54	22	40.7
027. 회계·경리 사무원	581	515	335	65.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9	12	12	100.0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918	847	396	46.8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55	139	98	70.5
135. 정보보안 전문가	6	6	5	83.3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2	140	79	56.4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73	344	225	65.4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	9	5	55.6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	52	20	38.5
307. 보건·의료 종사자	407	360	245	68.1
411. 작가·통번역가	52	39	13	33.3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36	19	9	47.4
415. 디자이너	271	227	105	46.3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9	2	22.2
511. 미용 서비스원	531	452	115	25.4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5	15	8	53.3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16	835	342	41.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1,659	1,452	919	63.3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3	3	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723	705	415	58.9
701. 건설·구조 기능원	28	26	14	53.8
702. 건축·마감 기능원	57	52	22	42.3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45	241	130	53.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48	42	30	71.4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46	42	35	83.3
824. 용접원	207	193	118	61.1
831. 전기공	302	263	178	67.7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92	276	80	29.0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76	161	42	26.1

- NCS 소분류별 실업자계좌제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의료기술지원이 1,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사무(972명), 식음료서비스(6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은 전기자동제어가 8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삭가공(83.3%), 기계조립(8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항공기조종운송,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공예, 축산자원개발의 경우 취업률이 3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104] 양성훈련 공급현황-실업자계좌제(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실업자계좌제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8,360	7,530	4,019	53.4
020203. 일반사무	972	901	418	46.4
020302. 회계	588	522	339	64.9
020401. 생산관리	106	90	67	74.4
060101. 의료기술지원	1,659	1,452	919	63.3
060204. 임상지원	407	360	245	68.1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56	52	20	38.5
080201. 디자인	203	178	84	47.2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36	19	9	47.4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9	9	2	22.2
110201. 청소	3	3	0	0.0
120101. 이·미용서비스	500	428	109	25.5
120202. 장례서비스	15	15	8	53.3
130101. 음식조리	278	253	116	45.8
130102. 식음료서비스	638	582	226	38.8
140301. 건축설계·감리	162	140	79	56.4
140302. 건축시공	85	78	36	46.2
140701. 토공기계운전	245	241	130	53.9
140704. 적재기계운전	581	566	348	61.5
140705. 양중기계운전	142	139	67	48.2
150102. 기계설계	195	180	109	60.6
150201. 절삭가공	46	42	35	83.3
150301. 기계조립	64	60	48	80.0
150302. 기계생산관리	20	19	9	47.4
150502. 냉동공조설비	48	42	30	71.4
160105. 용접	207	193	118	61.1
190107. 전기공사	276	237	155	65.4
190108. 전기자동제어	26	26	23	88.5
200102. 정보기술개발	161	145	103	71.0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292	276	80	29.0
220101. 출판	133	97	39	40.2
220201. 공예	176	161	42	26.1
240201. 축산자원개발	31	24	6	25.0

-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의 실시인원은 373명, 수료인원은 32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7.2%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취업인원은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취업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5] 양성훈련 공급현황-지역산업맞춤형(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373	323	217	67.2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0	20	18	90.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7	96	68	70.8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12	9	75.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8	33	18	54.5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2	7	58.3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5	15	8	53.3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36	34	26	76.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37	29	23	79.3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	13	3	23.1
824. 용접원	25	22	12	54.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9	17	12	70.6
831. 전기공	21	20	13	65.0

- NCS 소분류별 지역산업맞춤형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기계설계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삭가공(49명), 반도체개발(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률은 기계조립이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면처리 및 정보기술 개발(각 70.6%), 기계설계(6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06] 양성훈련 공급현황-지역산업맞춤형(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실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전 체	373	323	217	67.2
150101. 설계기획	20	18	10	55.6
150102. 기계설계	102	84	57	67.9
150201. 절삭가공	49	47	29	61.7
150301. 기계조립	39	33	30	90.9
160104. 표면처리	19	17	12	70.6
160105. 용접	25	22	12	54.5
170101. 화학물질관리	20	12	7	58.3
190306. 반도체개발	41	36	23	63.9
200102. 정보기술개발	37	34	24	70.6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21	20	13	65.0

(3) 훈련생 특성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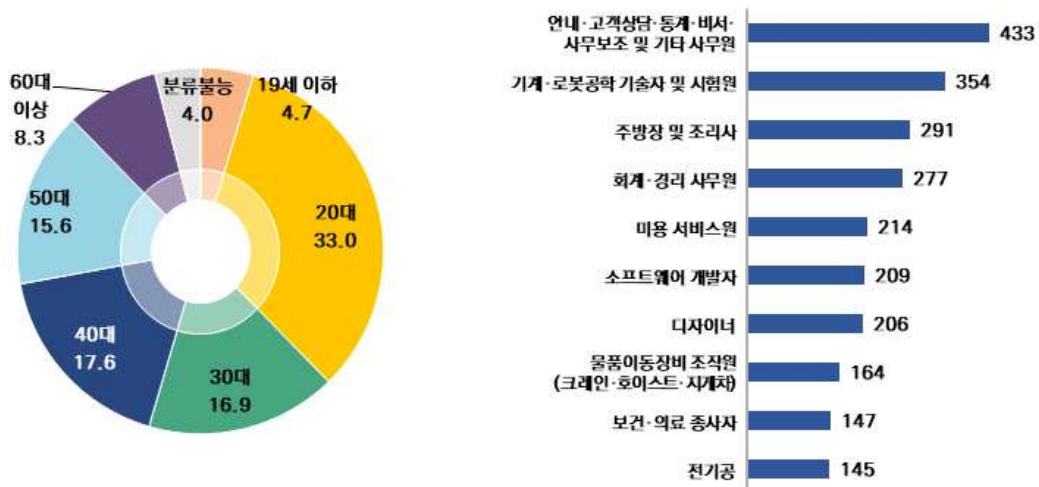
- 훈련생 연령별 양성훈련 공급현황(실시인원 기준)을 보면, 20대가 전체의 33.0%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40대(17.6%), 30대(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급량이 가장 많은 20대의 주요 훈련 공급 직종(KECO 소분류 기준)을 보면,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이 4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354명), 주방장 및 조리사(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연령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 명)

연령별 양성훈련 실시인원 비중(2020년 기준)

20대의 주요 훈련 공급 직종(top10)



- 세부 연령별, KECO별 세부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9세 이하 : 미용 서비스원(64명) > 제과제빵·떡제조원(61명) > 보건·의료 종사자(53명) 등의 순
- 30대 : 주방장 및 조리사(226명)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158명)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146명) 등의 순
- 40대 : 돌봄서비스 종사자(361명) > 주방장 및 조리사(197명)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187명) 등의 순
- 50대 : 돌봄서비스 종사자(704명)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146명) > 주방장 및 조리사(116명) 등의 순
- 60대 이상 : 돌봄서비스 종사자(491명)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70명) > 주방장 및 조리사(44명) 등의 순

[표 107] 연령별 양성훈련 공급현황(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분	'20년 실시 인원	연령별 실시인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분류 불능
전 체	9,289	435	3,064	1,567	1,631	1,448	771	373
026. 경영지원 사무원	54	3	24	12	11	4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81	13	277	130	131	24	6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3	2	35	4	2	-	-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서비스·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918	32	433	146	187	90	30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66	4	209	28	2	3	-	20
135. 정보보안 전문가	24	2	21	-	-	1	-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9	17	108	32	14	7	1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22	30	354	78	26	15	2	117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	-	-	-	-	-	12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8	-	-	-	-	-	-	38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	-	-	-	-	-	20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0	10	1	-	-	4	5	-
159. 제조·서비스 및 기타 산업·서비스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5	-	21	4	-	-	-	-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	1	15	14	16	8	2	-
307. 보건·의료 종사자	407	53	147	106	80	16	5	-
411. 작가·통번역가	52	-	27	12	12	1	-	-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36	1	20	8	4	3	-	-
415. 디자이너	322	23	206	50	32	8	3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	-	3	5	1	-	-
511. 미용 서비스원	531	64	214	121	97	30	5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5	-	2	3	6	4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16	42	291	226	197	116	44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1,659	1	17	85	361	704	491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3	-	-	2	-	1	-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723	8	164	158	177	146	70	-
701. 건설구조 기능원	37	-	5	4	5	16	7	-
702. 건축마감 기능원	57	2	7	15	15	13	5	-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45	5	44	47	58	61	30	-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63	1	5	10	7	20	5	15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20	10	61	10	2	1	-	36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64	5	17	5	-	-	-	37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13	-	-	-	-	-	-	13
824. 용접원	241	7	51	36	47	55	20	2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9	-	-	-	-	-	-	19
831. 전기공	404	35	145	60	53	56	34	21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7	1	14	8	2	2	-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92	61	75	85	47	19	5	-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76	2	54	65	35	19	1	-

- NCS 소분류별 공급현황을 보면, 19세 이하는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실시인원에 가장 많았고, 20대는 일반사무, 30대는 식음료서비스, 40대 이상은 의료기술지원에 대한 실시 인원이 가장 많았음

● 연령별, NCS별 세부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9세 이하 : 이·미용서비스(63명) > 제과·제빵·떡제조(61명) > 임상지원(53명) 등의 순
- 20대 : 일반사무(457명) > 회계(279명) > 식음료서비스(260명) 등의 순
- 30대 : 식음료서비스(162명) > 일반사무(158명) > 회계(132명) 등의 순
- 40대 : 의료기술지원(361명) > 일반사무(198명) > 적재기계운전(145명) 등의 순
- 50대 : 의료기술지원(704명) > 적재기계운전(132명) > 일반사무(94명) 등의 순
- 60대 이상 : 의료기술지원(491명) > 적재기계운전(68명) > 전기공사(34명) 등의 순

[표 108] 연령별 양성훈련 공급현황(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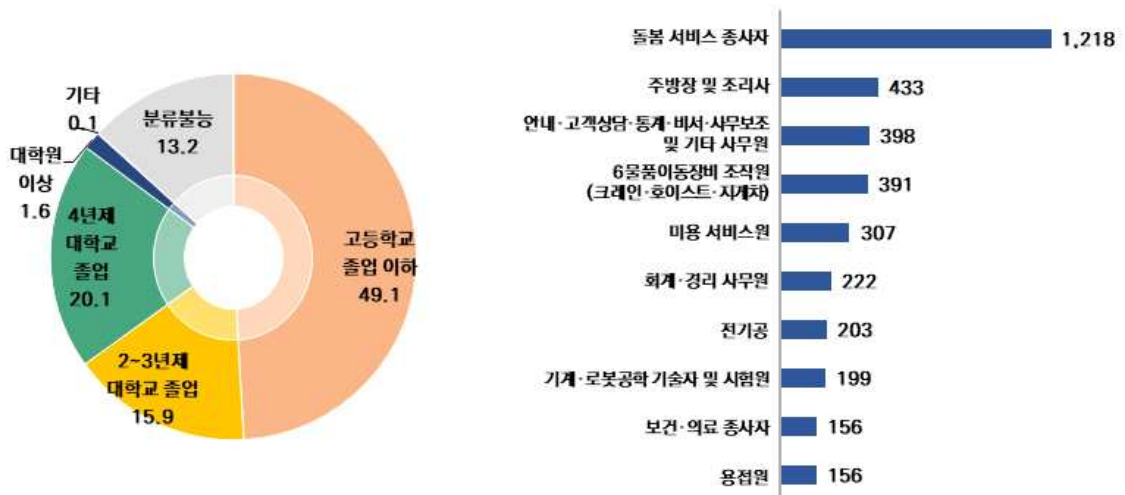
구분	'20년 실시 인원	연령별 실시인원						분류 불능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9,289	435	3,064	1,567	1,631	1,448	771	373
020203. 일반사무	972	35	457	158	198	94	30	-
020302. 회계	588	15	279	132	132	24	6	-
020401. 생산관리	200	9	152	32	5	2	-	-
060101. 의료기술지원	1,659	1	17	85	361	704	491	-
060204. 임상지원	407	53	147	106	80	16	5	-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56	1	15	14	16	8	2	-
080201. 디자인	256	16	166	44	21	7	2	-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4	1	27	9	4	3	-	-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9	-	-	3	5	1	-	-
110201. 청소	3	-	-	2	-	1	-	-
120101. 이·미용서비스	500	63	197	116	89	30	5	-
120202. 장례서비스	15	-	2	3	6	4	-	-
130101. 음식조리	278	14	31	64	87	58	24	-
130102. 식음료서비스	638	28	260	162	110	58	20	-
140301. 건축설계·감리	179	17	108	32	14	7	1	-
140302. 건축시공	94	2	12	19	20	29	12	-
140701. 토공기계운전	245	5	44	47	58	61	30	-
140704. 적재기계운전	581	5	111	120	145	132	68	-
140705. 양중기계운전	142	3	53	38	32	14	2	-
150101. 설계기획	20	-	-	-	-	-	-	20
150102. 기계설계	326	7	149	32	21	13	2	102
150201. 절삭가공	133	10	61	10	2	1	-	49
150301. 기계조립	152	8	85	19	1	-	-	39
150302. 기계생산관리	31	11	18	2	-	-	-	-
150502. 냉동공조설비	48	1	5	10	7	20	5	-
160104. 표면처리	19	-	-	-	-	-	-	19
160105. 용접	241	7	51	36	47	55	20	25
170101. 화학물질관리	20	-	-	-	-	-	-	20
190107. 전기공사	357	33	124	58	53	55	34	-
190108. 전기자동제어	53	3	35	10	2	3	-	-
190306. 반도체개발	41	-	-	-	-	-	-	41
200102. 정보기술개발	299	6	223	27	2	4	-	37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292	61	75	85	47	19	5	-
220101. 출판	143	7	88	22	23	2	1	-
220201. 공예	176	2	54	65	35	19	1	-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41	10	1	-	-	4	5	21
240201. 축산자원개발	31	1	17	5	8	-	-	-

- 훈련생 학력수준별 양성훈련 공급현황(실시인원 기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49.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20.1%), 2~3년제 대학교 졸업(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주요 훈련 공급 직종(KECO 소분류 기준)을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1,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장 및 조리사(433명),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3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학력수준별 양성훈련 공급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 명)

① 학력수준별 양성훈련 실시인원 비중(2020년 기준)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주요 훈련 공급 직종(top10)



- 세부 학력수준별, KECO별 세부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3년제 대학교 졸업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203명) > 주방장 및 조리사(192명) > 돌봄 서비스 종사자(157명) 등의 순
- 4년제 대학교 졸업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273명) >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227명) > 회계·경리 사무원(175명) 등의 순
- 대학원 이상 : 경영지원 사무원(26명) > 회계·경리 사무원(25명)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18명) 등의 순

● NCS 소분류별, NCS별 세부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의료기술지원(1,218명) > 일반사무(420명) > 적재기계운전(319명) 등의 순
- 2~3년제 대학교 졸업 : 일반사무(215명) > 의료기술지원(157명) > 식음료서비스(146명) 등의 순
- 4년제 대학교 졸업 : 일반사무(287명) > 식음료서비스(187명) > 회계(177명) 등의 순
- 대학원 이상 : 의료기술지원(26명) > 식음료서비스(18명) > 일반사무(16명) 등의 순

[표 110] 학력수준별 양성훈련 공급현황(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구분	'20년 실시 인원	연령별 실시인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분류 불능
전 체	9,289	4,562	1,479	1,869	146	8	1,225
020203. 일반사무	972	420	215	287	16	-	34
020302. 회계	588	226	119	177	10	2	54
020401. 생산관리	200	96	31	59	2	-	12
060101. 의료기술지원	1,659	1,218	157	111	26	-	147
060204. 임상지원	407	156	44	28	-	-	179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56	17	10	23	6	-	-
080201. 디자인	256	112	36	66	3	3	36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4	17	11	15	1	-	-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9	4	-	4	-	1	-
110201. 청소	3	1	-	2	-	-	-
120101. 아·미용서비스	500	289	63	51	2	-	95
120202. 장례서비스	15	6	1	8	-	-	-
130101. 음식조리	278	169	46	40	7	-	16
130102. 식음료서비스	638	264	146	187	18	-	23
140301. 건축설계·감리	179	96	34	45	1	-	3
140302. 건축시공	94	58	12	23	1	-	-
140701. 토공기계운전	245	131	44	59	5	-	6
140704. 적재기계운전	581	319	118	119	13	-	12
140705. 양중기계운전	142	72	36	18	5	-	11
150101. 설계기획	20	-	-	-	-	-	20
150102. 기계설계	326	81	39	59	1	1	145
150201. 절삭가공	133	19	8	27	-	-	79
150301. 기계조립	152	33	22	33	1	-	63
150302. 기계생산관리	31	16	6	9	-	-	-
150502. 냉동공조설비	48	25	16	7	-	-	-
160104. 표면처리	19	-	-	-	-	-	19
160105. 용접	241	156	27	22	3	-	33
170101. 화학물질관리	20	-	-	-	-	-	20
190107. 전기공사	357	194	59	67	5	-	32
190108. 전기자동제어	53	16	12	14	1	-	10
190306. 반도체개발	41	-	-	-	-	-	41
200102. 정보기술개발	299	76	25	99	2	1	96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292	124	63	94	5	-	6
220101. 출판	143	56	33	51	1	-	2
220201. 공예	176	60	41	63	11	-	1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17	1	2	-	-	21	-
240201. 축산자원개발	18	4	-	-	-	9	-

(4)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현황

- 최근 3년간 향상훈련 공급 현황을 보면, 실시 및 수료인원 모두 2018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및 사업주지원금훈련의 경우, 실시 인원이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추세로 나타남

[표 111] 향상훈련 공급현황 3개년 전체(사업유형별)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3,578	55,821	32,006	59,901	52,426	29,995	94.2	93.9	93.7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390	575	245	1,316	545	241	94.7	94.8	98.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	5,415	8,485	5,811	4,876	7,576	5,247	90.0	89.3	90.3
사업주지원금훈련	53,575	43,359	22,736	50,785	41,130	21,418	94.8	94.9	94.2
지역산업맞춤형	3,198	3,402	3,214	2,924	3,175	3,089	91.4	93.3	96.1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경영지원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등에서 최근 3년 지속 감소 추세로 나타남
- 반면, 경호·보안 종사자 및 물품이동장비 조작용의 경우, 2018년 대비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경영·인사 전문가, 미용 서비스원, 전기공 등에서 3년 연속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 최근 3년간 수료율의 경우,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세부 직종별로 보면, 특히 판매 종사자,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에서 2018년 수료율 대비 10%p 이상 감소하여 큰 감소폭을 보임

[표 112]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현황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4,158	56,285	32,615	60,418	52,835	30,529	94.2	93.9	93.6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	3	10	-	2	9	-	66.7	90.0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93	42	-	92	41	-	98.9	97.6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	45	-	-	42	-	-	93.3
022. 경영인사 전문가	310	318	616	296	227	534	95.5	71.4	86.7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31	23	45	31	23	42	100.0	100.0	93.3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554	55	28	543	55	27	98.0	100.0	96.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1,791	800	47	1,771	791	47	98.9	98.9	100.0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4,158	56,285	32,615	60,418	52,835	30,529	94.2	93.9	93.6
026. 경영지원 사무원	4,962	4,189	2,105	4,682	3,933	2,012	94.4	93.9	95.6
027. 회계경리 사무원	825	1,139	716	714	1,013	623	86.5	88.9	87.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629	3,591	2,306	5,053	3,225	2,139	89.8	89.8	92.8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584	1,617	749	2,362	1,426	664	91.4	88.2	88.7
031. 금융보험 전문가	393	33	57	392	33	55	99.7	100.0	96.5
032. 금융보험 사무원	7,622	8,326	704	7,592	8,282	696	99.6	99.5	98.9
033. 금융보험 영업원	106	72	87	105	72	86	99.1	100.0	98.9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69	-	-	67	-	-	97.1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	2	-	-	2	-	-	100.0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8	-	-	8	-	-	44.4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95	32	57	70	26	56	73.7	81.3	98.2
134.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77	424	303	156	375	287	88.1	88.4	94.7
135. 정보보안 전문가	-	-	1	-	-	1	-	-	100.0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65	1,979	1,238	2,390	1,898	1,213	97.0	95.9	98.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66	3,107	2,278	3,071	2,852	2,142	91.2	91.8	94.0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16	233	85	540	219	77	87.7	94.0	90.6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28	504	159	311	478	151	94.8	94.8	95.0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4	441	300	334	412	263	91.8	93.4	87.7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6	47	34	262	45	34	85.6	95.7	100.0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9	-	-	29	-	-	100.0	-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166	1	-	5,111	1	-	98.9	100.0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	2	-	8	2	-	88.9	100.0	-
214. 문라기술예능 강사	15	-	-	14	-	-	93.3	-	-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8	11	-	18	11	-	100.0	100.0	-
222. 법률 사무원	746	55	16	746	55	12	100.0	100.0	75.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9	1,359	342	488	1,153	304	85.8	84.8	88.9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1,367	1,558	327	1,233	1,512	318	90.2	97.0	97.2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13	-	-	8	-	-	61.5
304. 간호사	12	-	-	0	-	-	0.0	-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4	-	17	4	-	11	100.0	-	64.7
307. 보건의료 종사자	1,140	280	236	917	248	209	80.4	88.6	88.6
411. 작가통번역가	-	40	61	-	32	52	-	80.0	85.2
414. 창작공연 전문가	-	-	36	-	-	23	-	-	63.9
415. 디자이너	268	286	182	235	268	162	87.7	93.7	89.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2	-	-	2	-	-	100.0
511. 미용 서비스원	120	127	195	101	99	146	84.2	78.0	74.9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2	-	4	2	-	4	100.0	-	100.0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20	-	-	18	-	-	90.0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65	873	708	429	828	644	92.3	94.8	91.0
541. 경호보안 종사자	86	435	1,748	83	432	1,615	96.5	99.3	92.4
542. 경비원	3,107	6,618	4,379	2,939	5,816	3,920	94.6	87.9	89.5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4,665	5,541	5,343	4,501	5,402	5,240	96.5	97.5	98.1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078	-	12	958	-	9	88.9	-	75.0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554	430	151	543	402	144	98.0	93.5	95.4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	-	41	-	-	37	-	-	90.2
615. 판매 종사자	775	804	194	762	782	167	98.3	97.3	86.1

구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4,158	56,285	32,615	60,418	52,835	30,529	94.2	93.9	93.6
621. 항공기산업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22	35	-	21	34	-	95.5	97.1	-
622. 자동차 운전원	-	17	13	-	17	0	-	100.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직원	753	1,120	1,868	734	1,093	1,853	97.5	97.6	99.2
701. 건설구조 기능원	4	6	8	4	5	7	100.0	83.3	87.5
702. 건축마감 기능원	35	42	22	34	37	22	97.1	88.1	100.0
703. 배관공	3	10	-	3	10	-	100.0	100.0	-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96	388	267	191	369	255	97.4	95.1	95.5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0	-	-	10	-	-	100.0	-	-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0	-	-	10	-	-	100.0	-	-
811. 기계장비 설치장비원	452	338	530	436	315	516	96.5	93.2	97.4
812. 운송장비 정비원	499	1,078	57	475	1,016	55	95.2	94.2	96.5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	223	268	111	211	258	93	94.6	96.3	83.8
814. 냉난방 설비 조직원	-	-	2	-	-	1	-	-	50.0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직원	-	64	296	-	61	282	-	95.3	95.3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267	401	176	236	376	163	88.4	93.8	92.6
817. 운송장비 조립원	169	164	53	154	159	46	91.1	97.0	86.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332	408	278	271	382	258	81.6	93.6	92.8
822. 판금원 및 제단원	57	-	-	57	-	-	100.0	-	-
824. 용접원	362	617	335	318	567	310	87.8	91.9	92.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6	20	19	15	20	17	93.8	100.0	89.5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133	70	-	122	67	-	91.7	95.7	-
831. 전기공	6	182	300	5	145	269	83.3	79.7	89.7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96	384	76	286	356	72	96.6	92.7	94.7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426	387	116	393	352	115	92.3	91.0	99.1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2,979	2,737	561	2,806	2,704	556	94.2	98.8	99.1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335	306	226	325	296	210	97.0	96.7	92.9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29	243	7	109	226	5	84.5	93.0	71.4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1	7	-	1	7	-	100.0	100.0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46	71	58	44	68	58	95.7	95.8	100.0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468	348	335	454	344	320	97.0	98.9	95.5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98	57	26	93	54	22	94.9	94.7	84.6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17	-	-	14	-	-	82.4	-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4	-	-	3	-	-	75.0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87	374	363	358	341	318	92.5	91.2	87.6
872. 식품 가공 기능원	77	-	173	76	-	165	98.7	-	95.4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51	127	48	51	127	47	100.0	100.0	97.9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339	456	238	306	405	193	90.3	88.8	81.1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41	-	-	139	-	-	98.6	-	-
y. 분류불능	1,970	165	-	1,743	154	-	88.5	93.3	-

(5) 훈련유형별 향상훈련 공급 현황(2020년 기준)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내 향상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32,00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9,995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수료율은 93.7%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별로 보면, 수료인원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5,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비원(3,920명),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2,0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3] 향상훈련 공급현황 전체(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006	29,995	93.7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10	9	90.0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45	43	95.6
022. 경영·인사 전문가	619	538	86.9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45	42	93.3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8	27	96.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47	47	100.0
026. 경영지원 사무원	2,105	2,012	95.6
027. 회계·경리 사무원	716	623	87.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238	2,073	92.6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749	664	88.7
031. 금융·보험 전문가	57	55	96.5
032. 금융·보험 사무원	704	696	98.9
033. 금융·보험 영업원	87	86	98.9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37	36	97.3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303	287	94.7
135. 정보보안 전문가	1	1	100.0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38	1,213	98.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931	1,838	95.2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3	65	89.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9	124	96.1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49	318	91.1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5	42	93.3
222. 법률 사무원	16	12	75.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342	304	88.9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327	318	97.2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13	8	61.5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7	11	64.7
307. 보건·의료 종사자	236	209	88.6
411. 작가·통번역가	61	52	85.2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36	23	63.9
415. 디자이너	182	162	89.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	2	100.0
511. 미용 서비스원	195	146	74.9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4	4	100.0
531. 주방장 및 조리사	708	644	91.0
541. 경호·보안 종사자	1,748	1,615	92.4
542. 경비원	4,379	3,920	89.5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343	5,240	98.1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2	9	75.0
612.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151	144	95.4

구분	2020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006	29,995	93.7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41	37	90.2
615. 판매 종사자	194	167	86.1
622. 자동차 운전원	13	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868	1,853	99.2
701. 건설구조 기능원	8	7	87.5
702. 건축마감 기능원	22	22	100.0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67	255	95.5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515	501	97.3
812. 운송장비 정비원	57	55	96.5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8	75	85.2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2	1	50.0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259	253	97.7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176	163	92.6
817. 운송장비 조립원	53	46	86.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65	245	92.5
824. 용접원	310	288	92.9
831. 전기공	279	249	89.2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76	72	94.7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116	115	99.1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574	569	99.1
835. 전기·전자 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26	210	92.9
836.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7	5	71.4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7	7	100.0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8	58	100.0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35	320	95.5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6	22	84.6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63	318	87.6
872. 식품 가공 기능원	187	180	96.3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	47	97.9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238	193	81.1

- NCS 소분류별 향상훈련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경호·경비가 6,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술지원(5,759명), 일반사무(3,3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소방, 청소년지도,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전자부품기획·생산의 경우, 7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114] 향상훈련 공급현황 전체(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2020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006	29,995	93.7
010101. 프로젝트관리	41	36	87.8
020101. 경영기획	188	176	93.6
020103. 마케팅	238	228	95.8
020201. 총무	185	183	98.9
020202. 인사조직	51	50	98.0
020203. 일반사무	3,320	3,078	92.7
020301. 재무	43	40	93.0
020302. 회계	736	642	87.2
020401. 생산관리	299	266	89.0
020402. 품질관리	2,082	1,910	91.7
020403. 무역유통관리	126	123	97.6
030101. 금융영업	470	466	99.1
030103. 신용분석	26	26	100.0
030104. 자산운용	77	74	96.1
030105. 금융영업지원	35	35	100.0
030202. 보험영업·계약	211	209	99.1
040301. 직업교육	179	178	99.4
050102. 지식재산관리	25	20	80.0
050201. 소방	14	9	64.3
060101. 의료기술지원	5,759	5,628	97.7
060204. 임상지원	47	38	80.9
070101. 사회복지정책	57	46	80.7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235	220	93.6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31	28	90.3
070202. 청소년지도	23	16	69.6
070301. 보육	22	19	86.4
080201. 디자인	81	71	87.7
080301. 문화콘텐츠기획	7	7	100.0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4	31	70.5
080304. 영상제작	1	1	100.0
090301. 선박운항	15	15	100.0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37	37	100.0
100101. 일반·해외영업	331	280	84.6
100303. 상품중개 경매	29	28	96.6
110101. 경비·경호	6,126	5,534	90.3
110201. 청소	12	9	75.0
120101. 아·미용서비스	188	140	74.5
120202. 장례서비스	4	4	100.0
130101. 음식조리	286	260	90.9
130102. 식음료서비스	422	384	91.0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635	634	99.8
140301. 건축설계·감리	237	213	89.9
140302. 건축시공	28	27	96.4
140402. 플랜트시공	30	30	100.0
140701. 토공기계운전	266	255	95.9
140704. 적재기계운전	1,810	1,796	99.2
140705. 양중기계운전	59	57	96.6
150101. 설계기획	61	58	95.1
150102. 기계설계	965	918	95.1
150201. 절삭가공	91	82	90.1
150202. 특수가공	21	20	95.2
150301. 기계조립	609	586	96.2
150302. 기계생산관리	492	486	98.8
150401. 기계품질관리	326	323	99.1

구분	2020년 기준 향상훈련 공급 현황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006	29,995	93.7
150502. 냉동공조설비	110	107	97.3
150601. 자동차설계	140	133	95.0
150603. 자동차정비	57	55	96.5
151001. 사출금형	146	134	91.8
151002. 프레스금형	100	91	91.0
151101. 스마트팩토리설계	73	69	94.5
151102.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설치	5	4	80.0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85	71	83.5
160102. 금속재료제조	4	4	100.0
160103. 금속가공	26	26	100.0
160105. 용접	315	293	93.0
170102. 화학공정관리	67	63	94.0
170201. 석유 천연가스 제조	192	190	99.0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36	33	91.7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69	67	97.1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5	3	60.0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16	14	87.5
190102. 발전설비운영	74	74	100.0
190103. 송배전 설비	17	16	94.1
190105. 전기기기제작	56	51	91.1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55	152	98.1
190107. 전기공사	319	288	90.3
190108. 전기자동제어	154	148	96.1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	2	100.0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3	5	38.5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40	39	97.5
190303. 정보통신기기 개발	31	31	100.0
190305. 전자부품개발	19	18	94.7
190306. 반도체개발	218	209	95.9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17	16	94.1
190308. 로봇개발	19	19	100.0
190311. 3D프린터개발	5	5	100.0
200101. 정보기술전략 계획	239	224	93.7
200102. 정보기술개발	211	203	96.2
200103. 정보기술운영	18	15	83.3
200104. 정보기술관리	20	20	100.0
200201. 유선통신구축	1	1	100.0
200203. 통신서비스	26	26	100.0
210101. 식품가공	281	273	97.2
210103. 식품유통	1	1	100.0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363	318	87.6
220101. 출판	172	153	89.0
220201. 공예	238	193	81.1
230401. 환경경영	13	13	100.0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32	32	100.0
230601. 산업안전관리	56	47	83.9
230602. 산업보건관리	10	10	100.0
240201. 축산자원개발	7	6	85.7

- 2020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한 인원은 2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료한 인원은 241명으로 수료율은 98.4%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모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나타남

[표 115] 향상훈련 공급현황-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45	241	98.4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5	241	98.4

- NCS 소분류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자동차설계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관리(64명), 기계설계(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수료율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97% 이상의 높은 수료율을 보임

[표 116] 향상훈련 공급현황-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45	241	98.4
020402. 품질관리	64	64	100.0
150101. 설계기획	10	10	100.0
150102. 기계설계	46	45	97.8
150601. 자동차설계	112	109	97.3
230401. 환경경영	13	13	100.0

- 2020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5,8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료한 인원은 5,247명으로 수료율은 90.3%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수료인원이 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장 및 조리사(644명),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5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수료율을 보면, 비교적 실시인원의 규모가 작은 연극·영화·방송·전문가,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건축마감 기능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에서 수료율이 100%로 나타남

[표 117] 향상훈련 공급현황-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5,811	5,247	90.3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10	9	90.0
026. 경영지원 사무원	25	19	76.0
027. 회계·경리 사무원	587	498	84.8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3	1	33.3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24	548	87.8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1	10	90.9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208	89.7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83	263	92.9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4	38	70.4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5	10	66.7
307. 보건·의료 종사자	47	38	80.9
411. 작가·통번역가	61	52	85.2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36	23	63.9
415. 디자이너	160	141	88.1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	2	100.0
511. 미용 서비스원	113	98	86.7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4	4	100.0
531. 주방장 및 조리사	708	644	91.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747	717	96.0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2	9	75.0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550	539	98.0
701. 건설구조 기능원	6	5	83.3
702. 건축마감 기능원	22	22	100.0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66	255	95.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06	104	98.1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6	6	100.0
824. 용접원	274	254	92.7
831. 전기공	254	224	88.2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55	313	88.2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238	193	81.1

- NCS 소분류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의료기술지원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사무(633명), 회계(5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80% 이상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수료율이 57.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18] 향상훈련 공급현황-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5,811	5,247	90.3
020101. 경영기획	26	19	73.1
020203. 일반사무	633	557	88.0
020302. 회계	587	498	84.8
020401. 생산관리	7	5	71.4
060101. 의료기술지원	762	727	95.4
060204. 임상지원	47	38	80.9
070101. 사회복지정책	35	24	68.6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7	4	57.1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12	10	83.3
080201. 디자인	47	38	80.9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38	25	65.8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2	2	100.0
110201. 청소	12	9	75.0
120101. 아미용서비스	106	92	86.8
120202. 장례서비스	4	4	100.0
130101. 음식조리	286	260	90.9
130102. 식음료서비스	422	384	91.0
140301. 건축설계·감리	232	208	89.7
140302. 건축시공	28	27	96.4
140701. 토공기계운전	266	255	95.9
140704. 적재기계운전	491	482	98.2
140705. 양중기계운전	59	57	96.6
150102. 기계설계	276	256	92.8
150201. 절삭가공	1	1	100.0
150301. 기계조립	3	3	100.0
150502. 냉동공조설비	106	104	98.1
160105. 용접	274	254	92.7
190107. 전기공사	254	224	88.2
190311. 3D프린터개발	5	5	100.0
200102. 정보기술개발	11	10	90.9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355	313	88.2
220101. 출판	172	153	89.0
220201. 공예	238	193	81.1
240201. 축산자원개발	7	6	85.7

- 2020년 사업주지원금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22,7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료한 인원은 21,418명으로 수료율은 94.2%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수료인원이 4,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비원(3,920명),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1,90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9] 향상훈련 공급현황-사업주지원금훈련(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사업주지원금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2,736	21,418	94.2
022. 경영·인사 전문가	349	293	84.0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45	42	93.3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8	27	96.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47	47	100.0
026. 경영지원 사무원	1,823	1,741	95.5
027. 회계·경리 사무원	129	125	96.9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051	1,907	93.0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25	116	92.8
031. 금융·보험 전문가	57	55	96.5
032. 금융·보험 사무원	704	696	98.9
033. 금융·보험 영업원	87	86	98.9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8	18	100.0
135. 정보보안 전문가	1	1	100.0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06	1,005	99.9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5	47	55.3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3	65	89.0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	29	87.9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50	221	88.4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4	34	100.0
222. 법률 사무원	16	12	75.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88	266	92.4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327	318	97.2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	1	50.0
307. 보건·의료 종사자	189	171	90.5
415. 디자이너	9	8	88.9
511. 미용 서비스원	82	48	58.5
541. 경호·보안 종사자	1,748	1,615	92.4
542. 경비원	4,379	3,920	89.5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4,596	4,523	98.4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1	144	95.4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41	37	90.2

구분	사업주지원금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2,736	21,418	94.2
615. 판매 종사자	194	167	86.1
622. 자동차 운전원	13	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318	1,314	99.7
701. 건설구조 기능원	2	2	100.0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	0	0.0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207	198	95.7
812. 운송장비 정비원	57	55	96.5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2	69	84.1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2	1	50.0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117	115	98.3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176	163	92.6
817. 운송장비 조립원	53	46	86.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55	235	92.2
824. 용접원	29	28	96.6
831. 전기공	25	25	100.0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76	72	94.7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116	115	99.1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561	556	99.1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86	171	91.9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7	5	71.4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7	7	100.0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8	58	100.0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35	320	95.5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26	22	84.6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	5	62.5
872. 식품 가공 기능원	4	4	100.0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	47	97.9

- NCS 소분류별 사업주지원금훈련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경호·경비가 6,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기술지원(4,997명), 일반사무(2,6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80% 이상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으나, 냉동공조설비, 청소년지도, 제과·제빵·떡제조,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이·미용서비스, 전자부품기획·생산의 경우 8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전자부품기획·생산의 경우,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0] 향상훈련 공급현황-사업주지원금훈련(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사업주지원금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2,736	21,418	94.2
010101. 프로젝트관리	41	36	87.8
020101. 경영기획	89	86	96.6
020103. 마케팅	238	228	95.8
020201. 총무	185	183	98.9
020202. 인사조직	51	50	98.0
020203. 일반사무	2,619	2,457	93.8
020301. 재무	43	40	93.0
020302. 회계	149	144	96.6
020401. 생산관리	241	216	89.6
020402. 품질관리	1,581	1,448	91.6
020403. 무역·유통관리	126	123	97.6
030101. 금융영업	470	466	99.1
030103. 신용분석	26	26	100.0
030104. 자산운용	77	74	96.1
030105. 금융영업지원	35	35	100.0
030202. 보험영업·계약	211	209	99.1
040301. 직업교육	52	51	98.1
050102. 지식재산관리	25	20	80.0
050201. 소방	1	1	100.0
060101. 의료기술지원	4,997	4,901	98.1
070101. 사회복지정책	22	22	100.0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228	216	94.7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19	18	94.7
070202. 청소년지도	23	16	69.6
070301. 보육	22	19	86.4
080201. 디자인	34	33	97.1
080304. 영상제작	1	1	100.0
090301. 선박운항	15	15	100.0
100101. 일반·해외영업	331	280	84.6
100303. 상품중개 판매	29	28	96.6
110101. 경비·경호	6,126	5,534	90.3
120101. 이·미용서비스	82	48	58.5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635	634	99.8
140301. 건축설계·감리	5	5	100.0
140402. 플랜트시공	30	30	100.0
140704. 적재기계운전	1,319	1,314	99.6
150101. 설계기획	51	48	94.1
150102. 기계설계	246	230	93.5

구분	사업주지원금훈련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22,736	21,418	94.2
150201. 철삭가공	69	63	91.3
150202. 특수가공	21	20	95.2
150301. 기계조립	241	230	95.4
150302. 기계생산관리	11	10	90.9
150401. 기계품질관리	10	9	90.0
150502. 냉동공조설비	4	3	75.0
150601. 자동차설계	28	24	85.7
150603. 자동차정비	57	55	96.5
151001. 사출금형	146	134	91.8
151002. 프레스금형	100	91	91.0
151101. 스마트팩토리설계	27	27	100.0
151102.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설치	5	4	80.0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85	71	83.5
160102. 금속재료제조	4	4	100.0
160103. 금속가공	26	26	100.0
160105. 용접	34	33	97.1
170102. 화학공정관리	67	63	94.0
170201. 석유·천연가스 제조	192	190	99.0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36	33	91.7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5	3	60.0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16	14	87.5
190102. 발전설비운영	74	74	100.0
190103. 송배전 설비	17	16	94.1
190105. 전기기기제작	56	51	91.1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55	152	98.1
190107. 전기공사	49	49	100.0
190108. 전기자동제어	101	96	95.0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	2	100.0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3	5	38.5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40	39	97.5
190303. 정보통신기기 개발	31	31	100.0
190305. 전자부품개발	19	18	94.7
190306. 반도체개발	79	75	94.9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17	16	94.1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42	38	90.5
200102. 정보기술개발	112	110	98.2
200103. 정보기술운영	18	15	83.3
200104. 정보기술관리	20	20	100.0
200201. 유선통신구축	1	1	100.0
200203. 통신서비스	26	26	100.0
210101. 식품가공	98	97	99.0
210103. 식품유통	1	1	100.0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8	5	62.5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32	32	100.0
230601. 산업안전관리	56	47	83.9
230602. 산업보건관리	10	10	100.0

-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에 참여한 인원은 3,21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료한 인원은 3,089명으로 수료율은 96.1%로 나타남
- 직종 소분류 별로 보면,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의 수료인원이 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지원 사무원(252명), 경영·인사 전문가(2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21] 향상훈련 공급현황-지역산업맞춤형(2020년 기준, KECO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14	3,089	96.1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45	43	95.6
022. 경영·인사 전문가	270	245	90.7
026. 경영지원 사무원	257	252	98.1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84	165	89.7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26	26	100.0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285	269	94.4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18	1,287	97.6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6	95	99.0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9	97	98.0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	8	72.7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13	8	61.5
415. 디자이너	13	13	100.0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202	199	98.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직원	142	138	97.2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10	10	100.0
824. 용접원	7	6	85.7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13	13	100.0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40	39	97.5
872. 식품 가공 기능원	183	176	96.2

- NCS 소분류별 지역산업맞춤형의 공급현황을 보면, 실시인원은 기계생산관리가 4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관리(437명), 기계설계(3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CS 소분류별 수료율을 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80% 이상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소방의 경우 수료율이 61.5%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2] 향상훈련 공급현황-지역산업맞춤형(2020년 기준, NCS 소분류)

(단위 : 명, %)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실시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전 체	3,214	3,089	96.1
020101. 경영기획	73	71	97.3
020203. 일반사무	68	64	94.1
020401. 생산관리	51	45	88.2
020402. 품질관리	437	398	91.1
040301. 직업교육	127	127	100.0
050201. 소방	13	8	61.5
080301. 문화콘텐츠기획	7	7	100.0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6	6	100.0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35	35	100.0
150102. 기계설계	397	387	97.5
150201. 절삭가공	21	18	85.7
150301. 기계조립	365	353	96.7
150302. 기계생산관리	481	476	99.0
150401. 기계품질관리	316	314	99.4
151101. 스마트팩토리설계	46	42	91.3
160105. 용접	7	6	85.7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69	67	97.1
190107. 전기공사	16	15	93.8
190108. 전기자동제어	53	52	98.1
190306. 반도체개발	139	134	96.4
190308. 로봇개발	19	19	100.0
200101. 정보기술전략 계획	197	186	94.4
200102. 정보기술개발	88	83	94.3
210101. 식품가공	183	176	96.2

3) 교육훈련 과정별 지역 유출입 분석

- 지역 내 교육훈련의 지역 유출입 분석을 위해 HRD-Net에 등록된 2020년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지역 유출은 전체 2020년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중, 훈련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가 충남지역 외 타 지역이나, 충남지역 소재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의 인원내 대해 직종별, NCS별 분석을 실시함
- 지역 유입은 전체 2020년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중, 훈련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교육훈련을 수강한 훈련기관의 소재지가 충남지역이나, 거주지가 타 지역인 훈련생의 인원내 대해 직종별, NCS별 분석을 실시함

(1) 양성훈련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거주 양성 훈련생¹⁴⁾ 중 타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총 2,123명으로, 전체 충남 지역 거주 훈련생(9,800명)의 약 21.7%로 나타남
 - 세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이 1,278명으로 유출인원의 60.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전/충북/세종(628명), 전라권(1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 별로 유출 인원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방송직(212명),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양성훈련 지역 유출 현황

(단위 : 명)

2020년 양성훈련 지역유출 현황



2020년 양성훈련 지역유출 직종 TOP10



14) 충남지역 거주 훈련생은 HRD-NET 제공 자료 상 거주지역이 '충남'인 훈련생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123] 양성훈련 지역유출(2020년 기준, KECO 중분류)

(단위 : 명, %)

구분	충남 거주 교육생	충남지역 수강자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유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9,800	7,677	78.3	2,123	21.7
01.관리직(임원·부서장)	5	0	0.0	5	100.0
02.경영·행정·사무직	1,888	1,472	78.0	416	22.0
03.금융·보험직	3	0	0.0	3	10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	0	0.0	6	100.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78	173	45.8	205	54.2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9	163	71.2	66	28.8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69	464	81.5	105	18.5
21.교육직	11	0	0.0	11	100.0
22.법률직	36	0	0.0	36	100.0
23.사회복지·종교직	94	51	54.3	43	45.7
30.보건·의료직	434	397	91.5	37	8.5
41.예술·디자인·방송직	593	381	64.2	212	35.8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	0	0.0	1	100.0
51.마용·예식 서비스직	536	461	86.0	75	14.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7	0	0.0	7	100.0
53.음식 서비스직	1,056	862	81.6	194	18.4
54.경호·경비직	2	0	0.0	2	100.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689	1,624	96.2	65	3.8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0	3	30.0	7	70.0
61.영업·판매직	9	0	0.0	9	100.0
62.운전·운송직	438	431	98.4	7	1.6
70.건설·채굴직	338	237	70.1	101	29.9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18	73	33.5	145	66.5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93	168	87.0	25	13.0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28	295	68.9	133	31.1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6	0	0.0	26	100.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	0	0.0	9	100.0
86.섬유·의복 생산직	14	0	0.0	14	100.0
87.식품 가공·생산직	368	281	76.4	87	23.6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92	141	73.4	51	26.6
90.농림어업직	20	0	0.0	20	100.0

- 충남 외 타 지역에서 교육훈련을 수강한 유출인원의 학력수준별 유출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18명으로 전체의 유출인원의 33.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603명), 2~3년제 대학교 졸업(2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이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이상은 음식 서비스직, 4년제 대학교 졸업은 경영·행정·사무직이 가장 많았음

[표 124] 학력수준별 양성훈련 유출 현황(2020년 기준, KECO 중분류)

(단위 : 명, %)

구분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 (유출)	학력수준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기타	분류불능
전 체	2,123	718	283	603	62	3	454
01.관리직(임원·부서장)	5	-	-	-	-	-	5
02.경영·행정·사무직	416	73	32	134	7	-	170
03.금융·보험직	3	1	-	-	-	-	2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	2	2	1	1	-	-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5	65	17	87	4	-	32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	29	3	20	4	1	9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5	15	18	31	4	-	37
21.교육직	11	-	-	2	-	-	9
22.법률직	36	4	6	23	2	-	1
23.사회복지·종교직	43	10	-	11	1	-	21
30.보건·의료직	37	14	3	4	-	-	16
41.예술·디자인·방송직	212	65	37	74	1	1	34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	-	-	-	1	-	-
51.미용·예식 서비스직	75	38	12	9	3	-	13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7	3	2	1	-	-	1
53.음식 서비스직	194	77	39	53	11	-	14
54.경호·경비직	2	-	-	-	-	-	2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5	48	5	5	3	-	4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7	3	1	3	-	-	-
61.영업·판매직	9	1	-	6	2	-	-
62.운전·운송직	7	4	2	1	-	-	-
70.건설·채굴직	101	49	14	22	5	-	11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5	79	16	10	3	-	37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5	18	3	2	-	-	2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33	50	27	34	4	-	18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26	13	-	13	-	-	-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9	1	1	2	-	-	5
86.섬유·의복 생산직	14	6	3	4	1	-	-
87.식품 가공·생산직	87	32	21	29	3	-	2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51	10	15	19	2	1	4
90.농림어업직	20	8	4	3	-	-	5

- NCS 세분류 기준 타지역 유출 교육훈련 분야 상위 20개를 보면, 사무행정의 유출인원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응용SW엔지니어링(118명), 내선공사(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출 상위 20개 분야 중, 게임콘텐츠제작, 법무, QM/QC관리, 자동차새시정비의 경우, 지역 내 개설된 과정이 없어, 훈련생들이 타 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응용SW엔지니어링의 경우, 지역 내에도 개설된 분야이나, 타 지역 수강자의 비율이 52.9%로 절반 이상의 교육생이 타 지역에서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5] 양성훈련 지역유출 NCS 상위 20개(2020년 기준, NCS 세분류)

(단위 : 명, %)

순위	NCS 세분류	충남 거주 교육생	충남지역 수강자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유출)		지역 내 개설 여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02020302. 사무행정	1,048	912	87.0	136	13.0	○
2	20010202. 응용SW엔지니어링	223	105	47.1	118	52.9	○
3	19010701. 내선공사	378	283	74.9	95	25.1	○
4	02030201. 회계감사	426	346	81.2	80	18.8	○
5	13010203. 커피관리	671	596	88.8	75	11.2	○
6	02030202. 세무	262	190	72.5	72	27.5	○
7	06010108. 요양지원	1,689	1,624	96.2	65	3.8	○
8	08020104. 디지털디자인	245	184	75.1	61	24.9	○
9	13010101. 한식조리	266	207	77.8	59	22.2	○
10	21020102. 제빵	232	190	81.9	42	18.1	○
11	08030205. 게임콘텐츠제작	39	0	0.0	39	100.0	X
12	05010101. 법무	36	0	0.0	36	100.0	X
13	06020403. 감염관리	431	397	92.1	34	7.9	○
14	12010101. 헤어미용	232	200	86.2	32	13.8	○
15	21020101. 제과	123	91	74.0	32	26.0	○
16	22020109. 단위화웨이장식	171	139	81.3	32	18.7	○
17	02040201. QM/QC관리	32	0	0.0	32	100.0	X
18	15060303. 자동차새시정비	31	0	0.0	31	100.0	X
19	13010102. 양식조리	72	42	58.3	30	41.7	○
20	15010201. 기계요소설계	237	207	87.3	30	12.7	○

-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한 양성 훈련생¹⁵⁾ 중 거주지가 충남 외 타 지역인 훈련생은 1,219명으로, 전체의 약 13.1% 수준임
- 세부 직종별로 보면, 운전·운송직의 유입인원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124명),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26] 양성훈련 지역유입(2020년 기준, KECO 중분류)

(단위 : 명, %)

구분	충남 교육 훈련 참여 교육생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타지역 거주자(유입)		거주지 분류불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9,289	7,677	82.6	1,219	13.1	393	4.2
01.관리직(임원·부서장)	0	0	0.0	0	0.0	0	0.0
02.경영·행정·사무직	1,596	1,472	92.2	124	7.8	0	0.0
03.금융·보험직	0	0	0.0	0	0.0	0	0.0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0	0	0.0	0	0.0	0	0.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90	173	59.7	97	33.4	20	6.9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9	163	91.1	16	8.9	0	0.0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37	464	63.0	67	9.1	206	28.0
21.교육직	0	0	0.0	0	0.0	0	0.0
22.법률직	0	0	0.0	0	0.0	0	0.0
23.사회복지·종교직	56	51	91.1	5	8.9	0	0.0
30.보건·의료직	407	397	97.5	10	2.5	0	0.0
41.예술·디자인·방송직	419	381	90.9	38	9.1	0	0.0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0	0	0.0	0	0.0	0	0
51.미용·예식 서비스직	546	461	84.4	85	15.6	0	0.0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0	0	0.0	0	0.0	0	0.0
53.음식 서비스직	916	862	94.1	54	5.9	0	0.0
54.경호·경비직	0	0	0.0	0	0.0	0	0.0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659	1,624	97.9	35	2.1	0	0.0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3	3	100.0	0	0.0	0	0.0
61.영업·판매직	0	0	0.0	0	0.0	0	0.0
62.운전·운송직	723	431	59.6	291	40.2	1	0.1
70.건설·채굴직	339	237	69.9	102	30.1	0	0.0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47	73	29.6	86	34.8	88	35.6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273	168	61.5	48	17.6	57	20.9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31	295	68.4	115	26.7	21	4.9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0	0	0.0	0	0.0	0	0.0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	0	0.0	0	0.0	0	0.0
86.섬유·의복 생산직	0	0	0.0	0	0.0	0	0.0
87.식품 가공·생산직	292	281	96.2	11	3.8	0	0.0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76	141	80.1	35	19.9	0	0.0
90.농림어업직	0	0	0.0	0	0.0	0	0.0

15)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강 훈련생은 HRD-NET 제공 자료 상 훈련기관소재지역이 '충남'인 훈련생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 NCS 세분류 기준 지역 유입 교육훈련 분야 상위 20개를 보면, 지게차운전의 유입인원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선공사(74명), 사무행정(6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출 상위 20개 분야 중, 타워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조종),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의 경우,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80% 이상이 충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7] 양성훈련 지역유입 NCS 상위 20개(2020년 기준, NCS 세분류)

(단위 : 명, %)

순 위	NCS 세분류	충남 교육 훈련 참여 교육생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타지역 거주자(유입)		거주지 분류불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14070401. 지게차운전	581	383	65.9	197	33.9	1	0.2
2	19010701. 내선공사	357	283	79.3	74	20.7	0	0.0
3	02020302. 사무행정	972	912	93.8	60	6.2	0	0.0
4	20010202. 응용SW엔지니어링	161	105	65.2	56	34.8	0	0.0
5	15030102. 기계소프트웨어개발	113	41	36.3	53	46.9	19	16.8
6	14070106. 굴착기운전	205	153	74.6	52	25.4	0	0.0
7	15020104. CAM	84	39	46.4	45	53.6	0	0.0
8	02030201. 회계·감사	390	346	88.7	44	11.3	0	0.0
9	13010203. 커피관리	638	596	93.4	42	6.6	0	0.0
10	19010803.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53	12	22.6	41	77.4	0	0.0
11	12010104. 네일마용	214	176	82.2	38	17.8	0	0.0
12	14070504. 천장크레인운전 (천장크레인조종)	61	25	41.0	36	59.0	0	0.0
13	06010108. 요양지원	1,659	1,624	97.9	35	2.1	0	0.0
14	22020109. 단위화확장식	172	139	80.8	33	19.2	0	0.0
15	14070503. 타워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조종)	40	8	20.0	32	80.0	0	0.0
16	16010503. 가스텅스텐아크용접	171	140	81.9	31	18.1	0	0.0
17	14070501. 기중기운전 (이동식크레인조종)	41	15	36.6	26	63.4	0	0.0
18	20010203.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27	3	11.1	24	88.9	0	0.0
19	14070105. 로더운전	32	10	31.3	22	68.8	0	0.0
20	15050202. 냉동공조설치	37	15	40.5	22	59.5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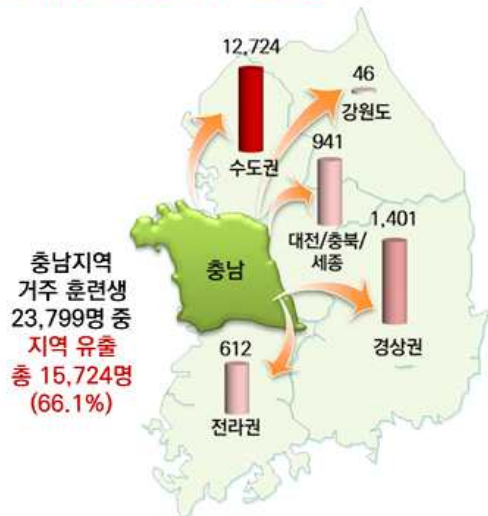
(2) 향상훈련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거주 향상 훈련생¹⁶⁾ 중 타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총 15,724명으로, 전체 충남 지역 거주 향상 훈련생(23,799명)의 66.1%로 나타남
- 세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이 12,724명으로 향상훈련 유출 훈련생의 80.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상권(1,401명), 대전/충북/세종(9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종 중분류별 유출인원을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4,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1,982명), 관리직(임원·부서장)(1,6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 향상훈련 지역 유출 현황

(단위 : %)

2020년 향상훈련 지역유출 현황



2020년 향상훈련 지역유출 직종 TOP10



16) 충남지역 거주 훈련생은 HRD-NET 제공 자료 상 거주지역이 '충남'인 훈련생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표 128] 향상훈련 지역유출(2020년 기준, KECO 중분류)

(단위 : 명, %)

구분	충남 거주 교육생	충남지역 수강자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유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23,799	8,075	33.9	15,724	66.1
01.관리직(임원·부서장)	1,657	2	0.1	1,655	99.9
02.경영·행정·사무직	6,122	1,822	29.8	4,300	70.2
03.금융·보험직	741	20	2.7	721	97.3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1	6	19.4	25	80.6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47	86	13.3	561	86.7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60	213	46.3	247	53.7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76	520	31.0	1,156	69.0
21.교육직	77	0	0.0	77	100.0
22.법률직	131	4	3.1	127	96.9
23.사회복지·종교직	2,116	134	6.3	1,982	93.7
24.경찰·소방·교도직	60	1	1.7	59	98.3
30.보건·의료직	1,748	94	5.4	1,654	94.6
41.예술·디자인·방송직	363	228	62.8	135	37.2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0	0	0.0	10	100.0
51.미용·예식 서비스직	132	107	81.1	25	18.9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3	0	0.0	23	100.0
53.음식 서비스직	758	654	86.3	104	13.7
54.경호·경비직	555	43	7.7	512	92.3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066	1,978	95.7	88	4.3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4	11	45.8	13	54.2
61.영업·판매직	565	8	1.4	557	98.6
62.운전·운송직	575	472	82.1	103	17.9
70.건설·채굴직	281	186	66.2	95	33.8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50	256	46.5	294	53.5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356	277	77.8	79	22.2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998	349	35.0	649	65.0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38	14	36.8	24	63.2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6	20	23.3	66	76.7
86.섬유·의복 생산직	12	0	0.0	12	100.0
87.식품 가공·생산직	458	359	78.4	99	21.6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84	211	74.3	73	25.7
89.제조 단순직	1	0	0.0	1	100.0
90.농림어업직	60	0	0.0	60	100.0
분류불능	138	0	0.0	138	100.0

- NCS 세분류 기준 타지역 유출 교육훈련 분야 상위 20개를 보면, 경영기획의 유출인원이 1,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1,558명), 병원안내(7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출 상위 20개 분야 중, 병원안내, 정보보호관리·운영, 병원행정,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관리, 인공지능플랫폼구축, 주택관리, 광고, 매장판매의 경우, 지역 내 개설된 과정이 없어, 훈련생들이 타 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타지역 유출 상위 20개 분야 대부분이 지역 내 개설된 과정이나 타지역 수강자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9] 향상훈련 지역유출 NCS 상위 20개(2020년 기준, NCS 세분류)

(단위 : 명, %)

순 위	NCS 세분류	충남 거주 교육생	충남지역 수강자		충남 외 타지역 수강자(유출)		지역 내 개설 여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02010101. 경영기획	1,602	32	2.0	1,570	98.0	○
2	07030101. 보육	1,577	19	1.2	1,558	98.8	○
3	06010202. 병원안내	717	0	0.0	717	100.0	X
4	02020302. 사무행정	1,394	748	53.7	646	46.3	○
5	20010601. 정보보호관리·운영	621	0	0.0	621	100.0	X
6	11010101. 보안	559	43	7.7	516	92.3	○
7	06010201. 병원행정	497	0	0.0	497	100.0	X
8	02030201. 회계·감사	752	334	44.4	418	55.6	○
9	10030102. 전자상거래	390	0	0.0	390	100.0	X
10	06010108. 요양지원	2,378	2,053	86.3	325	13.7	○
11	02040201. QM/QC관리	636	346	54.4	290	45.6	○
12	02020201. 인사	285	4	1.4	281	98.6	○
13	05010201. 지식재산관리	276	0	0.0	276	100.0	X
14	19010601. 전기설비설계	262	4	1.5	258	98.5	○
15	20010701. 인공지능플랫폼구축	228	0	0.0	228	100.0	X
16	02010302. 고객관리	223	1	0.4	222	99.6	○
17	10020201. 주택관리	195	0	0.0	195	100.0	X
18	02010202. 광고	194	0	0.0	194	100.0	X
19	02020101. 총무	190	0	0.0	190	100.0	○
20	10030201. 매장판매	177	0	0.0	177	100.0	X

- 2020년 기준 충남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한 향상 훈련생¹⁷⁾ 중 거주지가 충남 외 타 지역인 훈련생은 4,076명으로, 전체의 약 12.7% 수준임
- 세부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의 유입인원이 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호·경비직(857명), 운전·운송직(4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30] 향상훈련 지역유입(2020년 기준, KECO 중분류)

(단위 : 명, %)

구분	충남 교육 훈련 참여 교육생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타지역 거주자(유입)		거주지 분류불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체	32,006	7,541	23.6	4,076	12.7	20,389	63.7
01.관리직(임원·부서장)	10	2	20.0	8	80.0	0	0.0
02.경영·행정·사무직	6,592	1,693	25.7	997	15.1	3,902	59.2
03.금융·보험직	848	20	2.4	117	13.8	711	83.8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0	0	0.0	0	0.0	0	0.0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41	11	3.2	2	0.6	328	96.2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38	213	17.2	252	20.4	773	62.4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527	312	12.3	179	7.1	2,036	80.6
21.교육직	0	0	0.0	0	0.0	0	0.0
22.법률직	16	4	25.0	2	12.5	10	62.5
23.사회복지·종교직	669	134	20.0	111	16.6	424	63.4
24.경찰·소방·교도직	13	0	0.0	0	0.0	13	100.0
30.보건·의료직	253	94	37.2	36	14.2	123	48.6
41.예술·디자인·방송직	281	222	79.0	42	14.9	17	6.0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0	0	0.0	0	0.0	0	0.0
51.미용·예식 서비스직	199	107	53.8	40	20.1	52	26.1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0	0	0.0	0	0.0	0	0.0
53.음식 서비스직	708	654	92.4	54	7.6	0	0.0
54.경호·경비직	6,127	43	0.7	857	14.0	5,227	85.3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343	1,978	37.0	136	2.5	3,229	60.4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	11	91.7	1	8.3	0	0.0
61.영업·판매직	386	8	2.1	105	27.2	273	70.7
62.운전·운송직	1,881	472	25.1	414	22.0	995	52.9
70.건설·채굴직	297	186	62.6	109	36.7	2	0.7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150	185	16.1	172	15.0	793	69.0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575	268	46.6	106	18.4	201	35.0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278	342	26.8	210	16.4	726	56.8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5	14	21.5	13	20.0	38	58.5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361	20	5.5	54	15.0	287	79.5
86.섬유·의복 생산직	0	0	0.0	0	0.0	0	0.0
87.식품 가공·생산직	598	337	56.4	32	5.4	229	38.3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38	211	88.7	27	11.3	0	0.0
89.제조 단순직	0	0	0.0	0	0.0	0	0.0
90.농림어업직	0	0	0.0	0	0.0	0	0.0
분류불능	0	0	0.0	0	0.0	0	0.0

17)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강 훈련생은 HRD-NET 제공 자료 상 훈련기관소재지역이 '충남'인 훈련생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 NCS 세분류 기준 지역 유입 교육훈련 분야 상위 20개를 보면, 보안의 유입인원이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행정(459명), 지게차운전(3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출 상위 20개 분야 중, 보일러설치·정비, 공공복지의 경우,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에서 향상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50% 이상이 충남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1] 향상훈련 지역유입 NCS 상위 20개(2020년 기준, NCS 세분류)

(단위 : 명, %)

순 위	NCS 세분류	충남 교육 훈련 참여 교육생	충남지역 거주자		충남 외 타지역 거주자(유입)		거주지 분류불능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11010101. 보안	6,123	43	0.7	857	14.0	5,223	85.3
2	02020302. 사무행정	3,069	742	24.2	459	15.0	1,868	60.9
3	14070401. 지게차운전	1,810	456	25.2	368	20.3	986	54.5
4	02040201. QM/QC관리	2,044	266	13.0	348	17.0	1,430	70.0
5	06010108. 요양지원	5,742	2,053	35.8	172	3.0	3,517	61.3
6	02030201. 회계·감사	525	334	63.6	110	21.0	81	15.4
7	14020301. 지적	462	4	0.9	105	22.7	353	76.4
8	10010101. 일반영업	331	3	0.9	104	31.4	224	67.7
9	14070106. 굴착기운전	207	141	68.1	66	31.9	0	0.0
10	03010101. 창구사무	470	2	0.4	59	12.6	409	87.0
11	02040103. 공정관리	261	34	13.0	53	20.3	174	66.7
12	16010503. 가스텅스텐아크용접	219	155	70.8	44	20.1	20	9.1
13	020203. 일반사무	251	50	19.9	38	15.1	163	64.9
14	15010201. 기계요소설계	361	262	72.6	38	10.5	61	16.9
15	15050204. 보일러설치·정비	73	34	46.6	38	52.1	1	1.4
16	03020203. 보험계약보전	211	2	0.9	37	17.5	172	81.5
17	19010701. 내선공사	303	244	80.5	33	10.9	26	8.6
18	02010101. 경영기획	178	22	12.4	32	18.0	124	69.7
19	13010203. 커피관리	422	391	92.7	31	7.3	0	0.0
20	07010103. 공공복지	41	1	2.4	30	73.2	10	24.4

제3절 | 교육훈련 수급분석

가. 양성훈련 수급분석

- 양성훈련 수급분석은 2021년 수요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된 수요인원과 직전년도(2020년) 훈련 공급인원(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수급차를 분석함

1) 직종별 수급차 분석

- 직종 소분류 기준 양성훈련의 수급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수급차는 7,040명으로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수급차(공급-수요)가 1,291명으로, 타 직종 대비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물품이동장비 조작원의 경우에도 수급차가 500명 이상으로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2] 양성훈련 수급차 분석 (KECO 소분류)

(단위 : 명)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2,249	9,289	7,040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1	0	-1
026. 경영지원 사무원	6	54	48
027. 회계·경리 사무원	254	581	327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8	43	25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97	918	721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10	266	156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2	0	-12
135. 정보보안 전문가	12	24	12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179	127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8	622	374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12	12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38	38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20	20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	20	17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0	0	0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	25	-5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	56	48
307. 보건·의료 종사자	47	407	360
411. 작가·통번역가	3	52	49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0	0	0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2,249	9,289	7,040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2	36	34
415. 디자이너	69	322	253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	9	7
511. 미용 서비스원	37	531	494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0	15	15
521. 여행 서비스원	0	0	0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0	0	0
531. 주방장 및 조리사	136	916	78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368	1,659	1,291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	3	3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201	723	522
701. 건설구조 기능원	9	37	28
702. 건축마감 기능원	7	57	50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2	245	193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0	0	0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6	63	57
812. 운송장비 정비원	0	0	0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7	120	63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27	64	37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0	0	0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0	13	13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	19	19
824. 용접원	49	241	192
831. 전기공	94	404	310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14	27	13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3	0	-3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	0	0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7	0	-7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0	0	0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03	292	189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0	0	0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0	176	166
901. 작물재배 종사자	0	0	0
903. 임업 종사자	0	0	0

2) NCS별 수급차 분석

- NCS 소분류 기준 양성훈련의 수급차 분석 결과를 보면, 수요가 있는 교육훈련 분야는 총 208개 분야로 나타난 반면, 2020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분야는 34개로 수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 대비 공급하고 있는 분야의 수가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재무, 총무, 인사·조직, 품질관리 등 수요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공급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의료기술지원,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적재기계운전의 경우 수급차가 400명 이상으로, 수요 대비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3] 양성훈련 수급차 분석 (NCS 소분류)

(단위 : 개, 명)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¹⁸⁾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10,569	9,289	-1,280
010101. 프로젝트관리	16	0	-16
020101. 경영기획	279	0	-279
020102. 홍보·광고	71	0	-71
020103. 마케팅	181	0	-181
020201. 총무	975	0	-975
020202. 인사·조직	712	0	-712
020203. 일반사무	610	972	362
020301. 재무	1,256	0	-1,256
020302. 회계	405	588	183
020401. 생산관리	524	200	-324
020402. 품질관리	335	0	-335
020403. 무역·유통관리	237	0	-237
030101. 금융영업	6	0	-6
030103. 신용분석	1	0	-1
030105. 금융영업지원	2	0	-2
030106. 증권·외환	1	0	-1
040101. 학교교육	4	0	-4
040201. 평생교육	2	0	-2
040202. 평생교육운영	3	0	-3
040301. 직업교육	48	0	-48
040302. 이러닝	6	0	-6
050101. 법무	2	0	-2
050201. 소방	47	0	-47
050202. 방재	27	0	-27
050203. 스마트재난관리	4	0	-4
060101. 의료기술지원	197	1,659	1,462
060102. 보건지원	191	0	-191
060103. 약무	11	0	-11
060201. 임상의학	38	0	-38
060202. 간호	188	0	-188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¹⁸⁾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10,569	9,289	-1,280
060203. 기초의학	30	0	-30
060204. 임상지원	152	407	255
070101. 사회복지정책	62	0	-62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272	0	-272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14	56	42
070202. 청소년지도	3	0	-3
070203. 심리상담	5	0	-5
070301. 보육	38	0	-38
080101. 문화예술경영	32	0	-32
080103. 공연예술	6	0	-6
080104. 문화재관리	9	0	-9
080201. 디자인	42	256	214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7	44	27
0803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3	0	-3
080304. 영상제작	4	0	-4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123	0	-123
090202. 철도시설유지보수	17	0	-17
090301. 선박운항	5	0	-5
090302. 검수·검량	22	0	-22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0	9	9
090402. 항공운항	4	0	-4
100101. 일반·해외영업	218	0	-218
100203. 부동산중개	1	0	-1
100204. 감정평가	2	0	-2
100301. e-비즈니스	2	0	-2
100302. 일반판매	6	0	-6
110101. 경비·경호	195	0	-195
110201. 청소	211	3	-208
110202. 세탁	1	0	-1
120101. 아·마용서비스	3	500	497
120202. 장례서비스	4	15	11
120301. 여행서비스	2	0	-2
120302. 숙박서비스	24	0	-24
120303. 컨벤션	6	0	-6
120402. 스포츠시설	1	0	-1
120403. 스포츠경기·지도	25	0	-25
120404. 스포츠마케팅	5	0	-5
130101. 음식조리	228	278	50
130102. 식음료서비스	10	638	628
140101. 건설사공전관리	27	0	-27
140102. 건설사공관리	49	0	-49
140103. 건설사공후관리	7	0	-7
140201. 토목설계·감리	41	0	-41
140202. 토목사공	23	0	-23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14	0	-14
140301. 건축설계·감리	48	179	131
140302. 건축사공	22	94	72
140303. 건축설비설계·사공	27	0	-27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¹⁸⁾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10,569	9,289	-1,280
140401. 플랜트 설계감리	27	0	-27
140402. 플랜트사공	17	0	-17
140403. 플랜트사업관리	4	0	-4
140501. 조경	27	0	-27
140601. 국토·도시계획	9	0	-9
140602. 교통계획·설계	6	0	-6
140603. 주거서비스	6	0	-6
140701. 토공기계운전	4	245	241
140703. 콘크리트공기계운전	1	0	-1
140704. 적재기계운전	92	581	489
140705. 양중기계운전	65	142	77
140706. 건설기계정비	25	0	-25
140801. 해양환경조사	3	0	-3
140802. 해양환경관리	1	0	-1
140804. 해양자원개발·관리	2	0	-2
150101. 설계기획	75	20	-55
150102. 기계설계	19	326	307
150201. 절삭가공	36	133	97
150202. 특수가공	4	0	-4
150301. 기계조립	21	152	131
150302. 기계생산관리	63	31	-32
150401. 기계품질관리	31	0	-31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32	0	-32
150502. 냉동공조설비	10	48	38
150503. 이륜차 정비	3	0	-3
150601. 자동차설계	26	0	-26
150602. 자동차제작	47	0	-47
150603. 자동차정비	55	0	-55
150604. 자동차정비관리	2	0	-2
150605. 자동차관리	1	0	-1
150701. 철도차량설계·제작	3	0	-3
150702. 철도차량유지보수	1	0	-1
150801. 선박설계	1	0	-1
150802. 선체건조	7	0	-7
150804. 선박품질관리	3	0	-3
150805. 선박생산관리	2	0	-2
150807. 선박정비	6	0	-6
150902. 항공기제작	9	0	-9
150903. 항공기정비	2	0	-2
151001. 사출금형	23	0	-23
151002. 프레스금형	23	0	-23
151003. 다이캐스팅 금형	2	0	-2
151101. 스마트팩토리설계	1	0	-1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44	0	-44
160102. 금속재료제조	12	0	-12
160103. 금속가공	91	0	-91
160104. 표면처리	2	19	17
160105. 용접	10	241	231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¹⁸⁾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10,569	9,289	-1,280
160106. 비철금속재료제조	1	0	-1
160201. 파인세라믹제조	7	0	-7
160202. 전통세라믹제조	21	0	-21
170101. 화학물질관리	29	20	-9
170102. 화학공정관리	1	0	-1
170103. 화학제품연구개발	12	0	-12
170201. 석유·천연가스 제조	1	0	-1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25	0	-25
170203.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5	0	-5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14	0	-14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9	0	-9
170303. 바이오의약품제조	18	0	-18
1703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3	0	-3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19	0	-19
170402. 고무제품제조	8	0	-8
180101. 섬유생산	14	0	-14
180102. 섬유가공	4	0	-4
180103. 섬유생산관리	143	0	-143
180201. 패션제품기획	1	0	-1
190103. 송배전 설비	13	0	-13
190105. 전기기기제작	41	0	-41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40	0	-40
190107. 전기공사	11	357	346
190108. 전기자동제어	55	53	-2
190109. 전기철도	1	0	-1
190110. 철도신호제어	1	0	-1
190112. 전기저장장치	3	0	-3
190113. 미래형 전기시스템	5	0	-5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8	0	-8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5	0	-25
190203. 전자제품고객지원	10	0	-10
190301. 가전기기 개발	1	0	-1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2	0	-2
190303. 정보통신기기 개발	9	0	-9
190304. 전자응용기기개발	7	0	-7
190305. 전자부품개발	5	0	-5
190306. 반도체개발	48	41	-7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26	0	-26
190308. 로봇개발	30	0	-30
190309. 의료장비제조	4	0	-4
190310. 광기술개발	9	0	-9
190311. 3D프린터개발	4	0	-4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5	0	-5
190314. 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1	0	-1
190316. OLED개발	1	0	-1
200101. 정보기술전략 계획	5	0	-5
200102. 정보기술개발	19	299	280
200103. 정보기술운영	3	0	-3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A) ¹⁸⁾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10,569	9,289	-1,280
200104. 정보기술관리	3	0	-3
200105. 정보기술영업	22	0	-22
200106. 정보보호	5	0	-5
200107. 인공지능	1	0	-1
200201. 유선통신구축	10	0	-10
200202.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 포함)	5	0	-5
200203. 통신서비스	6	0	-6
200303. 방송서비스	2	0	-2
210101. 식품가공	118	0	-118
210102. 식품저장	2	0	-2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4	292	288
220101. 출판	24	143	119
220102. 인쇄	33	0	-33
220201. 공예	13	176	163
230101. 수질관리	7	0	-7
230102. 대기관리	4	0	-4
230103. 폐기물관리	12	0	-12
230104. 소음진동관리	1	0	-1
230105. 토양·지하수관리	4	0	-4
230201. 환경보건관리	7	0	-7
230301. 생태복원·관리	7	0	-7
230401. 환경경영	21	0	-21
230402. 환경평가	19	0	-19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1	0	-1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3	41	38
230506. 에너지관리	6	0	-6
230601. 산업안전관리	78	0	-78
230602. 산업보건관리	4	0	-4
230603. 비파괴검사	2	0	-2
240101. 작물재배	1	0	-1
240102. 종자생산·유통	1	0	-1
240103. 농촌개발	2	0	-2
240201. 축산자원개발	2	31	29
240301. 산림자원조성	1	0	-1
240303. 임산물생산·가공	14	0	-14

18) NCS별 양성훈련 수요의 경우,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NCS)'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되며, 1개의 직종에 대해 다수의 요구역량(NCS)을 응답하기 때문에 직종별 수요와 다를 수 있음

나. 향상훈련 수급분석

- 향상훈련 수급분석은 2021년 수요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된 수요인원과 직전년도(2020년) 훈련 공급인원(실시 인원)을 기준으로 수급차를 분석함

1) 직종별 수급차 분석

- 직종 소분류 기준 향상훈련의 수급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수급차는 -20,458명으로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직종별로 보면, 제조 단순 종사자의 경우, 수급차가 -6,209명으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지원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의 경우도 수급차가 2,000명 이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한편,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경호·보안 종사자, 경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직종으로 나타남

[표 134] 향상훈련 수급차 분석

(단위 : 명)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14	10	-4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40	0	-40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97	0	-297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	45	45
022. 경영·인사 전문가	2	619	617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5	45	-10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32	28	-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175	47	-128
026. 경영지원사무원	5,076	2,105	-2,971
027. 회계·경리 사무원	2,761	716	-2,045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3,741	2,238	-1,503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76	749	173
031. 금융·보험 전문가	0	57	57
032. 금융·보험 사무원	0	704	704
033. 금융·보험 영업원	0	87	87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2	0	-2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29	0	-29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5	0	-5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	0	-2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56	37	-119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20	303	283
135. 정보보안 전문가	19	1	-18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95	1,238	243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4	1,931	1,567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6	73	-33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87	129	-158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6	349	173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65	45	-420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	0	-11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6	0	-146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78	0	-578
159. 제도시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0	-81
212. 학교 교사	14	0	-14
213. 유치원 교사	28	0	-28
214. 문라·기술·예능 강사	8	0	-8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14	0	-114
222. 법률 사무원	0	16	16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778	342	-1,436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090	327	-1,763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16	13	-3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72	0	-72
303. 약사 및 한약사	26	0	-26
304. 간호사	817	0	-817
305. 영양사	191	0	-191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701	17	-684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04	236	-968
411. 작가·통번역가	8	61	53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	0	-41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0	36	36
415. 디자이너	16	182	166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2	-7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06	0	-106
511. 마용 서비스원	14	195	181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4	4	0
521. 여행 서비스원	11	0	-11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35	0	-35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7	0	-7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12	0	-12
531. 주방장 및 조리사	782	708	-74
532. 식당 서비스원	66	0	-66
541. 경호·보안 종사자	160	1,748	1,588
542. 경비원	716	4,379	3,663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6,476	5,343	-1,133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245	12	-1,233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57	0	-257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54	151	-903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0	41	41
615. 판매 종사자	25	194	169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9	0	-9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5	0	-5
622. 자동차 운전원	969	13	-956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495	1,868	1,373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178	0	-178
701. 건설구조 기능원	165	8	-157
702. 건축마감 기능원	81	22	-59
703. 배관공	3	0	-3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	267	179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85	0	-185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23	0	-123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023	515	-508
812. 운송장비 정비원	397	57	-340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435	88	-347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20	2	-18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58	259	201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291	176	-115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817. 운송장비 조립원	1,919	53	-1,866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74	265	-9
822. 판금원 및 제관원	142	0	-142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82	0	-182
824. 용접원	85	310	22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26	0	-26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70	0	-270
831. 전기공	461	279	-182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92	76	-16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0	116	116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11	574	463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149	226	-923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367	7	-360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10	7	-3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9	58	49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91	335	244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771	26	-745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45	0	-45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0	0	-80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7	0	-7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3	363	350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04	187	-617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201	48	-153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38	0	-38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5	0	-85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21	0	-21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0	238	238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23	0	-123
890. 제조 단순 종사자	6,209	0	-6,209
901. 작물재배 종사자	29	0	-29
903. 임업 종사자	5	0	-5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6	0	-6

2) NCS별 수급차 분석

- NCS 소분류 기준 향상훈련의 수급차 분석 결과를 보면, 수요가 있는 교육훈련 분야는 총 168개 분야로 나타난 반면, 2020년 기준 양성훈련 공급분야는 102개로 수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 대비 공급하고 있는 분야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무, 사회복지서비스, 자동차제작, 총무의 경우, 수급차가 -2,000명으로 수요량은 많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한편, 경호·경비, 일반사무, 적재기계운전, 품질관리의 경우, 수요 대비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5] 향상훈련 수급차 분석 (NCS 소분류)

(단위 : 명)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010101. 프로젝트관리	18	41	23
020101. 경영기획	299	188	-111
020102. 홍보·광고	119	0	-119
020103. 마케팅	299	238	-61
020201. 총무	2,241	185	-2,056
020202. 인사조직	1,117	51	-1,066
020203. 일반사무	908	3,320	2,412
020301. 재무	2,336	43	-2,293
020302. 회계	754	736	-18
020401. 생산관리	1,397	299	-1,098
020402. 품질관리	719	2,082	1,363
020403. 무역·유통관리	321	126	-195
030101. 금융영업	0	470	470
030103. 신용분석	0	26	26
030104. 자산운용	0	77	77
030105. 금융영업지원	0	35	35
030202. 보험영업·계약	0	211	211
040101. 학교교육	18	0	-18
040201. 평생교육	8	0	-8
040301. 직업교육	85	179	94
040302. 이러닝	14	0	-14
050102. 지식재산관리	0	25	25
050201. 소방	165	14	-151
050202. 방재	106	0	-106
050203. 스마트재난관리	5	0	-5
060101. 의료기술지원	4,852	5,759	907
060102. 보건지원	799	0	-799
060103. 약무	26	0	-26
060201. 임상의학	72	0	-72
060202. 간호	1,480	0	-1,480
060204. 임상지원	389	47	-342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070101. 사회복지정책	153	57	-96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4,054	235	-3,819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55	31	-24
070202. 청소년지도	157	23	-134
070203. 심리상담	57	0	-57
070301. 보육	1,744	22	-1,722
080101. 문화예술경영	86	0	-86
080104. 문화재관리	37	0	-37
080201. 디자인	85	81	-4
080301. 문화콘텐츠기획	0	7	7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6	44	28
0803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2	0	-2
080304. 영상제작	16	1	-15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999	0	-999
090202. 철도시설유지보수	461	0	-461
090301. 선박운항	5	15	10
090302. 검수·검량	78	0	-78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0	37	37
100101. 일반·해외영업	843	331	-512
100204. 감정평가	11	0	-11
100302. 일반판매	25	0	-25
100303. 상품중개 경매	0	29	29
110101. 경비·경호	870	6,126	5,256
110201. 청소	1,128	12	-1,116
120101. 아·미용서비스	14	188	174
120202. 장례서비스	4	4	0
120301. 여행서비스	11	0	-11
120302. 숙박서비스	107	0	-107
120303. 컨벤션	5	0	-5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7	0	-7
120403. 스포츠경기·지도	97	0	-97
120404. 스포츠마케팅	6	0	-6
130101. 음식조리	782	286	-496
130102. 식음료서비스	27	422	395
140101. 건설사공전관리	258	0	-258
140102. 건설사공관리	274	0	-274
140103. 건설사공후관리	16	0	-16
140201. 토목설계·감리	115	0	-115
140202. 토목시공	265	0	-265
140203. 측량·지리정보개발	81	635	554
140301. 건축설계·감리	155	237	82
140302. 건축시공	121	28	-93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47	0	-47
140401. 플랜트 설계감리	189	0	-189
140402. 플랜트시공	276	30	-246
140501. 조경	55	0	-55
140601. 국토·도시계획	15	0	-15
140701. 토공기계운전	18	266	248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140704. 적재기계운전	331	1,810	1,479
140705. 양중기계운전	345	59	-286
140706. 건설기계정비	73	0	-73
140801. 해양환경조사	22	0	-22
150101. 설계기획	155	61	-94
150102. 기계설계	0	965	965
150201. 절삭가공	160	91	-69
150202. 특수가공	11	21	10
150301. 기계조립	150	609	459
150302. 기계생산관리	458	492	34
150401. 기계품질관리	249	326	77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385	0	-385
150502. 냉동공조설비	20	110	90
150503. 이륜차 정비	7	0	-7
150601. 자동차설계	87	140	53
150602. 자동차제작	2,069	0	-2,069
150603. 자동차정비	334	57	-277
150604. 자동차정비관리	8	0	-8
150701. 철도차량설계·제작	7	0	-7
150802. 선체건조	88	0	-88
150804. 선박품질관리	19	0	-19
150805. 선박생산관리	3	0	-3
150901. 항공기설계	1	0	-1
150902. 항공기제작	129	0	-129
150904. 항공장비관리	6	0	-6
151001. 사출금형	39	146	107
151002. 프레스금형	144	100	-44
151101. 스마트팩토리설계	5	73	68
151102.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설치	0	5	5
160101. 금속엔지니어링	73	85	12
160102. 금속재료제조	10	4	-6
160103. 금속가공	436	26	-410
160104. 표면처리	22	0	-22
160105. 용접	85	315	230
160201. 파인세라믹제조	61	0	-61
160202. 전통세라믹제조	161	0	-161
170101. 화학물질관리	79	0	-79
170102. 화학공정관리	0	67	67
170103. 화학제품연구개발	15	0	-15
170201. 석유·천연가스 제조	3	192	189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67	36	-31
170203.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20	0	-20
1703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226	69	-157
1703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43	5	-38
170303. 바이오의약품제조	56	0	-56
1703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94	0	-94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243	16	-227
170402. 고무제품제조	108	0	-108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180101. 섬유생산	74	0	-74
180103. 섬유생산관리	486	0	-486
180201. 패션제품기획	3	0	-3
180202. 패션제품생산	7	0	-7
190102. 발전설비운영	0	74	74
190103. 송배전 설비	57	17	-40
190105. 전기기기제작	327	56	-271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03	155	52
190107. 전기공사	131	319	188
190108. 전기자동제어	336	154	-182
190113. 미래형 전기시스템	52	0	-52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44	2	-142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47	13	-234
190203. 전자제품고객지원	67	0	-67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0	40	40
190303. 정보통신기기 개발	3	31	28
190305. 전자부품개발	6	19	13
190306. 반도체개발	233	218	-15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156	17	-139
190308. 로봇개발	49	19	-30
190309. 의료장비제조	7	0	-7
190311. 3D프린터개발	0	5	5
190314. 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84	0	-84
190315. 스마트팜개발	4	0	-4
200101. 정보기술전략 계획	58	239	181
200102. 정보기술개발	28	211	183
200103. 정보기술운영	0	18	18
200104. 정보기술관리	1	20	19
200105. 정보기술영업	31	0	-31
200106. 정보보호	19	0	-19
200201. 유선통신구축	7	1	-6
200202.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 포함)	4	0	-4
200203. 통신서비스	0	26	26
200301. 방송제작기술	2	0	-2
200303. 방송서비스	21	0	-21
210101. 식품가공	1,179	281	-898
210102. 식품저장	6	0	-6
210103. 식품유통	0	1	1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13	363	350
220101. 출판	87	172	85
220102. 인쇄	38	0	-38
220201. 공예	21	238	217
230101. 수질관리	24	0	-24
230102. 대기관리	5	0	-5
230103. 폐기물관리	51	0	-51
230301. 생태복원·관리	16	0	-16
230401. 환경경영	261	13	-248
230402. 환경평가	95	0	-95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A)	공급량 (20년 기준)(B)	수급차(B-A)
전 체	52,464	32,006	-20,458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5	0	-5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4	32	28
230601. 산업안전관리	455	56	-399
230602. 산업보건관리	35	10	-25
240101. 작물재배	1	0	-1
240103. 농촌개발	22	0	-22
240201. 축산자원개발	94	7	-87
240301. 산림자원조성	5	0	-5
240303. 임산물생산·가공	54	0	-54
240403. 수산자원관리	6	0	-6
E. 기타	7,752	0	-7,752

제4장

훈련수급 정성분석 결과

제1절. 정성조사 개요

제2절. 정성조사 결과

제1절 | 정성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정성조사의 목적은 충남소재 사업체의 인사 및 현업부서장 대상 인력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임

나. 조사 설계

- 정성조사 대상 산업은 충남지역 7대 산업과 지역 내 이슈 발생 산업(건설/운송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함
- 충남 7대 산업 및 지역 내 이슈 발생 산업(건설/운송서비스)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7대 산업 정의는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수시 수요조사 및 고용·산업동향 모니터링」에서 정의된 7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운송서비스는 본 조사의 산업분류(중분류 기준)를 기준으로 함

[표 136]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정성조사 대상 산업 정의

구분	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421	운송장치용 조명장치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핸들장치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반도체 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26112	비 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 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상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석유화학 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119	석유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구분	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			
철강산업	24111	제철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12	제강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석탄 에너지 산업	05100	석탄 광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46711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35113	화력 발전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35119	기타 발전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스마트 휴먼바이오 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정성 조사의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음

[표 137] 충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정성조사 설계

구분	세부 내용			
조사대상	- 충남 7대 산업 및 지역 내 이슈발생산업 사업체 대상 인사부서장 및 현업부서장			
조사지역	- 충청남도			
표본크기	- 총 32명			
	구분	참석자 수	구분	참석자 수
	자동차부품산업	3	철강산업	5
	반도체산업	4	석탄에너지산업	3
	디스플레이산업	4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	3
	석유화학산업	3	건설/운송서비스	7
조사방법	- 좌담회(FGI) 및 개별심층인터뷰(IDI) 병행			
조사기간	- 2021. 8월 ~ 2021. 9월			
조사내용	- 산업 및 인력 관련 이슈 - 향후 산업 변화에 따라 교육훈련 수요가 높은 직종 및 NCS 검토 1) 향후 채용수요가 높은 직종의 교육훈련 내용 2) 지역 내 중요성이 높은 직종의 교육훈련 내용 - 공동훈련센터, 지역 내 교육훈련 관련 의견 - 기타 의견			

제2절 | 정성조사 결과

가. 자동차부품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전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신차종이 생산되면서 일부 업체는 매출이 증대되어 사업확장을 진행 중임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현황을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19 때문에 수출도 감소가 지속되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현대기아차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차가 나온 상태여서, 코로나 영향이 다른업체보단 적은 것 같습니다. 좀 기대를 해본다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업황은 이전 대비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인력) 공장 설비의 발전으로 인한 현장직 관련 신규인력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은 기존인원 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인력 결원과 충원을 하고 있음

- 현장직 관련해서는 품질/생산관리 인력 수요가 많은 편
- 사무직의 경우 ERP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 선호함
- 지리적으로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서 인력수급이 타지역 대비 잘 이뤄지는 편

“저희가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7명이고 신규채용한 인원이 2명인데, 다 사무관리직에서 퇴사하는 인원이 발생해서, 그 인원을 충원하려고 채용한거예요. 현장직에서는 지금 인원이 남는 상황이라서 신규채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장직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기 보다 원래 기존에 채용됐던 인원들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설비같은게 발전되면서 점차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 일을 하던 기존 인원들이 남게되서 ... 그래서 그 인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최소화 하고 그냥 기본근무만 하게끔 하고 있어요”

“올해 5명이 희망퇴직으로 그만뒀는데, 계속 상황이 안 좋으면 구조조정도 고려하고 있어요”

“새로 뽑는 현장직은 품질/생산관리 인력을 주로 채용하고 있어요”

“천안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울산에도 공장을 설립 했습니다. 천안 본사의 경우 수도권과 가깝고 어느정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인력채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산공장의 경우는 기숙사, 통근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력의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무직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품질, 자재구매 관련 신입인력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많다 보니 언어능력이 필수고, 또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기업 자체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및 법정교육은 외부에서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임
- 신규 현장 직원의 경우 따로 교육훈련보다는 회사의 커리큘럼에 맞춰 내부직원을 통해 진행 중

“신규 현장직원은 별도로 교육훈련 같은 걸 하고 있진 않아요. 업무에 관련된 건 그냥 회사 선배들이 가르치고 회사 커리큘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진행하고 있고 다른 사회교육, 법정교육 같은건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표준협회랑 생산성본부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관리직은 관리감독자교육, 사무직은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교육이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 생산직은 기계조작 및 제작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관리직의 경우 공정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품질과 관련된 FMEA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현재 분기별 50~80명 정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산직은 기계조작이나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관리직은 공정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품질관련해서는 FMEA관련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체교육으로 진행하는 건, 자동화설비 이용하는 주요 인력들이 자동화설비 판매 업체에 가서 기계 조작법같은 걸 배워오는거 정도 같아요”

“생산직은 주로 자동화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 자동화라인 로봇 설비 제작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당 교육은 신입에 대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팀 내 주요 직급 위주로만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서 타 교육의 필요성이 적은 편

“저희는 지금 현기차 납품 업체여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GPC라고 교육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가 있어요. 생산기술직, 사무직, 연구개발직 뭐 직무별 필요한 교육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필요 하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각자 신청해서 듣고 하죠. 그래서 뭐 다른데 교육훈련기관은 잘 생각을 안하는 거 같아요”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홍보가 더 필요함
- 관리직 관련 교육이 추가로 필요함

“사무직 같은 경우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생산, 기계 관련 직종은 기계산업진흥회에서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관리직 관련된 교육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원가절감 같은 관리직이 수강할 만한 교육과정이 추가적으로 개설되면 좋겠어요”

- 커리큘럼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아직 수도권 교육 커리큘럼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연간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던가 수준의 다양성 같은 부분에서 수도권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커리큘럼이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커리큘럼들을 봐보면 수도권의 교육과정들이 선택할만한 과정이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커리큘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지역 내 기업체들의 수요를 좀 더 세세히 반영하여 직급별, 직무별 제공 가능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표 139] 자동차부품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전체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신차종이 생산되면서 일부업체는 매출이 증대되어 사업확장을 진행 중 - (인력) 공장 설비의 발전으로 인한 현장직 관련 신규인력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은 기존인원 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인력 결원과 충원 중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체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및 법정교육은 외부에서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 - 생산직은 기계조작,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관리직의 경우 공정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품질과 관련된 FMEA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대기업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서 타 교육의 필요성이 적은 편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홍보가 더 필요함 - 관리직 관련 교육이 추가로 필요함 - 커리큘럼이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나. 반도체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원료 수입의 불안정 및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삼성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삼성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상승 중

“코로나 19로 인해서 20년도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 계획도 취소되고, 공장도 자동화 단계로 들어가고, 매출액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올해 들어서는 취소되거나 보류된 계약이나 사업도 다시 추진되고 있어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 업체였는데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막히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후 코로나까지 해서 그래서 수요가 감소를 해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메모리 테스트 쪽이 긍정적으로 시장이 분석되고 다행히 저희 1차 협력업체에서 투자 수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 고객사인 삼성의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반도체 부품제조는 현재 연간 20~30%씩 매출액이 증가하여 19년 110억, 20년 154억 매출 달성했고, 21년 역시 200억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력) 반도체 직종 관련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편이지만, 기업 위치에 따라 신규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생산직 인원의 수요는 꾸준히 있으며, 연구개발직의 인력 수요가 증가함

“저희는 업종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같고 회사 위치가 저희는 일반 생산직을 많이 뽑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신입 위주로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회사 위치가 너무 외져 있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편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인력이 좀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업종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하반기 공채를 한 결과 거의 10대1정도의 지원율로, 6대1에서 10대1정도의 지원율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가 많이 특화가 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반도체 특화에 이제 과도 많이 생겨서 IPP 일학습병행제로 해서 반도체 장비 개발 쪽에 교과목이 생겨서 생각보다 이제 연구소 측은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 쪽은 채용을 거의 많이 한 적은 없고 이제 인력이 수요가 더 조금 필요해서 한두 명 정도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입채용을 줄이고, 연구개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부터 신입을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 2년간 사무관리나 지원부서에서의 채용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에 많이 뛰어서 생산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신입 인력들 계속 뽑고 있고, 21년 연말에도 제품가공기, MCT, 품질 관리 쪽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인력) 신입채용의 경우, 업종과 유사한 전공과 취득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함

- 학교에서 OFF-JT를 경험한 신입의 경우 회사 적응에 도움이 됨

“기구설계가 가능한 신입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기계공학과 전공이거나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OFF-JT 그쪽을 그쪽으로 조금 하고 오면 이해도가 확실히 조금 다른 데보다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인사 총무, 재무 관련 직무에서 참여할만한 교육이 필요함

“맞춤 교육이라든지 상생협력 교육에는 대부분 이제 제조 쪽이나 연구 쪽이 대부분이고 이런 사무직 개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더십 교육들이 대부분이라서 솔직히 인사 총무라든지 재무 쪽에서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 신입직원의 경우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반도체 생산 쪽은 딱히 경력이나 학력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고졸 이상이면 채용 대상이구요. 다만 입사 전에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받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회사 예절이라든지 그런거요”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전망 방향, 반도체 공정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이라도 하고 오면 나머지는 이제 회사 내에서 OJT를 할 수 있을 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재직자의 경우 충남 관련 주요 사업들 관련 교육과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SCM 교육, 화학, 위험물 관련 교육, 설계, PLC와 같은 개발부분 교육 등이 필요함

“협력사 재직인원 중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생산성 향상, SCM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불량대응이라든지 생산 설계, 품질 개선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교육은 이제 원료 화학 물질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 위험물 관련이라든지 화학 관련 그런 교육이 있으면 너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직자들은 대부분 저희가 고학력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설계나, 소프트웨어, 자동제어, PLC 같은 개발 부문 교육이 좀 있으면 좋긴 할 거 같아요”

- 직무 관련 교육외에 소양교육도 필요함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그런 교육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발표,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교육, 그 부분 소양 교육도 조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충남의 교육훈련은 양적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한국교육기술대학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기계산업진흥회, 충남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하는 교육 등 교육훈련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초중급 수준 교육이라 재직자들이 매년 반복해서 듣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기는 어렵겠지만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음

“한기대 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빈도는 확실히 조

금 적은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빈도는 적고 ... 안내받는 정도가 그것도 이제 예산을 충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그런 교육의 느낌도 있는 곳도 있고요. 강사분들을 잘 초빙해서 하는 곳도 있지만, 빈도는 확실히 적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화상교육의 경우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만족도가 높음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는 되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좀 많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요즘 강사님들 분들도 이제 소통하는 법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화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입문 교육 20명을 했을 때 화상회의로 다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5점이면 거의 4.7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인. 사외 강사로 비용이 드렸던 강사분이시기도 했었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요즘은 이제 화상회의로 참석을 해도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표 140] 반도체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원료 수입의 불안정 및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삼성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삼성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상승 중 - (인력) 반도체 직종 관련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편이지만, 기업 위치에 따라 신규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연구개발직의 수요가 많은 편 - (인력) 신입채용의 경우, 업종과 유사한 전공과 취득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함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총무, 재무 관련 직무에서 참여할만한 교육이 필요함 - 신입직원의 경우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재직자의 경우 충남 관련 주요 사업들 관련 교육과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SCM 교육, 화학, 위험물 관련 교육, 설계, PLC와 같은 개발부분 교육 등이 필요함 - 직무 관련 교육외에 소양교육도 필요함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교육훈련은 양적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질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음 - 교육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화상교육의 경우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만족도가 높음

다. 디스플레이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전반적으로는 산업 현황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음
 -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소 나아졌습니다”

“매출액은 크게 변화없이 유지중입니다”

“코로나 19로 상황이 안 좋아졌다기 보다는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라 그런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 (인력) 20, 21년 채용 인원은 변동없이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경력직 위주로 고용이 되고 있음

- 생산직, 엔지니어, 연구직 인원 위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채용인원은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구요. 대부분 경력이 있으신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분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어요. 채용인원은 공고 올릴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지긴 합니다”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물량도 많이 줄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신입도 뽑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황이 좀 나여서 상반기에 경력이 있는 생산직 위주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딱히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황이라서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주로 공장 현장직, 생산직 신입들을 상시적으로 뽑죠. 이런 분들은 자주 나가는 편이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인력 수급이 살짝 어려워지긴 했는데, 크게 지장은 없구요. 최근 3년간 꾸준히 뽑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현재까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R&D 분야 관련 인력을 총원할 예정이고 사업 분야가 저장장치, 2차 전지 관련 응급제 생산 등으로 다각화 되면서 연구기술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2년도부터 2차 전지 부문 사업 확장 계획이 있어서 관련 분야 엔지니어 분들을 좀 더 채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입이랑 경력 둘 다 뽑을 생각입니다.”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사내 직무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편

“저희는 엔지니어분들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첫 걸음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계약한 업체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팀 대상으로도 온라인으로 인사나 HR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있구요. 또 임직원 분들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셔서 집체 교육을 하시거나 부서별 직무 교육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생산/품질 분야 쪽 각 팀 임직원들이 강사가 돼서 하는 사내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교육은 직무 관련 교육이고, 또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본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입의 경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함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교육을 기초랑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기초는 신입들에게, 심화는 재직자분들, 특히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분들에게 제조 공정 관련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R&D 인력 채용을 늘릴 예정이며 오리진, CAD 프로그램 활용 능력 등이 필요하며, 품질, 생산관리 인력의 경우 안전교육과 ISO 교육이 필요함”

- 재직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 중이며 직무관련 교육과 그 외 어학관련 과정이 필요함

“한국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체교육도 많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라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기술전략 로드맵, 특허작성법,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교육훈련 수장 분야입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생산이나 설비 쪽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하구요, 저희가 외국계 기업의 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직자들 대상으로는 영어 같은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MCT 가공 교육을 받은 신입을 많이 뽑아요. 너도나도 찾는 기업 이 많다 보니까 인력공급이 수요에 비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교육훈련기관에서 MCT 가공을 배우고 싶은 인력들을 좀 더 많이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충남 지역내 교육훈련기관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교육이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단지가 있어서 수요가 좀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 141]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반적으로는 산업 현황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인력) 20, 21년 채용 인원은 변동없이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경력직 위주로 고용이 되고 있음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직무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편 - 신입의 경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함 - 재직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 중이며 직무관련 교육과 그외 어학관련 과정이 필요함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내 교육훈련기관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교육이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음

라. 철강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철강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도급기업이며 원청에서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저희는 이제 현대제철 도급이면서 그 원료의 찌꺼기를 재생산하는 마지막 단계 공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 내에서 철강원석이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아지고 있고 ...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구요. 저희는 코로나 영향은 크게 받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에서 도급비를 받아서 철분말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영업이나 판매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까지 그냥 수주량이 일정해서 자체 매출액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청인 현대제철에서 주문하는 고정적인 물량 수요가 있기 때문에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5%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으나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 (인력) 기존인원 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인력 결원과 충원을 하고 있으며, 도급계약 상 인원조정이 힘든 편

“도급계약이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긴 하는데, 계약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채용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발생하는 인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도급계약시 계약인원을 정하긴 하는데 그 규모에 변동은 없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채용인원이 바뀐 건 아니고, 퇴사 인원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는 식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작년에는 영업부서에 경력자 한 분만 뽑았고, 올해는 상반기에 신입이랑 경력직 두 명씩 뽑았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퇴사를 해버려서 하반기에 경력직 분들로 4명 정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생산직 신입 14명 뽑았고, 올해도 신입만 10명 뽑았어요. 퇴사자들이 많아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수시로 채용하고 있어요. 21년 하반기까지 계속 상시 채용할 거 같아요.”

“저희는 20년도부터 인력을 60명으로 계속 유지 중이고, 퇴사자 발생 시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침인데, 퇴사자가 없어서 올해까지 신규 채용자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현대제철에 중장비를 도급하는 회사라 현대제철 물량에 크게 좌우되는데, 최근 3년간은 계속 안정적으로 수요가 있었습니다. 매출액도 한 5%정도로 꾸준히 증가했구요. 사업 축소나 확장도 크게 없어서 TO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채용을 했습니다. 인력이 필요할 때 공개채용을 했고, 저희는 급하지 않으면 거의 무조건 경력직만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인력) 신입채용은 기계, 전기, 중장비 분야 자격증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자격증 관련 교육을 선호함

“기계나 전기쪽 분야는 전기기능사, 전기관련 자격증은 아무거나 다 되고요, 기계는 뭐 안전관리나 그런거, 저희는 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신입을 뽑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굴삭기 같은 중장비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 취득 과정이 많긴 한데, 난이도가 너무 쉽고 그냥 기계들 조작하는 것만 가르쳐서 신입들 같은 경우에 입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난이도를 올리던가, 심화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신입을 대상으로는 직무 교육보다는 노무교육, 기본소양교육이 필요함

“신입 대상으로 직무교육은 소용이 없는거 같아요. 어차피 와서 다시 팀별로 공정별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관련 교육보다는 노무쪽 교육이 좀 필요한거 같아요.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연차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그런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온다면 좀 더 얘기하기 편하지 않을까...”

- 생산직의 경우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함

“자체적으로 하는거는 이제 안전관리사, 안전관리교육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그냥 교육 자료로만 대체하고 있고, 그 외 기술적인 교육이라던가 그런거는 안하고 있어요.”

“현장직 분들에게는 안전교육이 제일 필요할 거 같구요. 사실 현장 분야의 일들을 어떤 직무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거에 특화된 교육도 말하기 어려워요”

“직무에 관련된 교육은 생산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로 받고 있어요. 화학물질관련교육은 저희가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교육을 위탁해서 받았어요. 관려감독자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해서 인증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정비, 품질 분야 교육도 사외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사무직의 경우 영업, 수출, 무역 관련 직무교육이 필요함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출, 무역 관련 직무 교육도 좋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사 총무 분야에 OCD교육(조직풍토진단) 교육 같은 걸 한번 씩 받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저는 지역 내에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교육같은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서 교육을 제공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곳들이 많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거 같기도 하고.... 좀 홍보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신제품 개발, 공정 관련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음

“저희는 보통 충남상공회의소나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만 직무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요. 교육 내용에는 만족하는 편인데 그냥 이용하는 곳만 계속 이용하는 느낌이라 교육기관이 지역 내에 많다고 하긴 어려울 거 같아요. 재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공정 관련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내 교육훈련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특히 접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회사가 당진인데, 면허를 새로 따려면 아산까지 올라가야 되서 좀 번거롭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입들 훈련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표 142] 철강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철강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도급기업이며 원청에서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 기존인원 수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인력 결원과 충원을 하고 있으며, 도급 계약상 인원조정이 힘든 편 - (인력) 신입채용은 기계, 전기, 중장비 분야 자격증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음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을 대상으로는 직무 교육보다는 노무교육, 기본소양교육이 필요함 - 생산직의 경우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함 - 사무직의 경우 영업, 수출, 무역 관련 직무교육이 필요함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신제품 개발, 공정 관련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음 - 지역 내 교육훈련은 충분하지 않은편. 특히 접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마. 석유화학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일부 화학산업은 수출비중이 매우높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부는 코로나 여파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저희는 수출이 거의 98%가 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조금 받았었다가 오히려 초반에는 코로나가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대부분이 섰다운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반사 이익을 좀 받던 상황에 있다가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요즘은 오히려 수출을, 저희 컨테이너 배를 못 구해서 요즘은 또 수출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코로나 여파에 의한 타격이 있지는 않았고요. 사실 산업 자체가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도 계속 이제 점차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력) 인력충원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 위치, 업무강도로 인해 퇴사율이 높은편

“저희가 현장 업무 특성상 기계들도 많고 그 안에 있는 인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현장 상황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현장이 조금 덥고 이래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후학을 양성을 하고 싶어도 이제 특히나 한국분들은 오래 잘 버티시는 분들이 없어요. ... 그래서 저희는 인원은 사실 계속 부족해요”

“여기 충청도 지역에는 석유화학 전문학교가 없어요. ...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동의과학대라든지 등등 화학 전공 있는 전문대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역시 한 3개월 있다 보면 여기가 너무 시골이라서... 한 몇 개월 못 버티고 다들 또 퇴사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19에도 딱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도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업현황이 크게 바뀌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뽑고 있어요. 생산직 분들 경우에는 TO가 자주 나는 편이라서 그만큼 신규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직무에 관련해서는 관리직군의 경우 외부 교육을 진행하지만, 생산직의 경우는 회사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저희는 외부에서 따로 관리 직군들은 이제 외부 교육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장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교육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작업장 내에서 각 교장들이

이제 업무 진행하면서 그냥 구두로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진행한다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저희도 관리직군,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관리직군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본부라든지 각종 설계 이런 쪽에 외부 전문 직무 관련된 교육들을 가고 있고요 ... 현장 직군,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분들이 직접 뭔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대부분 받기는 합니다”

“직무관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개인별로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교육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했어요.”

- 엔지니어들의 경우 전기 쪽 계장 기술이나 설계기술 관련 교육이 필요함

“전기 쪽 계장 업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기계 설계 도면 이쪽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들이 근처에 있으면 좋지요. 집은 서산인데 없어서 매번 서울 가든지 대전 가든지 해서 굳이 숙박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보통 교육이 한 2박 3일 이렇게 되거든요”

- 품질 및 생산 관리부분의 관리직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어차피 현장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 교육을 받으러 가기에는 ... 어렵기 때문에 현장직군들 보다는 관리직군들 위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지요. 사실 현장 하고 좀 밀접하게, 가장 밀접한 부서들 중에 하나가 이제 품질하고 생산 관리, 아까 말씀 설계 이런 쪽 부서들인데요. ... 그래서 저는 관리직군들 교육을 차라리 조금 강화를 시키는 게 좀 다양화를 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입 대상으로는 예절 교육이나 비즈니스 교육, 관리직 재직자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필요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교육의 질은 만족스럽지만, 교육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교육을 자주 보내지 않은 편인데도, 연구나 품질 분야 교육훈련 수가 적게 느껴지긴 해요. 교육 다녀온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이긴 해요”

[표 143] 석유화학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일부 화학산업은 수출비중이 매우높아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부는 코로나 여파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인력) 인력충원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 위치, 업무강도로 인해 퇴사율이 높은편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에 관련되서는 관리직군의 경우 외부 교육을 진행하지만, 생산직의 경우는 회사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엔지니어들의 경우 전기 쪽 계장 기술이나 설계기술 관련 교육이 필요함 - 품질 및 생산 관리부분의 관리직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신입 대상으로는 예절 교육이나 비즈니스 교육, 관리직 재직자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필요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질은 만족스럽지만, 교육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바. 석탄에너지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인력) 인력충원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업종 이미지 및 업무환경, 필요자격증, 전공의 존재로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

“일단 인력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저희 회사도 항상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 워크넷이나 이런데 공고를 올려놓긴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시 외곽 지역에 있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또 화학의약품을 다루다 보는 건 이미지상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잘 안 오는 거 같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 환경 자격증이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환경 쪽은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저희 본사 공장은 시화 쪽에 있고 지점은 당진 쪽에 있는데 당진 쪽이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화학제조 등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뿐만 아니라 건축과 토목을 같이 알아야 하는데, 이런 거를 관련하여 학부때 가르치는 대학이 많지 않고, 대부분 석사이상, 논문까지 쓰는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긴 한데, 업무 환경이 현장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입 인력들이 더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신입 대상의 교육훈련은 자격증 교육이 필요함

- 유해화학물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위험안전 관리자 등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

“신입인력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사내임원(본부장급)이 직접 진행하지만 외부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을 한다면 주로 자격증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격증은 유해화학물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위험안전 관리자 등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원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 유지를 위한 필수 자격증들입니다”

- 업종상 법정교육이 있어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들어야함

“일단 저희는 업종상 자체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서 사내 교육을 일단 그 자격증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내 교육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가 1년에 한 번 정도면 무조건 와야 되어서 외부 강사가 올 때도 있고 일단 저희가 다루는 물질이 유해한 물질이 많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전직원이 법정 교육을 듣게 되어 있어요”

- 인사총무의 경우 인사평가나 기획, 재경은 재무제표, 영업은 고객응대나 신규거래처 분석, 생산관리는 원가 절감 관련 교육 필요

“인사총무 같은 경우에는 인사 평가나 기획 쪽, 인사 기획 쪽 교육 진행이 필요합니다. 재경 쪽은... 재무제표에 관련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영업 쪽은 고객 응대나 신규 거래처 그런 업무 분석같은 부분, 생산 관리는 원가 절감 위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지역 내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정보에 대해 개별 사업체에 홍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내에서 무슨 교육훈련을 어떻게, 어디서 제공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인근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인력과 기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산업단지 인근 대학교에서 협약해서 인력을 인턴처럼 채용해서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고, 회사는 그 학교 내의 시설, 장비, 설비등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관련 사업이 없어져서 못하고 있음”

- 신사업 관련 교육 및 인력이 필요함

“저희가 4차 산업 쪽으로 전기 배터리 쪽으로 저희가 신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인데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한국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전기차 배터리 쪽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격증(산업기사, 위험물기사 등), 지게차 관련 교육이 필요함

“일단 저희는... 법적으로 회사에 몇 명씩 위험물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제 그런 자격증 관련 교육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제일 필요한 건 지게차 교육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표 144] 석탄에너지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인력) 인력충원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업종 이미지 및 업무환경, 필요자격증, 전공의 존재로 고용이 쉽지않은 상황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 신입 대상의 교육훈련은 자격증 교육이 필요함 - 업종상 법정교육이 있어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들어야함 - 인사총무의 경우 인사평가나 기획, 재경은 재무제표, 영업은 고객응대나 신규거래처 분석, 생산관리는 원가 절감 관련 교육 필요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인근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인력과 기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신사업 관련 교육이 필요함 - 자격증(산업기사, 위험물기사 등), 지게차 관련 교육이 필요함

사.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의식주의 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코로나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으며,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증대됨

“우리 업종은 먹는 거잖아요. 회식이나 단체 급식 쪽에는 시장이 좀 위축됐다고 하지만 먹는 시장이 다 보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의식주로 봤을 때는 먹는 것은 줄이지 않았다”

“OOO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됐지요”

“저희도 의약품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매디퍼스트 기업처럼 그래도 크게 이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는 딱히 없습니다”

- (인력) 사무직, 연구직의 경우 일부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고용을 진행 중이며, 공채를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는 인력수급은 계속 이뤄지나 이탈률이 높은편

“저희회사는 사무직은 남자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만 20명정도 채용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인사 총무나 사무직 품질 쪽도 채용 중인데 남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사무직 안에 연구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구직으로 조금 한 절반 정도가 연구직으로 채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영업 쪽도 채용이 됐고 브랜드 사업 개발, 이런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공채를 합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시 채용, 특채를 하고 있고요. ... 공채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력 수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을 뽑았을 경우에 인턴십을 하든 공채를 하든 옛날보다는 이탈률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나 위치가 아니면 빨리 이탈하는거 같아요”

- (인력) 생산직의 경우 기존 인원을 유지하면서 TO가 발생하면 상시채용을 통해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 중

“저희는 퇴직 대체 채용이 많았는데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번 년도 아직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따로 추가적으로 총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따로 지금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직군은 TO가 나면, 정년퇴직자가 나오면 바로 신규 채용을 하고 있어요”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신입은 대부분 기업 자체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았을 경우에 경력사항을 뽑았을 경우에 보통 2주, 두 달 동안에 선배들이 직무 교육을 위해 집체 교육을 해주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교육이라 하면 일단 신규 입사자든 경력 입사자든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외부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편

“직무 관련된 교육은 팀장, 해당 팀장의 직무자 권한에 따라서 외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집체 교육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예요 많이. 그래서 과거처럼 집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직무 교육도 가능한 직무 교육은 화상 교육이 되거나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이 교육 시장은 무너졌고요”

“현장에서 하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틀리니까요. 확실히 지금 같은 경우에 동영상으로 보면 솔직히 금방 잊어버려요. 직접 보고 만지고 뭘 해야지 빨리빨리 익히고 하는데 동영상 만으로는 발전됐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 신입대상으로는 캐드, PLC 관련 교육이 필요함

“저희가 예전부터 교육했던 것은 캐드랑 PLC 쪽이었고요. ... 이 기계 자체가 좀 그쪽 배웠던 현장 하고는 좀 기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또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캐드랑 PLC 쪽만 아마 다시 교육을 할 것 같아요”

- 직무별로 원하는 교육이 다양함

- 관리자는 리더십 교육, 연구직은 진학관련, 현장쪽은 전기 자격증 등과 전반적으로 어학능력이 필요함

“교육은 사실은 공통 교육이 있고요. 개별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 교육은 아까 말했듯이 진급 자별로 또 직급별로 또 직무별로 모아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이 있고요. 소양 교육. 사업 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아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교육도 있을 거고 또 리더자라면 관리자라면 기본적인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관리자 매니지먼트 교육이 있겠네요”

“최근에는 R&D 쪽은 진학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장 쪽은 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 교육, 그 다음에 전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원하는 거 같아요”

“외국어, 어학능력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하고요 글로벌화 할 수 있게 영어, 중국어, 일어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재직자들은 영양학과 기계에 대한 이해, 기계, PLC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일단 영양학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해해야 되고 전기라든지 아까 PLC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그룹 내에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교육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기업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교육 담당자 이 모임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규모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현업하기 바빠서 교육은 좀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견기업은 새롭게 컨템 점프를 해야 되니까 교육의 수요라든지 인력의 수요를 느끼지만 우수 인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맞는 인재를 찾기 힘들고요. ... 기업 상황을 좀 잘 아는데서 해서 타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 145]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의식주의 한 부분이라서 코로나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으며,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증대됨 - (인력) 사무직, 연구직의 경우 일부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고용을 진행 중이며, 공채를 진행하는 회사의 경우는 인력수급은 계속 이뤄지나 이탈률이 높은편 - (인력) 생산직의 경우 기존 인원을 유지하면서 TO가 발생하면 상시채용을 통해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 중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은 기업자체 내부에서 교육을 진행 -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외부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편 - 신입대상으로는 캐드, PLC 관련 교육이 필요함 - 관리자는 리더십 교육, 연구직은 진학관련, 현장쪽은 전기 자격증 등과 전반적으로 어학능력이 필요함 - 재직자들은 영양학과 기계에 대한 이해, 기계, PLC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 및 제공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기업상황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아. 건설/운송서비스산업

1)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 (산업) 건설업은 코로나 여파는 없는 편이며 일부 회사는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나 운송업의 경우 매출하락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

“건설쪽은 크게 산업 경기가 좋다, 안좋다 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매년 비슷해서”

“저희는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건설회사도 보니 수주량에 따라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19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희는 노선 버스 회사고요, ... 지금 코로나 여파로 보통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운송 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수입이 20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을 보면 거의 한 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금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123대 정도 운영하던 공항버스를 지금 반밖에 못하니까 고용에도 타격이 컸죠. 매출도 월 30억 하던 게 10억까지도 떨어졌어요”

“저희가 관광버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 관광버스 쪽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매출도 많이 없는 편이죠. 요즘 수학여행도 안가고 그래서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 (인력) 건설업은 직원 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는 직원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운수업의 경우도 직원 수의 변동사항 발생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상 이직율이 높은 편임

“신규인력 채용은 주로 퇴직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이 대부분이죠. 전체인력 규모로 봤을 때 변동은 없어요”

“수주량이 많아지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사람을 더 채용했구요. 주로 경력직 위주로 채용합니다. 저희는 딱히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한다거나하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운수업에서 전반적 채용상황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워낙 이직도 많고 인원이 빠지면 채용을 하는거라, 뭐 하루만에 사표쓰고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20년도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하반기 9월에서 10월 말까지 고용안정회복사업을 했고, 21년도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보장해줘야 되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자진퇴사를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서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대체 인력을 한 두 명 뽑을 때 말고는 신입을 잘 안 받아요.”

“원래 이런 기사 분들이 이직을 자주 하셔서 그 분들 빠질 때만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일이 많이 줄다보니 노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사람은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도 가급적 경력이 좀 적더라도 젊은 분들 뽑고 싶은데, 그 분들이 지원을 잘 안해서 나이가 많은 경력직들만 뽑히고 있습니다.”

- (인력) 건설업 및 운수업 모두 업무 여건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쪽이 현장직이다보니 현장근무가 힘들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건설이 현장, 시공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인식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현장을 안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데 이직률이 매우 높은편이라 경력 1년 이상 되는 경력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원래 개인택시 자격을 얻으려면 택시회사에 무조건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가용면허 5년 보유로 기준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택시회사에 잘 안 들어오고 있죠. 그냥 바로 개인택

시 자격 딸 수 있으니까.”

“이게 고질적인 운수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6대 광역시나 서울 쪽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가 있는데 그쪽의 급여 조건에 반해서 이쪽 농어촌이나 이런 외진 지역이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초보자를 뽑아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급여가 높은 데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2) 교육훈련 필요 대상 및 교육 내용

-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음

“2년 전 정도까지 외주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양(언어)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효율성이 크지 않고, 교육 받는 동안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사고자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동영상이나 이런 걸 다 제작해 봤어요. 회사 내부에 사고 장면이나 사고 현장이나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서 모니터로도 틀어주고 각종 자료 같은 거 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고 교육 자료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신규 입사자 교육은 입사를 하시면은 노선 숙지라든지 그리고 사칙 여러 가지 친절 그런 직무 교육도 같이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기사분들은 주로 어디로 운행하는지 노선 익히는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시내버스다 보니 이런걸 외부에서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거죠”

- 건설업에서는 신입인력에 대해서 직무별 업무관련 OT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재직인력에 대해서는 오토캐드 자격증, 프로그램 실행 및 이해 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

“재직자는 주로 기술자기 때문에, 설계 관련된 오토캐드 능력이라던가 자격증이 가장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루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돼요. 또 설계는 오류나 불량을 파악하고 맞추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필요하구요.”

- 운수업에서는 안전교육과 차량정비교육, 운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버스정비교육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고장 같은 것도 기사님들이 잘 모르고 안 고치고 운전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정비 방법 같은 걸 가르치는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서는 운전 실습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현장감있는 실습위주로 교육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 운전자 관련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습위주 교육이 필요함

- 교통체험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

“운전자들 보수 교육 같은 것을 하시는 걸 가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론 교육 위주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앞으로는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체험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상주 교육센터를요 홍성에다 하나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 건축 관련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음

“충청권 내에서 교육기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건축 관련 교육은 저희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려는 것도 다 서울로 받으러 가야 되서 그게 좀 불편하죠.”

[표 146] 건설/운송서비스산업 주요 결과

구분	세부 내용
업종 내 산업 및 인력 채용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설업은 코로나 여파는 없는 편이며 일부 회사는 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나 운송업의 경우 매출하락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 - (인력) 건설업은 직원 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는 직원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운수업의 경우도 직원 수의 변동사항 발생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상 이직율이 높은 편임 - (인력) 건설업 및 운수업 모두 업무여건상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회사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음 - 건설업에서는 신입인력에 대해서 직무별 업무관련 OT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재직인력에 대해서는 오토카드 자격증, 프로그램 실행 및 이해 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 - 운수업에서는 안전교육과 차량정비교육, 운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관련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습위주 교육이 필요함 - 건축 관련 교육을 늘릴 필요가 있음

제5장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요약

제2절.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시급성)

제3절. 훈련공급조정 선호분야 분석

제4절.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

제1절 | 주요 조사결과 요약

가.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결과

- 충남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2.6%로, 전국 평균 증가율(2.8%)을 하회하는 수준임
- 한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19년 기준 51.9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37.3백만 원)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는 1.9%로, 전국 증가율(3.4%)보다 낮아, 다소 정체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충남의 총부가가치의 53%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높은 성장세를 주도하였으나,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성장률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편임
 - 한편, 충남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총소득 비중은 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충남지역 노동구조를 보면, 2019년 기준 고용률은 62.4%이며, 전국 평균 고용률(60.1%)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전년 대비 0.7%p 하락함
 - 한편 실업률은 3.5%로 전국 평균 실업률(4.0%)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전년 대비 0.6%p 증가하여, 고용의 양적 성장은 미비한 수준임
- 충남지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모두 전년대비 하락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 전국 -1.4%p < 충남 -3.2%p
 - 청년층 고용률 증가율 전국 -1.3%p < 충남 -3.1%p
- 충남의 구인배수를 보면 0.71로 전국(0.45) 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인원의 증가율이 구직인원의 증가율에 비해 낮아, 구인구직에 대한 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전년대비 구인인원 증가율 : 3.8% / 구직인원 증가율 : 4.6%

- 충남의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미충원인원은 2,576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 부족률은 1.7% 수준임
- 충남의 산업기술인력 현황을 보면, 자동차 제조업 관련 산업기술인력이 21,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남지역 핵심산업에 포함되는 산업임
 - 산업기술인력의 60% 이상이 고졸이하 인력으로 나타난 반면, 석박사 인력은 산업기술인력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나, 전년(2.7%)대비 1.8%p 증가함
- 한편, 산업기술인력의 부족률은 1.5%로, 전국 평균(2.2%) 대비 낮은 수준이며, 부족인원은 2019년에 1,840명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1.2%) 대비 높은 수준임

나. 훈련수급 정량조사분석 결과

1) 훈련 수요조사 결과

- 충남지역 22개 업종에 대해 사업체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종사자 수는 총 268,913명으로 전년(259,039명) 대비 3.8% 증가함
 -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48,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중에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44,328명으로 가장 많았음
- 한편, 근속 1년 미만 신입인력은 총 30,30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11.3% 수준으로, 2010년 대비(10.7%) 0.6%p 증가한 수준임
 -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근속 1년 미만 신입인력의 비중이 13.7%로 가장 높았음
 - 충남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된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근속 1년 미만 신입인력의 비중은 약 10% 내외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2020년 1년간 퇴직자는 전체 33,559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12.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는 14,436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3.0% 수준임
 - 한편, 산업별 근속 1년 미만 종사자 비중은 문화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화학의약품플라스틱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미용·예식 서비스직, 돌봄 서비스직, 식품 가공·생산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충남지역의 채용현황을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구인인원은 29,497명으로 나타났으며, 충원율은 95.2% 수준으로, 전년대비 충원율이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충원율 또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조사(2019년 기준) 충원률 97.2% / 2019년 조사(2018년 기준) 충원률 98.2%

- 충남지역의 2022년 채용예정인원은 7,590명으로 전년 대비 4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기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채용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최근 경기 상황이 작년 대비 회복되면서 채용수요도 어느 정도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조사(2021년 기준) 채용예정인원 5,099명
2019년 조사(2020년 기준) 채용예정인원 11,059명

- 한편, 산업별 채용예정인원을 보면, 대체로 충남지역 7대 산업 관련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채용 수요를 보인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채용 수요가 전년 대비 242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추이에서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산업으로 나타남

2) 훈련 수요추정 결과

- 2022년 충남지역 교육훈련 수요는 양성훈련 수요인원 2,249명, 향상훈련 수요인원 52,464명(평균기준)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양성훈련 수요는 2021년(2020년 결과) 채용인원 및 채용예정인원의 급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2021년 결과)은 전년 대비 910명 증가한 반면,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는 최근 3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31] 최근 3년 양성 및 향상 수요량



- 2022년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수요인원은 직종 소분류 기준 모두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았음
 - 양성훈련 수요 : 돌봄 서비스 종사자(368명) > 회계·경리 사무원(254명) > 기계·로봇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248명) 등의 순
 - 향상훈련 수요 : 돌봄 서비스 종사자(6,476명) > 경영지원 사무원(5,076명) >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3,741명) 등의 순

3) 훈련 공급분석 결과

- 충남지역 내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총 266개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기관의 약 69.5%가 북부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개설 분야를 보면, 경영·행정·사무 및 건설, 보건·의료 관련 훈련과정이 전체 훈련과정의 약 50% 이상을 차지함
- 2020년 충남지역에서 양성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총 8,3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615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은 55.5%로 나타남
- 직종별 최근 3개년 양성훈련의 공급인원(수료인원) 추이를 보면, 공급인원이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직종은 정보보안 전문가,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전기공,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업원으로 나타남
 - 한편, 3개년 연속 공급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직종은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나타남

[표 147] 최근 3개년 양성훈련 공급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료인원			공급 추이	취업인원			취업률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614	5,071	8,309	-	3,894	3,054	4,615	58.9	60.2	55.5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47	-	-	-	31	-	-	66.0	-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30	-	-	-	10	-	-	33.3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	15	54	-	-	9	22	-	60.0	40.7
027. 회계경리 사무원	573	449	515	-	379	311	335	66.1	69.3	65.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0	-	34	-	48	-	28	96.0	-	82.4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763	522	847	-	407	266	396	53.3	51.0	46.8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9	70	233	-	104	62	177	74.8	88.6	76.0
134.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운영 전문가	31	36	-	-	24	25	-	77.4	69.4	-
135. 정보보안 전문가	18	20	22	증가추세	19	15	16	105.6	75.0	72.7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81	107	154	-	106	56	89	58.6	52.3	57.8

구분	수료인원			공급 추이	취업인원			취업률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614	5,071	8,309	-	3,894	3,054	4,615	58.9	60.2	55.5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44	469	552	-	376	361	391	69.1	77.0	70.8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25	12	-	-	10	9	-	40.0	75.0
153. 전가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5	61	33	-	27	40	18	60.0	65.6	54.5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	30	12	감소추세	28	19	7	77.8	63.3	58.3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0	-	14	-	27	-	9	45.0	-	64.3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66	59	18	감소추세	121	45	12	72.9	76.3	66.7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8	26	52	-	23	13	20	39.7	50.0	38.5
307. 보건의료 종사자	320	301	360	-	232	250	245	72.5	83.1	68.1
411. 작가통번역가	-	-	39	-	-	-	13	-	-	33.3
414. 창작공연 전문가	-	-	19	-	-	-	9	-	-	47.4
415. 디자이너	125	116	259	-	67	62	131	53.6	53.4	50.6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1	-	9	-	-	-	2	0.0	-	22.2
511. 미용 서비스원	478	311	452	-	157	97	115	32.8	31.2	25.4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14	1	15	-	7	1	8	50.0	100.0	53.3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3	433	835	-	245	166	342	46.0	38.3	41.0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1,142	750	1,452	-	702	464	919	61.5	61.9	63.3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	3	-	-	-	-	-	-	0.0
621. 항공기산업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4	-	-	-	2	-	-	50.0	-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277	295	705	증가추세	187	190	415	67.5	64.4	58.9
701. 건설구조 기능원	-	41	33	-	-	18	17	-	43.9	51.5
702. 건축미감 기능원	48	41	52	-	25	24	22	52.1	58.5	42.3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36	96	241	-	68	52	130	50.0	54.2	53.9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	-	57	-	-	-	38	-	-	66.7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94	86	104	-	74	84	90	78.7	97.7	86.5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39	59	52	-	40	47	42	102.6	79.7	80.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21	13	-	-	10	3	-	47.6	23.1
824. 용접원	150	115	224	-	96	83	137	64.0	72.2	61.2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5	20	17	-	11	12	12	73.3	60.0	70.6
831. 전기공	123	142	353	증가추세	95	109	251	77.2	76.8	71.1
832. 전가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46	26	-	-	30	23	-	65.2	88.5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26	21	-	-	18	7	-	69.2	33.3	-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3	-	-	-	17	-	-	73.9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3	2	-	-	2	-	-	66.7	0.0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41	178	276	-	89	67	80	36.9	37.6	29.0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69	84	161	증가추세	22	32	42	31.9	38.1	26.1
Y. 분류불능	35	-	-	-	25	-	-	71.4	-	-

- 2019년 충남지역에서 향상훈련에 참여한 재직자는 총 32,6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료인원은 30,529명으로 수료율은 93.6%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향상훈련 공급 인원은 지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42.7% 감소하여 감소폭이 큼
- 직종별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인원(실시인원) 추이를 보면, 교육훈련 공급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직종은 경영·인사 전문가, 미용 서비스원, 경호·보안 종사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구조 기능원, 전기공으로 나타남

- 반면, 경영·행정 관련 사무직,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보건 의료 종사자, 운송장비 조립원,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관련 직종의 경우, 공급인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148] 최근 3개년 향상훈련 공급현황

(단위 : 명, %)

구분	실시인원			공급 추이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4,158	56,285	32,615	감소추세	60,418	52,835	30,529	94.2	93.9	93.6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	3	10	-	-	2	9	-	66.7	90.0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93	42	-	감소추세	92	41	-	98.9	97.6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	45	-	-	-	42	-	-	93.3
022. 경영인사 전문가	310	318	616	증가추세	296	227	534	95.5	71.4	86.7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31	23	45	-	31	23	42	100.0	100.0	93.3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554	55	28	감소추세	543	55	27	98.0	100.0	96.4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1,791	800	47	감소추세	1,771	791	47	98.9	98.9	100.0
026. 경영지원 사무원	4,962	4,189	2,105	감소추세	4,682	3,933	2,012	94.4	93.9	95.6
027. 회계경리 사무원	825	1,139	716	-	714	1,013	623	86.5	88.9	87.0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629	3,591	2,306	감소추세	5,053	3,225	2,139	89.8	89.8	92.8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584	1,617	749	감소추세	2,362	1,426	664	91.4	88.2	88.7
031. 금융보험 전문가	393	33	57	-	392	33	55	99.7	100.0	96.5
032. 금융보험 사무원	7,622	8,326	704	-	7,592	8,282	696	99.6	99.5	98.9
033. 금융보험 영업원	106	72	87	-	105	72	86	99.1	100.0	98.9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69	-	-	-	67	-	-	97.1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	2	-	-	-	2	-	-	100.0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8	-	-	-	8	-	-	44.4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95	32	57	-	70	26	56	73.7	81.3	98.2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77	424	303	-	156	375	287	88.1	88.4	94.7
135. 정보보안 전문가	-	-	1	-	-	-	1	-	-	100.0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65	1,979	1,238	감소추세	2,390	1,898	1,213	97.0	95.9	98.0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366	3,107	2,278	감소추세	3,071	2,852	2,142	91.2	91.8	94.0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16	233	85	감소추세	540	219	77	87.7	94.0	90.6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28	504	159	-	311	478	151	94.8	94.8	95.0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4	441	300	-	334	412	263	91.8	93.4	87.7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06	47	34	감소추세	262	45	34	85.6	95.7	100.0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9	-	-	-	29	-	-	100.0	-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166	1	-	-	5,111	1	-	98.9	100.0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	2	-	감소추세	8	2	-	88.9	100.0	-
214. 문라기술예능 강사	15	-	-	-	14	-	-	93.3	-	-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8	11	-	-	18	11	-	100.0	100.0	-
222. 법률 사무원	746	55	16	감소추세	746	55	12	100.0	100.0	75.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9	1,359	342	-	488	1,153	304	85.8	84.8	88.9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1,367	1,558	327	-	1,233	1,512	318	90.2	97.0	97.2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13	-	-	-	8	-	-	61.5
304. 간호사	12	-	-	-	0	-	-	0.0	-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4	-	17	-	4	-	11	100.0	-	64.7
307. 보건 의료 종사자	1,140	280	236	감소추세	917	248	209	80.4	88.6	88.6
411. 작가통번역가	-	40	61	-	-	32	52	-	80.0	85.2
414. 창작공연 전문가	-	-	36	-	-	-	23	-	-	63.9
415. 디자이너	268	286	182	-	235	268	162	87.7	93.7	89.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2	-	-	-	2	-	-	100.0

구분	실시인원			공급 추이	수료인원			수료율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 체	64,158	56,285	32,615	감소추세	60,418	52,835	30,529	94.2	93.9	93.6
511. 미용 서비스원	120	127	195	증가추세	101	99	146	84.2	78.0	74.9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2	-	4	-	2	-	4	100.0	-	100.0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20	-	-	-	18	-	-	90.0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65	873	708	-	429	828	644	92.3	94.8	91.0
541. 경호보안 종사자	86	435	1,748	증가추세	83	432	1,615	96.5	99.3	92.4
542. 경비원	3,107	6,618	4,379	-	2,939	5,816	3,920	94.6	87.9	89.5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4,665	5,541	5,343	-	4,501	5,402	5,240	96.5	97.5	98.1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1,078	-	12	-	958	-	9	88.9	-	75.0
612. 영업원 및 상품증개인	554	430	151	감소추세	543	402	144	98.0	93.5	95.4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	-	41	-	-	-	37	-	-	90.2
615. 판매 종사자	775	804	194	-	762	782	167	98.3	97.3	86.1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22	35	-	-	21	34	-	95.5	97.1	-
622. 자동차 운전원	-	17	13	-	-	17	0	-	100.0	0.0
623. 물품이동장비 조직원	753	1,120	1,868	증가추세	734	1,093	1,853	97.5	97.6	99.2
701. 건설구조 기능원	4	6	8	증가추세	4	5	7	100.0	83.3	87.5
702. 건축마감 기능원	35	42	22	-	34	37	22	97.1	88.1	100.0
703. 배관공	3	10	-	-	3	10	-	100.0	100.0	-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96	388	267	-	191	369	255	97.4	95.1	95.5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10	-	-	-	10	-	-	100.0	-	-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0	-	-	-	10	-	-	100.0	-	-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452	338	530	-	436	315	516	96.5	93.2	97.4
812. 운송장비 정비원	499	1,078	57	-	475	1,016	55	95.2	94.2	96.5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	223	268	111	-	211	258	93	94.6	96.3	83.8
814. 냉난방 설비 조직원	-	-	2	-	-	-	1	-	-	50.0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직원	-	64	296	-	-	61	282	-	95.3	95.3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267	401	176	-	236	376	163	88.4	93.8	92.6
817. 운송장비 조립원	169	164	53	감소추세	154	159	46	91.1	97.0	86.8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332	408	278	-	271	382	258	81.6	93.6	92.8
822. 판금원 및 제판원	57	-	-	-	57	-	-	100.0	-	-
824. 용접원	362	617	335	-	318	567	310	87.8	91.9	92.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16	20	19	-	15	20	17	93.8	100.0	89.5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133	70	-	-	122	67	-	91.7	95.7	-
831. 전기공	6	182	300	증가추세	5	145	269	83.3	79.7	89.7
832. 전가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96	384	76	-	286	356	72	96.6	92.7	94.7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426	387	116	감소추세	393	352	115	92.3	91.0	99.1
834. 전가전자 설비 조직원	2,979	2,737	561	감소추세	2,806	2,704	556	94.2	98.8	99.1
835. 전가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335	306	226	감소추세	325	296	210	97.0	96.7	92.9
836. 전가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29	243	7	-	109	226	5	84.5	93.0	71.4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1	7	-	-	1	7	-	100.0	100.0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46	71	58	-	44	68	58	95.7	95.8	100.0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468	348	335	감소추세	454	344	320	97.0	98.9	95.5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98	57	26	감소추세	93	54	22	94.9	94.7	84.6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17	-	-	-	14	-	-	82.4	-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4	-	-	-	3	-	-	75.0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387	374	363	감소추세	358	341	318	92.5	91.2	87.6
872. 식품 가공 기능원	77	-	173	-	76	-	165	98.7	-	95.4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51	127	48	-	51	127	47	100.0	100.0	97.9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339	456	238	-	306	405	193	90.3	88.8	81.1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41	-	-	-	139	-	-	98.6	-	-
y. 분류불능	1,970	165	-	-	1,743	154	-	88.5	93.3	-

- 2020년 기준 충남지역 거주 교육생들의 유출 현황을 보면, 충남지역 거주 양성훈련 교육생의 21.7%가 타 지역에서 양성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2%가 수도권에서 양성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 유출이 가장 많은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분야(NCS)는 사무행정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응용SW엔지니어링, 내선공사 등의 순임
 - 한편, 응용SW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충남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된 분야이나, 타 지역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인원의 비중이 52.9%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충남지역 거주 재직자의 경우, 66.19%가 타 지역의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훈련과 동일하게 수도권에서 향상훈련을 수강하는 재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훈련 수급차 분석

- 양성훈련의 직종별 수급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수급차(공급-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에도 수요 대비 공급인원이 많아,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음
 - NCS별 수급차를 보면, 수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는 NCS 소분류 기준 208개 분야로 나타난 반면 공급하고 있는 분야는 34개로 매우 제한적임
 - 특히 재무, 총무, 인사·조직, 품질관리 등에서 다수의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공급량은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 음식료서비스, 이·미용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향상훈련의 경우, 전체 수급차가 -20,458명으로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경영지원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에서 수급차가 2,000명 이상으로 크게 나타남
 - 한편,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경호·보안 종사자, 경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직종으로 나타남
 - NCS별로 보면, 향상훈련도 양성훈련과 동일하게 수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의 수

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분야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분야 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재무, 자동차제작, 총무에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 훈련수급 정성조사 분석 결과

- 코로나 19의 장기화, 자동화 생산 추진, 공장설비 발전 등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주요 산업군의 대부분은 신규 인력의 채용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경력직 또는 연구개발직과 같은 필수 인력의 유지를 위한 채용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한편, 디스플레이, 철강, 스마트휴먼바이오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바이오 관련 사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증대되기도 함
- 좌담회 대상 산업별 교육훈련 필요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49] 정성조사 결과 요약 - 교육훈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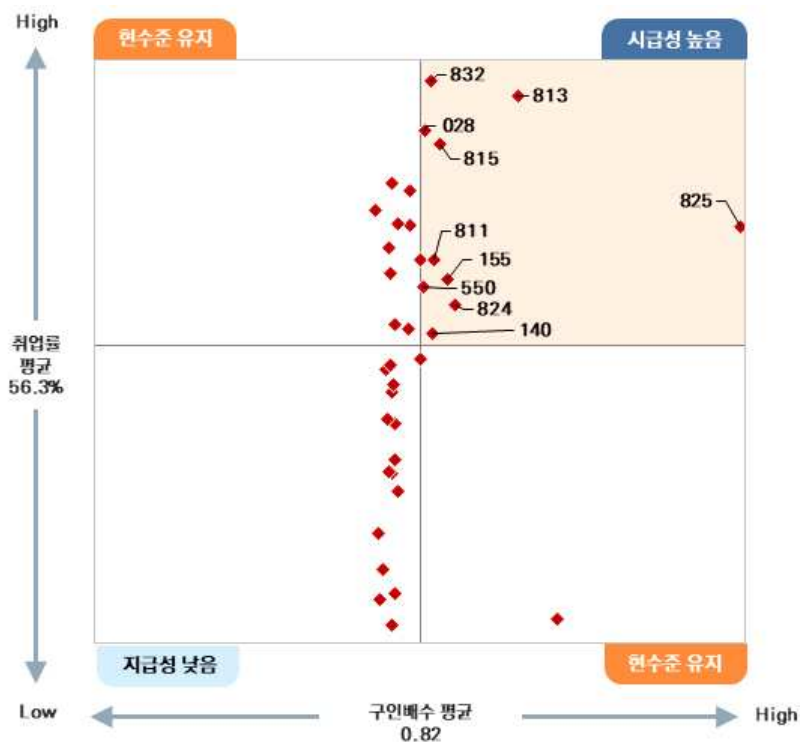
산업구분	세부 내용	
	직종 또는 대상	교육내용
자동차부품산업	생산직	기계조작, 안전관리교육, 자동화라인 로봇 설비 제작
	관리직	공정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FMEA 교육
반도체산업	사무직	인사총무, 재무, 제품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설계, 자동제어, PLC 관련 분야
	생산직	위험물 관련 교육
	-	기본 소양 교육
디스플레이산업	엔지니어(경력)	제조 공정 관련
	신입	MCT 가공
	-	어학(영어)
석유화학	엔지니어	도면설계, 계장기술
	관리직	품질·생산관리, 리더십 교육
	신입	예절교육, 비즈니스교육
철강산업	신입	노무, 기본소양
	생산직	안전교육
	사무직	수출·무역 관련 분야, OCD(조직풍토진단) 교육
석탄에너지	신입	유해화학물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안전관리사 등 안전 관련 자격증
	사무직(인사총무)	인사평가·기획
	사무직(재무)	재무제표관련
	사무직(생산관리)	원가절감관련
	영업직	고객응대관련, 신규거래처 분석 등
스마트휴먼바이오	신입	CAD, PLC 관련
	관리자	리더십교육, 관리자매니지먼트교육
	현장직	전기 자격증, 기계에 대한 이해
	-	어학(영어, 중국어, 일어)
건설/운송서비스	재직자(건설)	오토캐드, 프로그램 실행능력
	재직자(운송)	안전교육, 차량정비, 운전실습

- 한편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각 산업별 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또한, 이전 대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이 개선, 확대되고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수도권 대비 교육훈련 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은 적어 양적인 측면 보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타남
 - 산업별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직급별, 직무별 세분화된 교육과정의 제공이 필요하며, 신사업/신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일부 나타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수요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제2절 |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시급성)

-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을 통해 인력공급의 시급성을 분석하고자 함
 -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은 HRD-Net의 양성훈련의 직종 소분류별 취업률과 지역 내 구인 및 구직인원을 활용하여 산출한 구인배수를 통해 분석을 실시함
 - 단, 인력수급 현황 분석 대상 직종은 2020년 양성훈련 공급이 이루어져 취업률이 발생한 직종을 기준으로 함
- 취업률이 높고 구인배수가 평균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이 시급한 직종은 전기·전자기기 설치·수리원(832),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813),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028),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815), 기계장비 설치·정비원(811),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5), 돌봄 서비스 종사자(550), 용접원(824), 도장원 및 도금원(825),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40)으로 총 10개 직종으로 나타남

[그림 32] 지역 내 인력수급 시급성 분석



- 한편, 구인배수 및 취업률 모두 평균 이하로 인력공급의 시급성이 낮은 직종은 경영지원 사무원(026),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029),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153) 등 총 16개 직종으로 나타남

[표 150] 지역 내 인력수급 현황 분석(시급성)

(단위 : %)

구분	직종명	취업률	구인배수
시급성 높음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82.4	0.89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7.8	1.01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4.3	1.28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63.3	0.87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66.7	1.04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6.5	2.51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0.8	1.15
	825. 도장원 및 도금원	70.6	6.40
	824. 용접원	61.2	1.41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8.5	0.99
현수준 유지	027. 회계·경리 사무원	65.0	0.27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76.0	0.32
	135. 정보보안 전문가	72.7	0.02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8	0.62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5.0	0.62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3	0.60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6.7	0.81
	307. 보건·의료 종사자	68.1	0.25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58.9	0.37
	831. 전기공	71.1	0.41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3.1	3.19
시급성 낮음	026. 경영지원 사무원	40.7	0.31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46.8	0.37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4.5	0.80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38.5	0.42
	411. 작가·통번역가	33.3	0.07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7.4	0.23
	415. 디자이너	50.6	0.30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2.2	0.31
	511. 미용 서비스원	25.4	0.09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3.3	0.19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1.0	0.27
	701. 건설구조 기능원	51.5	0.34
	702. 건축마감 기능원	42.3	0.36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3.9	0.28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9.0	0.14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26.1	0.36

제3절 | 훈련공급조정 선호분야 분석

가. 훈련공급 선호분야 분석 방식

- 2021년도 충남지역 교육훈련에 대해 교육훈련 미스매칭 직종 도출을 하고, 그에 대한 교육훈련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련공급 분야에 대한 선호 분야를 분석함
-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분석을 실시함

1단계. 교육훈련 정량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필요분야 선정
(교육훈련 필요성과 교육성과의 정량 데이터 분석)

2단계. 구인/구직통계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의 현황¹⁹⁾ 분석

3단계. 1단계에서 도출된 교육훈련 필요 분야와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선호직종을 도출

▶ 1단계. 교육훈련 정량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분야 선정

- 교육훈련 필요성이 높고 교육 성과가 높은 직종일수록 교육훈련개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훈련분야를 도출함
- 교육훈련 필요성은 교육훈련 수요 추정량과 교육훈련 수급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함
 - 교육훈련이 필요성에 대한 집단은 직종을 기준으로 수요추정량과 교육 훈련 수급차 변수를 통해 높음, 보통, 낮음의 3개 집단으로 구성함
- 교육훈련 성과는 양성훈련의 경우, 취업률, 향상훈련의 경우 수료율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 후, 높음, 보통, 낮음의 3개 집단으로 구성함

▶ 2단계. 구인/구직 통계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현황 분석

- 충남지역 내 구인 및 구직인원을 활용하여 구인배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함
 - 노동시장현황에 대한 집단은 구인배수를 기준으로, 높음, 보통, 낮음의 3개 집단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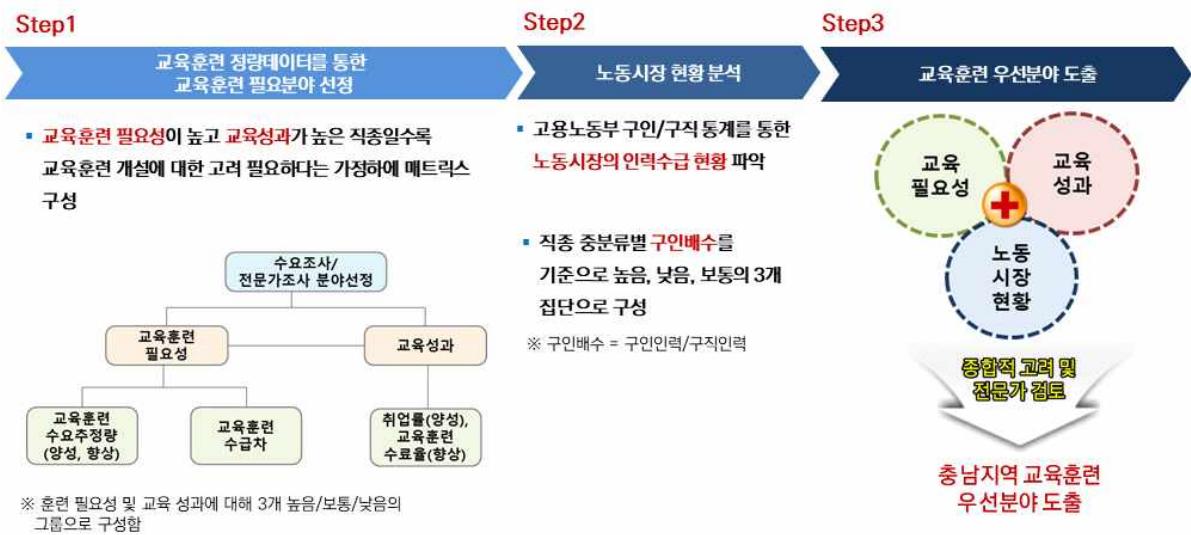
19) 노동시장 현황 분석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를 활용하여, 구인배수를 산출 및 분석함
구인배수 = 구인인원/구직인원

- 매트릭스 구성 시에는 구인배수 1이상(구인인력 > 구직인력), 구인배수 1미만(구직인력 > 구인인력)의 2개 집단으로 구성함

▶ 3단계. 최종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

- 1단계에서 도출된 교육 필요성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매트릭스와 노동시장 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선호분야를 도출함
- 도출된 교육훈련 선호직종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함

[그림 33]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 프로세스



- 교육훈련 수급 판단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51] 교육훈련 수급 판단 기준

판단지표	판단 근거	집단구분	판단 기준
교육 필요성	▶ 1차 수급차조정을 기준으로 판단 (양성) - 대폭 상향 및 하향 : 수급차 100 이상 - 소폭 상향 및 하향 : 수급차 10 이상 100 미만 (향상) - 대폭 상향 및 하향 : 수급차 1,000 이상 - 소폭 상향 및 하향 : 수급차 100 이상 1,000 미만	높음	대폭상향
		보통	소폭 상향 및 하향
		낮음	대폭하향
교육 성과	▶ 양성 : '20년 취업률 ▶ 향상 : '20년 수료율	높음	취업률 70% 이상
		보통	취업률 30% 이상 70% 미만
		낮음	취업률 30%미만
노동시장 현황	▶ '20년 구인배수 활용 (구인배수= 구인인원/구직인원)	높음	수료율95% 이상
		보통	수료율80%이상 95% 미만
		낮음	수료율80% 미만
		높음	구인배수1 이상
		보통	구인배수0.5 이상 1 미만
		낮음	구인배수0.5 미만

나. 훈련수급 조정 결과

1) 양성훈련 수급조정(안)

- 양성과정의 훈련수요 및 공급인원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수급차를 조정하며, 그 다음 양성과정에 대해 교육필요성 및 교육성과(취업률) 및 노동시장의 현황(구인배수)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훈련수급 조정을 검토함
 - 교육확대 검토 :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이 2개 이상 높음에 해당
 - 현수준 유지 :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이 1개 높음 또는 2개 이상 보통에 해당
 - 교육축소 검토 :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 중 높음이 없고, 2개 이상 낮음 해당(단, 현재 공급인원이 없는 경우 미제시)
- 양성과정의 훈련수급 조정(안)을 보면,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용, 도장원 및 도금원의 경우, 훈련수급조정 판단 기준 2개 이상이 높음으로, 교육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 한편, 미용서비스원,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의 경우, 훈련수급조정 판단기준이 모두 낮음에 해당하여, 교육훈련과정의 추가 개설을 보류하거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 회계·경리 사무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보건·의료 종사자, 디자이너,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주방장 및 조리사, 물품이동장비 조작용,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미용 서비스원,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공예원 및 귀금속 세공원의 경우도 수급조정 판단기준 2개가 낮음에 해당하여 교육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표 152] 양성훈련 수급조정 판단(안)

(단위 : 명, %)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취업률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2,249	9,289	55.5	0.71	-	-	-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 행사기획 전문가	1	0	-	0.33	-	-	낮음	-
026. 경영지원 사무원	6	54	40.7	0.31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027. 회계경리 사무원	254	581	65.0	0.2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8	43	82.4	0.89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029. 안내고객상담통계 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97	918	46.8	0.3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10	266	76.0	0.32	낮음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2	0	-	0.42	-	-	낮음	-
135. 정보보안 전문가	12	24	72.7	0.02	보통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179	57.8	1.01	낮음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48	622	70.8	0.62	낮음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12	75.0	0.62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38	54.5	0.80	보통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	20	58.3	0.60	보통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	20	64.3	1.28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158. 소방방재산업안전 비파괴 기술자	0	0	-	0.62	-	-	보통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 쇄목재 등 공학 기 술자 및 시험원	30	25	66.7	0.81	-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	56	38.5	0.42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307. 보건의료 종사자	47	407	68.1	0.25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411. 작가통번역가	3	52	33.3	0.07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 관리사	0	0	-	0.38	-	-	낮음	-
414. 창작공연 전문가	2	36	47.4	0.23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415. 디자이너	69	322	50.6	0.30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2	9	22.2	0.31	-	낮음	낮음	축소 검토
511. 미용 서비스원	37	531	25.4	0.09	낮음	낮음	낮음	축소 검토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0	15	53.3	0.19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521. 여행 서비스원	0	0	-	0.09	-	-	낮음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0	0	-	0.52	-	-	보통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136	916	41.0	0.2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368	1,659	63.3	0.87	낮음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구분	양성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취업률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2,249	9,289	55.5	0.71	-	-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	3	0.0	1.11	-	낮음	높음	-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201	723	58.9	0.37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701. 건설구조 기능원	9	37	51.5	0.34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702. 건축미감 기능원	7	57	42.3	0.36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52	245	53.9	0.28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0	0	-	0.76	-	-	보통	-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6	63	66.7	1.04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12. 운송장비 정비원	0	0	-	0.56	-	-	보통	-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57	120	86.5	2.51	보통	높음	높음	확대검토
815. 자동조립라인 산업용 로봇 조작원	27	64	80.8	1.15	보통	높음	높음	확대검토
816.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0	0	-	1.18	-	-	높음	-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0	13	23.1	3.19	보통	낮음	높음	현수준 유지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	19	70.6	6.40	보통	높음	높음	확대검토
824. 용접원	49	241	61.2	1.41	낮음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31. 전기공	94	404	71.1	0.41	낮음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832. 전가전자 기기 설치 수리원	14	27	88.5	0.99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3	0	-	1.76	-	-	높음	-
835. 전가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	0	-	0.49	-	-	낮음	-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7	0	-	0.94	-	-	보통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0	0	-	0.03	-	-	낮음	-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03	292	29.0	0.14	낮음	낮음	낮음	축소 검토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0	0	-	1.99	-	-	높음	-
884. 공예원 및 귀금속제품원	10	176	26.1	0.36	낮음	낮음	낮음	축소 검토
901. 작물재배 종사자	0	0	-	2.13	-	-	높음	-
903. 임업 종사자	0	0	-	0.71	-	-	보통	-

2) 향상훈련 수급조정(안)

- 향상과정의 훈련수요 및 공급인원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수급차를 조정하며, 그 다음 향상과정에 대해 교육필요성 및 교육성과(수료율) 및 노동시장의 현황(구인배수)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훈련수급 조정을 검토하며, 수급조정 판단 기준은 양성과정 수급조정 판단기준과 동일함
- 향상과정의 훈련수급 조정(안)을 보면, 경영지원 사무원,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등 총 13개 직종에서 훈련수급조정판단 기준 2개 이상이 높음으로,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훈련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직종²⁰⁾으로는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보험 사무원, 금융보험 영업원, 법률 사무원,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미용 서비스원, 경호·보안 종사자, 경비원, 자동차 운전원, 창작·공연전문가, 냉·난방 설비 조작원의 경우, 훈련수급조정판단 기준 2개 이상이 낮음으로 교육훈련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나타남

[표 153] 향상훈련 수급조정 판단(안)

(단위 : 명, %)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수료율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52,464	32,006	93.7	0.71	-	-	-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14	10	90.0	0.11	-	보통	낮음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40	0	-	0.13	-	-	낮음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97	0	-	0.22	-	-	낮음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	45	95.6	0.23	보통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022. 경영인사 전문가	2	619	86.9	0.30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5	45	93.3	0.18	-	보통	낮음	-
024. 광고조사홍보기획행사 기획 전문가	32	28	96.4	0.33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175	47	100.0	0.13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026. 경영지원사무원	5,076	2,105	95.6	0.31	높음	높음	낮음	확대 검토
027. 회계경영 사무원	2,761	716	87.0	0.27	높음	보통	낮음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3,741	2,238	92.6	0.89	높음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76	749	88.7	0.37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20) 낮음이 1개 이나,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훈련 축소 검토에 해당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수료율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52,464	32,006	93.7	0.71	-	-	-	-
031. 금융보험 전문가	0	57	96.5	0.00	-	높음	낮음	축소 검토
032. 금융보험 사무원	0	704	98.9	0.20	보통	높음	낮음	축소 검토
033. 금융보험 영업원	0	87	98.9	0.06	-	높음	낮음	축소 검토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2	0	-	0.33	-	-	낮음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29	0	-	0.59	-	-	보통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 공학 기술자	5	0	-	0.16	-	-	낮음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2	0	-	0.20	-	-	낮음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56	37	97.3	0.32	보통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20	303	94.7	0.42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9	1	100.0	0.02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95	1,238	98.0	1.01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4	1,931	95.2	0.62	낮음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6	73	89.0	0.62	-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87	129	96.1	0.80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6	349	91.1	0.60	보통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65	45	93.3	1.28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	0	-	0.00	-	-	낮음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6	0	-	1.76	-	-	높음	-
158. 소방방재산업안전 비파괴 기술자	578	0	-	0.62	-	-	보통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 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0	-	0.81	-	-	보통	-
212. 학교 교사	14	0	-	0.04	-	-	낮음	-
213. 유치원 교사	28	0	-	0.04	-	-	낮음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8	0	-	0.24	-	-	낮음	-
215. 강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14	0	-	0.36	-	-	낮음	-
222. 법률 사무원	0	16	75.0	0.38	-	낮음	낮음	축소 검토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778	342	88.9	0.42	높음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090	327	97.2	0.52	높음	높음	보통	확대 검토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16	13	61.5	0.00	-	낮음	낮음	축소 검토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 의사	72	0	-	0.34	-	-	낮음	-
303. 약사 및 한약사	26	0	-	0.28	-	-	낮음	-
304. 간호사	817	0	-	0.90	-	-	보통	-
305. 영양사	191	0	-	0.43	-	-	낮음	-
306. 의료기사처리사제출사	701	17	64.7	0.28	보통	낮음	낮음	축소 검토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04	236	88.6	0.25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411. 작가등반역가	8	61	85.2	0.07	-	보통	낮음	-
413. 학예사서거기록물	41	0	-	0.38	-	-	낮음	-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수료율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52,464	32,006	93.7	0.71	-	-	-	-
관공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	0	36	63.9	0.23	-	낮음	낮음	축소 검토
415. 디자이너	16	182	89.0	0.30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9	2	100.0	0.31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06	0	-	0.31	-	-	낮음	-
511. 미용 서비스원	14	195	74.9	0.09	보통	낮음	낮음	축소 검토
512. 결혼강제 등 여성 서비스원	4	4	100.0	0.19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521. 여행 서비스원	11	0	-	0.09	-	-	낮음	-
522. 항공기산박열차 객실승무원	35	0	-	0.00	-	-	낮음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7	0	-	0.52	-	-	보통	-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12	0	-	0.09	-	-	낮음	-
531. 주방장 및 조사	782	708	91.0	0.27	-	보통	낮음	-
532. 식당 서비스원	66	0	-	0.37	-	-	낮음	-
541. 경호보안 종사자	160	1,748	92.4	0.21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542. 경비원	716	4,379	89.5	0.09	낮음	보통	낮음	축소 검토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6,476	5,343	98.1	0.87	높음	높음	보통	확대 검토
561. 청소방역 및 기타 서비스원	1,245	12	75.0	1.11	높음	낮음	높음	확대 검토
562. 감침주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57	0	-	0.15	-	-	낮음	-
612. 영업원 및 상품관리원	1,054	151	95.4	1.06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0	41	90.2	0.28	-	보통	낮음	-
615. 판매 종사자	25	194	86.1	0.31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616. 매장 계산원 및 매점원	9	0	-	0.21	-	-	낮음	-
621. 항공기산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5	0	-	0.05	-	-	낮음	-
622. 자동차 운전원	969	13	0.0	0.31	보통	낮음	낮음	축소 검토
623. 물류자동화비 조작원	495	1,868	99.2	0.37	낮음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178	0	-	1.21	-	-	높음	-
701. 건설구조 기능원	165	8	87.5	0.34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702. 건축감리 기능원	81	22	100.0	0.36	-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703. 배관공	3	0	-	0.18	-	-	낮음	-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	267	95.5	0.28	보통	높음	낮음	현수준 유지
705. 기타 건설 기능원	185	0	-	0.16	-	-	낮음	-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123	0	-	0.76	-	-	보통	-
811. 기계장비 설치장비원	1,023	515	97.3	1.04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12. 운송장비 정비원	397	57	96.5	0.56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435	88	85.2	2.51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20	2	50.0	0.27	-	낮음	낮음	축소 검토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58	259	97.7	1.15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16. 기계 조립원	291	176	92.6	1.18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17. 운송장비 조립원	1,919	53	86.8	1.23	높음	보통	높음	확대 검토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74	265	92.5	3.19	-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22. 판금원 및 제판원	142	0	-	1.34	-	-	높음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182	0	-	8.13	-	-	높음	-
824. 용접원	85	310	92.9	1.41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25. 도금원 및 도금원	26	0	-	6.40	-	-	높음	-

구분	향상훈련 수요량	20년 공급인원	수료율	구인배수	교육훈련 수급조정 판단 기준			수급조정 판단
					교육 필요성	교육 성과	노동시장 현황	
전 체	52,464	32,006	93.7	0.71	-	-	-	-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270	0	-	2.43	-	-	높음	-
831. 전공	461	279	89.2	0.41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832. 전자전자기기 설치 수원	92	76	94.7	0.99	-	보통	보통	현수준 유지
833. 발전배전 장치 직원	0	116	99.1	1.76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34. 전자전자기기 설치 직원	111	574	99.1	0.52	보통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835. 전자전자기기 제품제품 생산기계 직원	1,149	226	92.9	0.49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836. 전자전자기기 제품제품 조직원	367	7	71.4	0.62	보통	낮음	보통	현수준 유지
841. 방송통신기기 설치 수원	10	7	100.0	0.52	-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842. 방송통신기기 설치 수원	9	58	100.0	0.94	-	높음	보통	현수준 유지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91	335	95.5	1.45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 제품 생산기계 직원 및 조직원	771	26	84.6	4.40	보통	보통	높음	현수준 유지
853. 환경관련 장치 직원	45	0	-	2.93	-	-	높음	-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80	0	-	6.36	-	-	높음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7	0	-	0.03	-	-	낮음	-
871.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13	363	87.6	0.14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04	187	96.3	2.89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73. 식품 가공 기계 직원	201	48	97.9	1.75	보통	높음	높음	확대 검토
881. 인쇄기사현상기 조직원	38	0	-	3.09	-	-	높음	-
882. 무재필프종이 생산 기계 직원	85	0	-	6.24	-	-	높음	-
883. 가구목제품 제조 수원	21	0	-	1.99	-	-	높음	-
884. 공예원 및 금속제품원	0	238	81.1	0.36	보통	보통	낮음	현수준 유지
885. 약기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23	0	-	0.25	-	-	낮음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6,209	0	-	1.67	-	-	높음	-
901. 직물제배 종사자	29	0	-	2.13	-	-	높음	-
903. 임업 종사자	5	0	-	0.71	-	-	보통	-
905. 농업어업 단순 종사자	6	0	-	2.70	-	-	높음	-

다.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

1) 양성과정 교육훈련 선호분야

-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 교육 성과 및 노동시장 현황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을 위해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인배수가 1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가 구직인력의 수보다 많아 취업이 원활하며, 교육의 필요성이 보통 이상이고 교육 성과가 높아 최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중분류 기준 3개로 나타났으며, 교육 성과가 보통으로 우선 교육훈련 선호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중분류 기준 4개로 나타남
 - 최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3개)
 - :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도장원 및 도금원
 - 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2개)
 - :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최우선 및 우선 교육훈련 선호직종으로 분류된 5개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훈련 외에 단기적으로 교육훈련의 확대를 통해 공급인원을 늘림으로써 지역 산업 및 인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 양성과정 교육훈련 선호분야

구분	구인배수 1 이상 (구인)구직)		구인배수 1 미만 (구직)구인)	
	교육 필요성 높음/보통	교육 필요성 낮음	교육 필요성 높음/보통	교육 필요성 낮음
교육 성과 (취업률)	높음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교육훈련 선호 직종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31. 전기공
	보통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24. 용접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411. 작가·통번역가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 보조 및 기타 사무원 307. 보건·의료 종사자 415. 디자이너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낮음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511. 미용 서비스원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최우선 교육훈련 선호 직종에 대해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NCS)를 고려하여 교육훈련 필요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훈련 필요분야는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직종별 ‘지원자 필요 역량(NCS)’에서 나온 수요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분야는 2020년 기준 HRD-Net 양성과정 상 공급이 되고 있는 분야이며, 신규는 수요는 있으나, 양성과정 상 공급이 되지 않은 분야임

[표 154] 양성훈련 최우선 교육훈련 선호 직종의 교육 필요 분야

KECO 소분류	교육훈련 필요 분야 (NCS 세분류)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기존	15020101. 선반가공	15020104. CAM
	신규	15020102. 밀링가공	15100104. 사출금형조립
		15020103. 연삭가공	15100201. 프레스금형설계
		15020105. 측정	15100202. 프레스금형제작
		15020106. 성형가공	15100203. 프레스금형품질관리
		15020202. 레이저가공	15100204. 프레스금형조립
		15100101. 사출금형설계	15100302. 다이캐스팅금형제작
		15100102. 사출금형제작	16010302. 단조·압출·인발
		15100103. 사출금형품질관리	19031102. 3D프린터용제품제작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기존	-	
	신규	190108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19030805. 로봇유지보수
825. 도장원 및 도금원	기존	16010401. 도금	-
	신규	15060305. 자동차도장	16010402. 금속도장

- 한편,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정보보안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작가·통번역가, 창작·공연 전문가,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건설구조 기능원, 건축 마감 기능원의 경우, 교육 성과 및 필요성은 보통 이상이나 현재 노동시장의 인력이 충분한 상태로 즉각적 교육의 확대보다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교육훈련 분야의 세분화 또는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노동시장의 인력이 충분하고 기업의 수요가 적어 교육 필요성이 낮은 회계·경리 사무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보건·의료 종사자, 디자이너, 주방장 및 조리사,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건설·채굴기계 운전원의 경우, 기존 교육훈련의 축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직종임
- 또한 미용서비스원,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에 인력이 충분하며, 교육 필요성 및 성과가 모두 낮아, 관련 교육훈련의 추가 개선을 보류해야할 필요가 있는 직종임

2) 향상과정 교육훈련 선호분야

- 향상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 교육 성과 및 노동시장 현황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선호분야 도출을 위해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구인배수가 1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가 구직인력의 수보다 많아 취업이 원활하며, 교육의 필요성이 보통 이상이고 교육 성과가 높아 최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중분류 기준 8개로 나타났으며, 교육 성과가 보통으로 우선 교육훈련 선호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중분류 기준 6개로 나타남

- 최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8개)

: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 조작원, 발전·배전장치 조작원,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식품 가공 기능원,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우선 교육 훈련 선호 직종(6개)

: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용접원,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그림 35] 향상과정 교육훈련 선호분야

구분	구인배수 1 이상 (구인)구직)		구인배수 1 미만 (구직)구인)	
	교육 필요성 높음/보통	교육 필요성 낮음	교육 필요성 높음/보통	교육 필요성 낮음
교육 성과 (수료율)	높음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33. 발전·배전장치 조작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교육훈련 선호 직종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사무원 032. 금융·보험 사무원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623. 불꽃이동장비 조작원
	보통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4. 용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7. 회계·경영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415. 디자이너 615. 판매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831. 전기공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541. 경호·보안종사자 542. 경비원
	낮음 561.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511. 미용 서비스원 622. 자동차 운전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최우선 및 우선 교육훈련 선호직종으로 분류된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훈련 외에 지역 산업 및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신규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 교육 훈련 공급량 확대를 통해 니즈에 즉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최우선 교육훈련 선호 직종에 대해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NCS)를 고려하여 교육훈련 필요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훈련 필요분야는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직종별 ‘재직자 훈련 수요(NCS)’에서 나온 수요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 분야는 2020년 기준 HRD-Net 향상과정 상 공급이 되고 있는 분야이며, 신규는 수요는 있으나, 향상과정 상 공급이 되지 않은 분야임

[표 155] 향상훈련 최우선 교육훈련 선호 직종의 교육 필요 분야

KECO 소분류	교육훈련 필요 분야 (NCS 세분류)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존	14020301. 지적
		14020302. 측량
		14020303. 공간정보구축
	신규	14030102. 건축구조설계
		14030101. 건축설계
		14010101. 설계기획관리
		14030103. 건축공사감리
		14010201. 건설공사공정관리
		14030301. 건축설비설계
		14010202. 건설공사품질관리
		14050101. 조경설계
		14010203. 건설공사환경관리
		14050102. 조경시공
		14010204. 건설공사공무관리
		14050104. 조경사업관리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기존	14010301. 유지관리
		14060103. 도시설계
	신규	14020106. 상하수도설계
811. 기계장비 및 설치·정비원	기존	14060105. 도시개발
		14020108. 기반설계
	신규	14080102. 해양측량
		14020111. 토목건설사업관리
		23030102. 생태관리
		14020112. 토목시설물경관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 로봇조작원	기존	02010302. 고객관리
	신규	10010101. 일반영업
		10010102. 해외영업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기존	20010501. IT기술영업
		15010104. 기계마케팅
	신규	22010104. 제작·공정관리
		14040201. 플랜트기계설비시공
		09020202.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15050107. 승강기설치·정비
872. 식품가공 기능원	기존	14070507.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010207.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신규	14070601. 건설기계정비
		19030805. 로봇유지보수
872. 식품가공 기능원	기존	14070603. 지게차정비
		15050104. 공작기계설치·정비
872. 식품가공 기능원	신규	15050101.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
872. 식품가공 기능원	기존	17020101. 석유제품제조
		17020201. 석유화학제품제조
	신규	17020202. 합성수지제조
		17020203. 합성원료제조
872. 식품가공 기능원	기존	17020205. 고분자복합재료제조
		17020302. 산·알칼리제조
872. 식품가공 기능원	신규	17020301. 무기질비료제조
		-
872. 식품가공 기능원	기존	21010101. 수산식품가공
		21010111. 식품품질관리
872. 식품가공 기능원	신규	21010103. 축산식품가공
		21010106. 김치·반찬가공

KECO 소분류	교육훈련 필요 분야 (NCS 세분류)		
	기존	신규	
873. 식품가공 기계 조작원	21010105.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21010103. 축산식품가공	21010109. 음료주류가공

※ 833. 발전·배전장치 조작원은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없어, 제외

※ 교육필요분야(NCS) 중 기타는 제외

- 한편,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원, 금융·보험 사무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설·채굴기계 운전원 등의 경우, 교육 성과 및 필요성은 보통 이상이나 현재 노동시장의 인력이 충분한 상태로 기존 재직자들의 역량을 레벨업 할 수 있는 스کیل업 관련 분야로의 교육훈련 과정의 세분화 또는 확장이 필요함
- 반면, 노동시장의 인력이 충분하고 교육 필요성 및 성과가 낮은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미용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경비원, 경호·보안 종사자의 경우, 기존 교육훈련의 축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직종임

제4절 |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

-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및 지역 내 산업, 고용동향 분석 등을 종합하여 본 향후 교육훈련 공급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지역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또한 30.7%로, 제조업이 지역 내 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 제조업의 퇴직자 수는 전체 퇴직자 수의 78%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 종사자의 비중은 평균 41% 수준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는 어려운 상황임
 - 정성조사 결과, 신사업으로 확장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입인력의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유지 또는 경력직 결원 발생 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따라, 신입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보다는 기존 재직 인력의 보유 기술의 활용 및 up-grade를 통해 업무 전환 및 재배치 등 노동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전환교육의 제공이 필요할 것임
 - 정성조사 결과, 기업체는 신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보다 재직자의 교육훈련 수요가 대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재직 인력을 장시간, 장기간 교육훈련에 보내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교육훈련 분야를 구분하여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분야 다각화,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 기술변화에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업체에서 수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NCS)의 수 대비 공급되고 있는 분야는 제한적임. 이에, 기업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재직인력의 Skill-up을 위한 직무별, 직급별 세분화 된 교육훈련과정의 제공이 필요함
 - 충남지역 주요 7대 산업 대상 정성조사 결과, 교육훈련 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어서 교육훈련의 양적인 측면에서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충남 16시·군 중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에 충남지역 전체 교육훈련 기관의 68%

이상이 집적되어 있으며, 천안 및 아산지역의 경우, 전체 교육훈련과정의 61% 이상이 개설되어있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지역 내 교육훈련 대상자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 재직인력의 교육훈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도 내 대학, 연구기관, 관련 협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거점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 비대면 언택트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부록1

조사개요

제1절. 표본설계

제2절. 추정

제1절 | 표본설계

- 본 수요조사의 표본설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모집단 설정, 조사대상 업종 및 기업규모 결정,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을 실시하였으며, 표본설계 결과 제공된 표본 및 대체명부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조사, 분석을 시행함

가. 모집단

- 2021년 2월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명부 중에서 충청남도 내의 상시종사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나. 업종 구분

-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대상 산업 중분류로 재그룹하여 코드화 하였음

[표 156] 조사대상 업종 구분

중분류	산업 중분류 명	대상 산업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10	식품 제조업	10	음식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6	목재펠트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24	1차 금속 제조업	2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9 기타기계와 통합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전자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	25 금속가공과 통합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32	가구 제조업	32	
34	기타 제조업	34	
41	종합 건설업	41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중분류	산업 중분류 명	대상 산업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운송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8	출판업	58	문화서비스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1	정보통신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	사업서비스업(751은 제외)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6	보건업	86	보건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5	수리업	95	

다. 표본설계의 원칙

- 본 조사는 지역별, 대상산업중분류별로 공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 중분류별로 주어진 정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각 지역별로 대상산업중분류가 층화변수이며, 각 지역 내의 산업중분류 층 내에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총 4개 규모를 고려하여 층을 구성하였음
- 사업체 규모 구분은 사업체 내의 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으로 층화하였음

라. 각 지역 단위에 대한 표본크기 결정

- 표본크기는 조사인력 및 예산, 조사 소요시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여건과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됨
- 지역별 표본수는 목표상대표준오차 0.03, 0.04 그리고 0.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과 분산 값은 종사자 수를 이용하였음

- 사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음

$$n_1 RSE_1^2 = n_2 RSE_2^2$$

- 여기서 $RSE_1 = \frac{\sigma_1/n_1}{\bar{X}_1}$ 이며 n_1 은 지난 조사에 사용된 지역별 표본수임. 또한 σ_1 과 \bar{X}_1 은 지역별 종사자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마. 지역 내 업종 및 규모별 표본배분

- 앞서 결정된 각 지역별 표본크기를 기초로 업종 및 규모별 표본크기를 결정해야 함
- 각 지역에 포함된 층별 표본 규모 결정을 위해 사용된 표본 배분법으로는 제곱근 비례배분법,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였음. 각 표본배분법에 대한 층별 표본배분은 다음 식에 따라 이루어짐
- 제곱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단, N_h 는 지역 h 의 모집단 사업체 수임
-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 각 지역에 n' 개 표본을 우선 배분한 후, 남은 표본크기 $(n - n' \times H)$ 는 지역별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함
- 이를 위해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규모별로 정해진 층에서는 최소 5개의 표본이 배정 되도록 함

바. 표본추출

- 조사에 활용한 대상산업분류 및 조사자 규모별 층에서 표본추출은 각 층에서 조사 대상 사업체의 소재지 행정구역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음
- 표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접 표본추출한 명부를 제공하였으며, 본 표본과 예비표본으로 구성되며 예비표본은 원표본의 2배수 추출하여 표본 대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표 157] 2021년 모집단 및 완료 표본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모집단					완료표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계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계
전 체	4,967	987	776	472	7,202	573	230	206	196	1,205
10. 음식료 제조업	327	91	62	35	515	30	14	16	12	7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84	16	10	2	112	22	9	6	1	38
16. 목재펠프 제조업	89	13	15	4	121	22	7	7	4	4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	4	4	7	27	7	3	4	4	18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70	105	81	51	607	43	23	21	21	10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3	17	20	13	233	21	6	7	7	41
24. 1차 금속 제조업	30	14	22	19	85	8	5	6	10	2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74	155	109	77	1,115	60	25	28	24	137
26. 전기전자 제조업	288	67	71	69	495	39	18	20	29	10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2	80	89	75	536	26	12	13	25	7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2	4	-	11	1	2	3	-	6
32. 가구 제조업	11	2	-	-	13	7	1	-	-	8
34. 기타 제조업	20	4	4	2	30	11	2	2	1	16
41. 건설업	486	29	13	6	534	48	13	6	5	72
49. 운송서비스업	133	34	18	22	207	16	8	6	10	40
58. 문화서비스업	36	2	-	3	41	18	1	-	3	22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4	3	2	-	19	10	3	2	-	15
71. 전문서비스업	279	50	27	21	377	44	20	10	8	82
74. 사업서비스업	319	30	26	17	392	40	13	12	10	7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067	244	188	45	1,544	65	31	28	19	14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59	17	10	4	90	16	9	8	3	36
95. 수리업	89	8	1	-	98	19	5	1	-	25

제2절 추정

가. 가중치 산출

- 가중치는 각 세부 업종 분류 내 4개 사업체 규모에서 모집단 사업체 수와 표본 사업체 수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음

- 즉 모집단 수를 N , 표본 수를 n 이라 하면 가중치 $w = \frac{N}{n}$ 으로 계산함

- 일반적으로 이 조사와 같은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1) 설계가중치, 2) 무응답 조정, 3) 사후층화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됨
- 본 조사의 표본 사업체 추출은 각 지역에서 대상산업중분류와 사업체 규모를 층화변수로 하여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었음. 따라서 각 세부 층에서는 추출률이 동일함. 따라서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셀은 산업중분류와 사업체 규모임
- 모집단의 보조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조정에서도 지역, 산업중분류 그리고 사업체 규모를 층화변수로 이용함. 사후층화 단계에서는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음. 먼저 사업체 수 기준의 가중치는 사업체 수준의 응답항목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고, 종사자 수 기준의 가중치 조정은 근로자 수와 관련된 추정의 목적에 이용함.
- 전수층에서 무응답이나 응답거절로 응답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 조정과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가중치를 산정함
- 만약 특정 조사항목에 대한 항목 무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회귀대체(regression imputation)를 사용하여 대체함. 회귀대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항목과 관련이 높은 보조변수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

나. 각 분류별 각종 총수 추정

- 현행 표본설계에서 각 분류에 대한 총합 추정은 앞에서 구한 최종 가중치를 사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여기서 \hat{Y} 를 총합 추정치라 하면 총합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함

$$F = \sum_{i=1}^n w_i^f y_i$$

- 여기서 w_i^f : 최종가중치, n : 해당 집계 항목내의 표본 사업체 수, y_i : 표본 사업체 내의 특성치
- 이 조사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표본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함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f y_{hi}}{\sum_{h=1}^L \sum_{i=1}^{n_h} w_{hi}^f}$$

- 여기서, w_{hi}^f 는 각 표본 사업체에 부여된 최종가중치이고, y_{hi} 는 각 표본 사업체에서 얻은 특성 값임
- 앞서 제시한 표본가중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wideha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text{분산추정량}$$

- 여기서 $e_{hi} = \left(\sum_k w_{hi}^f (y_{hi}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w_{..} = \sum_{h=1}^L \sum_{i=1}^{n_h} w_{hi}^f$ 임.
- 표본가중평균 추정량에 대한 표준오차와 상대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 \text{표준오차 추정량}$$

$$cv(\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 \text{상대표준오차 추정량}$$

- 특정 영역(domain) D 에 속한 사업체에 대한 총계 추정량에 대해서 특정 영역 D 에 속한 응답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총계 추정값을 구함

$$\hat{Y}_D = \sum_{h=1}^L \sum_{i=1}^{n_h} w_{hi}^f y_{hi} \cdot I(hi \in D)$$

- 여기서 w_{hi}^f 는 각 응답 사업체에 부여된 최종가중치, y_{hi} 는 조사값, L 은 층 수, n_h 는 층 h 에서 응답한 표본 사업체 수, $I(hi \in D)$ 는 h 번째 층 내의 i 번째 응답 표본 사업체가 특정 속성 D (예를 들어 특정 산업중분류, 사업체 규모 등)을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임
- 이 조사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각종 평균치와 총계 추정치는 가중치와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으로 추정량의 분산 계산방법이 복잡함. 대표적인 복합표본 조사 분석용 통계소프트웨어는 SAS(9.1판 이상), SPSS, SUDAAN, Stata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표 158] 2021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 최종 가중치

구 분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10. 음식료 제조업	10.9	6.5	3.875	2.916667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3.818182	1.777778	1.666667	2
16. 목재·펄프 제조업	4.045455	1.857143	2.142857	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14286	1.333333	1	1.75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8.604651	4.565217	3.857143	2.42857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714286	2.833333	2.857143	1.857143
24. 1차 금속 제조업	3.75	2.8	3.666667	1.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9	6.2	3.892857	3.208333
26. 전기전자 제조업	7.384615	3.722222	3.55	2.3793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23077	6.666667	6.846154	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1	1.333333	-
32. 가구 제조업	1.571429	2	-	-
34. 기타 제조업	1.818182	2	2	2
41. 건설업	10.125	2.230769	2.166667	1.2
49. 운송서비스업	8.3125	4.25	3	2.2
58. 문화서비스업	2	2	-	1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4	1	1	-
71. 전문서비스업	6.340909	2.5	2.7	2.625
74. 사업서비스업	7.975	2.307692	2.166667	1.7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6.41539	7.870968	6.714286	2.36842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3.6875	1.888889	1.25	1.333333
95. 수리업	4.684211	1.6	1	-

다. 훈련수요 추정방식

1) 양성훈련 추정방식

- 양성훈련 수요는 취업자 중 실업자 훈련 경험이 있을 확률과 채용계획인원을 활용하여 산출
 - 양성훈련 수요 = 취업자 중 실업자 훈련 경험이 있을 확률 × 채용계획인원
 - (1단계) 취업자 중 실업자 훈련 경험이 있을 확률 추정
 - 직종별 훈련-취업 × 직종별 채용인원
 - (2단계) 양성훈련 수요 추정
 - 직종별 취업자 중 실업자 훈련 경험이 있을 확률 × 직종별 보정 채용계획인원*

* 보정채용계획인원 = 채용계획인원 × 보정계수(지난 3년간 채용인원/채용계획인원의 평균)

- 보정계수 : 지난 3년간 전년도 조사의 채용계획인원과 차년도 조사의 채용인원의 차이 평균
- 보정계수 산출식 :
$$\frac{(3\text{년전 채용인원}+2\text{년전 채용인원}+1\text{년전 채용인원})}{(4\text{년전 채용계획인원}+3\text{년전 채용계획인원}+2\text{년전 채용계획인원})}$$

※ 특이사항

- (3년간) 채용계획인원이 없으나, 채용인원은 있는 직종의 경우, 3년간 평균 채용인원 수치 이용
- (3년간) 채용계획인원이 있으나, 채용인원은 없는 직종의 경우, 채용계획인원 수치를 그대로 활용

2) 향상훈련 추정방식

- 직업별 NCS 세분류·직업기초능력별 훈련 필요 비중 산출
 - NCS 세분류와 직업기초능력별 훈련 필요 근로자 규모가 ‘명’으로 응답된 경우, 모두 ‘%’로 변환
 -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같은 직업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응답된 경우 여러 부서의 응답내용을 응답 부서별 현원을 가중치로 하여 사업체별, 직업별, NCS 세분류별, 직업기초능력별 값으로 변환

$$ECTR_{ijk} = \sum_l^{n_l^j} \left\{ ECTR_{ijkl} \times \left(E_{ijl} / \sum_l^{n_l^j} E_{ijl} \right) \right\}$$

k : NCS세분류 혹은 직업기초능력 분류, $k = 1, 2, \dots, K$

l : 사업체 내 j 직업 응답 부서 일련번호, $l = 1, 2, \dots, n_l^j$

n_l^j : j 직업에 대해 응답한 현업부서 개수

$ECTR_{ijk}$: i 사업체 j 직업 k 분류 1 부서 응답 훈련 필요 비중

(단, 1 부서의 중요 직업으로 선택된 j 직업 중 k 분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 중요 직업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

$ECTR_{ijk}$: i 사업체 j 직업 k 분류 훈련 필요 비중

E_{ijl} : i 기업 j 직업 1 부서 응답 현원(A1)

- 층별 NCS세분류별 · 직업기초능력별 훈련 필요 비중은 각 직업에 대한 응답 사업체의 직업별 현원을 사후 가중치에 반영한 ‘현원 규모 반영 사후 가중치’로 추정

$$ECTR_{jk} = \sum_i \{ ECTR_{ijk} \times Ew_{ij} \}$$

$$Ew_{ij} = (\widetilde{E}_{ij} \times sw_i) / \sum_{i=1}^{n_j} (\widetilde{E}_{ij} \times sw_i)$$

Ew_{ij} : 현원 규모 반영 사후 가중치,

\widetilde{E}_{ij} : i 사업체 j 직업 현원 (인사부서에서 응답한 “Ⅲ.인력현황”의 직업별 인력 현황(A1), 단 해당 직업에 대해 현업 부서에서 응답한 사업체의 현원만 활용할 것),

n_j : j 직업에 대해 현업 부서에서 응답한 사업체의 개수,

sw_i : i 사업체에 대한 사후 가중치

● NCS 세분류별 · 직업기초능력별 향상훈련 인원

- 층별, 직업별, 현원 모집단 추정 결과에 층별 직업별 NCS 세분류별, 직업기초능력별 훈련 필요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

$$ECT_{jk} = E_j \times ECTR_{jk}$$

- E_j 는 직업별 인력현황에 대한 층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적용함

부록2

수요조사 결과

제1절. 교육훈련 실시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제2절. 일학습병행 관련

제1절 | 교육훈련 실시현황 및 경영 애로사항

가.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는 총 201,785명으로 나타남

[그림 36]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Base : 7,202명, 단위 : 명)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 규모에서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가 77,6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299인, 30-49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59]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규모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전 체		7,202	201,785
기업 규모	10-29인	4,967	77,628
	30-49인	987	36,751
	50-99인	776	36,220
	100-299인	472	51,186

- 지역별로 보면, 천안 지역의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가 70,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산, 당진, 서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0]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전 체		7,202	201,785
지역	천안	2,021	70,320
	공주	466	11,595
	보령	225	2,901
	아산	1,420	36,952
	서산	539	14,754
	논산	333	5,878
	계룡	32	154
	당진	728	17,488
	금산	296	5,336
	부여	198	3,799
	서천	156	1,869
	청양	49	269
	홍성	272	14,541
	예산	350	12,263
	태안	117	3,665

-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가 47,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1]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산업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재직 근로자
전 체		7,202	201,785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13,119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06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1,19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926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14,739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5,329
	24. 1차 금속 제조업	85	3,69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34,193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4,63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20,23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56
	32. 가구 제조업	13	44
	34. 기타 제조업	30	655
	41. 건설업	534	7,437
	49. 운송서비스업	207	8,862
	58. 문화서비스업	41	92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61
	71. 전문서비스업	377	7,468
	74. 사업서비스업	392	11,258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47,14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628
	95. 수리업	98	4,827

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

-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은 총 193,953명으로 나타남

[그림 37]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

(Base : 7,202명, 단위 : 명)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 규모에서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이 73,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299인, 30-49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2]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규모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 인원
전 체		7,202	193,953
기업 규모	10-29인	4,967	73,640
	30-49인	987	35,631
	50-99인	776	35,392
	100-299인	472	49,290

- 지역별로 보면, 천안 지역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이 70,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산, 홍성, 당진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3]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 인원
전 체		7,202	193,953
지역	천안	2,021	70,150
	공주	466	11,630
	보령	225	2,609
	아산	1,420	32,475
	서산	539	12,084
	논산	333	5,562
	계룡	32	154
	당진	728	15,847
	금산	296	4,856
	부여	198	3,742
	서천	156	1,369
	청양	49	269
	홍성	272	15,860
	예산	350	13,682
	태안	117	3,665

-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이 49,959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64] 2021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인원(산업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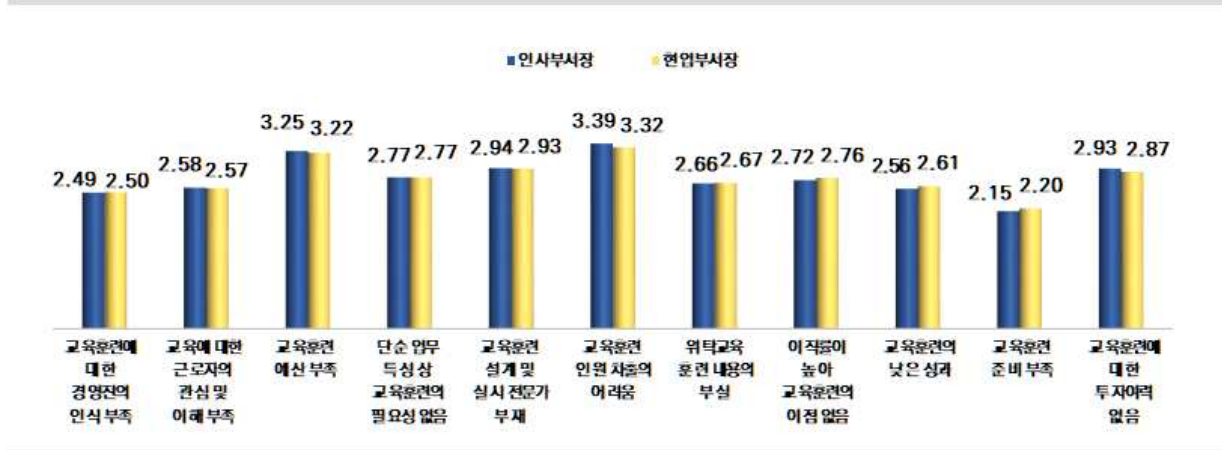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22년 교육훈련 참여 예상(계획) 인원
전 체		7,202	193,953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12,26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199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1,08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907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12,16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5,223
	24. 1차 금속 제조업	85	3,68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30,837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3,85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20,827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43
	32. 가구 제조업	13	44
	34. 기타 제조업	30	240
	41. 건설업	534	7,155
	49. 운송서비스업	207	8,588
	58. 문화서비스업	41	82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52
	71. 전문서비스업	377	5,831
	74. 사업서비스업	392	11,23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49,959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571
	95. 수리업	98	4,078

다.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

-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을 보면, 인사부서장과 현업부서장 모두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인사부서장 3.39점, 현업부서장 3.3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8]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

(Base : 7,202명, 단위 : 점(5점 평균))



- 인사부서장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5]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규모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 수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7,202	2.49	2.58	3.25	2.77	2.94	3.39
기업 규모	10-29인	4,967	2.54	2.59	3.30	2.81	3.44
	30-49인	987	2.39	2.55	3.25	2.76	3.32
	50-99인	776	2.49	2.65	3.14	2.64	3.31
	100-299인	472	2.29	2.40	2.92	2.54	3.16

구분	사례 수	위탁교육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7,202	2.66	2.72	2.56	2.15	2.93
기업 규모	10-29인	4,967	2.69	2.66	2.13	2.96
	30-49인	987	2.60	2.88	2.20	2.95
	50-99인	776	2.54	2.84	2.21	2.89
	100-299인	472	2.57	2.74	2.19	2.62

- 인사부서장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태안 지역에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청양, 예산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계룡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6]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지역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7,202	2.49	2.58	3.25	2.77	2.94	3.39
지역	천안	2,021	2.61	2.69	3.14	2.79	3.50
	공주	466	2.00	2.05	3.11	2.36	3.23
	보령	225	2.56	2.54	3.29	2.99	2.90
	아산	1,420	2.47	2.59	3.39	2.84	3.49
	서산	539	2.52	2.58	3.15	2.80	2.98
	논산	333	2.40	2.53	3.58	2.77	2.72
	계룡	32	2.22	2.77	3.08	2.46	3.32
	당진	728	2.34	2.48	3.09	2.71	2.81
	금산	296	2.41	2.52	3.45	2.73	2.95
	부여	198	2.79	2.73	3.47	2.83	3.09
	서천	156	2.19	2.38	2.98	2.60	2.50
	청양	49	2.55	2.45	3.35	2.60	2.98
	홍성	272	2.71	2.79	3.22	2.78	3.35
	예산	350	2.79	2.64	3.48	2.89	3.02
	태안	117	2.61	2.74	3.53	2.73	2.87

구분	사례수	위탁교육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7,202	2.66	2.72	2.56	2.15	2.93
지역	천안	2,021	2.65	2.70	2.55	2.15
	공주	466	2.53	2.36	2.23	2.06
	보령	225	2.80	2.76	2.34	1.84
	아산	1,420	2.64	2.81	2.61	2.15
	서산	539	2.60	2.68	2.52	2.19
	논산	333	2.79	2.68	2.71	2.31
	계룡	32	2.81	3.04	3.32	2.54
	당진	728	2.57	2.78	2.48	1.95
	금산	296	2.57	2.77	2.49	1.86
	부여	198	2.93	2.80	2.61	2.18
	서천	156	2.63	2.47	2.54	2.12
	청양	49	2.78	2.23	2.56	2.15
	홍성	272	2.62	2.81	2.95	2.79
	예산	350	2.84	2.83	2.66	2.35
	태안	117	2.85	2.64	2.64	2.30

- 인사부서장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는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7]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산업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교육훈련 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 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7,202	2.49	2.58	3.25	2.77	2.94	3.39
산 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2.39	2.47	3.33	2.71	2.68	3.4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44	2.51	3.26	2.62	2.94	3.3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2.49	2.71	3.17	3.47	3.38	3.6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2.43	2.49	2.76	2.74	2.94	3.23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2.60	2.69	3.40	2.89	3.03	3.46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67	2.76	3.57	2.87	2.78	3.53
	24. 1차 금속 제조업	85	2.22	2.52	2.98	2.95	2.89	3.3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2.56	2.65	3.25	2.74	3.02	3.33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2.65	2.75	3.42	2.92	3.38	3.8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2.76	2.83	3.45	2.91	3.00	3.4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2.55	2.21	3.58	1.76	2.94	2.94
	32. 가구 제조업	13	2.64	2.64	3.24	2.85	3.24	3.76
	34. 기타 제조업	30	2.25	2.50	3.08	2.64	2.75	3.52
	41. 건설업	534	2.65	2.74	3.28	2.84	3.09	3.53
	49. 운송서비스업	207	2.69	2.77	3.44	3.38	3.19	3.51
	58. 문화서비스업	41	2.34	2.41	2.80	2.44	2.90	2.93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42	2.47	3.24	2.38	3.07	3.65
	71. 전문서비스업	377	2.29	2.38	3.05	2.51	2.78	3.44
	74. 사업서비스업	392	2.32	2.42	2.97	2.67	2.62	3.2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2.30	2.35	3.14	2.58	2.78	3.1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61	2.63	3.14	3.11	2.98	3.32
	95. 수리업	98	2.67	2.63	3.17	2.71	3.22	3.70

구분	사례수	위탁교육 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7,202	2.66	2.72	2.56	2.15	2.93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2.70	2.74	2.64	2.73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71	2.70	2.64	2.92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2.57	2.70	2.60	2.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2.38	2.40	2.32	2.73
	20. 화학·합성·플라스틱 제조업	607	2.61	2.63	2.45	3.0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58	2.53	2.46	3.22
	24. 1차 금속 제조업	85	2.45	2.61	2.63	2.6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2.65	2.75	2.49	2.86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2.78	3.13	2.65	3.1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2.62	2.79	2.59	3.17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2.21	2.79	2.24	2.67
	32. 가구 제조업	13	2.48	2.67	2.12	3.12
	34. 기타 제조업	30	2.44	2.82	2.39	2.89
	41. 건설업	534	2.68	2.88	2.57	3.13
	49. 운송서비스업	207	2.70	2.53	2.84	3.25
	58. 문화서비스업	41	2.46	2.61	2.41	2.5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73	2.85	2.33	2.58
	71. 전문서비스업	377	2.59	2.46	2.44	2.85
	74. 사업서비스업	392	2.43	2.60	2.45	2.71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2.73	2.67	2.60	2.78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79	2.77	2.66	2.82
	95. 수리업	98	2.76	2.57	2.65	3.05

- 현업부서장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9]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규모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교육훈련 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 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10,414	2.50	2.57	3.22	2.77	2.93	3.32
기업 규모	10-29인	5,703	2.54	2.60	3.31	2.85	3.37
	30-49인	1,824	2.48	2.57	3.22	2.76	3.34
	50-99인	1,569	2.50	2.60	3.13	2.68	3.29
	100-299인	1,318	2.37	2.45	2.92	2.58	3.08

구분	사례수	위탁교육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10,414	2.67	2.76	2.61	2.20	2.87
기업 규모	10-29인	5,703	2.72	2.71	2.16	2.89
	30-49인	1,824	2.65	2.90	2.30	2.93
	50-99인	1,569	2.62	2.83	2.27	2.89
	100-299인	1,318	2.57	2.74	2.15	2.65

- 현업부서장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천안, 공주, 아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령, 서산, 논산, 청양, 예산, 태안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계룡 지역에서는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0]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지역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10,414	2.50	2.57	3.22	2.77	2.93	3.32
지역	천안	3,029	2.54	2.61	3.10	2.75	2.98
	공주	628	2.11	2.10	3.07	2.47	2.68
	보령	312	2.45	2.58	3.26	2.84	2.92
	아산	2,125	2.51	2.55	3.37	2.84	2.94
	서산	776	2.54	2.65	3.22	2.81	2.96
	논산	441	2.40	2.59	3.43	2.86	2.85
	계룡	33	2.22	2.74	3.08	2.48	3.31
	당진	1,083	2.31	2.44	3.03	2.64	2.79
	금산	359	2.57	2.60	3.32	2.77	2.99
	부여	245	2.72	2.75	3.37	2.73	3.10
	서천	216	2.34	2.49	2.95	2.74	2.65
	청양	70	2.72	2.73	3.57	2.93	3.23
	홍성	421	2.80	2.84	3.17	2.98	3.12
	예산	525	2.81	2.73	3.53	2.94	2.93
	태안	151	2.62	2.89	3.59	2.88	2.90

구분	사례수	위탁교육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10,414	2.67	2.76	2.61	2.20	2.87
지역	천안	3,029	2.69	2.75	2.56	2.73
	공주	628	2.50	2.48	2.33	2.07
	보령	312	2.77	2.79	2.63	2.18
	아산	2,125	2.69	2.82	2.71	2.22
	서산	776	2.61	2.66	2.50	2.22
	논산	441	2.83	2.64	2.78	2.29
	계룡	33	2.81	3.04	3.31	2.52
	당진	1,083	2.55	2.82	2.52	2.02
	금산	359	2.64	2.88	2.60	2.00
	부여	245	2.78	2.94	2.57	2.15
	서천	216	2.62	2.62	2.44	2.12
	청양	70	2.59	2.65	3.02	2.12
	홍성	421	2.67	2.90	2.89	2.70
	예산	525	2.77	2.89	2.77	2.54
	태안	151	2.85	2.69	2.62	2.29

- 현업부서장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서비스업에서는 교육훈련 예산 부족이, 문화서비스업에서는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1] 교육훈련 추진 시 애로사항(산업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교육훈련 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부족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및 이해 부족	교육훈련 예산 부족	단순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 의 필요성 없음	교육훈련 설계 및 실시 전문가 부재	교육훈련 인원 차출의 어려움
전 체		10,414	2.50	2.57	3.22	2.77	2.93	3.32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750	2.42	2.52	3.33	2.85	2.83	3.52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54	2.49	2.54	3.23	2.76	2.94	3.30
	16. 목재·펄프 제조업	158	2.56	2.76	3.23	3.33	3.26	3.61
	18. 인쇄 및 기록복제업	52	2.53	2.41	2.88	2.85	2.93	3.25
	20. 화학·화학제품 제조업	946	2.65	2.66	3.25	2.76	2.95	3.36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3	2.61	2.66	3.56	2.80	2.73	3.40
	24. 1차 금속 제조업	164	2.24	2.41	2.91	2.82	2.76	3.3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85	2.47	2.57	3.22	2.72	2.96	3.24
	26. 전기전자 제조업	807	2.67	2.76	3.34	2.80	3.22	3.6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9	2.65	2.69	3.34	2.92	2.95	3.3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2.08	2.04	3.25	1.88	2.90	2.88
	32. 가구 제조업	15	2.55	2.55	3.21	2.73	3.21	3.66
	34. 기타 제조업	40	2.19	2.32	2.96	2.35	2.71	3.29
	41. 건설업	654	2.66	2.73	3.25	2.71	2.99	3.36
	49. 운송서비스업	323	2.60	2.72	3.35	3.19	3.13	3.31
	58. 문화서비스업	48	2.17	2.29	2.75	2.50	2.94	2.77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5	2.38	2.34	3.06	2.45	2.98	3.53
	71. 전문서비스업	496	2.31	2.38	3.02	2.53	2.76	3.26
	74. 사업서비스업	512	2.44	2.55	2.98	2.83	2.70	3.1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157	2.36	2.40	3.15	2.68	2.85	3.1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39	2.60	2.73	3.23	3.05	3.06	3.34
	95. 수리업	129	2.83	2.80	3.21	2.84	3.17	3.54

구분		사례수	위탁교육훈련 내용의 부실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 없음	교육훈련의 낮은 성과	교육훈련 준비 부족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 없음
전 체		10,414	2.67	2.76	2.61	2.20	2.87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750	2.67	2.83	2.70	2.17	2.84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54	2.65	2.71	2.61	2.00	2.83
	16. 목재·펄프 제조업	158	2.74	2.88	2.70	1.89	2.99
	18. 인쇄 및 기록복제업	52	2.75	2.54	2.55	2.00	2.55
	20. 화학·우물·플라스틱 제조업	946	2.66	2.70	2.53	2.01	3.0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3	2.58	2.59	2.44	2.14	3.13
	24. 1차 금속 제조업	164	2.50	2.67	2.52	1.98	2.5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85	2.63	2.74	2.56	1.99	2.74
	26. 전기전자 제조업	807	2.73	2.99	2.56	2.11	3.0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9	2.58	2.86	2.68	2.19	3.1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2.31	2.83	2.23	1.71	2.69
	32. 가구 제조업	15	2.42	2.58	2.10	1.48	3.10
	34. 기타 제조업	40	2.28	2.56	2.44	2.01	2.82
	41. 건설업	654	2.62	2.78	2.52	2.01	3.01
	49. 운송서비스업	323	2.79	2.59	2.77	2.06	2.88
	58. 문화서비스업	48	2.38	2.42	2.48	1.85	2.42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5	2.62	2.69	2.27	1.95	2.42
	71. 전문서비스업	496	2.62	2.59	2.45	2.34	2.75
	74. 사업서비스업	512	2.62	2.72	2.61	2.27	2.7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157	2.78	2.79	2.73	2.60	2.8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39	2.67	2.78	2.65	2.32	2.77
	95. 수리업	129	2.80	2.71	2.46	2.05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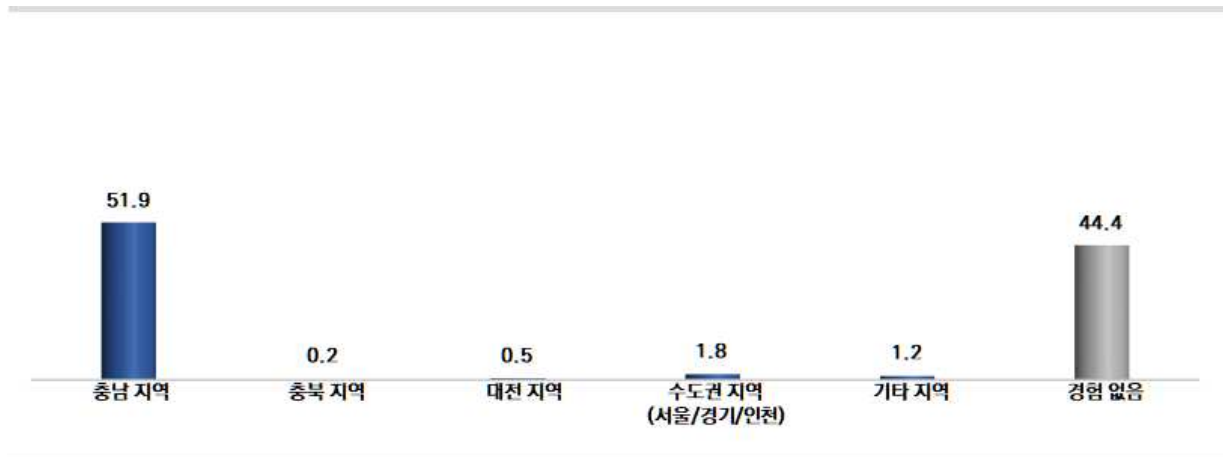
라. 교육훈련 경험

1) 교육훈련 수행 지역 및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이유

- 교육훈련 수행 지역을 보면, 충남 지역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대전 지역, 충북 지역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교육훈련 수행 지역

(Base : 7,202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교육훈련 수행 지역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2] 교육훈련 수행 지역(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경험 없음
전 체		7,202	51.9	0.2	0.5	1.8	1.2	44.4
기업 규모	10-29인	4,967	50.1	0.2	0.4	1.3	1.2	46.9
	30-49인	987	57.1	0.2	1.1	1.2	0.9	39.4
	50-99인	776	51.2	0.0	0.8	5.2	1.5	41.2
	100-299인	472	61.4	0.0	0.0	3.7	0.6	34.4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교육훈련 수행 지역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3] 교육훈련 수행 지역(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경험 없음
전 체		7,202	51.9	0.2	0.5	1.8	1.2	44.4
지역	천안	2,021	57.9	0.0	0.1	3.1	0.4	38.5
	공주	466	54.8	2.2	4.6	0.2	4.3	34.0
	보령	225	30.4	0.0	0.0	1.7	1.1	66.7
	아산	1,420	49.0	0.0	0.2	1.5	1.2	48.1
	서산	539	52.2	0.0	0.0	2.5	0.0	45.3
	논산	333	50.3	0.0	0.0	2.7	1.2	45.8
	계룡	32	30.8	0.0	0.0	0.0	0.0	69.2
	당진	728	39.0	0.3	0.3	0.7	2.7	57.0
	금산	296	43.6	0.0	1.5	0.0	3.7	51.2
	부여	198	63.0	0.0	1.9	1.9	0.0	33.2
	서천	156	51.8	0.0	0.0	1.5	0.0	46.6
	청양	49	30.0	0.0	0.0	0.0	0.0	70.0
	홍성	272	59.4	0.0	0.0	3.8	0.0	36.8
	예산	350	60.9	0.0	0.0	0.0	0.4	38.8
	태안	117	69.3	0.0	0.0	0.0	0.0	30.7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육훈련 수행 지역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4] 교육훈련 수행 지역(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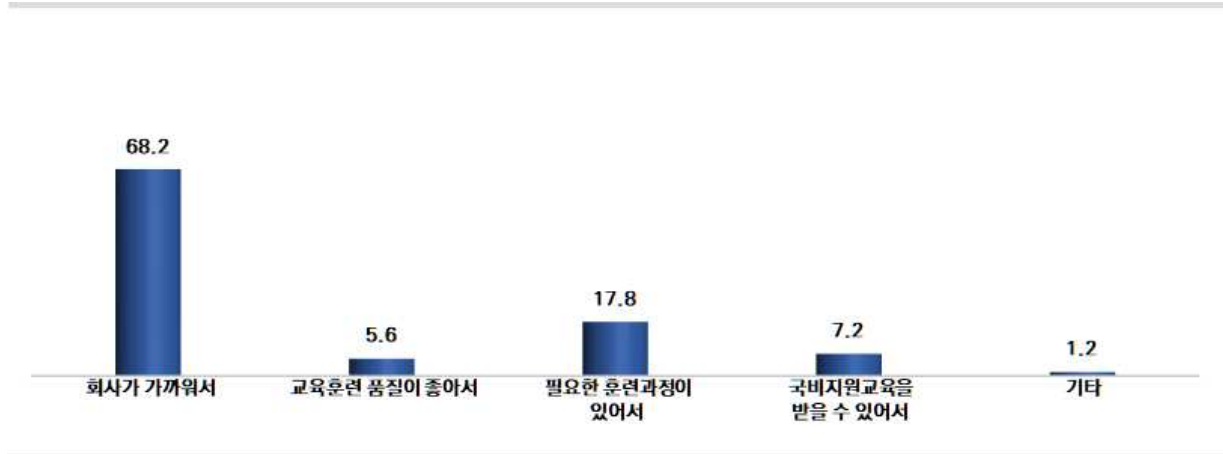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경험 없음
전 체		7,202	51.9	0.2	0.5	1.8	1.2	44.4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53.6	0.0	2.1	1.3	5.0	38.0
	13.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112	41.5	0.0	0.0	0.0	0.0	58.5
	16. 목재제품 제조업	121	19.8	0.0	0.0	3.3	0.0	76.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69.5	0.0	0.0	0.0	0.0	30.5
	20. 화학의약품제조업	607	42.8	0.0	1.4	1.7	1.4	52.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49.4	0.0	0.0	0.8	3.7	46.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29.7	0.0	0.0	8.7	0.0	61.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55.5	0.0	0.0	1.5	1.2	41.8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39.3	0.0	0.0	2.4	0.0	58.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48.0	0.0	0.0	4.4	1.2	46.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3.3	0.0	0.0	0.0	12.1	54.5
	32. 가구 제조업	13	27.5	0.0	0.0	0.0	0.0	72.5
	34. 기타 제조업	30	55.8	0.0	0.0	6.7	0.0	37.6
	41. 건설업	534	48.0	2.3	0.0	0.0	0.0	49.7
	49. 운송서비스업	207	59.6	0.0	0.0	0.0	0.0	40.4
	58. 문화서비스업	41	51.2	0.0	0.0	4.9	4.9	39.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37.9	0.0	0.0	12.6	0.0	49.5
	71. 전문서비스업	377	43.2	0.0	1.4	5.0	3.0	47.4
	74. 사업서비스업	392	51.5	0.0	2.6	4.6	0.0	41.2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64.1	0.0	0.0	0.2	0.4	35.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51.9	0.0	0.0	4.1	0.0	44.0
	95. 수리업	98	70.2	0.0	1.6	0.0	0.0	28.2

-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어서,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기타 순으로 나타남

[그림 40]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이유

(Base : 4,003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5]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이유(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 과정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4,003	68.2	5.6	17.8	7.2	1.2
기업 규모	10-29인	2,639	71.3	3.7	17.4	6.5	1.1
	30-49인	598	63.3	12.0	16.8	6.8	1.1
	50-99인	457	62.0	7.8	21.0	6.9	2.2
	100-299인	310	60.8	5.8	18.6	14.5	0.3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6]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이유(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과정 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4,003	68.2	5.6	17.8	7.2	1.2
지역	천안	1,243	71.0	4.5	17.9	6.0	0.6
	공주	308	79.3	4.2	13.7	0.0	2.8
	보령	75	67.6	4.0	28.4	0.0	0.0
	아산	737	63.9	9.0	15.7	10.9	0.5
	서산	295	56.3	5.6	20.4	14.0	3.7
	논산	180	73.3	4.7	22.0	0.0	0.0
	계룡	10	75.7	0.0	24.3	0.0	0.0
	당진	313	64.4	4.8	26.5	0.0	4.2
	금산	145	66.2	11.7	22.1	0.0	0.0
	부여	132	62.8	0.0	26.4	10.7	0.0
	서천	83	85.4	8.1	2.9	0.0	3.6
	청양	15	100.0	0.0	0.0	0.0	0.0
	홍성	172	73.2	0.0	12.1	14.8	0.0
	예산	214	61.5	5.2	13.5	19.8	0.0
	태안	81	65.0	11.4	10.2	13.4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가 높게 나타남

[표 177]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이유(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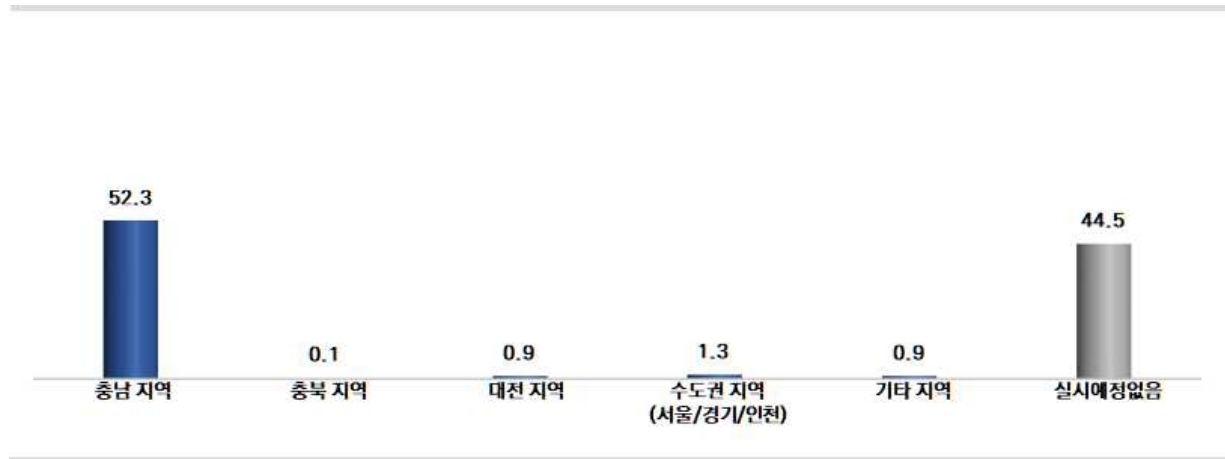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과정 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4,003	68.2	5.6	17.8	7.2	1.2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319	59.2	8.6	19.9	6.8	5.4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46	72.5	7.4	11.8	8.2	0.0
	16. 목재펠프 제조업	28	67.7	6.6	14.4	7.6	3.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78.4	16.2	0.0	5.3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87	59.9	5.4	19.9	11.7	3.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6	58.1	10.7	21.3	9.9	0.0
	24. 1차 금속 제조업	33	34.3	43.0	22.7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49	67.7	3.5	21.8	7.0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207	53.7	13.0	20.5	11.1	1.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7	61.6	4.5	20.2	13.8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73.3	0.0	26.7	0.0	0.0
	32. 가구 제조업	4	56.0	0.0	44.0	0.0	0.0
	34. 기타 제조업	19	79.6	0.0	20.4	0.0	0.0
	41. 건설업	269	58.6	3.8	28.0	9.6	0.0
	49. 운송서비스업	123	71.3	6.7	22.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25	72.0	0.0	20.0	0.0	8.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0	60.4	14.6	25.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198	57.7	10.2	27.6	4.6	0.0
	74. 사업서비스업	230	73.1	5.4	13.9	4.2	3.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999	83.6	2.2	8.7	4.7	0.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50	69.2	0.0	12.4	18.4	0.0
	95. 수리업	70	68.8	8.9	15.6	6.7	0.0

2) 향후 교육훈련 수행 희망 지역 및 해당 지역 희망 이유

- 향후 교육훈련 수행 희망 지역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 향후 교육훈련 희망 지역

(Base : 7,202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교육훈련 수행 희망 지역으로 충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8] 향후 교육훈련 희망 지역(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실시 예정 없음
전 체		7,202	52.3	0.1	0.9	1.3	0.9	44.5
기업 규모	10-29인	4,967	50.2	0.2	0.7	0.8	1.0	47.1
	30-49인	987	57.6	0.0	1.4	1.2	0.7	39.2
	50-99인	776	52.8	0.0	1.7	3.8	0.7	41.0
	100-299인	472	62.3	0.0	0.0	3.2	0.6	34.0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교육훈련 수행 희망 지역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79] 향후 교육훈련 희망 지역(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실시 예정 없음
전 체		7,202	52.3	0.1	0.9	1.3	0.9	44.5
지역	천안	2,021	58.7	0.0	0.1	1.6	0.3	39.4
	공주	466	53.3	2.2	7.9	0.2	2.4	34.0
	보령	225	29.9	0.0	1.1	1.7	0.0	67.3
	아산	1,420	49.7	0.0	0.2	1.5	1.2	47.4
	서산	539	52.2	0.0	0.0	2.5	0.0	45.3
	논산	333	47.8	0.0	2.4	1.5	1.2	47.1
	계룡	32	30.8	0.0	0.0	0.0	0.0	69.2
	당진	728	40.2	0.0	0.3	0.7	1.8	57.0
	금산	296	43.6	0.0	1.5	0.0	3.7	51.2
	부여	198	64.9	0.0	1.9	0.0	0.0	33.2
	서천	156	51.8	0.0	0.0	1.5	0.0	46.6
	청양	49	30.0	0.0	0.0	0.0	0.0	70.0
	홍성	272	59.4	0.0	0.0	3.8	0.0	36.8
	예산	350	63.3	0.0	0.0	0.0	0.4	36.3
	태안	117	69.3	0.0	0.0	0.0	0.0	30.7

- 산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교육훈련 수행 희망 지역으로 충남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0] 향후 교육훈련 희망 지역(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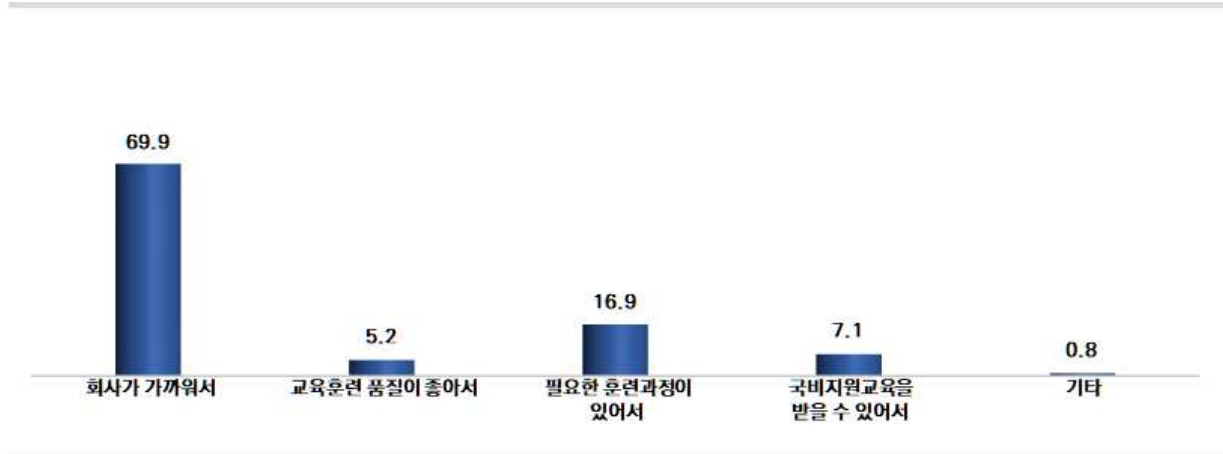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충남 지역	충북 지역	대전 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기타 지역	실시 예정 없음
전 체		7,202	52.3	0.1	0.9	1.3	0.9	44.5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54.4	0.0	2.1	0.6	5.0	38.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43.0	0.0	0.0	0.0	0.0	57.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23.2	0.0	0.0	3.3	0.0	73.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65.8	0.0	0.0	0.0	0.0	34.2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44.2	0.0	1.4	1.7	1.4	51.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45.7	0.0	3.7	0.8	0.0	49.8
	24. 1차 금속 제조업	85	29.7	0.0	0.0	8.7	0.0	61.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56.1	0.0	0.0	0.3	1.2	42.4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41.0	0.0	0.0	1.9	0.0	57.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47.4	0.0	1.3	3.1	1.2	47.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3.3	0.0	0.0	0.0	12.1	54.5
	32. 가구 제조업	13	27.5	0.0	0.0	0.0	0.0	72.5
	34. 기타 제조업	30	55.8	0.0	0.0	6.7	0.0	37.6
	41. 건설업	534	48.8	1.9	0.0	0.0	0.0	49.3
	49. 운송서비스업	207	57.6	0.0	0.0	0.0	0.0	42.4
	58. 문화서비스업	41	56.1	0.0	0.0	4.9	0.0	39.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37.9	0.0	0.0	12.6	0.0	49.5
	71. 전문서비스업	377	43.8	0.0	2.0	5.0	2.4	46.7
	74. 사업서비스업	392	49.5	0.0	4.7	2.6	0.0	43.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64.7	0.0	0.0	0.2	0.0	35.2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56.0	0.0	0.0	0.0	0.0	44.0
	95. 수리업	98	70.2	0.0	1.6	0.0	0.0	28.2

-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어서,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기타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희망 이유

(Base : 3,999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1]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희망 이유(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과정 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3,999	69.9	5.2	16.9	7.1	0.8
기업 규모	10-29인	2,629	72.4	3.4	16.7	6.6	0.8
	30-49인	600	65.2	11.9	15.8	6.0	1.1
	50-99인	458	65.2	6.9	20.1	6.9	0.8
	100-299인	312	64.5	4.8	16.0	14.4	0.3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2]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희망 이유(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과정 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3,999	69.9	5.2	16.9	7.1	0.8
지역	천안	1,226	73.9	3.9	16.2	6.0	0.0
	공주	308	77.1	4.2	15.9	0.0	2.8
	보령	74	71.2	0.0	28.8	0.0	0.0
	아산	746	64.1	8.9	15.5	11.0	0.5
	서산	295	57.6	5.6	19.1	14.0	3.7
	논산	176	74.9	4.8	20.4	0.0	0.0
	계룡	10	75.7	0.0	24.3	0.0	0.0
	당진	313	70.1	4.8	23.0	0.0	2.1
	금산	145	68.9	9.0	22.1	0.0	0.0
	부여	132	63.6	0.0	25.7	10.7	0.0
	서천	83	85.4	8.1	2.9	0.0	3.6
	청양	15	100.0	0.0	0.0	0.0	0.0
	홍성	172	75.8	0.0	12.1	12.1	0.0
	예산	223	63.0	5.0	13.0	19.0	0.0
	태안	81	65.0	11.4	10.2	13.4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 회사가 가까워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3] 해당 지역 교육훈련 참여 희망 이유(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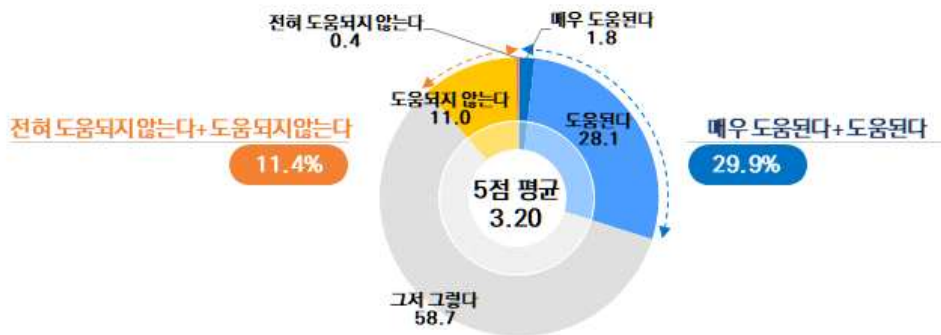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회사가 가까워서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필요한 훈련과정 이 있어서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3,999	69.9	5.2	16.9	7.1	0.8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319	61.7	7.4	18.6	6.8	5.4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48	73.6	7.1	11.4	7.9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32	59.2	5.8	25.2	6.7	3.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77.2	17.1	0.0	5.6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95	62.6	5.3	19.4	9.8	2.9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	62.5	11.5	15.5	10.6	0.0
	24. 1차 금속 제조업	33	34.3	43.0	22.7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42	69.4	3.6	20.0	7.0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213	59.0	12.6	15.9	10.8	1.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4	62.2	3.5	20.4	13.9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73.3	0.0	26.7	0.0	0.0
	32. 가구 제조업	4	56.0	0.0	44.0	0.0	0.0
	34. 기타 제조업	19	79.6	0.0	20.4	0.0	0.0
	41. 건설업	271	59.7	3.7	27.0	9.5	0.0
	49. 운송서비스업	119	72.1	7.0	20.9	0.0	0.0
	58. 문화서비스업	25	76.0	0.0	8.0	8.0	8.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0	60.4	14.6	25.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201	58.2	10.1	27.2	4.5	0.0
	74. 사업서비스업	222	79.3	2.0	14.4	4.4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001	84.3	2.2	8.7	4.7	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50	69.2	0.0	12.4	18.4	0.0
	95. 수리업	70	68.8	8.9	15.6	6.7	0.0

3) 외부 위탁 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

- 외부 위탁교육의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를 보면, 매우 도움된다(1.8%)+도움된다(28.1%)이 29.9%로 나타났으며, 5점 평균 3.20점으로 나타남

[그림 43] 외부 위탁 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

(Base : 10,414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에서 외부 위탁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5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4] 외부 위탁 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규모별)

(단위 : 명, %,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5점 평균
전 체		10,414	0.4	11.0	58.7	28.1	1.8	3.20
기업 규모	10-29인	5,703	0.6	12.7	56.9	27.4	2.4	3.18
	30-49인	1,824	0.4	11.4	58.2	28.7	1.2	3.19
	50-99인	1,569	0.0	8.5	63.2	27.1	1.1	3.21
	100-299인	1,318	0.2	6.0	61.5	31.4	0.9	3.27

- 지역별로 보면, 태안 지역에서 외부 위탁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5점 평균)가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여, 공주, 예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85] 외부 위탁 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지역별)

(단위 : 명, %,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5점 평균
전 체		10,414	0.4	11.0	58.7	28.1	1.8	3.20
지역	천안	3,029	0.3	9.6	59.9	28.0	2.1	3.22
	공주	628	0.0	4.2	58.6	34.0	3.2	3.36
	보령	312	2.8	24.8	44.5	22.6	5.3	3.03
	아산	2,125	0.7	14.2	56.9	26.6	1.6	3.14
	서산	776	0.5	15.1	57.4	25.1	1.9	3.13
	논산	441	0.0	15.3	66.7	16.5	1.5	3.04
	계룡	33	0.0	3.8	73.8	22.4	0.0	3.19
	당진	1,083	0.0	9.1	59.3	31.0	0.6	3.23
	금산	359	1.1	1.0	76.7	21.1	0.0	3.18
	부여	245	0.0	9.0	41.9	45.8	3.4	3.44
	서천	216	0.0	15.3	56.4	27.7	0.6	3.14
	청양	70	0.0	22.2	46.2	31.6	0.0	3.09
	홍성	421	0.0	8.3	74.3	14.9	2.5	3.12
	예산	525	0.0	10.3	47.1	41.4	1.2	3.34
	태안	151	0.0	0.0	55.4	44.6	0.0	3.45

-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업에서 외부 위탁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5점 평균)가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차 금속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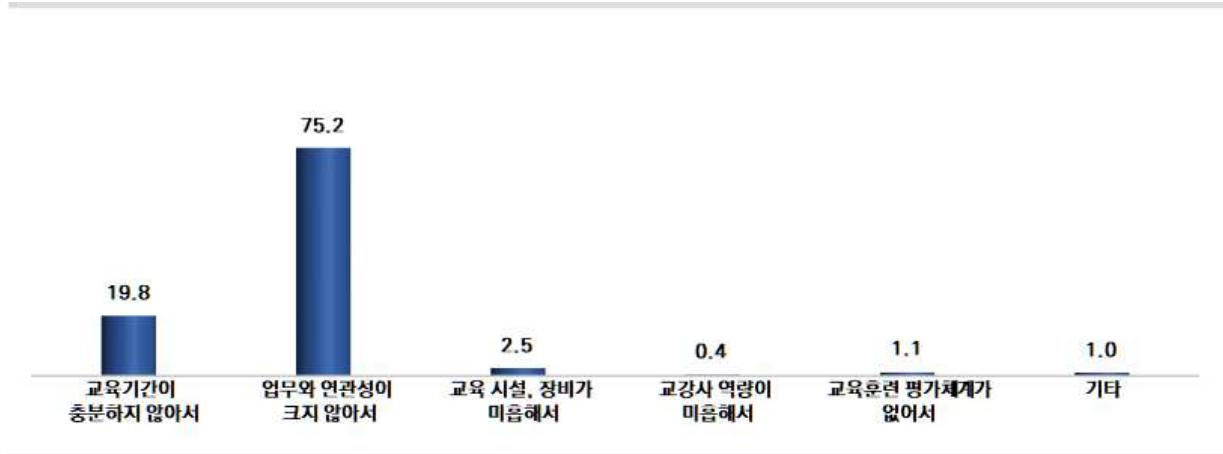
[표 186] 외부 위탁 교육의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도움 정도(산업별)

(단위 : 명, %,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5점 평균
전 체		10,414	0.4	11.0	58.7	28.1	1.8	3.20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750	0.0	14.1	67.1	17.3	1.5	3.06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54	0.0	23.2	64.0	11.7	1.2	2.91
	16. 목재·펄프 제조업	158	2.6	13.6	58.5	22.8	2.6	3.0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2	0.0	10.0	62.2	27.8	0.0	3.18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946	0.0	9.8	57.4	31.3	1.4	3.2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3	3.0	11.5	70.1	15.5	0.0	2.98
	24. 1차 금속 제조업	164	0.0	3.4	55.3	41.3	0.0	3.3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85	0.8	8.9	62.2	25.6	2.6	3.20
	26. 전기전자 제조업	807	0.9	16.0	60.8	22.3	0.0	3.0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9	0.0	16.0	53.6	29.6	0.8	3.1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0.0	6.3	60.4	25.0	8.3	3.35
	32. 가구 제조업	15	0.0	21.0	68.6	10.5	0.0	2.90
	34. 기타 제조업	40	0.0	19.1	52.3	28.6	0.0	3.10
	41. 건설업	654	0.0	15.3	57.9	25.3	1.5	3.13
	49. 운송서비스업	323	1.3	15.9	56.8	20.8	5.1	3.13
	58. 문화서비스업	48	0.0	12.5	58.3	25.0	4.2	3.21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5	0.0	11.0	43.3	40.2	5.5	3.40
	71. 전문서비스업	496	0.5	9.1	54.6	31.9	3.8	3.29
	74. 사업서비스업	512	0.5	10.7	67.3	19.5	2.0	3.12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157	0.0	6.1	52.6	39.5	1.8	3.3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39	0.0	9.7	59.1	28.5	2.6	3.24
	95. 수리업	129	0.0	9.7	60.1	26.6	3.6	3.24

-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가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한 교육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육시설, 장비가 미흡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Base : 외부 위탁교육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에 향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현업부서장 1,186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7]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	교육 시설, 장비가 미흡해서	교강사 역량이 미흡해서	교육 훈련 평가 체계가 없어서	기타
전 체		1,186	19.8	75.2	2.5	0.4	1.1	1.0
기업 규모	10-29인	756	21.7	74.0	3.3	0.0	1.0	0.0
	30-49인	215	14.2	77.4	1.0	0.0	1.7	5.6
	50-99인	133	28.1	71.9	0.0	0.0	0.0	0.0
	100-299인	81	2.9	85.3	3.0	5.9	2.9	0.0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부여 지역에서는 교육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8]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기간이 충분 하지 않아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 아서	교육 시설, 장비가 미흡 해서	교강사 역량이 미흡 해서	교육 훈련 평가 체계가 없어서	기타
전 체		1,186	19.8	75.2	2.5	0.4	1.1	1.0
지역	천안	302	17.1	77.6	0.0	0.8	4.5	0.0
	공주	26	62.3	37.7	0.0	0.0	0.0	0.0
	보령	86	14.6	85.4	0.0	0.0	0.0	0.0
	아산	316	18.0	82.0	0.0	0.0	0.0	0.0
	서산	121	16.1	66.8	13.5	0.0	0.0	3.5
	논산	67	5.8	66.1	12.9	3.5	0.0	11.7
	계룡	1	0.0	100.0	0.0	0.0	0.0	0.0
	당진	99	19.1	76.2	4.7	0.0	0.0	0.0
	금산	8	0.0	100.0	0.0	0.0	0.0	0.0
	부여	22	60.9	39.1	0.0	0.0	0.0	0.0
	서천	33	39.2	60.8	0.0	0.0	0.0	0.0
	청양	15	29.5	70.5	0.0	0.0	0.0	0.0
	홍성	35	29.1	70.9	0.0	0.0	0.0	0.0
	예산	54	24.8	75.2	0.0	0.0	0.0	0.0
	태안	-	-	-	-	-	-	-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수리업에서는 교육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남

[표 189]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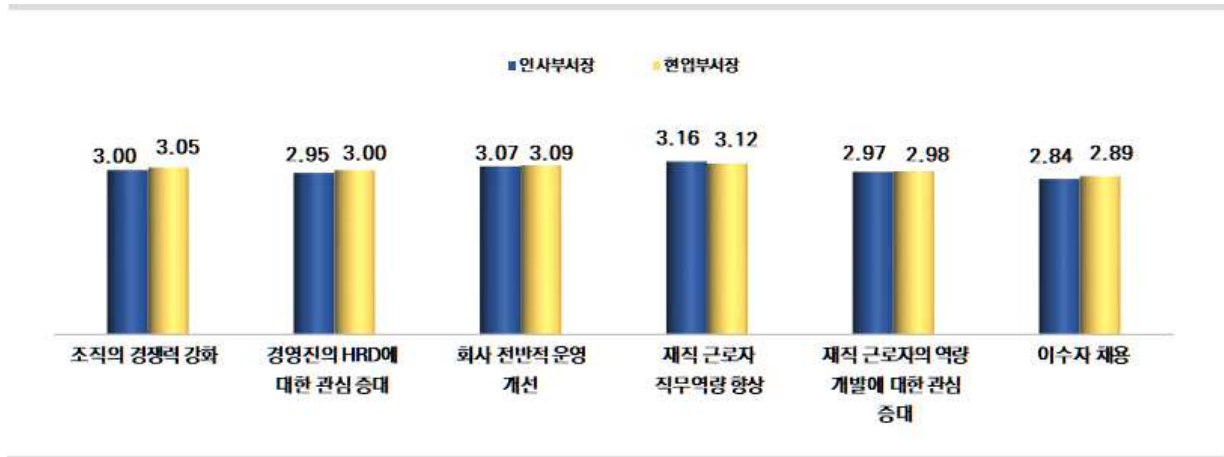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교육 기간이 충분 하지 않아서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 아서	교육 시설, 장비가 미흡 해서	교강사 역량이 미흡 해서	교육 훈련 평가 체계가 없어서	기타
전 체		1,186	19.8	75.2	2.5	0.4	1.1	1.0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106	13.9	86.1	0.0	0.0	0.0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36	21.4	78.6	0.0	0.0	0.0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25	15.9	84.1	0.0	0.0	0.0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0.0	100.0	0.0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92	32.9	61.9	2.6	2.6	0.0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2	68.4	11.1	20.5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6	50.0	50.0	0.0	0.0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2	16.6	83.4	0.0	0.0	0.0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137	33.9	54.5	0.0	1.7	9.9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6	5.0	95.0	0.0	0.0	0.0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0	100.0	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3	50.0	50.0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8	23.8	76.2	0.0	0.0	0.0	0.0
	41. 건설업	100	30.4	67.4	2.2	0.0	0.0	0.0
	49. 운송서비스업	56	7.6	84.8	0.0	0.0	0.0	7.6
	58. 문화서비스업	6	33.3	66.7	0.0	0.0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3	100.0	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48	24.6	75.4	0.0	0.0	0.0	0.0
	74. 사업서비스업	57	0.0	100.0	0.0	0.0	0.0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31	0.0	81.5	12.5	0.0	0.0	6.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4	0.0	100.0	0.0	0.0	0.0	0.0
	95. 수리업	13	87.3	12.7	0.0	0.0	0.0	0.0

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의 교육 훈련 도움 정도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의 교육훈련 도움 정도를 보면, 인사부서장과 현업부서장 모두 재직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인사부서장 3.16점, 현업부서장 3.1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인사 및 현업부서장 모두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조직의 경쟁력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의 교육 훈련 도움 정도

(Base : 인사부서장 7,202명, 현업부서장 10,414명, 단위 : 점(5점 평균))



- 인사부서장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 50-99인 규모에서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49인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100-299인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의 교육 훈련 도움 정도(규모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7,202	3.00	2.95	3.07	3.16	2.97	2.84
기업 규모	10-29인	4,967	2.95	2.89	3.04	3.16	2.95	2.83
	30-49인	987	3.06	3.01	3.15	3.14	2.98	2.88
	50-99인	776	2.99	2.97	3.00	3.14	3.02	2.84
	100-299인	472	3.36	3.35	3.28	3.24	3.12	2.84

- 인사부서장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직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청양 지역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이, 예산, 태안 지역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가, 계룡 지역에서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가, 홍성 지역에서는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반 교육 훈련 도움 정도(지역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7,202	3.00	2.95	3.07	3.16	2.97	2.84
지역	천안	2,021	2.89	2.92	2.96	3.12	2.99	2.74
	공주	466	3.11	3.20	3.29	3.18	3.20	2.97
	보령	225	2.86	2.84	3.19	3.23	2.89	2.78
	아산	1,420	3.05	2.96	3.06	3.20	2.91	2.90
	서산	539	2.93	2.85	3.02	3.11	2.82	2.61
	논산	333	3.06	2.99	3.25	3.30	3.04	2.90
	계룡	32	2.96	3.16	3.02	3.00	2.60	2.73
	당진	728	3.01	2.96	3.15	3.20	3.05	2.86
	금산	296	3.10	2.94	3.26	3.31	3.05	2.66
	부여	198	3.05	2.71	2.98	3.19	2.78	2.78
	서천	156	3.15	3.08	3.17	3.38	3.05	2.85
	청양	49	2.88	3.12	3.34	3.17	3.03	2.98
	홍성	272	2.81	2.81	2.87	2.88	3.04	2.99
	예산	350	3.21	3.05	3.10	3.06	2.94	3.16
	태안	117	3.29	2.92	3.02	3.20	2.83	3.10

- 인사부서장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목재·펄프 제조업, 문화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재직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가, 기타 제조업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반 교육 훈련 도움 정도(산업별)_인사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7,202	3.00	2.95	3.07	3.16	2.97	2.84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3.05	3.03	3.03	3.08	3.03	2.6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70	2.76	2.80	2.74	2.68	2.61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2.70	2.63	3.13	3.11	2.87	2.9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3.02	2.87	2.89	3.09	3.10	2.83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2.91	2.94	3.13	3.22	2.93	2.9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70	2.75	2.92	2.93	2.54	2.76
	24. 1차 금속 제조업	85	3.30	3.22	3.31	3.33	3.07	3.0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2.89	2.83	3.07	3.27	3.01	2.83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2.74	2.73	2.88	3.01	2.87	2.6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3.03	2.81	2.96	3.09	2.93	2.6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33	3.24	3.36	3.58	3.45	2.88
	32. 가구 제조업	13	3.00	2.64	3.67	3.79	3.15	3.00
	34. 기타 제조업	30	3.32	3.07	3.30	3.30	3.18	2.79
	41. 건설업	534	2.89	2.86	3.03	3.10	2.79	2.79
	49. 운송서비스업	207	2.96	2.85	2.83	3.15	2.67	2.65
	58. 문화서비스업	41	3.20	3.15	3.44	3.34	3.15	3.1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3.25	3.27	3.08	3.28	2.94	2.76
	71. 전문서비스업	377	3.02	3.02	3.08	2.96	2.92	2.94
	74. 사업서비스업	392	3.14	2.99	3.18	3.05	2.84	2.7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3.22	3.18	3.17	3.31	3.20	3.0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3.06	3.02	2.95	3.03	3.20	3.09
	95. 수리업	98	2.85	2.91	3.27	3.32	3.13	2.60

- 현업부서장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 50-99인 규모에서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49인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100-299인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반 교육 훈련 도움 정도(규모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10,414	3.05	3.00	3.09	3.12	2.98	2.89
기업 규모	10-29인	5,703	3.01	2.94	3.06	3.12	2.95	2.87
	30-49인	1,824	3.02	2.97	3.09	3.06	2.93	2.88
	50-99인	1,569	3.02	3.01	3.06	3.12	3.02	2.89
	100-299인	1,318	3.31	3.28	3.26	3.21	3.08	2.99

- 현업부서장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청양, 홍성 지역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이, 계룡 지역에서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반 교육 훈련 도움 정도(지역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10,414	3.05	3.00	3.09	3.12	2.98	2.89
지역	천안	3,029	3.07	3.00	3.04	3.06	2.95	2.84
	공주	628	3.14	3.20	3.35	3.21	3.24	3.09
	보령	312	2.84	2.85	3.04	3.21	2.93	2.77
	아산	2,125	3.03	2.99	3.10	3.13	2.94	2.93
	서산	776	3.01	2.91	2.97	3.01	2.85	2.78
	논산	441	2.96	2.90	3.11	3.16	2.89	2.84
	계룡	33	2.97	3.16	3.02	2.96	2.62	2.74
	당진	1,083	3.06	3.01	3.17	3.22	3.10	2.91
	금산	359	3.00	2.90	3.11	3.27	3.02	2.71
	부여	245	3.01	2.81	2.93	3.36	2.83	2.98
	서천	216	3.14	3.11	3.18	3.28	3.10	2.97
	청양	70	2.72	3.04	3.44	3.11	3.04	3.28
	홍성	421	2.93	2.94	3.00	2.92	2.98	2.82
	예산	525	3.31	3.20	3.15	3.10	3.01	3.05
	태안	151	3.22	2.92	3.04	3.23	2.96	2.88

- 현업부서장의 경우 산업별로 보면, 음식료 제조업, 목재펠프 제조업, 화학의약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에서는 재직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섬유 의복 피혁 제조업, 목재펠프 제조업, 건설업, 문화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수리업에서는 회사 전반적 운영개선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조업, 운송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반 교육 훈련 도움 정도(산업별)_현업부서장

(단위 : 명,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진의 HRD에 대한 관심 증대	회사 전반적 운영 개선	재직 근로자 직무 역량 향상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이수자 채용
전 체		10,414	3.05	3.00	3.09	3.12	2.98	2.89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750	3.03	2.93	3.03	3.04	2.92	2.73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54	2.76	2.83	2.88	2.79	2.68	2.61
	16. 목재펄프 제조업	158	2.79	2.72	3.08	2.95	2.94	3.0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2	3.07	2.85	2.78	2.92	2.91	2.68
	20. 화학의약플라스틱 제조업	946	3.07	3.04	3.14	3.15	2.99	3.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3	2.88	2.86	2.91	2.97	2.62	2.80
	24. 1차 금속 제조업	164	3.26	3.24	3.32	3.32	3.15	3.1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85	3.02	2.95	3.14	3.22	3.03	2.96
	26. 전기전자 제조업	807	2.86	2.84	2.88	3.06	2.88	2.7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9	3.06	2.93	3.05	3.08	2.90	2.6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3.54	3.40	3.56	3.63	3.48	2.92
	32. 가구 제조업	15	3.13	2.82	3.58	3.69	3.27	3.13
	34. 기타 제조업	40	3.29	3.24	3.19	3.27	3.04	2.85
	41. 건설업	654	2.95	2.87	3.06	2.98	2.80	2.75
	49. 운송서비스업	323	2.94	2.77	2.86	2.91	2.67	2.53
	58. 문화서비스업	48	3.15	3.21	3.46	3.42	3.21	3.13
	61. 정보통신서비스업	25	3.36	3.28	3.35	3.46	3.02	3.01
	71. 전문서비스업	496	3.17	3.16	3.15	3.09	2.92	3.04
	74. 사업서비스업	512	3.10	3.00	3.19	3.04	2.95	2.8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2,157	3.19	3.19	3.19	3.27	3.20	3.08
	90. 예술여가스포츠업	139	3.15	3.02	2.80	2.92	3.09	2.98
	95. 수리업	129	2.97	2.94	3.01	2.87	2.61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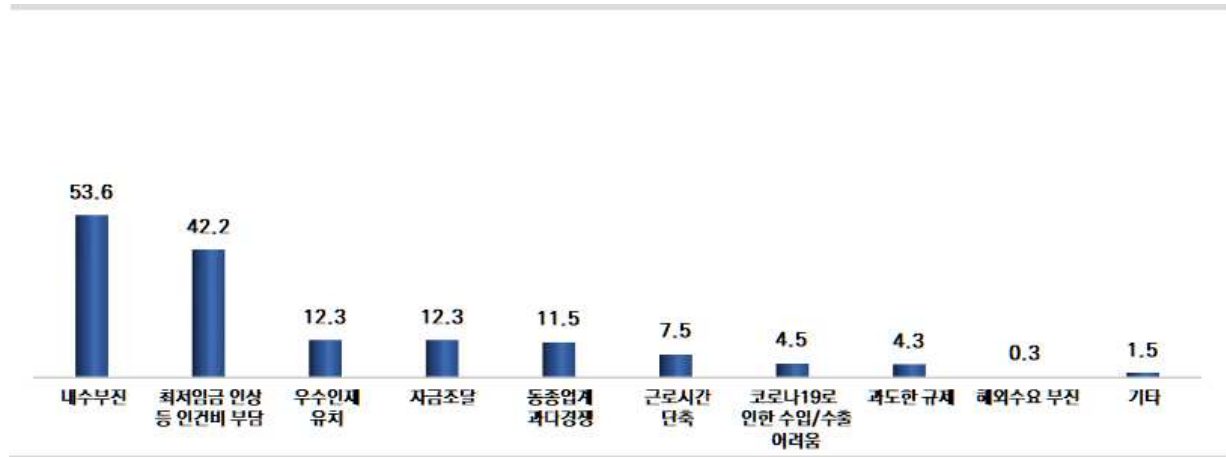
마. 경영 애로사항

1) 경영 애로사항

- 수요조사 응답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우수인재 유치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경영 애로사항

(Base : 7,202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6] 경영 애로사항(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 부진	최저 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우수 인재 유치	자금 조달	동종 업계 과다 경쟁	근로 시간 단축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수출 어려움	과도 한 규제	해외 수요 부진	기타
전 체	7,202	53.6	42.2	12.3	12.3	11.5	7.5	4.5	4.3	0.3	1.5
기업 규모	10-29인	4,967	55.1	42.9	11.0	11.9	12.4	7.0	3.3	2.5	1.8
	30-49인	987	51.6	40.2	14.7	15.1	8.3	5.8	6.3	6.3	0.0
	50-99인	776	49.6	43.9	15.5	9.6	12.1	6.3	6.3	8.8	1.1
	100-299인	472	47.7	36.5	15.8	14.8	7.9	17.2	10.0	11.9	0.4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수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와 청양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계룡 지역에서는 동종업계 과다경쟁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7] 경영 애로사항(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우수인재 유치	자금조달	동종업계 과다경쟁
전 체		7,202	53.6	42.2	12.3	12.3	11.5
지역	천안	2,021	51.0	47.5	13.0	11.9	10.7
	공주	466	41.5	44.9	24.7	5.0	9.0
	보령	225	54.9	40.8	8.6	14.9	8.1
	아산	1,420	55.7	39.7	11.3	11.5	8.7
	서산	539	50.2	43.0	12.3	13.0	17.0
	논산	333	45.7	37.3	9.0	5.1	11.8
	계룡	32	37.1	27.3	0.0	0.0	51.9
	당진	728	53.9	49.1	13.9	9.8	13.1
	금산	296	67.9	37.5	5.2	19.4	11.8
	부여	198	80.1	12.6	6.5	19.6	22.5
	서천	156	49.7	43.2	1.9	11.2	10.4
	청양	49	40.4	42.8	7.5	0.0	7.8
	홍성	272	55.3	44.3	7.0	14.5	6.4
	예산	350	55.8	34.8	20.4	19.0	13.5
	태안	117	75.0	22.5	3.3	38.0	16.7

구분		사례수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수출 어려움	과도한 규제	해외수요 부진	기타
전 체		7,202	7.5	4.5	4.3	0.3	1.5
지역	천안	2,021	5.4	6.1	3.3	0.3	2.5
	공주	466	6.0	3.3	5.9	0.0	0.0
	보령	225	14.5	0.0	4.0	0.0	0.0
	아산	1,420	9.1	4.8	6.0	0.3	0.0
	서산	539	6.0	4.4	3.6	1.9	2.0
	논산	333	9.9	11.4	5.3	0.0	1.9
	계룡	32	7.0	0.0	0.0	0.0	0.0
	당진	728	9.0	1.0	7.1	0.0	1.1
	금산	296	11.3	2.8	2.5	0.0	0.0
	부여	198	0.0	2.4	1.9	0.0	0.0
	서천	156	7.2	0.0	4.3	0.0	5.1
	청양	49	9.3	20.6	4.9	0.0	0.0
	홍성	272	6.2	1.5	3.8	0.0	7.5
	예산	350	11.0	3.6	1.0	0.0	1.1
	태안	117	0.0	5.5	1.1	0.0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 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수리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8] 경영 애로사항(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우수인재 유치	자금조달	동종업계 과다경쟁
전 체		7,202	53.6	42.2	12.3	12.3	11.5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49.1	51.2	18.6	12.0	12.6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65.4	53.0	15.1	13.3	6.6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66.1	29.3	9.8	25.8	7.2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34.0	67.2	11.4	18.8	6.3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59.7	37.6	13.7	11.5	14.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58.2	42.6	6.2	33.4	13.2
	24. 1차 금속 제조업	85	56.1	21.0	13.2	6.6	2.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53.3	47.3	11.7	11.0	5.2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63.9	47.0	9.4	8.9	9.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47.0	53.1	12.2	11.9	12.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78.8	45.5	54.5	9.1	12.1
	32. 가구 제조업	13	36.3	51.6	0.0	12.1	39.6
	34. 기타 제조업	30	56.4	43.6	30.9	19.4	12.7
	41. 건설업	534	62.1	42.7	8.0	23.8	16.6
	49. 운송서비스업	207	57.6	36.3	6.1	34.2	25.0
	58. 문화서비스업	41	43.9	14.6	29.3	24.4	14.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52.6	42.1	22.1	7.4	27.4
	71. 전문서비스업	377	52.5	37.2	17.8	9.4	10.5
	74. 사업서비스업	392	35.9	42.1	16.0	9.4	10.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50.6	36.2	10.4	5.2	11.5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67.1	19.9	12.3	12.5	10.4
	95. 수리업	98	44.7	50.5	17.6	4.8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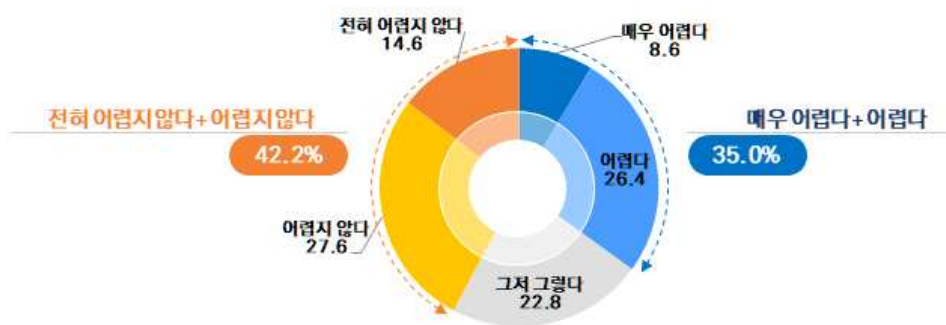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수출 어려움	과도한 규제	해외수요 부진	기타
전 체		7,202	7.5	4.5	4.3	0.3	1.5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10.2	7.2	2.6	0.0	3.6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6.7	5.0	6.5	0.0	3.4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11.6	6.7	7.5	0.0	1.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23.0	6.3	6.3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7.8	5.9	5.8	0.0	0.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5.8	3.7	5.8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31.8	8.6	3.3	0.0	4.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12.2	7.2	6.0	0.0	1.2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0.1	6.3	2.2	0.0	1.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10.8	8.3	3.4	1.3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2.1	0.0	9.1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24.2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30	12.1	12.7	13.3	6.7	0.0
	41. 건설업	534	6.8	2.3	6.1	1.9	0.0
	49. 운송서비스업	207	11.8	3.5	0.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41	4.9	2.4	0.0	0.0	2.4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0.0	0.0	5.3	0.0	0.0
	71. 전문서비스업	377	0.7	1.7	2.1	0.0	0.0
	74. 사업서비스업	392	4.7	0.0	2.0	0.4	2.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1.2	1.7	4.8	0.0	2.6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0.0	8.2	6.4	0.0	8.2
	95. 수리업	98	11.2	0.0	0.0	0.0	0.0

2) 신규인력 채용 어려움

-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정도를 보면,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42.2%(전혀 어렵지 않다(14.6%)+어렵지 않다(27.6%))로 나타난 반면, 어렵다는 응답은 35.0%(매우 어렵다(8.6%)+어렵다(26.4%))로 나타남

[그림 47] 신규인력 채용 어려움 정도

(Base : 7,202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49인에서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99] 신규인력 채용 어려움 정도(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 체		7,202	14.6	27.6	22.8	26.4	8.6
기업 규모	10-29인	4,967	16.2	28.4	22.3	24.5	8.6
	30-49인	987	9.7	23.9	25.9	31.5	9.1
	50-99인	776	9.8	28.1	24.5	27.2	10.4
	100-299인	472	16.0	26.7	18.7	34.8	3.9

- 지역별로 보면, 태안, 청양, 계룡, 부여에서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60% 이상으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당진, 공주, 금산, 보령의 경우,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00] 신규인력 채용 어려움 정도(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 체		7,202	14.6	27.6	22.8	26.4	8.6
지역	천안	2,021	11.4	30.8	25.6	21.1	11.1
	공주	466	16.5	41.8	17.0	24.7	0.0
	보령	225	28.9	40.4	9.3	17.1	4.3
	아산	1,420	12.8	29.7	23.5	24.6	9.3
	서산	539	11.6	26.1	26.8	29.9	5.6
	논산	333	13.9	30.8	17.4	28.5	9.5
	계룡	32	13.8	0.0	23.3	62.9	0.0
	당진	728	24.5	20.7	25.8	19.6	9.3
	금산	296	19.2	31.2	27.6	11.5	10.5
	부여	198	9.9	15.2	13.3	52.9	8.7
	서천	156	24.3	18.5	14.9	41.4	0.9
	청양	49	0.0	0.0	31.9	58.8	9.3
	홍성	272	6.4	24.0	27.5	34.3	7.9
	예산	350	14.8	11.9	17.7	46.9	8.7
	태안	117	18.6	6.6	6.6	55.2	13.0

-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신규 인력의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49.5%로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기타 수리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신규인력의 채용이 어렵다(어렵다+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20% 미만으로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01] 신규인력 채용 어려움 정도(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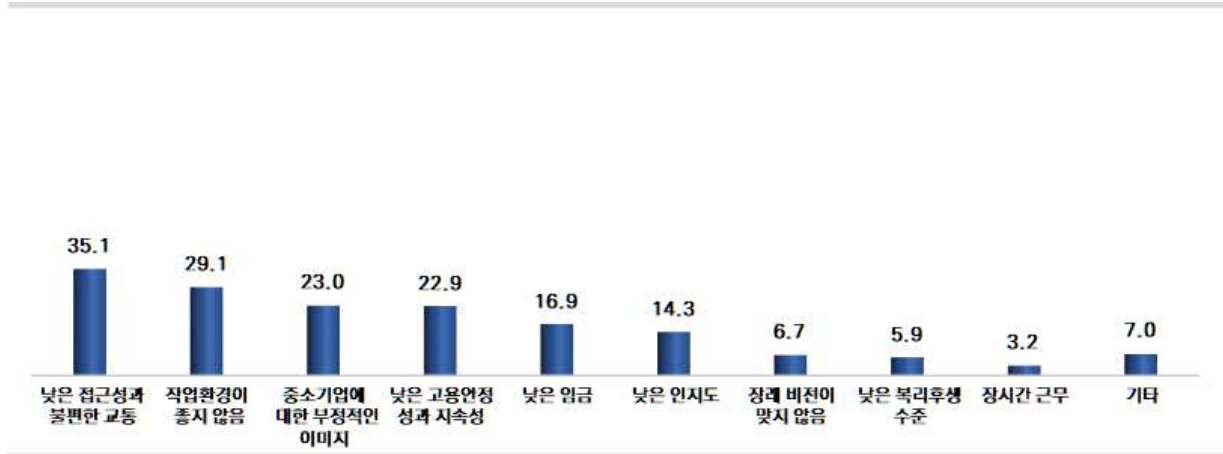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 체		7,202	14.6	27.6	22.8	26.4	8.6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8.9	21.8	26.3	35.3	7.8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4.9	28.4	19.6	30.4	16.7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14.9	14.3	31.0	19.8	2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12.7	40.5	16.0	30.7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11.6	26.8	22.9	30.3	8.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9.9	35.6	22.2	31.4	0.8
	24. 1차 금속 제조업	85	12.2	23.1	18.5	33.0	13.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12.7	25.6	30.3	19.9	11.5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8.3	29.1	21.7	20.1	20.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9.1	24.0	17.4	33.1	16.4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2.1	24.2	45.5	18.2	0.0
	32. 가구 제조업	13	12.1	36.3	24.2	12.1	15.4
	34. 기타 제조업	30	18.8	30.9	6.1	32.1	12.1
	41. 건설업	534	32.0	16.4	21.0	26.3	4.2
	49. 운송서비스업	207	20.2	6.7	25.4	43.8	4.0
	58. 문화서비스업	41	36.6	24.4	14.6	22.0	2.4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10.5	34.7	14.7	25.3	14.7
	71. 전문서비스업	377	14.5	36.2	18.3	29.3	1.7
	74. 사업서비스업	392	19.0	36.3	20.5	19.6	4.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15.4	34.0	20.1	25.4	5.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32.2	21.6	22.0	16.7	7.6
	95. 수리업	98	9.6	36.1	35.1	17.6	1.6

- 신규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Base :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 4,161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신규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2]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낮은 임금
전 체		4,161	35.1	29.1	23.0	22.9	16.9
기업 규모	10-29인	2,752	33.8	27.7	23.9	23.3	17.7
	30-49인	656	37.1	34.0	19.3	24.2	20.9
	50-99인	482	42.8	31.6	19.8	18.2	9.3
	100-299인	271	29.6	27.2	29.4	23.9	11.9

구분		사례수	낮은 인지도	장래 비전이 맞지 않음	낮은 복리후생 수준	장시간 근무	기타
전 체		4,161	14.3	6.7	5.9	3.2	7.0
기업 규모	10-29인	2,752	15.4	6.7	6.0	2.8	6.5
	30-49인	656	13.5	4.9	4.7	4.2	6.8
	50-99인	482	9.4	8.3	5.7	2.0	7.9
	100-299인	271	13.6	8.4	7.5	6.9	11.4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산, 논산, 태안 지역에서는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이, 공주, 예산 지역에서는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여 지역에서는 낮은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3]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음	중소 기업에 대한 부정 적인 이미지	낮은 고용 안정성과 지속성	낮은 임금
전 체		4,161	35.1	29.1	23.0	22.9	16.9
지역	천안	1,168	29.0	28.6	25.0	23.4	17.6
	공주	195	38.2	30.8	25.0	39.0	11.3
	보령	69	58.2	34.8	9.0	6.8	29.9
	아산	816	29.2	23.5	22.0	17.1	19.5
	서산	336	31.2	43.6	20.5	23.5	13.6
	논산	184	43.5	47.3	10.0	21.2	11.2
	계룡	27	64.8	27.1	0.0	27.1	60.2
	당진	398	47.8	37.6	35.0	13.0	19.8
	금산	147	64.7	10.3	29.4	10.9	18.1
	부여	148	27.3	26.1	13.5	12.5	16.4
	서천	89	44.6	25.4	18.4	20.2	18.4
	청양	49	42.4	20.6	37.2	26.0	0.0
	홍성	190	33.5	21.1	28.7	32.0	16.2
	예산	257	31.6	17.9	14.4	47.3	10.1
	태안	88	38.7	42.4	18.7	38.9	11.5

구분		사례수	낮은 인지도	장래 비전이 맞지 않음	낮은 복리 후생 수준	장시간 근무	기타
전 체		4,161	14.3	6.7	5.9	3.2	7.0
지역	천안	1,168	15.2	8.0	6.9	5.3	4.8
	공주	195	3.8	0.0	12.5	5.6	1.6
	보령	69	12.7	5.6	0.0	0.0	14.7
	아산	816	14.4	9.1	8.2	4.2	3.4
	서산	336	14.0	6.4	5.1	3.4	12.1
	논산	184	8.5	4.8	0.0	0.7	14.7
	계룡	27	0.0	0.0	0.0	0.0	8.2
	당진	398	7.4	2.5	0.9	0.9	14.2
	금산	147	5.0	2.6	2.8	5.7	7.7
	부여	148	45.1	7.6	1.9	0.0	22.5
	서천	89	1.1	0.0	0.0	0.0	1.6
	청양	49	9.3	0.0	0.0	0.0	16.0
	홍성	190	32.2	4.2	5.5	1.2	5.4
	예산	257	12.9	14.0	13.3	0.0	1.6
	태안	88	19.8	9.9	0.0	0.0	0.0

-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과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문화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운송서비스업, 수리업에서는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이, 정보통신서비스업에서는 낮은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4]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낮은 임금
전 체		4,161	35.1	29.1	23.0	22.9	16.9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357	55.0	18.4	17.6	31.4	8.5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75	26.9	47.0	32.4	5.1	22.8
	16. 목재·펄프 제조업	86	42.3	23.5	9.4	17.8	27.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	24.1	35.0	43.5	7.9	32.3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74	45.8	29.8	22.2	28.6	17.9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7	49.5	33.9	12.0	31.2	10.6
	24. 1차 금속 제조업	55	56.1	32.3	13.7	26.9	6.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87	35.6	26.6	37.2	18.6	19.9
	26. 전기전자 제조업	310	53.3	19.2	21.6	20.4	15.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9	30.3	39.9	17.7	24.4	24.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85.7	85.7	71.4	0.0	85.7
	32. 가구 제조업	7	46.8	53.2	29.8	23.4	23.4
	34. 기타 제조업	15	50.6	62.7	36.1	0.0	25.3
	41. 건설업	275	16.3	44.1	23.7	31.8	20.8
	49. 운송서비스업	151	14.9	12.9	23.5	25.4	2.0
	58. 문화서비스업	16	0.0	18.8	50.0	25.0	25.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0	26.9	40.4	26.9	0.0	40.4
	71. 전문서비스업	186	29.3	16.7	28.8	21.1	3.4
	74. 사업서비스업	175	15.6	15.6	18.1	33.0	19.5
	86. 보건복지서비스업	781	30.8	34.9	17.9	14.3	18.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2	26.7	4.5	38.9	21.2	8.9
	95. 수리업	53	0.0	50.0	3.0	58.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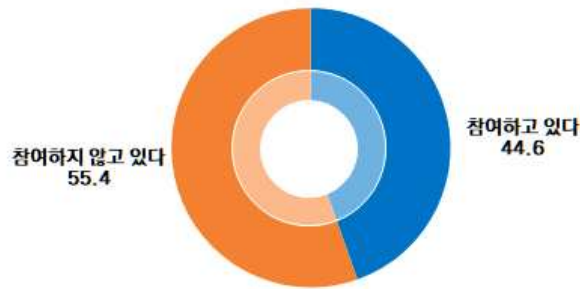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낮은 인지도	장래 비전이 맞지 않음	낮은 복리후생 수준	장시간 근무	기타
전 체		4,161	14.3	6.7	5.9	3.2	7.0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357	12.1	9.0	10.1	3.1	6.9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75	17.2	15.3	2.7	0.0	7.3
	16. 목재·펄프 제조업	86	4.7	4.7	23.5	0.0	9.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	7.9	0.0	0.0	0.0	13.9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74	17.3	5.7	4.6	0.0	7.3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7	18.0	6.9	2.2	9.1	0.0
	24. 1차 금속 제조업	55	0.0	5.1	3.5	6.8	6.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87	13.3	6.1	0.0	6.0	3.4
	26. 전기전자 제조업	310	37.6	2.7	3.6	1.5	6.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9	7.1	6.7	8.6	4.6	7.7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14.3	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7	0.0	0.0	0.0	23.4	0.0
	34. 기타 제조업	15	13.3	0.0	0.0	0.0	25.3
	41. 건설업	275	8.1	7.4	0.0	4.9	5.3
	49. 운송서비스업	151	9.8	13.1	11.3	9.8	22.2
	58. 문화서비스업	16	0.0	6.3	0.0	0.0	37.5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0	9.6	23.1	0.0	0.0	32.7
	71. 전문서비스업	186	19.8	8.2	23.2	0.0	7.6
	74. 사업서비스업	175	25.4	16.8	10.1	7.2	8.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781	11.7	3.0	5.1	0.0	7.1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2	0.0	7.5	0.0	4.5	8.9
	95. 수리업	53	0.0	17.6	8.8	0.0	3.0

3)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 참여 여부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참여 여부를 보면,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55.4%, 참여하고 있다가 44.6%로 나타남

[그림 49]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 참여 여부

(Base : 7,202명, 단위 : 명)



-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은 반면, 50인 미만 규모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05]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 참여 여부(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 체		7,202	44.6	55.4
기업 규모	10-29인	4,967	39.0	61.0
	30-49인	987	45.7	54.3
	50-99인	776	64.4	35.6
	100-299인	472	69.2	30.8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공주, 아산, 금산, 서천, 청양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06]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 참여 여부(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 체		7,202	44.6	55.4
지역	천안	2,021	44.5	55.5
	공주	466	52.2	47.8
	보령	225	38.1	61.9
	아산	1,420	50.1	49.9
	서산	539	49.7	50.3
	논산	333	33.8	66.2
	계룡	32	33.6	66.4
	당진	728	41.2	58.8
	금산	296	54.9	45.1
	부여	198	39.1	60.9
	서천	156	54.1	45.9
	청양	49	53.4	46.6
	홍성	272	40.0	60.0
	예산	350	35.2	64.8
	태안	117	1.1	98.9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07]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지원제도 참여 여부(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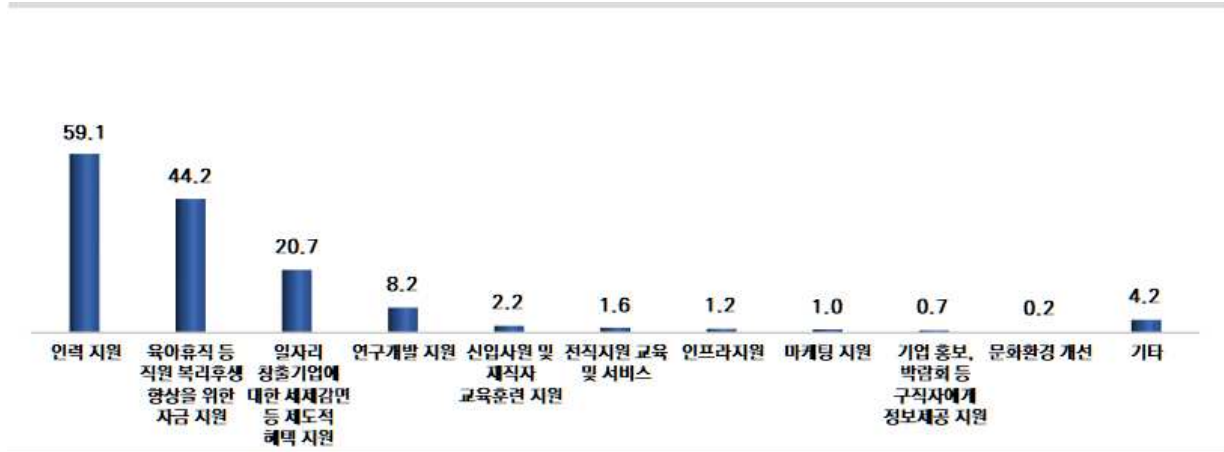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 체		7,202	44.6	55.4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47.1	52.9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8.1	71.9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47.0	53.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64.9	35.1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38.6	61.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0.1	79.9
	24. 1차 금속 제조업	85	65.8	34.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49.1	50.9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51.4	48.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42.7	57.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3.3	66.7
	32. 가구 제조업	13	27.5	72.5
	34. 기타 제조업	30	44.2	55.8
	41. 건설업	534	10.7	89.3
	49. 운송서비스업	207	27.2	72.8
	58. 문화서비스업	41	56.1	43.9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57.9	42.1
	71. 전문서비스업	377	48.8	51.2
	74. 사업서비스업	392	43.7	56.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59.3	40.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51.9	48.1
	95. 수리업	98	12.8	87.2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각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 활용 지원제도로, 인력 지원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제도적 혜택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0]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

(Base : 3,214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과 30-49인 규모에서 인력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99인과 100-299인 규모에서는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8]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인력 지원	육아 휴직 등 직원 복리 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제도적 혜택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신입사원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 체	3,214	59.1	44.2	20.7	8.2	2.2
기업 규모						
10-29인	1,937	60.0	32.8	21.8	8.5	2.5
30-49인	451	62.2	50.8	21.3	8.9	0.0
50-99인	500	54.6	63.9	15.9	7.2	0.4
100-299인	326	56.5	72.8	21.0	7.2	6.3

구분	사례수	전직 지원 교육 및 서비스	인프라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 박람회 등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지원	문화 환경 개선	기타
전 체	3,214	1.6	1.2	1.0	0.7	0.2	4.2
기업 규모							
10-29인	1,937	1.4	0.7	0.6	0.7	0.0	6.0
30-49인	451	1.7	0.0	0.0	0.0	0.0	2.6
50-99인	500	1.7	3.7	2.1	1.2	0.0	0.7
100-299인	326	2.0	1.9	3.3	1.5	1.6	0.7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지원(인력알선, 인건비 지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천안, 당진, 부여 지역에서는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9]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인력 지원	육아 휴직 등 직원 복리 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제도적 혜택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신입사원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 체	3,214	59.1	44.2	20.7	8.2	2.2	
지역	천안	899	50.3	54.6	17.4	9.6	3.8
	공주	243	55.1	35.5	28.5	7.6	0.0
	보령	86	65.5	33.1	26.8	8.6	0.0
	아산	712	66.4	39.6	18.4	7.7	1.3
	서산	268	57.4	43.1	28.3	5.9	5.6
	논산	112	76.1	29.8	13.2	4.2	0.0
	계룡	11	30.6	11.8	0.0	0.0	0.0
	당진	300	49.2	57.0	20.2	4.9	0.0
	금산	163	81.1	34.0	24.8	7.1	0.0
	부여	77	28.6	62.2	16.7	0.0	0.0
	서천	84	75.6	39.6	35.9	2.4	0.0
	청양	26	85.3	14.7	14.7	0.0	0.0
	홍성	109	65.8	28.2	32.9	13.8	0.0
	예산	123	66.7	32.2	9.5	26.4	10.2
	태안	1	100.0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전직 자원 교육 및 서비스	인프라지원	마케팅 자원	기업 홍보, 박람회 등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지원	문화 환경 개선	기타
전 체		3,214	1.6	1.2	1.0	0.7	0.2	4.2
지역	천안	899	3.1	2.7	0.9	1.7	0.3	1.3
	공주	243	0.0	0.0	0.0	0.0	0.0	10.8
	보령	86	0.0	0.0	0.0	4.5	0.0	11.8
	아산	712	0.2	0.0	0.9	0.3	0.0	4.6
	서산	268	0.0	0.9	0.9	0.0	0.0	6.4
	논산	112	0.0	0.0	0.0	0.0	0.0	9.3
	계룡	11	0.0	0.0	0.0	0.0	0.0	69.4
	당진	300	0.8	0.6	1.0	0.0	0.0	0.4
	금산	163	0.0	0.0	1.8	0.0	0.0	5.7
	부여	77	0.0	0.0	0.0	3.1	0.0	10.7
	서천	84	0.0	0.0	0.0	0.0	0.0	0.0
	청양	26	0.0	0.0	14.7	0.0	0.0	0.0
	홍성	109	6.2	8.9	6.2	0.0	0.0	0.0
	예산	123	9.1	0.0	0.0	0.0	2.4	0.0
	태안	1	0.0	0.0	0.0	0.0	0.0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력 지원(인력알선, 인건비 지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 수리업에서는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0]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인력 지원	육아 휴직 등 직원 복리 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제도적 혜택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산업사원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 체		3,214	59.1	44.2	20.7	8.2	2.2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243	59.7	38.8	32.7	10.2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31	46.9	40.6	5.7	5.3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57	78.3	29.0	21.3	0.0	3.8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42.9	53.1	25.5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34	54.7	45.9	24.6	19.0	1.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7	46.6	40.9	43.3	0.0	7.9
	24. 1차 금속 제조업	56	70.2	46.8	13.3	5.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48	67.3	44.2	21.3	7.1	2.9
	26. 전기전자 제조업	254	72.3	36.8	8.5	22.1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9	62.4	36.8	24.5	14.1	1.3
	31. 기타 운송장비 조업	4	0.0	72.7	0.0	27.3	0.0
	32. 가구 제조업	4	56.0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13	71.2	15.1	0.0	0.0	0.0
	41. 건설업	57	78.5	0.0	25.3	0.0	17.7
	49. 운송서비스업	56	42.6	7.8	5.3	3.9	14.7
	58. 문화서비스업	23	52.2	43.5	8.7	21.7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1	25.5	49.1	12.7	38.2	0.0
	71. 전문서비스업	184	42.3	54.9	24.3	6.3	0.0
	74. 사업서비스업	171	40.0	43.7	28.5	2.3	2.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915	59.0	51.5	18.6	3.8	2.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7	36.5	79.8	6.9	0.0	0.0
	95. 수리업	13	50.0	50.0	0.0	0.0	0.0

구분		사례수	전직 자원 교육 및 서비스	인프라 자원	마케팅 자원	기업 홍보, 박람회 등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자원	문화 환경 개선	기타
전 체		3,214	1.6	1.2	1.0	0.7	0.2	4.2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243	0.0	0.0	2.4	0.0	0.0	4.5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31	5.3	0.0	0.0	0.0	0.0	24.3
	16. 목재펄프 제조업	57	0.0	3.8	7.1	3.8	0.0	3.3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0.0	0.0	0.0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34	0.0	1.0	2.7	0.0	0.0	1.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7	0.0	0.0	0.0	0.0	0.0	0.0
	24. 1차 금속 제조업	56	0.0	0.0	0.0	0.0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48	0.0	2.4	0.0	3.1	0.0	2.4
	26. 전기전자 제조업	254	0.0	0.0	0.9	0.0	0.9	5.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9	4.9	0.0	0.0	0.0	1.3	0.0
	31. 기타 운송장비 조업	4	0.0	0.0	0.0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4	0.0	0.0	0.0	0.0	0.0	44.0
	34. 기타 제조업	13	0.0	0.0	0.0	0.0	0.0	28.8
	41. 건설업	57	0.0	0.0	0.0	0.0	0.0	17.7
	49. 운송서비스업	56	0.0	9.2	0.0	0.0	0.0	29.5
	58. 문화서비스업	23	0.0	0.0	0.0	0.0	0.0	8.7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1	0.0	0.0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184	0.0	0.0	0.0	0.0	0.0	3.4
	74. 사업서비스업	171	1.0	1.0	4.7	0.0	0.0	10.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915	3.9	1.5	0.7	0.5	0.0	2.7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7	0.0	0.0	0.0	0.0	0.0	2.7
	95. 수리업	13	0.0	0.0	0.0	0.0	0.0	0.0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약조건이 많음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효용성 부족, 관련 서류작업 부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Base :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3,988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 규모에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약조건이 많음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29인 규모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1]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제약조건이 많음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효용성 부족	관련 서류작업 부담	기타
전 체		3,988	35.2	33.6	22.4	7.8	1.1
기업 규모	10-29인	3,030	34.4	35.9	21.4	7.3	1.0
	30-49인	536	37.1	28.7	23.7	8.9	1.6
	50-99인	276	32.8	26.3	28.3	12.6	0.0
	100-299인	146	48.6	16.8	28.4	4.5	1.6

- 지역별로 보면, 천안, 보령, 서산, 계룡, 부여, 서천, 홍성, 태안 지역에서 제약조건이 많음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아산, 논산, 당진, 청양 지역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재가, 금산, 예산 지역에서는 효용성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2]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제약조건이 많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효용성 부족	관련 서류작업 부담	기타
전 체		3,988	35.2	33.6	22.4	7.8	1.1
지역	천안	1,122	41.9	32.6	15.4	8.8	1.3
	공주	223	22.7	49.9	24.5	2.8	0.0
	보령	139	41.8	32.5	15.6	10.1	0.0
	아산	708	29.3	36.2	28.2	5.7	0.5
	서산	271	47.8	29.9	17.3	2.3	2.7
	논산	221	28.8	38.2	22.5	8.5	1.9
	계룡	21	89.4	10.6	0.0	0.0	0.0
	당진	428	28.9	40.3	25.2	5.1	0.4
	금산	134	16.5	24.5	41.0	10.4	7.6
	부여	120	57.9	12.3	19.9	10.0	0.0
	서천	71	49.0	18.1	32.9	0.0	0.0
	청양	23	0.0	91.8	8.2	0.0	0.0
	홍성	163	32.5	15.3	31.6	20.6	0.0
	예산	227	20.9	31.0	32.3	15.8	0.0
	태안	116	45.9	36.1	10.2	7.8	0.0

-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조건이 많음과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운송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효용성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3]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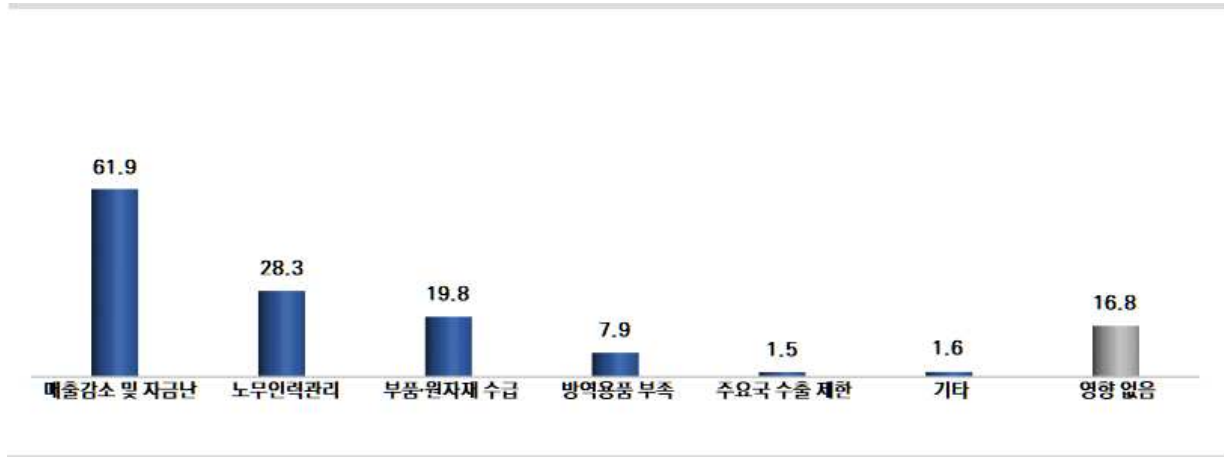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제약조건이 많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효용성 부족	관련 서류작업 부담	기타
전 체		3,988	35.2	33.6	22.4	7.8	1.1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272	40.6	32.9	22.7	3.8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81	22.8	40.0	30.3	6.9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64	42.3	9.2	21.8	26.7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32.2	0.0	57.3	10.6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373	33.8	35.9	16.5	12.5	1.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6	36.8	35.7	21.2	6.2	0.0
	24. 1차 금속 제조업	29	32.5	45.0	22.5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67	31.2	40.0	24.8	3.9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241	29.7	31.6	19.3	16.3	3.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7	41.0	30.0	21.7	7.3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	86.4	0.0	13.6	0.0	0.0
	32. 가구 제조업	9	50.0	33.3	16.7	0.0	0.0
	34. 기타 제조업	17	67.4	21.7	0.0	0.0	10.9
	41. 건설업	477	29.7	43.6	22.4	2.1	2.1
	49. 운송서비스업	151	29.9	22.1	37.5	7.6	2.8
	58. 문화서비스업	18	55.6	22.2	11.1	11.1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8	52.5	12.5	17.5	17.5	0.0
	71. 전문서비스업	193	25.7	47.3	11.2	15.7	0.0
	74. 사업서비스업	221	27.9	32.0	27.3	9.3	3.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629	47.0	22.2	23.0	7.4	0.4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3	11.6	37.1	38.4	4.4	8.5
	95. 수리업	85	34.8	36.6	17.6	11.0	0.0

4)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매출감소 및 자금난이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무인력관리, 부품·원자재 수급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영향

(Base : 7,202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자금난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4]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영향(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매출 감소 및 자금난	노무 인력 관리	부품원 자재 수급	방역 용품 부족	주요국 수출 제한	기타	영향 없음
전 체	7,202	61.9	28.3	19.8	7.9	1.5	1.6	16.8
기업 규모	10-29인	4,967	61.5	27.6	18.3	8.1	0.8	17.7
	30-49인	987	61.3	28.2	21.9	7.6	2.8	16.2
	50-99인	776	63.7	28.3	23.1	7.7	2.9	15.9
	100-299인	472	64.4	35.8	25.4	5.8	3.2	9.9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감소 및 자금난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5]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영향(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매출 감소 및 자금난	노무 인력 관리	부품·원 자재 수급	방역 용품 부족	주요국 수출 제한	기타	영향 없음
전 체		7,202	61.9	28.3	19.8	7.9	1.5	1.6	16.8
지역	천안	2,021	63.4	39.8	16.2	6.2	2.6	1.4	15.9
	공주	466	56.6	36.9	7.3	11.2	2.3	3.8	16.9
	보령	225	49.4	29.9	32.5	9.0	0.0	3.0	13.1
	아산	1,420	59.3	17.5	25.1	7.3	1.8	2.0	17.1
	서산	539	65.8	26.3	18.8	4.0	0.0	2.0	18.6
	논산	333	61.1	31.1	7.2	17.8	1.5	0.0	17.4
	계룡	32	86.2	59.4	30.4	0.0	0.0	0.0	6.3
	당진	728	56.6	24.5	29.9	5.3	0.0	1.2	21.9
	금산	296	67.7	27.4	36.2	0.0	1.2	0.0	19.0
	부여	198	74.1	33.7	14.9	16.6	0.5	1.2	1.1
	서천	156	50.7	29.1	0.6	15.7	0.0	0.0	19.6
	청양	49	76.1	0.0	14.2	7.9	0.0	16.0	0.0
	홍성	272	34.7	23.7	14.0	26.5	2.4	0.9	26.9
	예산	350	89.6	11.4	25.4	3.4	0.0	0.4	9.1
	태안	117	77.9	4.3	8.6	0.0	0.0	0.0	22.1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매출감소 및 자금난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서비스업에서는 노무인력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6]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영향(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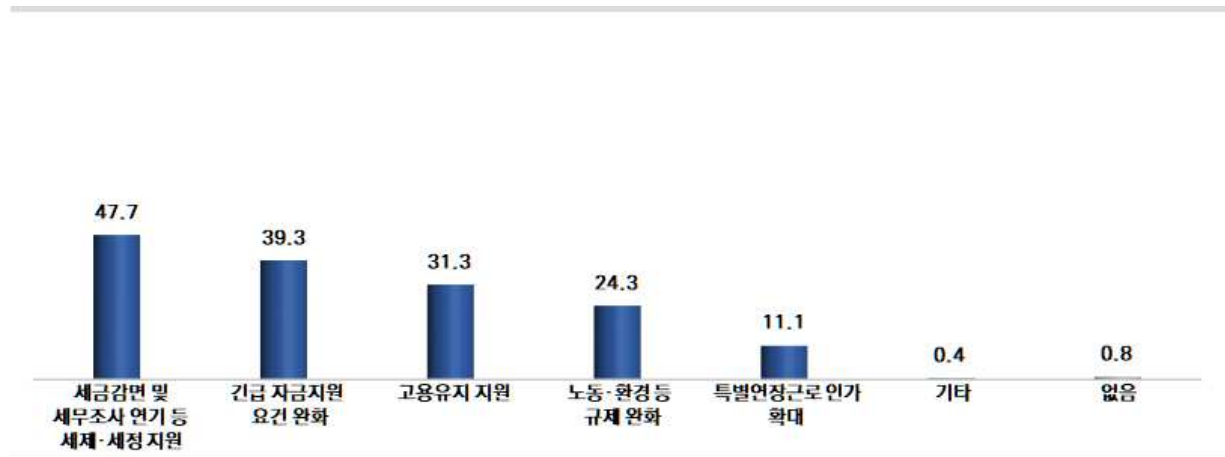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출 감소 및 자금난	노무 인력 관리	부품·원 자재 수급	방역 용품 부족	주요국 수출 제한	기타	영향 없음
전 체		7,202	61.9	28.3	19.8	7.9	1.5	1.6	16.8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68.8	35.1	16.7	3.3	1.3	2.1	7.5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81.9	33.1	29.8	10.2	0.0	0.0	8.3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71.7	16.8	39.1	0.0	0.0	3.3	12.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59.2	50.8	3.7	11.3	0.0	0.0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74.7	33.6	25.4	7.8	4.0	0.0	9.9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81.8	25.9	35.6	2.0	0.0	0.0	7.5
	24. 1차 금속 제조업	85	56.1	36.4	32.8	3.3	4.3	0.0	25.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65.8	25.3	32.8	5.2	4.9	0.0	12.8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61.3	26.3	34.8	5.6	1.7	0.0	22.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78.3	22.1	27.8	3.4	1.1	0.0	12.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78.8	18.2	66.7	0.0	0.0	0.0	12.1
	32. 가구 제조업	13	75.8	12.1	87.9	0.0	12.1	0.0	12.1
	34. 기타 제조업	30	75.8	18.8	18.8	12.7	0.0	0.0	18.2
	41. 건설업	534	66.7	27.5	32.5	8.2	0.0	0.0	15.8
	49. 운송서비스업	207	94.9	51.6	0.0	0.0	0.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41	58.5	19.5	17.1	9.8	2.4	0.0	14.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82.1	25.3	0.0	0.0	0.0	0.0	5.3
	71. 전문서비스업	377	54.7	39.9	3.0	8.1	0.0	0.7	22.3
	74. 사업서비스업	392	36.4	47.5	6.1	16.3	0.0	1.1	20.2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43.5	18.0	2.6	14.1	0.0	5.8	28.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53.0	22.0	4.1	7.7	0.0	2.9	35.0
	95. 수리업	98	60.1	49.5	20.8	4.8	0.0	0.0	4.8

5)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애로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긴급 자금지원 요건 완화, 고용유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

(Base : 7,202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모든 기업 규모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7]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세금 감면 및 세무 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	긴급 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지원	노동·환경 등 규제 완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확대	기타	없음
전 체	7,202	47.7	39.3	31.3	24.3	11.1	0.4	0.8
기업 규모	10-29인	4,967	46.5	41.2	32.5	21.7	10.5	0.7
	30-49인	987	46.4	42.5	27.2	24.7	11.1	0.0
	50-99인	776	53.9	29.0	29.8	30.2	11.9	2.1
	100-299인	472	53.3	30.2	29.2	41.1	16.6	0.4

- 지역별로 보면,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금산, 서천, 태안 지역에서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에서는 긴급 자금지원 완화가, 당진 지역에서는 노동·환경 등 규제 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8]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세금 감면 및 세무 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	긴급 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지원	노동·환 경 등 규제 완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확대	기타	없음
전 체		7,202	47.7	39.3	31.3	24.3	11.1	0.4	0.8
지역	천안	2,021	53.7	38.7	32.5	21.2	12.9	0.2	1.1
	공주	466	50.9	54.3	24.8	25.6	11.5	0.0	0.0
	보령	225	48.2	18.0	41.6	22.4	15.3	0.0	0.0
	아산	1,420	44.3	37.1	32.4	23.2	11.1	0.9	0.8
	서산	539	45.3	32.9	34.9	30.4	11.3	0.0	1.2
	논산	333	37.2	42.8	29.9	34.0	13.5	1.3	0.0
	계룡	32	82.2	59.4	41.1	0.0	0.0	0.0	0.0
	당진	728	39.5	36.9	29.4	40.1	8.9	1.4	0.3
	금산	296	54.5	23.3	23.5	33.4	12.4	0.0	0.0
	부여	198	47.5	48.2	26.6	16.1	7.5	0.0	0.0
	서천	156	55.8	42.7	21.7	15.5	4.7	0.0	0.0
	청양	49	47.2	71.2	40.1	7.9	4.9	0.0	0.0
	홍성	272	46.9	52.4	35.9	16.3	4.1	0.0	4.8
	예산	350	39.2	54.1	26.6	14.2	10.8	0.0	0.0
	태안	117	56.8	20.0	39.3	2.3	9.7	0.0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목재펠프 제조업, 운송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여가스포츠업에서는 긴급 자금지원 요건 완화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문화서비스업에서는 고용유지 지원이, 가구 제조업에서는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9]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 대책(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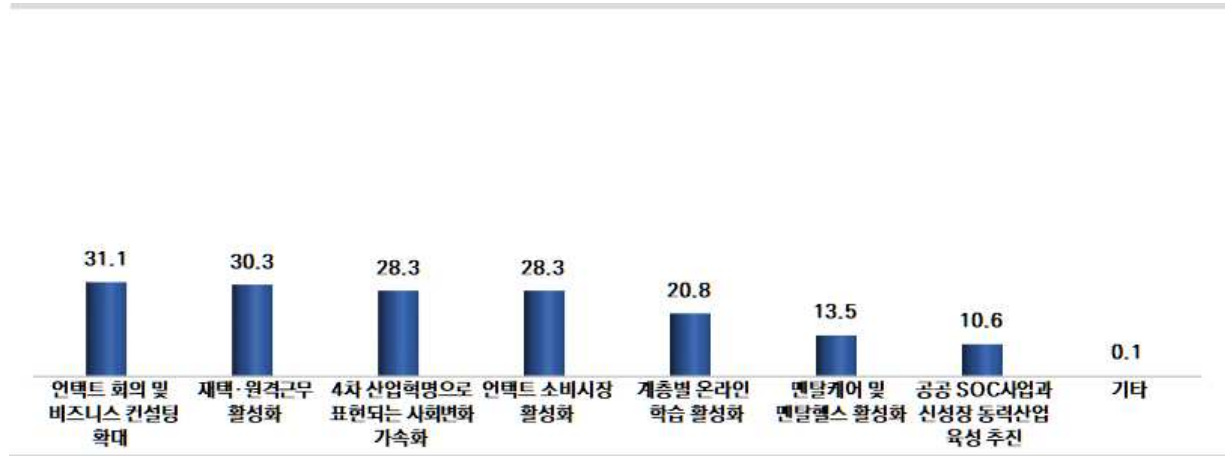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세금 감면 및 세무 조사 연기 등 세제·세 정 지원	긴급 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지원	노동·환 경 등 규제 완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확대	기타	없음
전 체	7,202	47.7	39.3	31.3	24.3	11.1	0.4	0.8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56.3	41.3	23.3	24.3	10.8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64.9	50.3	28.4	17.8	11.7	0.0
	16. 목재·펠프 제조업	121	48.2	56.3	23.6	19.8	15.1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54.4	51.5	34.1	4.9	6.3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48.6	31.6	41.5	36.7	18.2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55.6	41.4	25.7	29.3	12.4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61.3	18.7	19.9	40.8	22.1	4.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55.9	29.3	32.9	24.0	20.1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49.9	28.0	32.2	35.6	16.7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43.8	39.7	33.5	36.7	13.0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42.4	9.1	78.8	54.5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51.6	48.4	24.2	51.6	12.1	0.0
	34. 기타 제조업	30	57.6	30.3	37.6	37.0	6.1	0.0
	41. 건설업	534	55.4	45.7	27.8	25.7	7.0	0.0
	49. 운송서비스업	207	41.5	60.2	38.4	23.6	11.1	4.1
	58. 문화서비스업	41	29.3	36.6	46.3	22.0	2.4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40.0	54.7	35.8	34.7	20.0	0.0
	71. 전문서비스업	377	57.1	45.5	26.8	8.1	10.6	0.0
	74. 사업서비스업	392	41.8	43.1	25.5	28.9	11.7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34.3	42.0	32.6	13.9	0.7	0.9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4.8	63.9	29.0	13.8	2.8	4.1
	95. 수리업	98	62.1	42.5	22.4	18.6	9.7	0.0

6)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를 예상한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 가속화, 언택트 소비시장 활성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코로나 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Base : 7,202명, 단위 : %(중복응답))



-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99인과 100-299인 기업 규모에서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29인 규모에서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가, 30-49인은 언택트 소비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0] 코로나 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규모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	재택·원격 근무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 변화 가속화	언택트 소비 시장 활성화	계층별 온라인 학습 활성화	멘탈 케어 및 멘탈 헬스 활성화	공공 SOC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추진	기타
전 체		7,202	31.1	30.3	28.3	28.3	20.8	13.5	10.6	0.1
기업 규모	10-29인	4,967	29.5	32.8	25.8	27.3	20.4	15.0	10.8	0.0
	30-49인	987	28.0	22.0	32.0	37.4	19.2	9.6	10.3	0.0
	50-99인	776	38.4	25.1	33.4	23.8	24.9	11.9	9.8	0.5
	100-299인	472	42.2	29.6	39.1	27.3	22.0	7.9	9.8	0.0

- 지역별로 보면, 공주, 보령, 아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지역에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논산, 서천, 예산, 태안 지역에서는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가, 서산, 당진, 홍성 지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 가속화가, 천안 지역에서는 언택트 소비시장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1] 코로나 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지역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	재택·원격 근무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 가속화	언택트 소비 시장 활성화	계층별 온라인 학습 활성화	멘탈 케어 및 멘탈 헬스 활성화	공공 SOC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추진	기타
전 체		7,202	31.1	30.3	28.3	28.3	20.8	13.5	10.6	0.1
지역	천안	2,021	36.6	24.9	32.2	37.0	19.1	12.5	7.5	0.0
	공주	466	33.4	38.3	30.6	24.5	18.1	28.3	7.3	0.0
	보령	225	19.7	41.5	16.5	27.8	14.2	19.4	11.0	0.0
	아산	1,420	29.4	29.4	23.9	23.9	22.5	11.2	15.5	0.0
	서산	539	25.9	34.8	40.4	23.1	24.0	6.3	10.1	0.0
	논산	333	35.1	32.6	31.2	19.1	29.3	11.8	8.2	0.0
	계룡	32	7.0	62.1	0.0	30.8	0.0	51.9	23.3	0.0
	당진	728	20.8	30.1	33.3	25.1	22.2	21.6	14.0	0.0
	금산	296	29.8	35.6	22.7	24.6	24.1	3.4	14.8	1.3
	부여	198	22.9	31.7	9.9	30.0	12.3	10.2	23.2	0.0
	서천	156	39.1	38.1	16.5	30.8	10.9	5.1	0.0	0.0
	청양	49	41.2	41.9	34.9	20.6	7.5	0.0	0.0	0.0
	홍성	272	28.2	32.1	48.8	37.6	15.8	9.8	6.3	0.0
	예산	350	39.4	22.3	12.3	28.6	25.7	12.4	8.6	0.0
	태안	117	35.5	34.6	0.0	0.0	33.5	24.3	1.2	0.0

-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언택트 회의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 가속화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수리업의 경우 언택트 소비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2] 코로나 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산업별)

(단위 : 명,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언택트 회의 및 비즈 니스 컨설팅 확대	재택· 원격 근무 활성화	4차 산업 혁명 으로 표현 되는 사회 변화 가속화	언택트 소비 시장 활성화	계층별 온라인 학습 활성화	멘탈 케어 및 멘탈 헬스 활성화	공공 SOC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추진	기타
전 체		7,202	31.1	30.3	28.3	28.3	20.8	13.5	10.6	0.1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28.0	36.8	44.7	25.1	22.4	9.2	8.7	0.8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29.9	18.5	26.9	60.3	16.4	8.4	12.9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26.6	36.0	26.5	31.1	32.0	6.7	14.9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43.3	6.3	23.6	43.1	13.6	6.3	4.9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37.2	35.6	29.4	24.3	21.9	11.6	15.7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20.2	7.5	25.2	53.7	30.9	14.9	22.4	0.0
	24. 1차 금속 제조업	85	40.7	38.3	32.8	22.0	28.8	24.3	3.3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32.1	22.5	29.3	25.0	22.9	11.5	14.6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33.7	23.2	38.4	31.8	14.0	11.5	18.8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21.4	29.0	43.4	21.6	32.6	7.3	22.3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78.8	18.2	66.7	9.1	21.2	0.0	0.0	0.0
	32. 가구 제조업	13	15.4	12.1	51.6	36.3	36.3	12.1	12.1	0.0
	34. 기타 제조업	30	36.4	30.9	18.8	6.7	32.1	36.4	24.8	0.0
	41. 건설업	534	41.5	24.0	29.9	29.7	23.4	20.9	8.2	0.0
	49. 운송서비스업	207	46.5	46.2	22.4	35.8	3.1	19.3	14.1	0.0
	58. 문화서비스업	41	34.1	43.9	34.1	22.0	12.2	0.0	4.9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37.9	14.7	49.5	7.4	40.0	5.3	7.4	0.0
	71. 전문서비스업	377	21.3	19.6	23.8	46.3	22.4	11.5	6.5	0.0
	74. 사업서비스업	392	30.1	46.9	34.7	29.1	22.0	12.3	0.6	0.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29.2	36.5	14.2	21.8	14.2	17.3	2.1	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41.4	41.4	7.7	24.1	27.5	13.7	8.2	0.0	
95. 수리업	98	22.4	22.4	26.7	52.6	20.1	20.8	4.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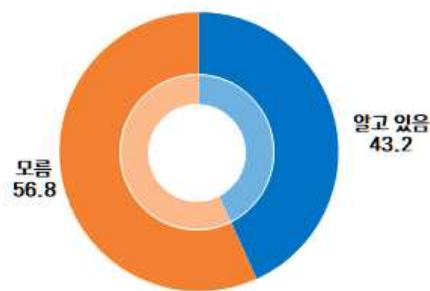
제2절 | 일학습병행 관련

가. 일학습병행 인지도

-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3.2%로 나타남
 - 한편, 일학습병행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56.8%로 절반 이상임

[그림 55] 일학습병행 인지도

(Base : 7,202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29인과 30-49인 규모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50-99인, 100-299인 규모에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3] 일학습병행 인지도(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전 체		7,202	43.2	56.8
기업 규모	10-29인	4,967	36.8	63.2
	30-49인	987	47.6	52.4
	50-99인	776	61.3	38.7
	100-299인	472	72.0	28.0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학습병행을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산, 홍성 지역에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4] 일학습병행 인지도(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전 체		7,202	43.2	56.8
지역	천안	2,021	48.2	51.8
	공주	466	38.9	61.1
	보령	225	28.3	71.7
	아산	1,420	54.8	45.2
	서산	539	33.9	66.1
	논산	333	33.4	66.6
	계룡	32	33.6	66.4
	당진	728	39.4	60.6
	금산	296	37.7	62.3
	부여	198	26.9	73.1
	서천	156	30.8	69.2
	청양	49	29.4	70.6
	홍성	272	50.6	49.4
	예산	350	38.9	61.1
	태안	117	21.5	78.5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학습병행을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문화서비스업에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5] 일학습병행 인지 여부(산업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음	모름
전 체		7,202	43.2	56.8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52.9	47.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39.0	61.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35.9	64.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27.8	72.2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49.2	50.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31.2	68.8
	24. 1차 금속 제조업	85	62.6	37.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51.4	48.6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66.0	34.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66.4	33.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33.3	66.7
	32. 가구 제조업	13	63.7	36.3
	34. 기타 제조업	30	49.1	50.9
	41. 건설업	534	28.0	72.0
	49. 운송서비스업	207	21.7	78.3
	58. 문화서비스업	41	63.4	36.6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45.3	54.7
	71. 전문서비스업	377	38.6	61.4
	74. 사업서비스업	392	44.1	55.9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27.7	72.3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29.2	70.8
	95. 수리업	98	38.4	61.6

-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들의 일학습병행 인지 경로를 보면, 인터넷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센터, 홍보 인쇄물, 교육훈련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 일학습병행 인지 경로

(Base :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3,114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규모에서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49인 규모에서는 고용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6] 일학습병행 인지 경로(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	홍보 인쇄물	지인 소개	고용 센터	인력 공단	교육 훈련 기관	기타
전 체		3,114	35.9	16.4	4.0	18.1	11.8	13.8	0.1
기업 규모	10-29인	1,829	41.6	17.0	2.9	16.5	9.2	12.9	0.0
	30-49인	470	19.5	18.2	9.0	24.0	14.8	14.0	0.5
	50-99인	476	36.1	15.6	1.3	15.5	13.9	17.6	0.0
	100-299인	340	27.9	11.8	6.7	21.5	18.7	13.4	0.0

-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 청양, 예산, 태안 지역에서는 고용센터가, 계룡, 홍성 지역에서는 홍보 인쇄물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7] 일학습병행 인지 경로(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	홍보 인쇄물	지인 소개	고용 센터	인력 공단	교육 훈련 기관	기타
전 체		3,114	35.9	16.4	4.0	18.1	11.8	13.8	0.1
지역	천안	973	38.2	13.4	1.4	13.4	12.7	20.8	0.0
	공주	182	20.9	18.7	0.0	43.8	10.4	6.2	0.0
	보령	64	45.0	18.4	11.6	20.9	4.1	0.0	0.0
	아산	778	37.5	18.9	7.1	15.9	14.1	6.6	0.0
	서산	183	24.9	20.9	7.5	22.1	11.5	13.0	0.0
	논산	111	48.9	13.8	0.0	19.0	7.5	10.8	0.0
	계룡	11	30.6	69.4	0.0	0.0	0.0	0.0	0.0
	당진	287	32.9	17.7	1.3	17.0	6.7	23.5	0.8
	금산	111	54.1	9.9	7.8	6.9	9.2	12.0	0.0
	부여	53	48.9	4.5	19.0	18.8	0.0	8.8	0.0
	서천	48	82.9	0.0	5.1	4.0	0.0	8.1	0.0
	청양	14	29.9	0.0	0.0	70.1	0.0	0.0	0.0
	홍성	138	19.0	30.6	1.7	12.7	16.3	19.6	0.0
	예산	136	21.5	8.2	4.7	34.1	22.3	9.2	0.0
	태안	25	25.2	31.6	0.0	43.2	0.0	0.0	0.0

-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 제조업,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사업서비스업에서는 홍보 인쇄물이, 수리업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8] 일학습병행 인지 경로(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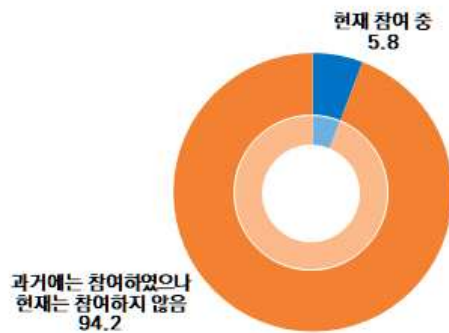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터넷	홍보 인쇄물	지인 소개	고용 센터	인력 공단	교육 훈련 기관	기타
전 체		3,114	35.9	16.4	4.0	18.1	11.8	13.8	0.1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273	22.3	25.7	0.0	24.6	11.6	15.9	0.0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44	20.4	29.7	4.1	21.3	12.6	12.0	0.0
	16. 목재·펄프 제조업	43	46.4	4.3	0.0	2.3	9.9	37.2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59.4	0.0	0.0	0.0	22.8	17.7	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299	44.5	18.0	3.2	11.7	15.2	7.5	0.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3	44.9	15.9	14.5	12.9	3.9	7.8	0.0
	24. 1차 금속 제조업	53	27.8	29.7	14.2	23.0	5.3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73	39.3	9.8	6.7	16.6	7.0	20.6	0.0
	26. 전기전자 제조업	327	24.2	19.5	4.9	21.0	20.1	10.4	0.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6	28.4	15.8	2.7	20.2	15.2	17.7	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0.0	63.6	0.0	0.0	0.0	36.4	0.0
	32. 가구 제조업	8	24.1	37.9	0.0	0.0	19.0	19.0	0.0
	34. 기타 제조업	15	49.4	24.7	0.0	25.9	0.0	0.0	0.0
	41. 건설업	150	37.6	0.0	14.3	22.6	18.7	6.8	0.0
	49. 운송서비스업	45	33.2	23.4	0.0	18.5	6.7	18.2	0.0
	58. 문화서비스업	26	65.4	7.7	0.0	23.1	3.8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9	88.4	0.0	0.0	0.0	11.6	0.0	0.0
	71. 전문서비스업	145	44.8	21.0	3.4	15.8	8.8	6.2	0.0
	74. 사업서비스업	173	24.4	34.6	1.3	12.9	19.7	5.9	1.3
	86. 보건복지서비스업	428	48.4	12.7	0.0	18.1	6.2	14.5	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26	49.9	4.8	7.2	38.2	0.0	0.0	0.0
	95. 수리업	38	16.7	0.0	0.0	21.0	12.5	49.8	0.0

나.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 응답기업들의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을 보면, 과거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이 94.2%, 현재 참여 중이 5.8%로 나타남

[그림 57]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Base : 7,202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규모에서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100-299인의 경우, 현재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9]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참여 중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전 체		7,202	5.8	94.2
기업 규모	10-29인	4,967	4.5	95.5
	30-49인	987	6.5	93.5
	50-99인	776	9.3	90.7
	100-299인	472	12.1	87.9

-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일학습병행에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천안의 경우, 현재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0]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참여 중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전 체		7,202	5.8	94.2
지역	천안	2,021	8.8	91.2
	공주	466	3.8	96.2
	보령	225	0.0	100.0
	아산	1,420	6.9	93.1
	서산	539	3.8	96.2
	논산	333	8.5	91.5
	계룡	32	0.0	100.0
	당진	728	7.9	92.1
	금산	296	1.0	99.0
	부여	198	0.0	100.0
	서천	156	0.9	99.1
	청양	49	4.9	95.1
	홍성	272	0.0	100.0
	예산	350	3.0	97.0
	태안	117	0.0	100.0

- 산업별로 보면, 모든 산업에서 일학습병행에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기타 제조업의 경우 현재 참여 중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1]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산업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참여 중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전 체		7,202	5.8	94.2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5.9	94.1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8.0	92.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3.3	96.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4.9	95.1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8.2	91.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7.4	92.6
	24. 1차 금속 제조업	85	7.6	92.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9.9	90.1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3.1	86.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5.8	94.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0.0	100.0
	32. 가구 제조업	13	15.4	84.6
	34. 기타 제조업	30	18.2	81.8
	41. 건설업	534	0.8	99.2
	49. 운송서비스업	207	1.1	98.9
	58. 문화서비스업	41	9.8	90.2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12.6	87.4
	71. 전문서비스업	377	2.1	97.9
	74. 사업서비스업	392	2.0	98.0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3.6	96.4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0.0	100.0
	95. 수리업	9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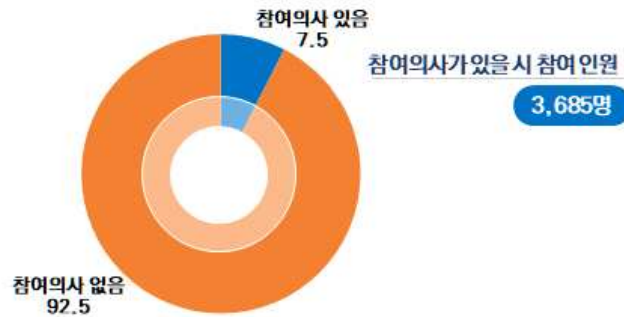
다.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및 분야

1)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을 보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7.5%로 나타났으며, 예상 참여 인원은 3,685명으로 나타남

[그림 58]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Base : 7,202명, 단위 : %, 명)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에서 2021년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예상 참여 인원은 10-29인이 2,159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32]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의사 있음	예상 참여인원	참여의사 없음
전 체		7,202	7.5	3,685	92.5
기업 규모	10-29인	4,967	6.2	2,159	93.8
	30-49인	987	7.6	363	92.4
	50-99인	776	12.6	766	87.4
	100-299인	472	12.9	397	87.1

- 지역별로 보면, 논산에서 2021년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예상 참여 인원은 천안이 1,611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33]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참여의사 있음	예상 참여인원	참여의사 없음
전 체		7,202	7.5	3,685	92.5
지역	천안	2,021	10.0	1,661	90.0
	공주	466	4.6	217	95.4
	보령	225	1.0	11	99.0
	아산	1,420	10.2	819	89.8
	서산	539	5.0	62	95.0
	논산	333	12.9	367	87.1
	계룡	32	0.0	0	100.0
	당진	728	8.6	367	91.4
	금산	296	3.9	23	96.1
	부여	198	0.5	20	99.5
	서천	156	0.9	3	99.1
	청양	49	4.9	7	95.1
	홍성	272	4.3	45	95.7
	예산	350	3.0	84	97.0
	태안	117	0.0	0	100.0

- 산업별로 보면, 기타 제조업에서 2021년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예상 참여 인원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 896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34]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 의향(산업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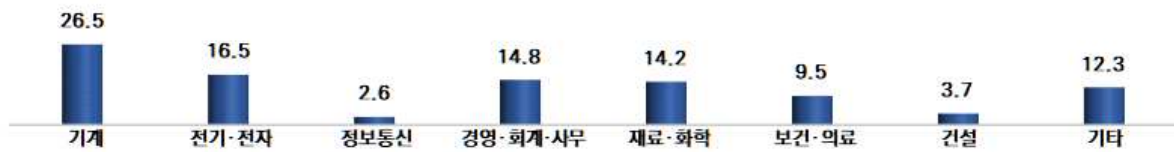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참여의사 있음	예상 참여인원	참여의사 없음
전 체		7,202	7.5	3,685	92.5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515	9.3	424	90.7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12	8.0	25	92.0
	16. 목재·펄프 제조업	121	5.1	15	94.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0.0	0	100.0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607	9.2	614	90.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	7.4	274	92.6
	24. 1차 금속 제조업	85	7.6	45	92.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5	11.8	598	88.2
	26. 전기전자 제조업	495	17.5	264	82.5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36	7.0	134	93.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0.0	0	100.0
	32. 가구 제조업	13	15.4	4	84.6
	34. 기타 제조업	30	30.9	75	69.1
	41. 건설업	534	1.2	15	98.8
	49. 운송서비스업	207	1.1	4	98.9
	58. 문화서비스업	41	17.1	48	82.9
	61. 정보통신서비스업	19	20.0	22	80.0
	71. 전문서비스업	377	2.1	126	97.9
	74. 사업서비스업	392	5.2	54	94.8
	86. 보건복지서비스업	1,544	5.2	896	94.8
	90. 예술·여가·스포츠업	90	4.1	48	95.9
	95. 수리업	98	0.0	0	100.0

2)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분야

- 2021년 일학습병행에 참여의향이 있는 훈련분야를 보면, 기계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경영·회계·사무, 재료·화학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9]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훈련분야

(Base : 541명, 단위 : %)



-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에서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 의향 분야로, 기계에 대한 응답 비중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10-29인의 경우, 경영·회계·사무에 대한 응답 비중이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0-99인의 경우, 재료·화학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35]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분야(규모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재료·화학	보건·의료	건설	기타
전 체		541	26.5	16.5	2.6	14.8	14.2	9.5	3.7	12.3
기업 규모	10-29인	308	20.9	21.6	1.1	20.6	14.5	10.7	5.8	4.8
	30-49인	75	25.2	18.2	5.3	6.4	6.1	10.5	3.0	25.3
	50-99인	98	32.6	3.6	7.0	9.8	21.5	10.8	0.0	14.6
	100-299인	61	46.6	8.9	0.0	3.6	10.5	0.0	0.0	30.4

-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기계, 재료·화학 분야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령 지역에서는 정보통신이, 논산, 당진 지역에서는 경영·회계·사무가, 홍성 지역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6]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분야(지역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재료·화학	보건·의료	건설	기타
전 체		541	26.5	16.5	2.6	14.8	14.2	9.5	3.7	12.3
지역	천안	201	29.5	28.7	1.9	2.9	12.6	13.4	0.0	11.1
	공주	21	29.0	0.0	0.0	17.3	53.7	0.0	0.0	0.0
	보령	2	0.0	0.0	100.0	0.0	0.0	0.0	0.0	0.0
	아산	145	24.7	16.1	4.7	6.2	14.8	11.3	5.1	17.1
	서산	27	59.6	0.0	0.0	40.4	0.0	0.0	0.0	0.0
	논산	43	19.4	0.0	0.0	68.1	6.8	0.0	0.0	5.7
	계룡	-	-	-	-	-	-	-	-	-
	당진	63	15.0	13.1	0.0	34.1	5.9	12.6	2.9	16.4
	금산	12	25.1	0.0	0.0	0.0	0.0	0.0	74.9	0.0
	부여	1	0.0	0.0	0.0	0.0	100.0	0.0	0.0	0.0
	서천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청양	2	0.0	0.0	0.0	0.0	100.0	0.0	0.0	0.0
	홍성	12	33.0	0.0	11.9	0.0	0.0	0.0	0.0	55.1
예산	11	0.0	0.0	0.0	0.0	79.1	0.0	20.9	0.0	
태안	-	-	-	-	-	-	-	-	-	

- 산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재료·화학이, 전기·전자 제조업, 문화서비스업에서는 전기·전자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건설이,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는 보건·의료가, 전문서비스업에서는 기타가 높게 나타남

[표 237]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의향 분야(산업별)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재료·화학	보건·의료	건설	기타
전 체		541	26.5	16.5	2.6	14.8	14.2	9.5	3.7	12.3
산업	10. 음식료 제조업	48	28.8	0.0	0.0	22.7	28.8	0.0	0.0	19.6
	13.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9	18.7	0.0	19.9	0.0	42.8	0.0	0.0	18.7
	16. 목재펄프 제조업	6	100.0	0.0	0.0	0.0	0.0	0.0	0.0	0.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20. 화학의약품플라스틱 제조업	56	11.3	0.0	0.0	0.0	64.3	6.9	0.0	17.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	0.0	0.0	0.0	16.5	33.1	0.0	50.4	0.0
	24. 1차 금속 제조업	6	0.0	0.0	0.0	43.3	56.7	0.0	0.0	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2	39.1	34.1	0.0	0.0	9.8	0.0	0.0	17.0
	26. 전기전자 제조업	87	38.1	41.0	0.0	4.1	0.0	0.0	8.5	8.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8	55.6	8.0	18.2	0.0	0.0	0.0	0.0	18.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32. 가구 제조업	2	0.0	0.0	0.0	100.0	0.0	0.0	0.0	0.0
	34. 기타 제조업	9	41.2	19.6	0.0	0.0	0.0	0.0	19.6	19.6
	41. 건설업	7	0.0	0.0	33.7	32.7	0.0	0.0	33.7	0.0
	49. 운송서비스업	2	0.0	0.0	0.0	100.0	0.0	0.0	0.0	0.0
	58. 문화서비스업	7	0.0	57.1	28.6	0.0	14.3	0.0	0.0	0.0
	61. 정보통신서비스업	4	36.8	0.0	36.8	26.3	0.0	0.0	0.0	0.0
	71. 전문서비스업	8	34.5	0.0	0.0	0.0	0.0	0.0	0.0	65.5
	74. 사업서비스업	20	11.3	0.0	0.0	78.1	0.0	0.0	0.0	10.6
	86. 보건복지서비스업	80	0.0	0.0	0.0	40.9	0.0	59.1	0.0	0.0
90. 예술여가스포츠업	4	0.0	0.0	0.0	100.0	0.0	0.0	0.0	0.0	
95. 수리업	-	-	-	-	-	-	-	-	-	

부록3

2021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 조사표

2021년 충남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조사 내용

응답주체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인사부서장	1. 일반 현황	1-1.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 사업체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경영형태, 산단입주여부 등 · 전체 종사자 수 현황(전체, 내국인, 외국인) · 근로자 유형별 지역(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기타) 내외 거주자 비율 1-2. 회사 내 부서 구성	1-1~2.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2. 인력 현황	2-1. 회사 내 부서 구성 2-2. 인력 현황 · 현재인원(종사자 수,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 퇴직상황(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2-3. 채용 상황 · 연봉수준, 실제채용인원, 구인인원, 미충원인원, 채용자 중 부족역량	2-1~3.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3. 채용예정 인력수요	3-1. 2021~2022년 채용예정인원 ·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연봉수준 · 상/하반기 대상별(일반, 직업계고, 중장년, 장애인, 경단녀) 채용예정인원 및 미채용 사유	3-1.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4. 교육훈련 실시현황	4-1. 교육훈련 참여 인원 4-2. 교육훈련 참여 예상 인원 4-3. 교육훈련 추진 시 나타나는 어려움 4-4. 교육훈련 실시지역 및 이유 4-5. 교육훈련 실시 예정 지역 및 이유 4-6. 지역인자위 조사 및 지원의 효과성	4-1~3.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4-4~6.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지역인자위 통합 조사문항 추가
	5. 기타 사항	5-1. 경영상 애로사항 5-2. 신규인력 채용 시 어려움 및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5-3.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참여 여부 5-4.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영향 5-5.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애로사항 관련 필요 정부 대책 5-6.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 예상 5-7. 일학습병행의 이해 및 알게 된 경로 5-8. 일학습병행의 참여 이력 5-9. 2021년 일학습병행 참여여부, 인원, 훈련분야 5-10. 인근 지역 직무 관련 교육기관 5-11. 일학습병행 안내를 위한 정보공유 여부	5-1~6.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5-7~11. 한국산업인력공단(일학습기획부) 일학습 병행 관련 조사 문항 추가
현업·기술 부서장	6. 재직자 교육 훈련수요	6-1. 재직자 교육훈련 필요분야 · 기업전체 및 부서별 종사자 수 NCS세분류 및 능력단위, 직업기초능력, 훈련 필요 인원	6-1.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7. 기타 및 애로사항	7-1. 외부 위탁교육의 효과성 7-2. 교육훈련 추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7-3. 지역인자위 조사 및 지원의 효과성	7-1~2. 2020년 충남인자위 조사표, 2021년 직능연 공통조사표 수용 7-3. 충청권 지역인자위 통합 조사문항 추가



2021년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 질문지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원이 작성하는란입니다	일련번호	사업체명	산업분류부호	규모	조사원코드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의 공급자(교육훈련기관) 중심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코자 「2021년도 충남지역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신규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재직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본 조사에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는 사업체조사 전문기관인 (주)아테나컴퍼니가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 및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설문지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사 이후 보다 구체적인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락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월

- 주관기관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Tel. 041-330-4921, E-mail. jsd@cjpi.or.kr)
- 조사기관 : ○○○○○○ (Tel. 000-0000, Fax. 000-0000, E-mail. @)

1. 일반 현황 – 1.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 사업체 현황

사업체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체 소재지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경영 형태	① 일반 사업체	② 파견 사업체	③ 용역(도급)업체	④ 기타	
산단 입주 여부	① 산업단지 입주	(단지명:)	② 해당사항 없음		
사업형태	① 단독 사업체	② 본사	③ 지사.공장	④ 기타	
주요 생산품명 /영업종목	1.		2.	3.	
표준산업분류(세분류) 혹은 주요 업종 기술	1.	2.	3.	기타.	

응답자 /책임자 확인	응답자		책임자 확인
	근무부서		
	전화번호		
	직책		
	성명		

응답자 이메일 주소	
------------	--

조사원	조사관리자

■ 근로자 현황

구분		현재 인원 (2020. 12. 31 기준)	지역 내외 거주자 비율	
전체 종사자수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
			기타	%
내국인	상용 근로자 1)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
			기타	%
	기타 2)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
			기타	%
외국인3)			충남	%
			충북	%
			대전	%
			세종	%
			기타	%

- 주** 1)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
 2) 기타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받는 자
 3) 외국인은 합법 또는 불법취업자 모두 포함

2. 인력현황 – 1. 회사 내 부서 구성

2-1. 귀 사의 부서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표에 해당되는 부서명과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서의 업무 영역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 중 가능한 유사한 분야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번 호	기획/개발부서	운영/생산부서	마케팅 및 영업부서	물류부서	서비스부서
	설계, 제작 및 시험, 건설 및 가동 또는 개발하는 것 ※ 예: 생산 또는 사용하기 전 모형을 설계하여 제작 및 시험/ 신제품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 시험활동을 건설 및 가동	투입물을 최종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것 ※ 제련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공정까지의 공장단위 생산 활동(품질관리 포함)	구매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 광고, 판촉, 영업력 확보, 유통채널 선택, 가격정책, 운성정책, 거래처 개발 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물을 획득, 저장, 보급에서부터 제품을 수집, 저장, 물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 원료에서 공정투입 전까지의 과정부터 구매물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까지 포괄	제품의 가치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 ※ 직접적인 제품 판매 후 관리활동을 의미
1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3	[명]	[명]	[명]	[명]	[명]
4
5	[명]	[명]	[명]	[명]	[명]

2. 인력 현황 – 인력 현황 및 채용 상황

2-2. 귀 사의 인력 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KECO 입력과 NCS를 연동된 파일을 이용하여 지원자 필요 역량 항목을 모두 기입하도록 합니다. 직업분류코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2-3. 귀사에서 아래 직무의 구인인력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다음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직업 일련 번호	직업분류		인력 현황				채용 상황 : 신규 졸업자 및 경력 1년 미만자 (2020.1.1 ~ 2020.12.31)															
	주된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직업분류코드	현재인원 (2020.12.31 기준)		퇴직 상황 (2020.1.1 ~ 2020.12.31)		연봉 수준 *	실제 채용인 원	구인 인원 (대외적 구인활동 을 통해 채용하려 던 인원)	미충원 인원*		채용자 중 역량부족 채용자										
			종사자 수	종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퇴직자 수	퇴직자 중 근속 1년 미만자 수				회사의 구인 포기 사유	구직자 취업 포기 사유	채용자중 역량 부족 인원	부족 역량									
													NCS 세분류 기준으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NCS 세분류가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합계																						
1	_____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NCS	수준*	필요 1순위	NCS	수준*	필요 1순위
2	_____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3	_____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4	_____	<table><tr><td></td><td></td><td></td><td></td></tr></table>																				

* 연봉수준 : ① 2,200만원 미만 ② 2,200~2,600만원 미만 ③ 2,600~3,000만원 미만 ④ 3,000~3,500만원 미만 ⑤ 3,500~4,000만원 미만 ⑥ 4,000만원 이상

* 미충원 사유 :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여 주세요

- 회사의 구인 포기 사유 : ① 지원자 없음 ② 경력자 지원 없음 ③ 학력미달 ④ 자격미달 ⑤ 경력미달 ⑥ 임금수준 불일치 ⑦ 적극적 구인 하지 않음 ⑧ 기타

- 구직자 포기 사유 : ① 대중교통 불편 ② 임금수준 불일치 ③ 구직자 기피 직종 ④ 주변 정주환경 부족 ⑤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 불만족 ⑥ 야간근로(교대제) ⑦ 기타

* NCS수준 : ① 경력없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 3년 ④ 3년 ~ 5년 ⑤ 5년 ~ 10년 ⑥ 10년 이상

3. 채용예정 인력수요 - 1. 2021~2022년 채용예정인원

3-1. 귀사에서 아래 직무의 신규 채용자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다음 표에 기재해 주십시오.

※ KECO 입력과 NCS를 연동된 파일을 이용하여 지원자 필요 역량 항목을 모두 기입하도록 합니다. 직업분류코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직업 일련 번호	직업분류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연봉 수준 *	2021년 채용 예정 인원 (2021.1.1 ~ 2021.12.31)										2022년 채용 예정 인원 (2022.1.1 ~ 2022.12.31)																																																																																																																																																																																																																																																																																																																																																																																																																																																																																																																																																																																																																																																																																																																																																																																																																																																																																																																																																																																																																																																																																																																																																																																																																																																																																																																								
	주된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직업분류코드	NCS 세분류 기준으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NCS 세분류가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D1_20. 2021년 상반기					D2_20. 2021년 하반기					D1. 2022년 상반기					D2. 2022년 하반기																																																																																																																																																																																																																																																																																																																																																																																																																																																																																																																																																																																																																																																																																																																																																																																																																																																																																																																																																																																																																																																																																																																																																																																																																																																																																																																			
										일반	직업 계고	중장 년	장애 인	경력 단년	일반	직업 계고	중장 년	장애 인	경력 단년	일반	직업 계고	중장 년	장애 인	경력 단년	일반	직업 계고	중장 년	장애 인	경력 단년																																																																																																																																																																																																																																																																																																																																																																																																																																																																																																																																																																																																																																																																																																																																																																																																																																																																																																																																																																																																																																																																																																																																																																																																																																																																																																															
합계																																																																																																																																																																																																																																																																																																																																																																																																																																																																																																																																																																																																																																																																																																																																																																																																																																																																																																																																																																																																																																																																																																																																																																																																																																																																																																																																												</

* 연봉수준 : ① 2,200만원 미만 ② 2,200~2,600만원 미만 ③ 2,600~3,000만원 미만 ④ 3,000~3,500만원 미만 ⑤ 3,500~4,000만원 미만 ⑥ 4,000만원 이상

* 해당 계층 채용예정인력이 0명일 경우에 응답해 주십시오

- 직업계고 미채용 사유 : ① 직무능력 부족 ② 군대 문제 ③ 인간관계 및 성격 문제 ④ 잦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⑤ 고학력자와 임금격차 없음 ⑥ 지원자 없었음 ⑦ 기타
- 중장년 미채용 사유 : ① 직무능력 부족 ② 임금 문제 ③ 인간관계 및 성격 문제 ④ 잦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⑤ 가정 문제 ⑥ 지원자 없었음 ⑦ 기타
- 경력단절여성 미채용 사유 : ① 직무능력 부족 ② 육아 등 가정 문제 ③ 인간관계 및 성격 문제 ④ 잦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⑤ 임금 문제 ⑥ 지원자 없었음 ⑦ 기타
- 장애인 미채용 사유 : ① 직무능력 부족 ② 임금 문제 ③ 인간관계 및 성격 문제 ④ 잦은 이직 등 성실성 부족 ⑤ 사내 관련설비 부족 ⑥ 지원자 없었음 ⑦ 기타

* NCS수준 : ① 경력없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4. 교육훈련 실시 현황

4-1. 2021년 한 해 동안 귀사가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에 참여(법정교육 제외)한 재직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명

- ☞ 교육훈련이란 재직자(비정규직 포함)를 대상으로 한 사내 또는 사외에서 집체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되, 근로자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제외합니다.
- ☞ 연인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응답 예시: 2명의 재직자가 3개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6명으로 응답함. 이때 훈련과정은 1일 또는 5일로 다양하지만 하나로 간주함.)
- ☞ 참여인원이 없으면 '0'으로, 잘 모를 경우는 '999'로 기입해 주십시오.

4-2. 2022년에는 위 교육훈련에 참여할 인원이 몇 명일 것으로 예상(또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

- ☞ '21. 1 .1. ~현재까지 이미 실시된 인원과 향후 실시 예정인원을 모두 합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없으면 '0'으로, 잘 모를 경우는 '999'로 기입해 주십시오.

4-3. 귀사의 교육훈련 추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인사부서장이 “교육훈련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체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임	그저 그러함	그런 편임	전적으로 그러함
(1)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3	4	5
(2)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1	2	3	4	5
(3) 교육훈련의 예산이 부족하다	1	2	3	4	5
(4) 업무가 단순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없다	1	2	3	4	5
(5) 적절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1	2	3	4	5
(6)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 인원의 차출이 어렵다	1	2	3	4	5
(7) 위탁교육훈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3	4	5
(8)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1	2	3	4	5
(9)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된다	1	2	3	4	5
(10)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준비가 부족하다	1	2	3	4	5
(11)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위기로 인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다	1	2	3	4	5

4-4. 귀사의 교육훈련 경험을 기준으로, 교육훈련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집니까? ()

- ① 충남지역 ② 충북지역 ③ 대전지역 ④ 세종지역
⑤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⑥ 기타지역 ⑦ 경험없음

↳ **4-4-1. (4-4번 문항의 ①~⑥ 응답자만) 상기 응답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가 가까워서 ②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③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어서 ④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⑤ 기타 ()

4-5. 귀사에서는 향후 교육훈련을 어느 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합니까? ()

- ① 충남지역 ② 충북지역 ③ 대전지역 ④ 세종지역
⑤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⑥ 기타지역 ⑦ 실시예정없음

↳ **4-5-1. (4-5번 문항의 ①~⑥ 응답자만) 상기 응답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회사가 가까워서 ② 교육훈련 품질이 좋아서 ③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어서 ④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⑤ 기타 ()

**4-6. 우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업체의 훈련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각 항목별로 귀 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조직의 경쟁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진의 HRD(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①	②	③	④	⑤
(3) 인사, 기술, 생산, 품질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재직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①	②	③	④	⑤
(5) 재직근로자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이수자채용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사항

5-1. 귀사의 경영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 | | |
|-----------------------|-------------|-----------|--------------------|
| ① 내수부진 | ② 해외수요 부진 | ③ 우수인재 유치 | ④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
| ⑤ 자금조달 | ⑥ 동종업계 과다경쟁 | ⑦ 과도한 규제 | ⑧ 근로시간 단축 |
| ⑨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수출 어려움 | ⑩ 기 타 : | | |

5-2. 귀사는 신규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 1점

☐ 2점

그저 그렇다

☐ 3점

☐ 4점

매우어렵다

☐ 5점

↳ 5-2-1. (5-2번 문항의 의 3점~5점 응답자만) 신규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 | | | | |
|---------------------|---------------|-----------------|--------------|
| 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 ② 낮은 임금 | ③ 낮은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 ④ 낮은 복리후생 수준 |
| ⑤ 낮은 접근성과 불편한 교통 | ⑥ 작업환경이 좋지 않음 | ⑦ 장래 비전이 맞지 않음 | ⑧ 장시간 근무 |
| ⑨ 낮은 인지도 | ⑩ 기타 (_____) | | |

5-3.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참여하고 있다 ▶ 문 5-3-1로 이동

② 참여하지 않고 있다 ▶ 문 5-3-2로 이동

↳ 5-3-1. (5-3의 ①응답자만) 현재 어떤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중복가능)

- | | | |
|-------------------------------|------------------------------|---------------------------------|
| ① 연구개발 지원(시제품개발지원, 연구비용지원 등) | ② 인력 지원(인력알선, 인건비 지원 등) | ③ 문화환경 개선(주변환경, 정주환경, 동호회 지원 등) |
| ④ 육아휴직 등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 | ⑤ 기업 홍보, 박람회 등 구직자에게 정보제공 지원 | ⑥ 마케팅 지원(판로강화, 무역) |
| ⑦ 인프라지원(시설, 장비) | ⑧ 신입사원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 ⑨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제도적 혜택 지원 |
| ⑩ 전직지원 교육 및 서비스 | ⑪ 기타 | |

↳ 5-3-2. (5-3의 ②응답자만) 현재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
| ① 관련 서류작업 부담 | ② 효용성 부족 | ③ 제약조건이 많음 | ④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 ⑤ 기타 |
|--------------|----------|------------|------------------|------|

인사부서장

5-4. 귀사는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한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중복가능)

- | | |
|--------------|-------------|
| ① 매출감소 및 자금난 | ② 부품·원자재 수급 |
| ③ 주요국 수출 제한 | ④ 노무인력관리 |
| ⑤ 방역용품 부족 | ⑥ 기타 () |

5-5. 귀사는 ‘코로나 19’ 로 인한 발생한 애로사항들 중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중복가능)

- | | |
|-----------------|--------------------------|
| ① 긴급 자금지원 요건 완화 | ② 세금감면·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지원 |
| ③ 고용유지 지원 | ④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
| ⑤ 노동·환경 등 규제완화 | ⑥ 기타 () |

* 재택·원격근무, 돌봄휴직 확대시 생산차질로 근로시간 문제 발생

5-6. 귀사는 ‘코로나 19’ 로 인한 향후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한 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가능)

- | | |
|---------------------------------|-----------------------------------|
| ① 언택트(비대면) 회의(화상) 및 비즈니스 컨설팅 확대 | ② 언택트(비대면) 소비시장 활성화(골드체인, 홈코노미 등) |
| ③ 계층별 온라인 학습 활성화 | ④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
| ⑤ 멘탈케어 및 멘탈헬스 활성화(심리, 명상 등) | ⑥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사회변화 가속화 |
| ⑦ 공공 SOC사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추진 | ⑧ 기타 () |

*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으로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설비나 서비스관련 시설류

□ 일학습병행 관련 설문문항

❖ 일학습병행이란?

- 기업이 재직기간 1년('21.6.30까지는 2년) 이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NCS 기반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를 실시한 후 정부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한민국 정부혁신사례 10선에 선정('19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중인 일학습병행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귀사는 일학습병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 5-7-1. (5-7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일학습병행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② 홍보 인쇄물 ③ 지인 소개 ④ 고용센터 ⑤ 인력공단
⑥ 교육훈련기관(대학, 폴리텍 등) ⑦ 기타()

5-8. 귀사는 지금까지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참여 중 ②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③ 참여이력 없음

5-9. 귀사에서는 2021년에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만약 참여의사가 있다면 대략적인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요?

- ① 참여의사 있음(인원 : 명) ② 참여의사 없음

↳ 5-9-1. (5-9의 ①응답자만) 귀사에서 2021년에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 훈련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① 기계 ② 전기·전자 ③ 정보통신 ④ 경영·회계·사무 ⑤ 재료·화학
⑥ 보건·의료 ⑦ 건설 ⑧ 기타(_____)

5-10. **귀사 인근에 귀사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관(고교, 대학 등)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과명()

5-11. 일학습병행에 대한 안내를 위해 귀사의 사업체명, 대표전화번호를 일학습병행팀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이 | ② 비 | 동이

6. 재직자 교육 훈련수요

사업체명: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6-1.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재직 인력 중 훈련 필요성이 높은 직업을 5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직무에 대해, 귀 부서의 종사자 수와 이들 중 향후 1년 동안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직업 일련 번호	직업분류		A1. 기업전체 종사자수	부서별 종사자수 (2020.12.31.기준)	F. 훈련 필요 분야			
	주된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직업분류코드			F1a. NCS 세분류명	F1b. 훈련 필요 인원 (‘%’ 혹은 ‘명’으로 응답)	F3a. 직업기초능력	F3b. 훈련 필요 인원 (‘%’ 혹은 ‘명’으로 응답)
1								
2								
3								
4								
5								
6								

7. 기타 및 애로사항

7-1. 귀사는 외부 위탁교육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1점

그저 그렇다

☐ 2점

☐ 3점

☐ 4점

매우 도움된다

☐ 5점

↳ 7-1-1. (7-1의 1점, 2점 응답자만) 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아서

③ 교육 시설, 장비가 미흡해서

④ 고강사 역량이 미흡해서

⑤ 교육훈련 평가체계가 없어서

⑥ 기타 ()

7-2. 귀부서의 교육훈련 추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현업·기술부서장이 “교육훈련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임	그저 그러함	그런 편임	전적으로 그러함
(1)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3	4	5
(2)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1	2	3	4	5
(3) 교육훈련의 예산이 부족하다	1	2	3	4	5
(4) 업무가 단순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없다	1	2	3	4	5
(5) 적절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1	2	3	4	5
(6)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 인원의 차출이 어렵다	1	2	3	4	5
(7) 위탁교육훈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3	4	5
(8)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1	2	3	4	5
(9)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된다	1	2	3	4	5
(10)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준비가 부족하다	1	2	3	4	5
(11)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위기로 인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다	1	2	3	4	5

7-3. 우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업체의 훈련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각 항목별로 귀 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이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조직의 경쟁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진의 HRD(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①	②	③	④	⑤
(3) 인사, 기술, 생산, 품질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재직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①	②	③	④	⑤
(5) 재직근로자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이수자채용	①	②	③	④	⑤

2021년 충남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2021년 11월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7층

TEL : (041)330-4920~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

※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한 2021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훈련수급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